

한글본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교수신문이 선정한 최고의 번역본이다.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의 일상 언어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체를 사용해 마치 공작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번역했다. 편·장을 나눌 때의 관점은 주자의 『논어집주』가 아닌 정약용의 『논어고금주』를 따랐다. 문장이 간결하고 명료해 원문의 대칭적 구조까지 살려 '절묘한 번역'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글본어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완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 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한글 논어》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헤럴드미디어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출판 디자인 전문기업인 캠퍼스헤럴드는 편집디자인을 도맡았습니다. 캘리그래퍼 강병인님께서 표지 제호를 써주시고, 황지영 님과 서보상 님께서 교열을 맡아주셨습니다. 귀한 재능을 기부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읽기 쉬운 글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신故 이을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선친의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이원태 님과 복간에 힘을 실어주신 오종일 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① www.olje.or.kr ②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③ www.facebook.com/oljeclassics

 올재 후원하러 가기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서 문

필자가 논어 신역 초판을 낸 이래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이 책의 모체인 출판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절판의 운명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다행히 재판의 기회를 갖게 되자 번역문은 그대로 손질할 것이 없지만 지나치게 간략한 주석의 빈틈을 메우기 위하여 전반적인 개고를 시도하였다. 본래 논어는 고문 중에서도 意長語短하여 주해자의 춘탁에 따라서 해석이 구구한 바는 없지 않으나 필자는 주로 다산을 사숙하는 입장에서 거의 다산의 『논어 고금주』를 따랐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여기 번역문은 그대로 두어둠으로써 옛 것을 그대로 살린 것은 사실상 초판 당시 이미 ‘새로운 번역 태도’에 의하여 글자 그대로 현대문화 하였고 그것이 또한 그런 대로 세상의 호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설픔게 손을 대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둬으로써 새로운 독자들의 새로운 비판을 받아보는 것이 더욱 현명한 태도이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논어의 신역주본이 많이 출판됨으로써 독자들의 다양한 구미를 맞추어주고 있음은 斯學의 발전을 위하여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필자의 이 자그마한 노력도 그 사이에서 어딘가 새로운 맛을 풍기는 一味를 더하게 된다면 실로 그지없는 복이 아닐 수 없다. 잘못이 있으면 선뜻 고칠 것을 기약하면서 이 책이 다시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 것을 그지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1974. 7. 20 譯者 識

『한글 논어』 복간에 즈음하여

『한글 논어』는 현암(玄庵) 이을호(李乙浩 1910~1998)선생이 옮긴 것이다.

이 책이 번역된 것은 선생의 남다른 의식과 그 학문적 신념에 있었다.

선생은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의 문인(門人) 최승달의 문하에서 사상의학(四象醫學)을 공부하고 경성 약전을 수료한 후, 고향 영광에 내려와 약국을 개업하고 사회활동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 때 선생은 항일 운동에 투신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었다.

그 당시 선생은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존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자긍심을 잃게 된 것은 일제 뿐 아니라 조선조 5백 년 동안, 중국의 사상적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선생은 이러한 생각에서, 당시까지 전통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었던 공자의 가르침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서로써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유학 또한 중국의 것이 아닌 한국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의 사상적 독립과 자존한 민족의식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확신에서, 유학 경전, 특히 『논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서(四書) 모두를 한글화 하는 데 진력한 것이다.

마침 그 당시에 간행된 『여유당전서』는 선생에게 중국의 사상을, 주자가 아닌 한 국적 사유로써 재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었다.

여기에서 이 책이 우리의 정서로써 옮겨진 『한글 논어』여야 하는 까닭과 주자의 집 주가 아닌 다산의 『논어 고금주』가 이 책을 옮기는데 있어서 그 의식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그 원인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벌써 선생이 서세(逝世)하신지 십 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지만 선생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멀리 생각하셨던 혜안은 오늘도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선생이 옮긴 책을 다시 간행하면서, 평소 선생을 경앙하는 제자들이 선생의 학문과 그 의식을 계승하고자 하여, 여러 해 전에 발족하였던 ‘현암 학술문화 연구소’에서 이를 다시 교정하여 발간하게 되니, 이 책은 날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한 즐거의 서광과 같은 참다운 지혜를 안겨 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에 『한글 논어』의 복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를 펴내 준 출판사 제위께 감사 를 드린다.

임진년을 맞이하면서
선생의 문인(門人) 오종일 삼가 쓰다.

차 례

서문	5
『한글 논어』 복간에 즈음하여	6
1 편 學而 배우는 족족	9
2 편 爲政 정치는 곧은 마음으로	17
3 편 八佾 여덟 줄의 춤	28
4 편 里仁 사람 구실이란 집	39
5 편 公治長 공야장	50
6 편 雍也 웅은 임금자리에	63
7 편 述而 옮기기만 했지	77
8 편 泰伯 태백님	92
9 편 子罕 선생은 좀처럼	102
10 편 鄉黨 사는 마을에서는	115
11 편 先進 옛사람들이 다루던	127
12 편 顏淵 안연	140
13 편 子路 자로	152
14 편 憲問 원현이 묻기를	166
15 편 衛靈公 위나라 영공	184
16 편 季氏 계손씨	201
17 편 陽貨 양화	211
18 편 微子 미자	224
19 편 子張 자장	232
20 편 堯曰 요임금의 말씀	243

1 편

學而
배우는 족족

 [올재 후원하러 가기](#)

1편 | 學而 배우는 족족

선생 “배우는 족족 내 것을 만들면 기쁘지 않을까! 벗들이 먼 데서 찾아와 주면 반갑지 않을까!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부루통하지 않는다면 참된 인간이 아닐까!”

子¹ 曰 學² 而時習³ 之 不亦說³ 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⁴ 不亦君子⁵ 乎⁶

유선생 “효(孝)제(弟)의 도를 아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함부로 굴지 않을 거야! 윗 사람에게 함부로 굴지 않는 사람이 난리를 꾸민 예는 절대로 없다. 참된 인물은 근본 문제를 다루거든. 근본이 서야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효제의 도가 바로 사람 구실 하는 길의 근본일 거야!”

有子⁷ 曰 其爲人也孝悌⁸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⁹ 者 未之有也 君子務

1 子: 선생. 『論語』는 공자 제자들의 기록이므로 여기 나오는 선생이란 칭호는 물론 공자를 가리킨 것이다.

2 學: 배움에는 '지식'과 '사람 구실'의 두 면이 있다. 공자는 후자를 더 강조한다.

3 說: 기쁘고(悅) 유쾌하다(快).

4 慍: 번민. 마음 속 깊이 맺힌 서운함.

5 君子: 인격을 갖춘 자나(有德) 벼슬자리에 있는 자를(有修) 가리킨 말이다. 옛날에는 인격을 갖춘 자가 벼슬자리에 있었으므로(德位一體) 군자란 그 어느 한 쪽을 가리키기도 한다.

6 [명심] '배우는 족족'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이고, '벗들이 먼 데서'는 남과 함께 하는 일이다. 자신을 위한 일과 남과 함께 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 '군자'인 것이다.

7 有子: 성은 有, 이름은 若, 공자의 제자.

8 弟: 悌의 뜻. 공경.

9 作亂: 역적을 도모하여 난리를 일으킴.

本 本立而道¹⁰ 生 孝悌也者 其爲仁¹¹ 之本與¹²

선생 “말을 꾸며대며 얌전한 체하는 짓은 아마 사람다운 사람은 하지 않을 거야!”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¹³

증선생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을 반성한다. 남을 위하여 충실히 일했는가?

벗들에게 신의를 잃은 일은 없는가? 배운 대로 내 것을 만들었는가?”

曾子¹⁴ 曰 吾日三省¹⁵ 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¹⁶

선생 “큰 나라를 지도하자면 일은 깍듯이 믿음직스럽게 하며,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을 아끼며, 그들을 부리되 농한기라야 한다.”

10 道: 사람의 길.

11 仁 : 두 사람의 상호 관계다. 아버지를 효로 섬기면 仁이니 아버지와 아들은 두 사람이요, 형제끼리 우애하면 仁이니 형과 아우는 두 사람이다. 군신 봉우 부부 牧民 간이다 그렇다. 무릇 두 사람 사이에서 그의 사람의 길에 충실하면 그것이 仁인 것이다.

12 [평설] 인간 당위의 길이 仁이니 효제는 그의 근본이 됨을 밝히고 있다. 왜 효제가 인의 근본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공자의 尊周 사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周王朝는 봉건조직의 대가족 제도였으니 왕실 안에서의 弑逆을 막기 위해서는 효의 윤리가 강조되어야 하고 제후끼리의 형제국은 우애함으로써 그들의 作亂의 걱정이 덜리게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주왕조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3 [평설] 이론이 앞서거나[巧言] 제스처어가 지나친[令色] 태도는 성실한 인간의 할 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운 말씨나 인상 좋은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다. 『양화편』 (17)(16)절을 보라.

14 曾子: 성은 曾, 이름은 參, 字는 子輿, 공자의 제자.

15 日三省: 날마다 '세 가지'와 '세 번'의 두 설이 있으나 전자가 정설이다.

16 [평설] 有子는 효·제를 강조한 반면에 曾子는 이름난 효자이면서도 충·신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로써 효·제·충·신이야말로 공자교의 근간이 됨을 알 수 있다.

子曰 道¹⁷千乘之國¹⁸ 敬事而信 節用¹⁹ 而愛人²⁰ 使民以時²¹

선생 “젊은이들은 집에 들면 효도, 밖에서는 우애, 성실한 행동에 믿음직한 말씨, 범범하게 대중을 사랑하되 사람다운 이와는 더욱 가까이해야 한다. 그러고도 틈이 나거들랑 글을 배워야지.”

子曰 弟子 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²² 愛衆而親²³ 仁 行有餘力 則以學文²⁴

자하 “계집을 탐내듯 잘난 이를 존경하며, 부모를 위해서는 뼈가 닳도록 정성을 다하고, 임금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며, 벗들과 사귄 적에 빈말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글은 안 배웠을망정 나는 그를 배운 데가 있다고 할 테야!”

子夏²⁵曰 賢賢易色²⁶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²⁷

17 道: 인도한다(導), 다스린다(治).

18 千乘之國: 전차千대를 낼 수 있는 제후국.

19 節用: 국비지출의 억제.

20 愛人: 애민.

21 [명설] 공자의 절용사상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절용인데 반하여 목자의 절용사상은 사생활에서의 절제다. 그러므로 공자는 禮에 따른 지출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목자는 節葬에 의한 예의 간소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즈음의 의례간소화는 공자보다도 목자에 가까운 예(禮)개념에서 나온 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2 汎: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뜬 모양.

23 親: 깊고 가까운 사이. 汎의 대.

24 [명설] 先行後文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자칫 하다가는 輕文의 잘못을 범할 염려가 있다. 행을 중요시하였다고 해서 결코 문을 버릴 수 없음을 간곡하게 지적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5 子夏: 성은 卜, 이름은 商, 자는 子夏, 공자의 제자.

26 易色: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얼굴빛을 바꾼다. 계집 탐내는 마음을 바꾸라. 현인을 美色과 바꾸라.) 여기서는 호색하는 마음을 好賢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설을 취한다.

27 [명설]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라는 말투는 좀 지나치다는 설이 있지만 好賢하는 태도와 충·효·신의 독실한 행동이 인간 형성요건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조] 다산은 이 장은 「子張」 편 (19)(6)절 ‘박학’장과 함께 읽으라 하였다.

선생 “지도적 인물이 묵직하지 않으면 위엄도 없고, 학문도 부실하다. 충실과 신의를 으뜸 삼고, 나만 못한 이와는 벗하지 말라. 허물은 선뜻 고쳐야 하느니라.”

子曰 君子不重²⁸ 則不威 學則不固 主²⁹ 忠信 無³⁰ 友不如己者 過則勿憚³¹ 改³²

증선생 “상례(喪禮)나 제례(祭禮)를 극진히 모시게 하면 민심은 순후하게 될 거야!”

曾子曰 慎終³³ 追遠³⁴ 民德歸厚矣³⁵

자금이 자궁더러 묻기를 “우리 선생님은 어느 나라를 가시든지 기어코 정치에 참여하시니, 것처럼 바라시기 때문인가? 그렇잖으면 그들이 부탁하기 때문인가?”

자궁 “우리 선생님은 부드럽고 착하고 공손하고 검박하시므로 사양하시되 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의 방법은 남들이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단 말이야!”

子禽³⁶ 問於子貢³⁷ 曰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 抑與之與 子貢曰 夫子溫³⁸

28 重 : 경솔의 대.

29 主 :賓의 대.

30 無 : 毋로서 금지사.

31 憚 : 꺼린대[忌], 어렵게 여긴다[難].

32 [명설] ‘벗하지 마라’는 금지구를 ‘사귀지 마라’는交友의 금지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고지식한 해석이 아닐까. ‘사귀되 본보기로 삼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왜냐하면 벗이란 서로 誼善하는 사이이어야 하거늘 나만 못한 벗이 어떻게 책선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나만 못한 이와는 벗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조] 「子罕,편 9」(25)절을 보라. 거듭 나온다.

33 終 :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

34 遠 : 돌아가신 선조들.

35 [명설] 상례와 제례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부모나 선조에 대한 지극한 정 의 발로에서인 것이다. 그것은 혈연에 맺힌 인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상례나 제례가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인정의 메마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례와 제례의 극진한 집행은 곧 민심의 순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36 子禽 : 성은 陳, 이름은 亢, 자는 子禽, 공자의 제자. 자궁의 제자란 설도 있다.

37 子貢 : 성은 端木, 이름은 賜, 자는 子貢. 공자의 제자.

38 溫 : 온화하다.

良³⁹ 恭⁴⁰ 儉 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⁴¹

선생 “아버지 살아 계실 적엔 그의 뜻 받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의 하신 일을 본받되, 삼 년 동안 아버지의 법도를 뒤집지 않으면 효자라 해도 좋을 거야!”

子曰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⁴² 可謂孝矣⁴³

유선생 “예법을 차리는 데도 부드러운 게 좋지. 옛 어른들의 예법은 그렇기에 아름다웠고, 아래를 통틀어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나 하지 않는 대목이 있었으니, 부드럽게 할 줄만 알았지 예법으로 매듭을 못 맺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거든.”

39 良 : 선량하다.

40 恭 : 교만의 반대.

41 [평설] 종래 온 · 양 · 공 · 검 · 양의 5덕이 공자의 덕으로 굳어졌지만 다산은 온 · 양 · 공 · 검의 四德說을 내세우면서 사양의 덕은 아래 귀에 붙여서 해석한다. 그러므로 온 · 양 · 공 · 검은 공자의 인격[德]의 본질이요, 사양은 형식을 갖춘 태도인 것이다. 따라서 사양의 미덕은 모든 덕의 본질을 감싸주는 형식이 아닐 수 없다.

42 父之道 : 아버지의 정치적 法術.

43 [평설] 아버지가 남기신 정치적 폐단 중에서 그다지 대단치 않은 것은 3년을 기다린 후에 고친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나위가 없지만 그의 폐단이 극심하여 만일 그것이 종묘 사직을 위태롭게 할 만한 것이라도 3년을 기다린 후에야 고쳐야 할 것인가. 그러나 효라는 막중한 유교윤리도 국가의 안위를 따지는 자리에서는 제2차적인 위치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물불의 재앙은 당장 막아놓고 보아야 하듯 천하 인민들에게 큰 화를 미치는 아버의 정책은 3년을 기다릴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이 글에 구애할 것 없이 당장 고쳐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버의 도는 그의 폐단이 경미한 자에 한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조] 「里仁」편 (4)(20)절에 거듭 나온다. 「子張」편 (19)(18)절 ‘孟莊子의 효를 참고하라.

有子曰禮⁴⁴之用⁴⁵和⁴⁶爲貴先王⁴⁷之道斯爲美小大⁴⁸由之有所不行知和而和不以禮節⁴⁹之亦不可行也⁵⁰

유선생 “남과의 약속도 의리엔 맞을 때는 뒤집을 수도 있지. 공손함도 예의에 알맞아야 치욕을 면할 거야. 그러고서 친족의 정을 잃지 않는 이는 존경함직 하지.”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⁵¹也 恭近於禮 遠恥辱⁵²也 因⁵³不失其親⁵⁴ 亦可宗也⁵⁵

선생 “참된 사람일진댄 자기 배 채울 일은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살림도 바라지

44 禮 : 예란 본시 가을의 풍요한 수확을 신에게 바치는 제천의 의식에서 비롯하였으나, 그 후 예는 인간의 문화생활을 규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그의 결과로서 종교적 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관습(五禮 또는 六禮)과 국가의 정치제도(주공의 周禮)까지도 예의 개념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자는 후일 예법이 되고 또한 법제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예에는 그의 본질—근본정신—과 형식—의식—의 두 면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자는 본이요, 후자는末이 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重本輕末의 입장과 重末輕本의 입장이 생기게 된 것이다.

45 用: 예의 운용. 시행.

46 和: 中和의 화로서 혼연일체의 극치. 예에는 형식의 구속이 따르지만 궁극적 목적은 중화에 있다.

47 先王: 尙古의 입장에서 선왕은 성현을 의미한다.

48 大小: 종래 大小事로 풀이했으나 다산은 천자·제후·대부·사 등 지위에 따른 예의 상하를 뜻한다고 하였다.

49 節: 마디로서 형식의 제약을 의미한다.

50 [명설] 예에는 형식의 속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화 황평 등의 본질적 목적을 잊게 되기가 쉽다. 그러기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에는 반드시 樂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51 復: 종래 이행·실행의 뜻으로 새겼으나 何晏의 고주에 의하여 '뒤집는다'〔覆〕는 뜻을 취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신이 의에 맞을 때만 실행한다'가 되고, 후자는 '신이 의에 맞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니 하나는 긍정적 입장이고, 하나는 부정적 입장이로되 궁극적 결과는 같은 것이다. 이는 의가 신에 우선함을 의미한다.

52 遠恥辱: 공손함이 지나치면 過恭이라 하는데 그것은 예가 아니다. 치욕이 수반되기 일췌다. 예에 맞도록 해야 치욕을 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53 因: 해석이 구구하여 의지 친에 심지어 혼인〔姻〕으로까지 비약한 것이 있으나 앞서 나온 신·공의 두 구를 받아서 '그러고도'로 해석한다.

54 親: 혈연의 친족.

55 [명설] 여기서 의와 예는 알맞음의 中 사상과 상통함을 볼 수 있다.

말고, 맑은 일은 날래 처리하면서 말을 조심하며, 사리에 밝은 이를 찾아가서 잘못을 고쳐야 한다. 그러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밖에.”

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⁵⁶ 而正焉 可謂好學也已⁵⁷

자공 “가난 속에서도 아침하지 않고 부유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생 “좋지. 그러나 가난 속에서 즐거워하며, 부자가 되어 예법을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지.” 자공 “옛 시에 ‘끓거니 다듬거니 쪼거니 갈거니’ 하였는데 이를 두고 이른 말인가요?” 선생 “사야. 인제 너하고 시를 이야기하게 되었구나. 한 마디를 알려준즉 다음 것까지 아는구나.”

子貢⁵⁸ 曰 貧而無詔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⁵⁹ 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⁶⁰

선생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남을 모르는 것이 걱정이야.”

子曰 不患人⁶¹ 之不己知 患不知人也⁶²

56 有道 : 도학군자.

57 [명설] 安貧樂道하는 군자의 모습이 옛보인다.

58 子貢 : 賜는 자공의 이름. 제자이기 때문에 공자도 이름을 그대로 부른 것이다.

59 詩 : 이 시는 『詩經』, 『衛風』, 『淇奥』편.

60 [명설] 이 장은 學의 과정과 그의 성과를 시의 이해를 통하여 설명한 자로서 ‘學而時習之’의 구체적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如切如琢’은 학의 첫 단계요 ‘如磋如磨’는 궁극적 단계인 것이다. 공자교가 지닌 시의 경학적 의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시의 교육적 효과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자는 시를 제1차적 교재로 삼았던 것이다. 이 점은 『論語』의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61 人 : 남.己와 대.

62 [참조] 『里仁』편 (4)(14)절과 『憲問』편 (14)(32)절과 『衛靈公』편 (15)(19)절을 보라.

2 편

爲政
정치는 곧은 마음으로

 [올제 후원하러 가기](#)

2편 | 爲政 정치는 곧은 마음으로

선생 “정치는 곧은 마음으로 해야 함은 마치 북극성이 제 자리에서 못 별들을 이 끌고 함께 돌아가는 것 같은 거야!”

子曰 爲政¹以德 譬如北辰² 居其所 而衆星共³之⁴

선생 “옛 시 삼백 편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거야!”

子曰 詩三百⁵ 一言以蔽之 曰思無邪⁶

선생 “법령만을 내세우면서 형벌로 억누르면 백성들은 슬슬 빠질 궁리만 찾는다. 곧은 마음으로 지도하면서 예법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

- 1 政: 정치는 바르게 한다는(正)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옛날 정치란 行政이란 뜻을 강하게 풍긴다. 위정이란 곧 행정인 것이다.
- 2 北辰: 北極(북극성이 아니다)으로서 남극과 더불어 하늘의 중추가 된다. 星點이 없는 것을 辰이라 하기 때문이다.
- 3 共: 같이 한다.
- 4 [명설] 남북극이—공자는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남극은 말하지 않았을 따름이다—하늘의 중추를 이루고 못별이 그와 함께 운행하는 것을 마치 덕을 갖춘 군왕과 함께 못백성들이 따르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몇몇 주해자들은 이를 ‘無爲而治’의 극치에 비하여 ‘居其所’를 ‘不移—不動—無爲’라 하였으니, 이는 노장사상에 의한 해석으로서 유가의 ‘正己正物’의 사상과는 다른 것이다. 居其所는 正己의 자세로서 共之는 그의 교화에 따르는 태도인 것이다. 이 장은 덕치주의의 극치를 형상한 자로서 공자는 순임금이 “恭己正南面而已”〔衛靈公〕라 하였으니, 순임금의 恭己는 결코 無爲의 결과는 아닌 것이다. 恭己는 正己요 修己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지적했던 순임금의 無爲而治는 그의 형상을 말한 것이지 그의 內實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大知大孝인 순임금이〔中庸〕 어찌 淸淨無爲의 노장사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 5 詩三百: 『詩經』의 시가 311편이므로 그 대체적인 수효다.
- 6 思無邪: 『魯頌』, 『鄘篇』의 一句.

[명설] 시 300편은 다 현인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남녀 사모의 시가 끼어 있다고 해서 이를 淫邪한 자의 작품이라 하는 것은—鄭・衛의 시—잘못이다. 『시경』은 공자가 편집한 성경인데 어찌 거기에 음사한 시가 낄 수 있겠는가. 만일 음사라면 ‘思無邪’일 수 없을 것이다.

子曰 道⁷之以政⁸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⁹ 齊¹⁰之以禮 有恥且格¹¹

선생 “나는 열 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때 목표가 섰고, 마흔에 어리둥절하지 않았고 스물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예순에 듣는 대로 흰했고, 일흔이 되어서는 하고픈 대로 해도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子曰 吾十有五¹² 而志¹³ 於學 三十而立¹⁴ 四十而不惑¹⁵ 五十而知天命¹⁶ 六十而耳順¹⁷ 七十而從心¹⁸ 所欲不踰矩¹⁹

맹의자가 효도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번지가 마

7 道: 인도(導)한다. 지도한다.

8 政: 정치제도로서 法制를 의미한다.

9 德: 곧은 마음—곧은 것은 바른[正] 것이다—을 실행에 옮겨 몸에 젖은—얻은—인격이다. 솔선하여 修己하는 것은 덕을 얻는 침경인 것이다.

10 齊: 가지런하다. 악을 막아 선과 나란히 세게 한다.

11 格: 본시 정(正)이라 풀이하지만 여기서는 통(通)한다. 감화한다.

[명설] 덕치 또는 예치가 정치 또는 법치에 우선하는 유교의 사상을 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德人이라면 마치 흐리멍덩한 호인으로 여기는 수가 있다. 그러나 도덕군자는 본시 윤리적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나라에 충성하며 王政을 펴는 군왕이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 흐리멍덩한 호인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덕인이란 곧 孝悌人이라고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2 十有五: 有를 又라 하기도 하지만 뜻없는 조사다. ‘有朋’은 그냥 ‘벗’이요 ‘有明’은 그냥 ‘밝아라’인 것과 같다.

13 志: 마음의 방향.

14 立: 부동의 자세.

15 不惑: 확고한 신념.

16 天命: 上帝의 윤리적 戒命, 順帝之則의 帝則.

17 耳順: 거꾸로는 順耳니, 逆耳의 反, 마음이 화평하면 억지소리도 순하게 받아들인다.

18 從心: 이 心은 道心이다.

19 矩: 正方의 기구. 변하여 법도 규범의 뜻.

[명설] 공자의 자서전이다. 문학 사상 가장 오래고 짧은 작품인 것이다. 공자를 흔히 하늘이 낸 성인이라 하지만 사실인즉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위로워 차근차근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경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완성은 긴 인생의 노정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차로 선생을 모시고 갈 때 선생은 그에게 “맹손이 내게 효도에 대하여 묻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했다.” 한즉 번지 “무슨 뜻입니까?” 선생 “살아 게실 적에도 예의로써 섬기고, 장례도 예법대로 치르고, 제사도 예법대로 모셔야 한다.”

孟懿子²⁰ 問孝 子曰 無違 樊遲²¹ 御²²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²³

맹무백이 효도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부모는 그대의 병만을 걱정하신다.”

孟武伯²⁴ 問孝 子曰 父母 唯其疾之憂²⁵

자유가 효도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요즈음 효도란 봉양만 잘하면 되는 줄 안다. 그것쯤이야 개나 망아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존경하지 않는다면 다를 네가 없지 않나!”

子游²⁶ 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²⁷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²⁸

20 孟懿子：魯나라 大夫 仲孫氏의 후에. 증손은 그의 성, 이름은 何忌요, 懿는 그의 시호. 孟孫으로도 부른다.

21 樊遲：성은 樊, 이름은 須, 자는 子遲. 공자의 제자.

22 御：마차의 말을 어겨함.

23 [명설] 맹손 일가는 본시 예에 어긋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팔일편 참조—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타이른 것이다. 어기지 않는다(不違)는 것은 “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幾諫의 경우는 부모의 뜻을 어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24 孟武伯：맹의자의 아들인데 이름은 廩, 伯은 그의 字. 哀公 14년에 맹의자의 뒤를 이어 노나라 대부가 되었다.

25 [명설] 병 때문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인 효도요, 항상 건강한 모습을 부모에게 보임으로써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은 적극적 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6 子游：성은 言, 이름은 偃, 子游는 그의 字. 吳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

27 養：죄우에서 봉양한다.

28 [명설] 종래의 해석은 부모를 먹여 살리되 사람이 개나 말을 먹여 살리듯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으로는 개나 말도 사람에게 犬馬之役을 다하는 짐승이니, 犬馬之役만으로는 孝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자의 해석으로는 敬心이 없으면 犬馬의 봉양이나 나의 봉양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자하가 효도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얼굴빛이 문제다. 일이 있을 적엔 어린 사람들이 받들어 드리고, 맛 좋은 음식쯤 웃어른께 드리는 것으로, 글씨 그걸 효도라 할 수 있는가?”

子夏問孝 子曰 色難²⁹ 有事弟子³⁰ 服其勞 有酒食先生³¹ 饌 曾是以爲孝乎³²

선생 “내가 회를 데리고 이야기하면 진중일 아무 대꾸도 않는 것이 마치 농팡이도 같아 보이나, 나중에 지내는 것을 보면 뚜렷이 행하고 있다. 회는 농팡이가 아니야!”

子曰 吾與回³³ 言 終日不違如愚 退而省其私³⁴ 亦足以發³⁵ 回也不愚³⁶

선생 “어떤 동기에서인가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고, 어떤 집에서 만족하는가를 살펴보면 어떻게 속일 것인가! 어떻게 속일 것인가!”

29 色難 : 부드러운 얼굴빛이 어렵다.

30 弟子 : 어린 사람.

31 先生 : 尊長.

32 [평설] ‘얼굴빛’이라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란 얼굴빛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얼굴빛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온 몸 전체에서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태도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色 곧 얼굴빛은 넓은 의미로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33 回 : 성은 顏, 이름은 回, 자는 子淵. 그러므로 顏淵이라고도 한다.

34 私 : 公의 反. 선생의 앞[公]을 떠나 친구끼리 있을[私] 때.

35 發 : 꽃이 머문 봉우리에서 피어남을 뜻한다.

36 [평설] 진실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말이 없다. 말이란 안연의 경우처럼 어리석다 할만큼 없으나 그것은 그의 행동 속에서 꽃피듯 피어난다는 것이다.

子曰 視其所以³⁷ 觀其所由³⁸ 察其所安³⁹ 人焉廋哉 人焉廋哉⁴⁰

선생 “옛 것을 더듬고 새 것도 알아야 하니, 스승이란 한 번 되어 봄직도 하지.”

子曰 溫⁴¹ 故⁴² 而知新⁴³ 可以爲師⁴⁴ 矣⁴⁵

선생 “쓸모있는 인간은 외통수는 아니다.”

子曰 君子不器⁴⁶

자공이 쓸모있는 인간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행동이 앞서야 하며, 말이 그 뒤를 따라야 하니라.”

37 以 : 까닭이니 목적 또는 원인이다.

38 由 : 말미암음이니 수단 또는 방법이다.

39 安 : 안정됨이니 결과인 것이다.

[명설] 視는 얼추 훑어보는 것이요, 觀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요, 察은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40 [명설] 어느 사람의 하는 일을 관찰할 때에 그 일의 목적과—공을 위하는 것이냐 사를 위하는 것이냐—그의 방법과—정당한 방법인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인가—그 결과에 대한 태도—최선을 다했거든 결과가 설령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나 않나—를 살펴본다면 그 인물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觀人法으로서 세속적인 看相과는 다른 것이다.

41 溫 : 삶아(燠) 익힌다(熟).

42 故 : 고전 또는 전통적인 고유문화.

43 新 : 현대적 작품 또는 風潮.

44 可以爲師 : 스승이란 되어봄 직하다.

45 [명설] 종래 ‘스승이란 될 수 있다’는 단정적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다산은 ‘되어봄 직하다’는 가능성 목적으로 이를 풀이하였다. 스승이란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46 器 : 그릇. 한 가지 유용성밖에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전문가 · 기술자를 가리킴.

[명설] 군자는 德과 行—윤리적 규범의 실천—을 통하여 사람다운 인격을 도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 · 공 · 상 등의 특수 기술교육에 몰두하게 되면 인격완성의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모름지기 군자로서의 인간교육이 모든 기술교육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 而後從之⁴⁷

선생 “참된 인간은 서로 친밀하되 패를 만들지 않고, 하찮은 인간은 패를 짓되 정
이 통하지 않는다.”

子曰 君子周⁴⁸ 而不比⁴⁹ 小人比而不周⁵⁰

선생 “배우기만 하고 따지지 않으면 속히고, 따지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갈피
를 못 잡는다.”

子曰 學⁵¹ 而不思⁵² 則罔⁵³ 思而不學則殆⁵⁴

선생 “부질없는 공부에 골몰하면 손해만 볼밖에...”

47 [명설] 말과 행동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공자 스스로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문제 중의 하나다.
실로 언행일치야말로 군자로서의 제일 요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언행일치의 경지는 아니라도
언제나 행동이 말에 앞서야 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48 周: 마음의 친밀.

49 比: 세력에 의한 偏黨

50 [명설] 서로 무리를 이루려는 점에서는 군자·소인이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군자는 心交하고 소인은
勢交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것이다.

[참조] 「子路」편 (13)(23)절과 「憲問」편 (14)(24)절을 보라.

51 學: 典籍을 고증한다.

52 思: 연구 비판한다.

53 罔: 속인다.

54 [명설] 漢나라 학자들은 경서에 주를 달 적에 고증에 주력하였으나 비판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讖緯·圖錄이 그 안에 끼게 되었고, 그 후의 송명학자들은 經義를 설명할 적에 窮理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고증에 소홀했거나 제도·名物에 어긋난 점이 많았다(다산). 이는 다 고증과 비판의 그 어느 한
쪽의 결여에서 오는 잘못 때문이었다.

子曰 攻⁵⁵ 乎異端⁵⁶ 斯害⁵⁷ 也已⁵⁸

선생 “유야!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련?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子曰 由⁵⁹ 誨女⁶⁰ 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⁶¹

자장이 벼슬 구하는 길을 물은즉, 선생 “많이 듣되 의심나는 점은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그러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많이 보되 갈피를 못 잡겠거든 아예 해볼 생각을 마라. 그러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빈틈이 적고, 행동에 거침새가 적으면 벼슬이란 저절로 굴러들게 마련이다.”

子張⁶² 學干⁶³ 祿⁶⁴ 子曰 多聞闕疑⁶⁵ 慎言其餘 則寡尤 多見闕殆⁶⁶ 慎行其餘 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⁶⁷

55 攻: 전공한다.

56 異端: 종래 경서 이외의 잡술서 또는 양주·묵적 등 제자백가의 서라 했으나 따로 여러 가지 기술서라는 설(다산)이 있다.

57 害: 군자학에 대한 방해.

58 [명설] 전공에 치우치면 인간 소양교육은 소홀히 하게 마련이다.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전공교육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59 由: 성은 仲, 이름은 由, 자는 子路. 공자의 제자. 아홉 살 손아래.

60 女: 너(汝).

61 [명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기는 쉽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자로는 성질이 강직하여 모르는 것도 우겨대는 버릇이 있어서 이 점을 더욱 강조한 것이 아닐는지!

62 子張: 성은 顓孫, 이름은 師, 자는 子張. 공자의 제자.

63 干: 구한다.

64 祿: 봉급. '벼슬자리'라는 뜻으로도 통한다.

65 闕疑: 의심나는 말은 하지 않는다.

66 闕殆: 불안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67 [명설] 말은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행동은 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언행일치야말로 벼슬아치가 되는 기본요건이기도 한 것이다.

애공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게 됩니까?” 선생은 대답하기를 “곧은 사람을 골라 굽은 자 위에 두면 백성들이 따르고, 굽은 자를 골라 곧은 사람 위에 두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哀公⁶⁸ 問曰 何爲則民服⁶⁹ 孔子對曰 舉⁷⁰ 直⁷¹ 錯⁷² 諸枉⁷³ 則民服 舉枉錯諸直則民不服⁷⁴

계강자가 묻기를 “백성들이 존경하며 충성을 다하여 나라 일을 받들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 “묵직하게 보이면 존경할 것이요, 부드럽게 대해 주면 충성을 다할 것이요, 좋은 분을 데려다가 잘잘못을 가르치도록 하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季康子⁷⁵ 問 使民敬忠以勸⁷⁶ 如之何 子曰 臨之以莊⁷⁷ 則敬 孝慈則忠 舉善⁷⁸ 而教不能則勸⁷⁹

어느 사람이 공 선생더러 말하기를 “선생은 왜 정계에 나서지 않습니까?” 선생

68 哀公: 노나라 임금. 이름은 蔣. 定公의 아들인데 夫人 定姒가 낳았다.

69 服: 충심으로 복종한다.

70 舉: 높은 자리에 채용한다.

71 直: 정직한 사람.

72 錯: 두어 둔다.

73 枉: 현인이 아닌 자.

74 [참조] 顏淵 問 (12)(22)절을 보라.

75 季康子: 노나라 大夫 季孫氏의 第七代. 이름은 肥. 康은 시호, 子는 존칭. 그의 아버지 季桓子의 뒤를 이어 대부가 되었다.

76 勸: 스스로 힘쓰도록 권장한다.

77 莊: 장엄하다. 실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

78 善: 재능 있는 현인.

79 [명심] 政令이 실패하지 않아야 위신을 갖추게 될 것이요, 위신을 갖추어야 존경할 것이다. 특히 군왕은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자애로와야 백성들은 그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慈德을 내세운 점에 주목하라.

“옛 글에 ‘효도로다! 효도로 형제끼리 우애하며 집안일을 보살핀다’하였으니, 이것도 다스리는 것인데, 왜 꼭 정계에 나서야만 되나?”

或謂孔子曰 子奚⁸⁰ 不爲政⁸¹ 子曰 書云⁸² 孝乎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⁸³ 是亦爲政 奚其爲爲政⁸⁴

선생 “사람이 실없으면 그래도 좋을까 몰라! 소 수레나 말 수레나 명에 없이 그래도 끌고 갈 수 있을까?”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⁸⁵ 小車無軌⁸⁶ 其何以行之哉⁸⁷

자장이 묻기를 “여남은 세대 뒷일을 알 수 있을까요?” 선생 “은나라는 하나라 제도를 바탕 삼았으니, 거기서 거기 감 직하고, 주나라는 은나라 제도를 바탕 삼았으니, 거기서 거기 감 직하다. 주나라의 뒤를 잇는 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비록 백 세대 뒷일일망정 알 수 있고 말고.”

80 奚 : 어찌하여.

81 爲政 : 한 나라의 국정을 전담하는 일.

82 書云 : 『書經』, 『周書』, 『君陳』편.

83 有政 : 분장된 벼슬아치들의 사무.

84 [명설] 흔히 정치란 정당 또는 그의 방계 단체에 가입하여 이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을 가리킨 것으로 알기가 쉽다. 물론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에도 의의가 있겠지만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가짐으로써 국가에 간접적인 공헌을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만한 것이다. 공자가 효제의 도를 지킴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정치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은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적 사고와도 상통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85 輓 : 명에 예.

86 軌 : 명에 월.

87 [명설] 수레와 소—혹은 말—는 본시 완전히 다른 것들이다. 이것들이 한데 묶여서 수레를 끌게 하자면 명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과도 말하자면 아주 딴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데 어울려 굳게 땀어진 사이가 되자면 믿이 명에의 구실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명에인 것이다.

子張問 十世⁸⁸ 可知也 子曰 殷因於夏禮⁸⁹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可知也⁹⁰

선생 “제 조상도 아닌데 제사를 모신다면 아침하는 거다. 정의를 보고도 주춤거리는 것은 용기가 없는 탓이야.”

子曰 非其鬼⁹¹ 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⁹²

88 世 : 易姓 혁명을一世라기도 하고 30년을一世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전자인 주자설을 취한다.

89 禮 : 국가의 典章法度.

90 [평설] 夏(B.C. 2070~B.C. 1600) · 殷(B.C. 1760~B.C. 1122) · 周(B.C. 1046~B.C. 221) 삼대의 예는 앞서 왕조의 예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런 중에도 마지막 周禮는 완전무결하기 때문에 백세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에서 백세 후에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니, 이는 주례의 완벽함을 칭찬한 말이다. 만일 주례도 불완전하다면 어찌 백세를 기다리랴. 그 다음 세대로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공자 尊周사상의 근거가 되는 자의 하나인 것이다. 공자의 “周監於二代 郁郁文哉 吾從周”(『八佾』)는 이 구절을 직선적으로 설명한 구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마치 백세 후를 뚫어지게 알 수 있다는 前知者의 말처럼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다.

91 鬼 : 귀신. 天神 · 地示 · 人鬼라 하여 그 이름은 다르지만 “귀신”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다. 그러므로 鬼란 人鬼로서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郊社禮의 대상인 天神인 경우도 있다.

92 [평설] 古註에서는 鬼를 조상으로 보았는데 주자는 “마땅히 제사지내야 할 귀신”이라 하여 鬼를 祖上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어느거나 제가 담당하여 지낼 귀신이 아니라면 다 非其鬼인 것이다. 어찌 조상뿐이라. 참된 용기는 의를 위하여만 존재하는 것이다. 의가 갖들이지 않은 용기는 오히려 亂動의 진원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의와 불의가 서로 섞일 때는 오직 용기만이 의를 위한 진실한 힘이 되어질 것이다.

3 편

八佾
여덟 줄의 춤

 [올해 후원하러 가기](#)

3편 | 八佾 여덟 줄의 춤

공 선생이 계씨를 평하여 말하기를 “여덟 줄의 춤을 제 집에서 추게 하니 그런 짓을 하는 솜씨면 무슨 짓은 못할까!”

孔子謂季氏¹ 八佾² 舞於庭³ 是可忍⁴ 也 孰⁵ 不可忍也⁶

세 대부의 집안에서 천자의 노래로 제사를 마치니, 선생 “줄줄이 늘어선 제후들, 천자의 묵묵한 모습’이 세 대부 집안의 어느 구석에 있는가 말아야.”

三家⁷ 者 以雍徹⁸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⁹

선생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예법은 무엇하며,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음악은 무엇하노!”

1 季氏 : 季孫氏, 노나라 대부, 公子季友의 후예.

2 八佾 : 八人 八列인 64인의 춤으로 천자의 廟堂에서만 출 수 있는 古典舞다. 제후는 六人 八列의 48인이요, 대부는 四人 八列의 32인이요, 사는 二人 八列의 16인이다(다산설). 종래의 설은 64인(천자), 36인(제후), 16인(대부), 4인(사)이다.

3 庭 : 조상을 모신 廟堂.

4 可忍 : 차마 할 수 있다.

5 孰 : 누구 속.

6 [명설] 季氏는 노나라 三大夫—三家—중의 하나인데 다음 글에서 지적된 雍徹의 非禮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홀로 八佾의 僭禮行爲를 범했기 때문에 공자의 나무람은 이처럼 준결했던 것이다.

7 三家 : 魯桓公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仲慶 · 叔牙 · 季友가 곧 그들이다. 그의 후손에 孟孫 · 叔孫 · 季孫이 있는데 이들을 三家라 한다.

8 雍徹 : 「周頌·「臣工篇」雍詩로서 마치는 것. 천자의 廟祭가 끝날 때의 노래. 周武王이 父王인 문왕의 제사 때 불렀던 것인데 외람된 세 대부가 제사 때 이 노래를 부르며 撤床한 것이다.

9 [명설] 이 장은 三家가 각각 갖고 있는 廟堂에서 雍徹의 비례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공자는 이를 꾸짖은 것이다.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¹⁰ 人而不仁 如樂何¹¹

임방이 예법의 근본정신을 물은즉, 선생 “옳지, 좋은 질문이다. 예식은 사치스런 것보다 검소한 것이 좋고, 장례식은 번지르르한 것보다 슬픔이 넘쳐야 한다.”

林放¹² 問禮之本 子曰 大哉問 禮 與其奢也 寧儉¹³ 喪 與其易¹⁴ 也 寧戚¹⁵

선생 “되놈의 짓으로 임금 노릇하는 것은 올바른 나라에서 거저 지내는 것만 못하다.”

子曰 夷狄¹⁶ 之有君 不如諸夏¹⁷ 之亡也¹⁸

계손씨가 태산에서 여제(旅祭)를 지내니, 선생이 염유더러 “너는 말리지 못했느냐?” 대답하기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선생 “기막힐 일이다. 글썄 태산이 임방만 못할까!”

10 如~何 : 의문사의 강조형.

11 [명설] 仁이 근본이니 예악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지적한 계씨나 三家는 이미 不仁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들의 八佾과 雍은 예악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앞 두 장의 結局이다.

12 林放 : 노나라 사람. 공자의 제자라기도 하고 比干의 후예라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예에 관심이 있던 인물인 듯.

13 與~寧 : ~보다는 차라리.

14 易 : 형식을 잘 갖추.

15 [명설] 여기서는 三家의 僭禮는 그것이 예에 지나친 점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나치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요, 형식에 치우친 점임을 의미한다. 林放도 魯人이기 때문에 계씨나 三家의 잘못이 어디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6 夷狄 : 未開民族.

17 諸夏 : 中華.

18 [명설] 종래 “미개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보다는 개화된 나라에 임금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達山은 譯文과 같은 뜻으로 풀이하였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되놈의 법을 쓰면서 지위를 유지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올바른 법을 쓰다가 지위를 잃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義에 따르는 군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다.

季氏旅¹⁹ 於泰山²⁰ 子謂冉有²¹ 曰 女弗能救與 對曰 不能 子曰 嗚呼 曾謂泰山不如林放乎

선생 “성실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다툼이 있다면 활쏘기 정도지. 서로 절하면 서 당상에 오르고, 지면 술을 마시니, 성실한 사람들의 싸움이지!”

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²² 其爭也 君子²³

자하가 묻기를 “방긋 웃는 입매, 반짝이는 눈동자, 흰 바탕에 눈부신 칠이여!”란 무슨 뜻입니까?” 선생 “그림은 흰 바탕 위에 그리는 것이다.” “예도 나중 일인가요?” 선생 “상이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이제 너하고 시를 이야기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子夏問曰 巧笑倩²⁴ 兮 美目盼²⁵ 兮 素²⁶ 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²⁷ 也 始可與言詩²⁸ 已矣²⁹

19 旅：祭名, 산천에 지내는 告由祭. 제후가 지내는 예법인데 대부인 季孫이 이를 지낸 것은 불법이다. 林放도 知禮人이지만 泰山은 산일망정 늘 禮를 받던 처지이므로 그것이 非禮임을 林放보다 더 잘 알 것이다.

20 泰山：노나라에 있는 山. 五嶽 가운데 하나.

21 冉有：성은 冉, 이름은 求, 자는 子有. 공자의 제자. 때에 季氏 家臣.

22 下而飲：下는 不勝의 뜻. 射禮에 不勝者 飲酒가 下而飲이다. (다산) 종래 下堂而飲이라 하였다.

23 [명설] 射는 御와 함께 六藝 중의 體育에 해당된다. 射禮는 곧 스포츠맨십을 연상하게 한다. 단 승자가 不勝者에게 술을 먹이되 그것이 결코 벌주가 아님이 특이하다.

24 倩：입 예쁠 천.

25 盼：눈 예쁠 반.

26 素：바탕 또는 흰 소

27 商：子夏의 이름.

28 詩：『衛風』 '碩人'篇.

29 [명설] 禮는 忠信을 바탕으로 삼고 형식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學而』편 (1)(15)절을 보라.

[명설] 繪事後素에는 異說이 많다. 鄭玄의 古註는 粉素를 繪事의 뒤로한다고 하였다. 先靑赤而後粉白은 회화에 있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古註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선생 “하나라 법도는 나도 알지만 기나라 이력은 증거 댈 길이 없고, 은나라 법도는 나도 알지만 송나라 이력은 증거 댈 길이 없으니, 문헌이 부족한 탓이다. 있기만 하다면이야 나도 증거 댈 수 있으련만!

子曰 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³⁰

선생 “체제에 강신까지 끝냈으니 지난 일은 더 보고 싶지도 않다.”

子曰 禘³¹ 自既灌³² 而往者 吾不欲觀之矣³³

어느 사람이 체제의 뜻을 물은즉, 선생 “모릅니다. 그 뜻을 안다면이야 천하를 다루되 여기를 보는 것 같을 거야!”하고 자기 손바닥을 가리키시었다.

或問禘之說³⁴ 子曰 不知也 知其說者之於天下³⁵ 也 其如示諸斯乎 指其掌³⁶

계신 듯이 제사를 모시고, 다른 신도 계신 듯이 제사를 모신다. 선생 “자신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모시는 것 같다.”

30 杞는 夏王朝의 후예들이 제사를 모시는 小國. 宋은 殷王朝의 후예. 文은 典籍이요 獻은 賢人이다.

[참조] 『爲政』편 (2)(23)절을 보라.

[명설] 공자는 夏殷禮 간에 禮에 대하여 널리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이다. 여기서의 禮는 문물제도를 의미한다. 고증을 존중하는 공자의 학자적 태도도 아울러 엿볼 수 있다.

31 禘: 본시 王者의 大祭인데 노나라가 이를 僭用하였다.

32 灌: 鬱鬯酒를 땅에 뿌리며 降神하는 예식.

33 [명설] 禘祭란 帝祭로서 宗廟時祭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春禘秋嘗(『禮記』·祭義)의 이름이 있다.

34 禘之說: 禘祭에 대한 학설.

35 於天下: 平天下함에 있어서.

36 指其掌: 자기의 손바닥을 가리키다.

[명설] 禘祭의 의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쯤이야 손바닥 보듯 쉽다는 것이다. 禘祭의 의의는 선조의 덕을 사모함에 있기 때문이다.

祭如在 祭神如神在 子曰 吾不與³⁷ 祭 如不祭³⁸

왕손가가 묻기를 “방 구석 조상님보다 부엌 조상님이 낫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선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빌 곳조차 없습니다.”

王孫賈³⁹ 問曰 與其媚於奧⁴⁰ 寧媚於竈 何謂也 子曰 不然 獲罪於天⁴¹ 無所禱也⁴²

선생 “주나라는 하 · 은 두 나라를 본떠 찬란한 문화를 이룩했으니, 나는 주의 문
화를 따르겠다.”

子曰 周監⁴³ 於二代⁴⁴ 郁郁⁴⁵ 乎文哉 吾從周⁴⁶

선생이 대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물은즉, 어느 사람이 “누가 추 땅 시골뜨기더
러 예법을 안다는 거야! 대묘에 들어가선 일일이 묻지 않나!” 선생은 이 말을 듣고
“그것이 예의다.”

37 與 : 제사를 돕는다.

38 [명설] 神은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하신 듯하다는 것이니 神은 어디까지나 可能的 존재다. 可能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神은 절대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직접 與祭해야 한다는 것이다.

39 王孫賈 : 衛나라 대부. 때에 세도를 부리고 있었으므로 공자를 비웃는 태도다.

40 奧 : 서남쪽 모퉁이. 주부가 있는 곳이다.

41 天 : 상제천.

42 [명설] 상제천—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의지—자세—를 엿볼 수 있다. 상제천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종교적이다. 神主—奧—보다도 권력—竈—에 아부하라는 왕손가의 오만을 꾸짖는 공자의 자세는 상제를 두려워하며 천명에 순응하는 종교인의 자세 바로 그것인 것이다.

43 監 : 鑑. 뚫어지게 잘 잘못을 잘 안다.

44 二代 : 夏와 殷.

45 郁 : 禮文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

46 [명설] 공자의 존주사상의 연원을 밝히고 있다. 주문화는 하 · 은문화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자이니, 주공이 이룩한 봉건제도 하의 長子相續 · 同姓不婚 · 井田法 등은 길게 공자의 존주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효제사상도 주나라의 봉건제도의 유지를 위한 자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子入大廟⁴⁷ 每事問 或曰 孰謂鄒⁴⁸ 人之子知禮乎 入大廟 每事問 子聞之曰 是禮也⁴⁹

선생 “활쏘기 때는 과녁을 주장삼는 것이 아니다. 실력에 차등이 있기 때문이니 옛날에는 그랬던 것이다.”

子曰 射不主皮⁵⁰ 爲⁵¹ 力⁵² 不同科⁵³ 古之道也⁵⁴

자공이 초하룻날의 염소 희생을 그만두려고 한즉, 선생 “사야, 너는 염소가 아까우나? 나는 보다 더 예법을 아낀다.”

子貢欲去告朔⁵⁵ 之餼羊⁵⁶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⁵⁷

선생 “예의를 갖추어 주군을 섬기는데 남들은 아침한다는구나.”

47 大廟：周公廟.

48 鄒：공자의父 叔梁紇이 버슬 살던 노나라 마을 이름. ‘추 땅 시골뜨기’란 공자를 알본 말.

49 [명설] 종래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하였으나 다산은 “周公廟 —太廟—에서 천자의 禮를 쓰고 있었기에 제후의 禮를 써야 할 줄로 알고 있었던 공자로서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참조] 『鄉黨』편 (10)(27)절을 보라.

50 皮：鵠, 곧 과녁.

51 爲：이유, 때문.

52 力：실력, 육체적 힘이 아니다.

53 不同科：각각 한량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같지 않다.

54 古之道也：옛날 활 쏘는 방법

[명설] 射는 본래 的中을 주로 삼지만 禮射 때만은 과녁을 주로 삼지 않는다.

55 告朔：天子가 나누어 준 告朔을 祖考에게 고하여 百官에게 나누어주는 禮다(다산).

56 餼羊：實에게 바치는 羊이다.

57 [명설] 王實이 오지 않으므로 王實에 주던 羊이 필요 없이 되었다. 그러므로 子貢은 이를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공자는 餼羊마저 없애버리면 告朔의 禮가 영원히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그대로 두게 한 것이다.

子曰 事⁵⁸ 君盡禮 人以爲諂⁵⁹ 也⁶⁰

정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자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은 대답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릴 적엔 예의를 갖추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定公⁶¹ 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⁶² 臣事君以忠⁶³

선생 “징경이의 노래”는 즐겁되 음란하지 않고, 안타까우나 애태우지 않는다.”
子曰 關雎⁶⁴ 樂而不淫⁶⁵ 哀而不傷⁶⁶

애공이 재아에게 사직단에 대하여 물은 즉, 재아는 대답하기를 “하나라 왕은 소
나무, 은나라 사람들은 측백나무,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백성들
이 ‘밤송이’보듯 무서워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이 이 말을 듣고 “다 된 일
이라 말할 것 없고, 해 버렸으니 이래라 저래라도 앓겠거니와 지난 일이니 책망할
것조차도 없다.”

58 事: 섬길 사.

59 諂: 아첨할 첩.

60 [명설] 당시에는 군왕에게 함부로 失禮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공자의 극진한 禮를 아침으로
여겼으니 이로써 당시의 풍조를 짐작할 수 있다.

61 定公: 노나라 君主. 襄公의 아들, 昭公의 아우, 哀公의 아버지인데 昭公의 뒤를 이어 在位 15년.

62 禮: 제도적인 地位와 俸祿.

63 忠: 진심으로 바치는 忠誠.

64 關雎: 『詩經』, 『周南』, 『國風』의 首章. “물가에 징경이는 암수 서로 우니나다. 아리따운 아가씨는 임의 좋은
짝이로다…….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65 淫: 음란할 음.

66 [명설] 인간 감정의 中和를 설명하고 있다. 樂과 哀의 過情은 不淫 不傷으로 이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哀公問社⁶⁷ 於宰我⁶⁸ 宰我對曰 夏后⁶⁹ 氏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曰 使民戰栗⁷⁰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既往不咎⁷¹

선생 “관중이란 인물은 그 그릇이 작단 말이야!” 어느 사람이 “관중은 검박하였던가요?” 선생 “관씨는 마누라가 셋이요, 신하도 줄줄이 갖췄으니 어찌 검박하다 하겠소!” “그렇다면 관중은 예의는 알던 분인가요?” 선생 “군왕이라야 안팎 을을 갖는데, 관씨도 안팎 을을 가졌고, 군왕이라야 그네들끼리의 술잔대를 갖는 법인데, 관씨도 그런 술잔대를 가졌으니, 관씨더러 예의를 안다고 하면 예 모를 사람이 어디 있담!”

子曰 管仲⁷² 之器⁷³ 小哉 或曰 管仲儉乎 曰 管氏有三歸⁷⁴ 官事不攝⁷⁵ 焉得儉 然則管仲知禮乎 曰 邦君樹塞門⁷⁶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有反玷⁷⁷ 管氏亦有反玷 管氏而知禮 孰不知禮⁷⁸

67 社 : 土地神. 따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68 宰我 : 성은宰, 이름은予, 자는子我. 공자의 제자.

69 夏后 : 夏王.

70 戰慄 : 두려워하여 몸이 떨린다.

71 [명설]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밤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穿鑿 附會다. 무릇 立社할 때에는 그 토지에 알맞는 나무를 심었을 따름이다.

72 管仲 : 氏는 管, 이름은 夷吾, 자는 仲, 시호는 敬. 鮑叔牙와는 水魚之交가 있었고 齊桓公을 도와 제후를 통일하였다.

73 器 : 人物의 包容力.

74 三歸 : 三姓女를娶함. 세 부인을 거느린 셈이다.

75 攝 : 兼任.

76 樹塞門 : 내외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중간에 세운 문.

77 反玷 : 反辭하는 도구로서 두 기둥 사이에 흙으로 쌓은臺.

78 [명설] 공자는 管仲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한 구절이 『論語』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桓公과 같은 賢主를 만나 천하에 군림하였는데도 桓公으로 하여금 왕도를 천하에 퍼게 하지 못한 아쉬움의 토로인지도 모른다.

[참조] 『憲問』편(14)(17)절과 (14)(18)절을 보라.

선생이 노나라 악대장에게 말하기를 “음악이란 알 법도 한 거야. 처음 가락은 가지런히 뽑고, 가락이 추러지면서 하나로 뚜렷한 것이 줄줄이 잇달아 한 음절을 만드니……”

子語魯大師⁷⁹ 樂曰 樂 其可知也 始作 翕如⁸⁰ 也 從之⁸¹ 純如⁸² 也 皦如⁸³ 也 繹⁸⁴如也 以成⁸⁵

의고를 베풀아치가 만나 보고 싶어하면서 “훌륭한 분들이 이 곳에 올 적마다 나는 만나 뵈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모시고 있던 제자가 만나 뵈도록 하였다.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베풀자리를 잃고 있는 처지일망정 걱정할 것 없습니다. 천하가 갈 길 몰라 허덕이는지 이미 오래라, 하늘이 우리 선생님이로 하여금 지도자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儀⁸⁶ 封人⁸⁷ 請見⁸⁸ 曰 君子之至於斯也 吾未嘗不得見也 從者見之 出曰 二三子⁸⁹ 何患於喪⁹⁰ 乎 天下之無道也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⁹¹

79 大師：樂師長.

80 翕如：여러 소리가 함께 나오는 모양. 如：형용사로서의 語尾.

81 從之：진행과정.

82 純如：調和 整理하여 하나로 되어짐.

83 皦如：명백한 음절.

84 繹：소리가 실처럼 이어진다.

85 [명설] 이는 공자의 음악지식을 단적으로 소개한 글인데 이는 아마도 作曲原理이기도 할 것이다. 공자가 항상 禮와 더불어 樂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이처럼 음악에 깊은 소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86 儀：衛나라 국경 지방의 한 마을.

87 封人：국경지대를 맡은 베풀아치.

88 見：會見, 만남.

89 二三子：그대들.

90 喪：失.

91 木鐸：敎令을 내릴 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흔드는 방울. 武事에는 혀가 쇠로 된 金鐸을 사용했고 文事에는 혀가 나무로 된 木鐸을 썼던 것이다.

[명설] 비록 한 번 만났더라도 공자가 장차 천하의 목탁이 되실 것을 예견한 儀封人의 見識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선생은韶의 곡을 평하여 “실로 아름답고 또 실로 좋다.” 武의 곡을 평하여 “실로 아름다우나 좋다고 할 수는 없다.”

子謂韶⁹²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⁹³ 盡美矣 未盡善也⁹⁴

선생 “윗사람이 조볼조볼하고 예의 차림도 형식적이며, 상사를 당하여도 슬퍼할 줄 모르는 위인은 난들 어떻게 보아야 할는지!”

子曰 居上⁹⁵ 不寬 爲禮⁹⁶ 不敬 臨喪⁹⁷ 不哀 吾何以觀之哉⁹⁸

92 韶: 舜帝의 樂으로 평화적인 가곡.

93 武: 武王의 음악인데 전투적인 음악.

94 [명설] 종래 舜은 禪讓하였으므로 그의 악은 盡善盡美하지만 武王은 征伐했기 때문에 殺氣가 있어서 未盡善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그의 善美가 人物—舜과 武王—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舜樂은 九成이니 完美 完善하러니와 武樂은 六成이라 未盡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95 居上: 君牧의 자리에 있다.

96 爲禮: 다른 사람과 함께 吉禮의 禮를 행한다.

97 臨喪: 弔哭

98 [명설] 이는 지위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준 말이다. 居上者는 자칫하면 寬容을 잃거나 行禮 때 內實을 거두지[敬] 못하거나 弔喪 때도 哀情을 잃는 따위의 행위가 있기 쉽기 때문에 居上者를 위하여 특히 寬·敬·哀의 德을 강조했던 것이다.

4 편

里仁
사람 구실이란 집



을재 후원하러 가기

4편 | 里仁 사람 구실이란 집

선생 “사람 구실이란 집에서 사는 게 아름다운 거야. 사람 구실이란 집을 골라 잠을 잘 줄 모르면 뉘라서 지혜롭다 하겠나!”

子曰 里仁¹ 爲美 擇不處仁 焉² 得知³

선생 “사람답지 못한 이는 가난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즐거움도 오래도록 간직하지 못한다. 사람다운 이는 사람다운 구실에 만족하고, 슬기찬 이는 사람의 값을 잘 다룬다.”

子曰 不仁者不可以久處約⁴ 不可以長處樂⁵ 仁者安仁 知者利仁⁶

선생 “사람다운 이만이 남을 좋아하기도 하려니와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子曰 惟仁者 能好人 能惡⁷ 人⁸

1 里仁 : 里는 산다는 動詞.

2 焉 : 어찌 언.

3 [명설] 맹자는 “仁이란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요, 義란 사람들이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편안한 집을 텅 비워놓고 살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으니 슬픈 일이어!”(“離婁 上”)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仁은 집이 분명하고 里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산다는 동사로 써야 할 것이다. 곧 사람과 사람 사이[仁]에서 사람 구실하는 태두리 안에서 인간은 살아야 하므로 인간은 仁이란 주택의 울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윤리적 동물인가 보다. 종래는 “동리가 仁해야”하는 식의 해석이기로 좀 긴 설명을 붙인 것이다.

4 約 : 묶는다. 곤궁하면 마치 묶인 것 같다.

5 樂 : 부유한 생활의 즐거움.

6 [명설] 가난을 오래 끌면 함부로 아무 짓이나 하기가 쉽고 부자가 되면 함락에 빠지기가 쉽다. 모름지기 가난이나 재물 때문에 사람다운 본연의 자세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항상 사람다운 생활에 만족하고[安仁] 그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利仁]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7 惡 : 미워할 오.

8 [명설] 선을 좋아하되 好色을 좋아하듯 하며 악을 미워하되 惡臭를 싫어하듯 한 연후에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선행을 깊이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악행도 그만큼 깊이 미워하는 것이다.

선생 “진실로 사람 구실에 뜻을 두면 나쁜 짓은 못하느니라.”

子曰 苟志於仁⁹ 矣 無惡也¹⁰

선생 “재물이나 지위는 사람마다 탐내는 것이지만 억지로 차지할 것까지는 없다. 가난과 천한 직업은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절로 굴러 떨어진 것이면 피해서 는 안 된다. 사람 구실을 떠나서 인물 말을 들을 수 있나! 참된 인간은 밥 먹는 동안에도 사람다운 것이니, 급할 때도 그렇고 거꾸러질 때도 그래야 한다.”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以欲也 不以其道得¹¹ 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以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君子去¹² 仁¹³ 惡乎成名 君子無終食¹⁴ 之間違¹⁵ 仁 造次¹⁶ 必於是 顛沛¹⁷ 必於是¹⁸

“나는 아직 사람 구실을 즐기는 이나, 못된 짓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사람 구실을 즐기는 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못된 짓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가 사람 구실을 함에 있어서 못된 버릇이 제 몸에 젖지 않도록 한다. 단 하루일망정 애써 사람 노릇 하려고 하는 이가 있는가 몰라! 나는 아직 힘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9 仁: 효·제·충·신의 실천 행위.

10 [명설] 사람 구실(仁)을 하려는 사람이 어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1 得: 일이 이룩된다는 뜻

12 去: 버린다.

13 仁: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들의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 사람 구실을 다하는 것.

14 終食: 한 그릇의 밥을 먹는 동안.

15 違: 멀리 떠난다.

16 造次: 갑작스럽게 만든 것. 그러한 일.

17 顛沛: 위급한 일.

18 [명설] 부귀는 사람마다 탐내는 일이니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빈천은 당연한 이유 없이 얻어지는 경우라도 이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부귀와 빈천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 것이다. 부귀는 구차스럽게 탐내서는 안 될 것이요, 빈천의 경우에도 安貧樂道할 수 있어야 함을 가리킨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길인 까닭이다.

사람은 보지 못했다. 아마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

子曰 我未見好仁者 惡不仁者 好仁者 無以尙¹⁹ 之 惡不仁者 其爲仁矣 不使不仁者 加²⁰ 乎其身 有能一日用²¹ 其力於仁矣乎 我未見力不足者 蓋有之矣²² 我未之見也²³

선생 “사람의 허물은 저 되기에 따라 다르다. 그 허물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지.”

子曰 人之過²⁴ 也 各於其黨²⁵ 觀過 斯知仁矣²⁶

선생 “진리를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子曰 朝聞²⁷ 道²⁸ 夕²⁹ 死可矣³⁰

선생 “진리를 탐구한다 하면서 음식과 옷맵시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위인과는 탐

19 尙: 上. 加.

20 加: 施.

21 有能~用: 能用的 강조형.

22 蓋有之矣: 아마 있을지도 모르지만.

23 [평설] 仁을 좋아하는 것이 으뜸이요, 不仁을 미워하는 것은 그 다음이 되거니와 어쨌든 결과로서 얻어지는 仁을 힘이 모자라서 못 얻어진다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언제나 스스로의 노력이 모자라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참조] 『용야편』(6)(11)절을 보라.

24 過: 허물.

25 黨: 무리. 끼리끼리의 치우친 특색.

26 [평설] 각기 그가 지닌 특색에 따라 허물도 가지가지다. 智者는 그의 슬기[知] 때문에 허물이 생기고 勇者는 그의 용기 때문에 허물이 생기는 것이니, 그의 허물을 통하여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7 聞: 깨달음. 覺과 같다.

28 道: 天命. 그러므로 道를 듣는다 하였다.

29 朝~夕: 짧은 사이를 뜻한다.

30 [평설] 聞道는 곧 聞天命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知天命과도 동의어가 아닐 수 없다.

탁스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子曰 士³¹ 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³² 也³³

선생 “참된 인간은 세상일을 처리할 때, 꼭 그래야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다. 옳은 길을 택할 따름이다.”

子曰 君子之於天下³⁴ 也 無適³⁵ 也 無莫也 義之與比³⁶

선생 “벼슬아치는 인격을 생각하고, 들녘 친구는 땅마지기나 생각한다. 벼슬아치는 법을 두려워하고, 들녘 친구는 남의 동정을 기다린다.”

31 士 : 선비. 士는 벼슬사는[仕] 자를 의미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설령 벼슬은 살지 않더라도 선비[士]라 이른다.

32 議 : 道를 의논하는 것이다.

33 [명설] 道에 뜻을 둔 자라면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인데 사치스런 데 뜻을 둔다면 그런 사람과는 道를 논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人心—小體—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어찌 道心—大體—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34 之於天下也 : 天下의 事物에 응한다.

35 適 : 오로지 주장으로 삼는다. 適은 可요, 莫은 不可라는 설도 있다.

36 比 : 견준다.

[명설] 군자는 천하의 모든 일을 실천할 적에 특히 옳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하는 일을 고집하지 않고 의로운 일과 견주어서 실행할 따름이다. 한 가지만을 외고집으로 주장하는 일이 없다.

子曰 君子³⁷ 懷德³⁸ 小人³⁹ 懷土⁴⁰ 君子懷⁴¹ 刑⁴² 小人懷惠⁴³

선생 “잇속만을 따지면 원망만 쏟아진다.”

子曰 放⁴⁴ 於利而行 多怨⁴⁵

선생 “예법을 갖추어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문제가 있담! 예법을 갖추지 않고 나라를 다스린다니, 그러면 예법은 무엇에 쓴담!”

子曰 能以禮讓⁴⁶ 爲國乎 何有⁴⁷ 不能以禮讓爲國 如禮何⁴⁸

“지위 없는 것쯤 괜찮아. 중심이 없는 것이 걱정이야! 남이 몰라주는 것쯤 괜찮

37 君子: 지위를 가진 자.

38 德: 숭선하여 孝悌의道を 실천하는 것.

39 小人: 들녘 백성들.

40 土: 토지를 나누어 주고 집터를 받는 것.

41 懷: 마음 속 깊이 감춘다.

42 刑: 귀양살이 보내는 일.

43 惠: 救護對策에 의한 특혜조치.

[명설] 군자와 소인의 구별은 그들의 정신자세와 생활태도에서 구별됨을 알 수 있다. 군자는 자율적이고 자責的이지만, 소인은 타율적이고 의타적임을 알 수 있다. 군자는 도덕과 예의와 법제의 질서를 존중하며 그의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소인은 자기의 이익과 財利가 그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44 放: 의지한다.

45 [명설] 윗장을 받아서 쓴 글인 듯하다. 德과 禮를 소홀히 여기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실로 질투와 모함과 원한만이 가득 찬, 살기 어려운 세상이 아닐 수 없다.

46 以禮讓: 예로서 사양하며, 종래는 “禮法과 辭讓으로서”라 했지만 禮와 讓은 본래 같은 德目인데다가 이 장의 끝에 “如禮何”라 하여 禮讓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47 何有: 어렵지 않다.

48 如禮何: 禮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명설] 군주는 國君의 자리를 서로 빼앗으려 하고 대부는 참월한 것을 거침없이 한다면 禮로써 사양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길이 없을 것이다. 어찌 나라뿐이라. 오늘에 있어서의 사회생활에서도 이 禮讓의 風은 모든 조직활동에서는 바람직한 자가 아닐 수 없다.

아. 알아주도록 노력해야 해!”

子曰 不患⁴⁹ 無位⁵⁰ 患所以立⁵¹ 不患莫己知 求爲可知⁵² 也⁵³

선생 “삼아! 내 도는 하나로 꿰뚫었지.” 증선생 “네! 그렇습니다.” 선생이 나간 후 제자들이 묻기를 “무슨 뜻입니까? 증선생 “선생님의 도는 충심으로 미루어 생각하는 데 있을 따름이다.”

子曰 參⁵⁴ 乎 吾道⁵⁵ 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⁵⁶ 而已矣⁵⁷

선생 “참된 인간은 의리에 흰하고, 되잖은 위인은 잇속에 흰하지.”

49 患: 근심 걱정.

50 位: 벼슬자리.

51 立:自立할 수 있는 능력.

52 可知:알려질 수 있도록. 被動의 可知다.

53 [명설] 스스로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이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흔히 실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만을 넘어다본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동분서주하는 짓은 사람다운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다.

54 參: 증자의 이름.

55 道: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人道]. 도덕적 당위.

56 忠恕: 충심으로 미루어 생각한다. 대체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미루어 생각하는 것을 恕라 하는 것이다.

57 [명설] 주자는 忠恕를 충과 서의 두 덕으로 본 데 비하여 다산은 충을 서의 수식어로 간주하여 서의 一德만이 一貫의 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라 한 대신에 다산은 “中心行恕”라 한 것이다.

[참조]『衛靈公』편 (15)(24)절과 『顔淵』편 (12)(2)절을 보라.

子曰 君子喻⁵⁸ 於義 小人喻於利⁵⁹

선생 “잘난 이를 만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생각하고, 못난 이를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子曰 見賢 思齊⁶⁰ 焉 見不賢 而內自省也⁶¹

선생 “부모의 잘못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여쭙어 가면서 그래서는 안 될 뜻만을 보이며, 공경하는 마음에 틈이 나서는 안 된다. 고되더라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子曰 事父母 幾⁶² 諫⁶³ 見⁶⁴ 志不從⁶⁵ 又敬不違⁶⁶ 勞而不怨⁶⁷

선생 “부모가 계시면 먼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나서게 되면 반드시 가는 곳이

58 喻 : 마음속으로 깨닫는다.

59 [명설] 義와 利는 유교윤리의 기본적 대립관념으로 선과 악이 이로써 갈리게 되는 것이다. 선과 악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됨됨이 여기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군자와 소인이 구별되는 것이다. 군자와 소인이 나누어질 뿐만이 아니라 왕도와 패도가 이 때문에 구별이 되는 까닭에 맹자는 “하필 利를 내세우십니까. 仁義가 있을 따름입니다”(『孟子』梁惠王 上)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다.

[명설] 義란 至善이요, 利는 功利 또는 私利인 것이다.

60 齊 : 가지런하다.

61 [명설] 현자와는 가지런하게 같아지기를 원하고 不賢者를 만나면 자신도 그렇지나 않나 반성해야 한다. 賢 · 不賢 간에 다 내 스승이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62 幾 : 微.

63 幾練 : 감히 直諫은 하지 못하고 다만 微意로써 슬며시 깨닫도록 한다.

64 見 : 나타나 보인다.

65 見志不從 : 종래에는 “부모의 뜻이 자기의 諫言에 따르지 않음을 보더라도” 했는데 다산은 “자기의 뜻은 부모의 명령에 따를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인다” 하였다.

66 不違 : 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

67 [명설] 부모의 잘못을 말리는 幾諫의 방법은 미묘한 것이다. 한 편으로 부모의 잘못된 지시나 행동을 따를 수 없다는 뜻만은 은근히 보여드리면서도 그것을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한 부모의 명령에는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諫言이란 어려운 것이다.

이리저리 안 되도록 하라.”

子曰 父母在 不遠遊⁶⁸ 遊必有方⁶⁹

선생 “삼 년 동안 아버지의 법도를 뒤집지 않으면 효자라 해도 좋지.”

子曰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⁷⁰

선생 “부모의 나이는 알아두어야 한다. 한편 기쁘기도 하려니와 한편 두렵기도 하지.”

子曰 父母之年⁷¹ 不可不知⁷² 也 一則以喜 一則以懼⁷³

선생 “옛 사람들은 좀처럼 말문을 열지 않았다. 실행이 못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子曰 古者言之不出 恥躬⁷⁴ 之不逮⁷⁵ 也⁷⁶

선생 “몸단속을 잘하는 이가 실수하는 일은 드물거야.”

68 遊: 유학. 해외 유학과 같은 것.

69 [명설] 공사(公事)로 멀리 외유하는 경우는 부모가 계시더라도 할 수 없음은 예외로라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오직 공사 아닌 관광여행팀에는 부모가 계실 때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효 중심사상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70 [참조] 『學而』편 (1)(11)절에 거듭 나온다.

71 年: 나이.

72 知: 확인한다.

73 [명설] 한 편 기쁜 까닭은 오래 장수하셨기 때문이려니와 한 편 두려운 까닭은 노쇠한 모습을 뵈기 때문이라.

74 躬:躬行的 體, 몸소 실행한다.

75 逮: 及, 미친다.

76 [명설]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행동이 뒤따라 미치지 못할까 조심하기 때문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인격 수련의 첫째 조건임을 공자는 항상 강조하고 있다.

子曰 以約⁷⁷ 失⁷⁸ 之者 鮮⁷⁹ 矣⁸⁰

선생 “쓸모 있는 인간은 말은 더듬되 실행은 재빠르게 하느니라.”

子曰 君子欲訥⁸¹ 於言 而敏⁸² 於行⁸³

선생 “곧은 마음씨는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니.”

子曰 德不孤⁸⁴ 必有隣⁸⁵

자유 “군왕에게도 귀찮게 굴면 욕을 입게 되고, 벗에게도 귀찮게 굴면 성글어지지.”

77 約: 공공 묶는다.

78 失:放肆스런 짓.

79 鮮: 少, 드물다.

80 [명설] 約은 儉約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치의 반대인 검약이 아니라 멋대로 놀아나는 짓을 못하게 하는 단속을 의미한다.

81 訥: 말 더듬을 늘.

82 敏: 민첩하다.

83 [명설]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정말로 고지식하게 말을 더듬으라는 것이 아니다. 말더듬이가 말을 더듬듯 말이 밖으로 줄줄어나오도록 하라는 뜻이리라. 행동이 빨라야 하거늘 어느새 말이 그보다도 빨리 앞을 설 수 있겠는가. 말이란 사뭇 행동의 뒤만 따르면 된다.

84 孤: 홀로 우뚝 서 있는 모습.

85 隣: 이웃.

[명설] 德의 이웃은 과연 무엇일까. “有朋自遠方來”도 따지고 보면 “德不孤”의 일면이 될 것이다. 덕이란 효·제·충·신에서 얻어진 것이니, 어찌 홀로 외로운 존재일 수 있겠는가. 설령 남이 그의 충신과 효제를 물려주는 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의 “不慍”의 경지는 결코 외롭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善德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으니 獨과 孤는 다르다. 惡德은 衆人 중에 섞여 있더라도 외로운 것이다.

子游曰 事君數⁸⁶ 斯辱⁸⁷ 矣 朋友數 斯疏⁸⁸ 矣⁸⁹

86 數 : 자주 삼. 잦다. 번거롭다.

87 辱 : 굴욕. 수고롭다. 敬의 反.

88 疏 : 성글다. 멀어진다.

89 [명설] 좋은 말도 잦으면 듣기 싫다는 속담이 있듯이 군왕을 섬길 때나 벗과 사귄 때나 다 같이 지나친 諫言[忠言]은 삼가는 것이 그와 오래 교분을 갖는 요체인 것이다. 諫言[忠言]은 듣는 자세가 갖추어짐으로써 비로소 효과를 거두게 되므로 때 없이 늘어놓는 말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편

公治長
공야장

 [올해 후원하러 가기](#)

5편 | 公治長 공야장

선생이 공야장을 평하여 말하기를 “사위 삼음직하다. 묶여 간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죄는 아니었으니까”하고 그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았다. 선생이 남용을 평하여 말하기를 “나라의 질서가 섰을 때에 버림을 받지 않고, 나라의 질서가 문란할 때도 형벌을 면함직하다”하고 그의 형의 딸을 주어 조카사위를 삼았다.”

子謂¹ 公治長² 可妻也 雖在縲紲³ 之中 非其罪也 以其子⁴ 妻之 子謂南容⁵ 邦有道⁶ 不廢⁷ 邦無道 免於刑戮⁸ 以其兄之子⁹ 妻之¹⁰

선생이 자천을 평하여 말하기를 “훌륭한 인물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에 훌륭한 인물이 없다면 전들 어디서 본을 받았을까!”

- 1 謂: 평하는 말.
- 2 公治長: 성은 公治, 이름은 長, 자는 子長.
- 3 縲紲: 감옥. 縲는 죄인을 묶는 검은 줄이요 紲는 묶는다는 것이다.
- 4 子: 남녀 구별 없이 쓰인다. 男子·女子 등의 子다.
- 5 南容: 성은 南宮, 이름은 縉, 자는 子容, 남용은 南宮子容의 略.
- 6 有道: 질서가—갈아—있다.
- 7 不廢: 벼슬에 쓰여짐.
- 8 刑戮: 刑罰과 殺戮. 法的 刑罰이나 不法의인 죽음이나...
- 9 兄之子: 異腹兄인 孟皮의 딸.
- 10 [참조] 「先進, 편 (12)(5)절을 보라.

[명설] 이 편에는 인물평이 대체로 많다. 이 장에서는 주로 사위 고르는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그의 조건 속에 결코 부귀가 끼어 있지 않고 오직 그의 인물됨만이 문제되어 있는 것이다.

[명설] 公治長은 신의있는 인물일 듯하다. 감옥에 갇힌 바 있어도 그의 죄가 아님을 인정받으리만큼 '미더운 인간'임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南容은 평화시절에도 쓰여지리만큼 성실하고 난세에도 刑戮을 면하리만큼 슬기로운 인물이었던 것 같다. 사람이란 재물[富]이나 지위[貴]보다도 제가 처한 세상 사회에서 어떻게 성실하고도 슬기롭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물됨[사람값]이 결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子謂子賤¹¹ 君子哉 若¹² 人 魯無君子者 斯焉¹³ 取斯¹⁴

자공이 묻기를 “저는 어떻습니까?” 선생 “너는 그릇이다.” “어떤 그릇일까요?”
“호련 같은 보물이지.”

子貢問曰 賜¹⁵ 也 何如 子曰 女¹⁶ 器也 曰 何器也 曰 瑚璉¹⁷ 也¹⁸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웅은 사람답기는 하지만 무뚝뚝합니다.” 선생 “재잘거려서야 됩니까! 입술에 붙은 말로 지껄이면 미움받기 꼭 알맞지요, 사람답게 되었는데는 모르지만 어찌 재잘거려서야 됩니까!”

11 子賤: 성은 宓, 이름은 不齊, 자는 子賤, 공자의 제자.

12 若: 如 같다.

13 焉: 어찌. 句의 위에 있을 때는 의문사가 된다.

14 斯: 위의 斯는 사람이요, 아래 斯는 군자의 學德.

[평설] 한 인간의 군자다운 학덕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현인을 존경하며 益友를 골라 사귀어 줄 알아야 한다. 노나라에 있어서의 풍성한 君子群도 부러운 사실이어니와 子賤의 尊賢取友하는 태도도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 賜: 子貢의 이름.

16 女: 汝, 너.

17 瑚璉: 제사 때 쓰는 玉으로 장식한 대그릇. 하 · 은시절부터 쓰는 古器.

18 [평설] 瑚璉은 유용하고도[제사] 아름다운[飾玉] 그릇이다. 그러므로 “君子不器”라 할 때는 一偏之器라거나 “管仲之器小哉”라 한 小器와는 구별되는 器인 것이다. 자공은 스승 공자가 공야장 · 남용 · 자천 등을 평하는 말을 듣고 자신에 관한 스승의 평을 듣고자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스승에게 묻는 자공의 적극적인 태도와 즉석에서 대답해줄 수 있는 스승의 이해는 사제간의 密度를 측량하기에 족하다. 자공은 항상 스승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或曰 雍¹⁹ 也 仁而不佞²⁰ 子曰 焉用佞 禦人²¹ 以口給²² 屢憎於人 不知其仁 焉用佞²³

선생이 칠조개를 베풀 살게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선생이 기뻐하였다.

子使漆雕開²⁴ 仕 對曰 吾斯之未能信 子說²⁵

선생 “갈 길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다. 배를 타고 바다로나 나갈까 보다. 나를 따라올 자는 아마 유일 거야! 자로가 이 말을 듣고 병실병실. 선생 “유는 나보다 용기가 있지. 머뭇머뭇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다.”

子曰 道不行 乘桴²⁶ 浮于海 從我者 其由²⁷ 與 子路聞之 喜 子曰 由也 好勇過我 無所取材²⁸

19 雍: 성은 冉, 이름은 雍. 자는 仲弓. 伯牛의一族, 공자의 제자.

20 佞: 아나내들처럼 날쌔게 말한다.

21 禦人: 사람을 응대한다.

22 口給: 말이 떨어질 새 없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23 [명설] 이렇듯 말재주란 쓸모 없는 재주에 속한다. 巧言도 仁되기 어려운데 하물며 佞의 말재주가 군자의 미움을 받지 않겠는가. 설령 仁의 경지는 허락하지 않았을망정 '말재주'쯤 달갑게 여기지 않을 雍임을 스승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스승 밑에 그 제자임을 알기에 넉넉하다.

24 漆雕開: 성은 漆彫, 이름은 開, 자는 子若 또는 子開. 공자의 제자.

25 說: 悅.

[명설] 공자는 漆雕開의 재주와 식견이 벼슬살기에 넉넉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開는 그가 그런 직책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는 開가 스스로 자신 있다 하지 않는 태도를 기쁘게 여겼던 것이다.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26 桴: 작은 뗏목.

27 由: 자로의 이름.

28 [명설] 작은 뗏목을 타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자로는 앞뒤를 따질 겨를도 없이 공자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하리라는 것을 孔子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로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자로의 기쁨은 스승이 나를 알아준 데 대한 기쁨이다. 자로만이 현자인 것도 아니요, 오직 자로만 모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제자임을 공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맹무백이 묻기를 “자로는 사람답게 되었습니까? 선생 “모르겠는데요.” 다시 물은즉, 선생 “제후국의 국방장관쯤 됨 직하지만, 사람답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염구는 어떻습니까?” 선생 “구는 도지사나 국장쯤 됨 직하지만, 사람답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은 어떻습니까?” 선생 “예복을 갖추고 외국 사신쯤 접대함 직하지만, 사람답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孟武伯²⁹ 問 子路仁乎 子曰 不知也 又問 子曰 由也 千乘之國 可使治其賦³⁰ 也 不知其仁也 求也何如 子曰 求也 千室之邑 百乘之家³¹ 可使爲之宰³² 也 不知其仁也 赤³³ 也何如 子曰 赤也 束帶³⁴ 立於朝 可使與賓客言也 不知其仁也³⁵

선생이 자공더러 “너와 회와 누가 더 나올까?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회를 당하리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압니다.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구요.” 선생 “그만 못하지. 나나 너나 그만 못하지!”

子謂子貢曰 女與回³⁶ 也孰³⁷ 愈³⁸ 對曰 賜³⁹ 也 何敢望回 回也 聞一以知十⁴⁰ 賜也 聞

29 孟武伯: 노나라 대부. (『위정』 참조).

30 賦: 財政. 또는 軍政.

31 百乘之家: 대부.

32 宰: 主制.

33 赤: 성은 公西, 이름은 赤, 자는 子華. 공자의 제자.

34 束帶: 띠를 띠다함은 朝臣이 禮容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35 [명설] 모두 一國의 신하로서 맡은 직책을 다할 수 있다 하더라도 雍처럼 仁의 경지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仁이란 가장 가까운 데에서 비롯하지만 그의 끝은 가장 먼 곳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36 回: 안연.

37 孰: 누구 속.

38 愈: 勝.

39 賜: 子貢.

40 聞一以知十: 하나를 들으면 전체[十]를 안다.

一以知⁴¹ 子曰 弗如也 吾與女弗如⁴² 也⁴³

재여가 낮잠을 잔즉, 선생 “썩은 나무는 새길 수가 없고, 썩은 흙담장은 흙손질 할 수 없다. 재여 같은 애는 꾸짖기도 싫다.” 다시 이어서, 선생 “전에 나는 남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믿었는데, 이제 나는 남의 말을 듣고도 그 행동을 보아야 하겠다. 재여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야!”

宰予晝寢⁴⁴ 子曰 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⁴⁵ 不可朽也 於子與⁴⁶ 何誅⁴⁷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於子與 改是⁴⁸

선생 “나는 아직 강직한 사람을 못 만났다.” 어느 사람이 대답하기를 “신장은?”
선생 “장은 욕심꾸러기인데 어찌 강직할 수 있을까!”

子曰 吾未見剛者 或對曰 申枨⁴⁹ 子曰 枨也 慾 焉得剛⁵⁰

자공 “나는 남에게서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남에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

41 聞一以知二 : 하나를 듣고서 일부분[二]을 안다

42 弗如 : 顏回 같지 않다.

43 [명설]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學友끼리 시새움도 없이 賢友를 치켜세운 점ियो, 다른 하나는 스승이 제자를 자기보다도 낫다고 칭찬해 준 점이다. 둘 다 범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점이라.

44 寢 : 눕는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드러눕는다.

45 牆 : 벽.

46 與 : 어조사.

47 誅 : 責望.

48 改是 : 이전 태도를 고치다.

[명설] 낮에 비스듬히 드러눕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 재여에 대한 공자의 꾸지람은 준열하다. 게으름뱅이는 썩은 나무나 더러운 담벼락 같이 쓸모 없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안회와 자공의 인물됨을 칭찬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49 申枨 : 성은 申, 이름은 枨. 그러나 그 인물은 분명하지 않다. 鄭玄은 그가 공자의 제자라고 했으나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50 [명설] 欲과 剛은 相反된다. 욕심이 있는 자는 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야. 너도 하기 어려운 일이야!”

子貢曰 我不欲人之加⁵¹ 諸我⁵² 也 吾⁵³ 亦欲無加諸人 子曰 賜也 非爾所及也⁵⁴

자공 “선생님께서 옛 글을 강론하시는 것은 언제나 들을 수 있지만, 인성이니 천도니 하는 따위는 좀처럼 들을 수가 없다.”

子貢曰 夫子之文章⁵⁵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⁵⁶ 與天道 不可得而聞也⁵⁷

자로는 전에 들었던 일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더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子路有聞⁵⁸ 未之能行 唯恐有聞⁵⁹

자공이 문기를 “공문자에게 왜 ‘문’의 시호를 붙였습니까?” 선생 “민첩하면서 학문을 좋아하며, 손아래 사람에게도 곧잘 문기에 ‘문’이라 한 게지.”

51 加: 施.

52 我: 彼の對.

53 吾: 自稱.

54 [명설] 이는 오로지 恕라 할 수 있다. 恕란 가까이 있으면서도 힘든 일에 속한다. 자공이 이를 너무 손쉽게 생각하므로 공자는 쉽지 않음을 타이른 것이다. 恕란 仁을 실천하는 방법이니 仁은 恕의 성과인 것이다.

55 文章: 詩·書·禮·樂 따위.

56 性: 人性

57 [명설] 공자의 언행은 詩나 禮에 의한 인격의 도야와 윤리적 행동규범의 범위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인성이니 천도니 하는 철학적 원리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그 점이 도리어 공자학의 生新한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참조] 「子罕, 편 (9)(1)절을 보라.

58 聞: 교훈을 듣다.

59 [명설] 교훈을 들으면 곧장 실행해야 하는데 아직 실행하지 못한 채 또다시 듣게 되면 이중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또다시 듣게 될까봐 두려워한 것이다. 윤리적 실행을 중요시한 말이다.

子貢問曰 孔文子⁶⁰ 何以謂之文也 子曰 敏⁶¹ 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⁶²

선생이 자산을 평하여 말하기를 “그에게 인물다운 데가 네 가지 있었으니, 행실이 공손했고, 위사람을 존경했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했느니라.”

子謂子產⁶³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⁶⁴ 也 恭 其事上也 敬⁶⁵ 其養民⁶⁶ 也 惠 其使民⁶⁷ 也 義⁶⁸

선생 “안평중은 남들과 곧잘 사귀는데 오래수록 더욱 존경하였다.”

子曰 晏平仲⁶⁹ 善與人交 久而敬之⁷⁰

선생 “장문중은 점치는 거북을 보관하고, 묘당 기둥에는 산도 새기고 마름도 그리니 어디가 슬기롭다는 것인지 모르지!”

60 孔文子 : 성은 孔, 이름은 어(圉) 또는 仲叔圉, 文은 그의 시호. 衛나라 대부. 학문은 좋아했으나 그리 좋은 인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61 敏 : 행동이나 才質이 빠르다.

62 [명설] 孔叔圉는 악인인데 文의 시호를 얻었기 때문에 자공은 아리송하여 스승에게 물었던 것이다. 공자도 직언하기가 어려우므로—大夫이기 때문에—諛法만을 들어 옳고 그름은 듣는 자의 판단에 맡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孔圉는 친구의 아내를 뺏어 아내로 삼은 인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3 子產 : 鄭나라 大夫 · 公孫僑다. 鄭나라 穆公의 손자. 子美라고도 한다. 成子는 그의 시호. 훌륭한 정치가로 유명하다.

64 行己 : 자기 행동.

65 恭 : 謹慎. 敬 : 誠敬. 앞은 向內的이요 뒤는 向外的이다.

66 養民 : 인민생활을 지도한다.

67 使民 : 人民의 勤勞 동원.

68 [명설] 行己事上은 수기요, 養民使民은 치인이니 子產은 수기치인의 全德을 갖춘 자라 할 수 있다.

69 晏平仲 : 성은 晏, 이름은 嬰, 자는 仲, 시호는 平, 齊나라 대부. 晏子로도 불리운다.

70 [명설] 벗과 사귀는 적에는 항상 존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오래 수 있는 것이다. 친할수록 무렵없이 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子曰 臧文仲⁷¹ 居⁷² 蔡⁷³ 山節⁷⁴ 藻稅⁷⁵ 何如其知也⁷⁶

자장이 문기를 “총리 자문은 세 번 총리가 되었어도 우쭐거리지 않았고, 세 번 그 만들 때도 뿌루퉁하지 않았습니다. 전 총리의 사무는 꼭 새 총리에게 인계하곤 하였으니, 어떨까요?” 선생 “충실한 사람이다.” “사람 구실을 다 한 분인가요?” 글썄 사람 구실을 다 했다고야 하겠니!” “최자가 제나라 주군을 죽이니, 진문자는 망아지 사십 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는 ‘마치 우리 나라 대부 최자 같군!’하고 떠났으며, 또 다른 나라로 가서도 ‘마치 우리 나라 대부 최자 같군!’하고 떠나 버리니 어떨까요?” 선생 “청렴한 사람이다. ‘사람 구실을 다한 분인가요?’ ‘글썄, 사람 구실을 다했다고야 하겠니!’”

子張問曰 令尹⁷⁷ 子文⁷⁸ 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愠⁷⁹ 色 舊令尹之政 必以告新令尹 何如 子曰 忠⁸⁰ 矣 曰 仁矣乎 曰 未知 焉得仁 崔子⁸¹ 弑齊君⁸² 陳文子⁸³ 有馬十乘 棄而違之⁸⁴ 至於他邦 則曰 猶吾大夫崔子也 違之 之一邦 則又曰 猶吾大夫崔子也

71 臧文仲: 성은 臧孫, 이름은 辰, 시호는 文. 자는 仲으로서 노나라 대부.

72 居: 藏 감춘다.

73 蔡: 蔡國君의 守龜—점칠 때 쓴다—는 蔡地에서 나왔으므로 蔡는 守龜를 뜻한다.

74 山節: 기둥 윗마디에 山을 조각함.

75 藻稅: 동자 기둥 위에 藻文을 그림.

76 [명설] 居는 國君의 일이고, 山節 藻稅도 천자의 廟飾이니 臧文仲의 짓은 僭越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를 모르는—不知禮—사람이 아닐 수 없다.

77 令尹: 벼슬 이름. 上卿 執政官, 곧 총리.

78 子文: 성은 鬬, 이름은 穀於菟, 자는 子文. 楚나라 사람이다.

79 愠: 不平.

80 忠: 충심으로 사람을 섬기다.

81 崔子: 성은 崔, 이름은 棼(紆), 齊나라 대부. 시호는 武.

82 齊君: 齊나라 莊公.

83 陳文子: 성은 陳 또는 田, 이름은 須無, 시호는 文. 齊나라 대부.

84 違之: 그 나라를 떠나다.

違之 何如 子曰 清⁸⁵ 矣 曰 仁矣乎 曰 未知 焉得仁⁸⁶

계문자는 세 번 곱씹어 생각한 뒤라야 실행에 옮긴다. 선생이 이를 듣고 “두 번도 좋지!”

季文子⁸⁷ 三思⁸⁸ 而後行 子聞之曰 再斯可矣⁸⁹

선생 “영무자는 나라의 질서가 섰을 때는 슬기롭고, 난세가 되면 농팡이 같은 짓을 한다. 그이처럼 슬기로운 일은 함직 하지만 농팡이 같은 짓은 흉내낼 수가 없군.”

子曰 甯武子⁹⁰ 邦有道則知 邦無道則愚 其知可及也 其愚不可及也⁹¹

선생이 진나라에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네 젊은이들은 미칠 듯 날뛰며, 멋대로 고집도 부리고, 아룡이 다룡이 문채는 빛나지만, 아직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지 않느냐.”

85 清: 자신이 깨끗하므로 더러운 티가 없다.

86 [명설] 제아무리 충하고 淸하더라도 공자는 좀처럼 仁의 경지는 허락하지 않는다. 仁이란 忠과 淸의 결과로서 온 세상이 그의 혜택을 골고루 입게 됨으로써 비로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7 季文子: 季孫氏의 第三代. 이름은 行父, 시호는 文子. 노나라 대부.

88 三思: 熟考, 깊이 생각함.

89 [명설] 깊이 생각하는 것이—三思— 왜 나쁘랴. 이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므로 두 번이라도 좋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는 優柔不斷하여 과단성이 부족한 자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90 甯武子: 성은 甯, 이름은 俞, 시호는 武. 衛나라 대부. 국난을 당하여 “忘身冒難”하니 농팡이(愚) 같으나 흉내내기 어려운 농팡이 짓이다.

91 [명설] 어리석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 슬기[知]의 반대인 어리석음이요, 둘째 거짓 어리석은 체 하는 어리석음[佯愚]이요 셋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어리석음이다. 甯武子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국난에 당한 것은 세번 째의 어리석음에 속하는 것이다.

子在陳⁹² 曰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⁹³ 簡⁹⁴ 斐然⁹⁵ 成章⁹⁶ 不知所以裁⁹⁷ 之⁹⁸

선생 “백이 숙제는 원한을 품지 않지. 그러기에 원망을 사지 않는다.”

子曰 伯夷叔齊⁹⁹ 不念¹⁰⁰ 舊惡 怨是用¹⁰¹ 希¹⁰²

선생 “누가 미생고더러 정직하다 하시고, 어느 사람이 식초를 얻으러 온즉 이웃에서 빌려다가 주었는데……”

子曰 孰謂微生高¹⁰³ 直 或乞醯¹⁰⁴ 焉 乞諸其隣而與之¹⁰⁵

선생 “말을 꾸며대며 암전한 체 굵실 굵실하는 짓을 좌구명은 수치로 여겼다. 나도 수치로 여긴다. 원한을 품은 채 친구인 체하는 짓을 좌구명은 수치로 여겼다.

92 陳: 나라 이름. 有虞[舜]氏의 후에.

93 狂: 조급하다. 진취적인 모습.

94 簡: 간략하다. 하지 않는 고집이 있는 모습이다.

95 斐然: 빛이 나다.

96 成章: 짜여진 무늬.

97 裁: 옷을 만들다.

98 [명설] 공자 제자들의 공부는 비단처럼 빛나지만 아직 그 감은 옷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자는 그들의 덕의 완성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완전을 목표로 하는 공자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99 伯夷叔齊: 殷末 周初 孤竹國의 公子. 伯夷는 兄이요, 叔齊는 아우. 은나라가 망한 후 首陽山下에서 采薇而餓死한 聖之淸者였었다.

100 念: 가슴 깊이 품는다.

101 用: 以.

102 希: 微, 幾希. 거의 없다.

[명설] 부모 형제 간에 원한을 사지 않았다. 백이·숙제는 망명하였으니 타인과의 원한 관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3 微生高: 성은 微生 또는 尾生, 이름은 高. 노나라 사람으로 고지식했던 사람이다.

104 醯: 식초 헤.

105 [명설] 제게 없으면 없다고 할 일이지 남의 것을 얻어다가 제 생색을 내려는 것은 위선인 것이다. 필시 그는 남의 것을 빌릴 때 남을 주려고 하면서 ‘내가 쓴다’했거나 ‘내가 쓰는 체’ 했거나 다 거짓을 범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도 수치로 여긴다.”

子曰 巧言令色 足¹⁰⁶ 恭 左丘明¹⁰⁷ 恥之 丘¹⁰⁸ 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¹⁰⁹

안연과 계로가 선생을 모시고 있을 때 “너희들 소원을 한 번 말해 보련?” 자로 “수레나 망아지나 예복이나 가벼운 가죽옷들을 친구들과 함께 쓰다가 부서버지더라도 나는 서운할 것 없습니다.” 안연 “잘한 것을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남에게 수고를 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로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선생 “늙은이를 편안하게 해 주고, 친구들과는 신의로 맺고, 어린 이들이 따르도록 하련다.”

顏淵¹¹⁰ 季路¹¹¹ 侍 子曰 盍¹¹² 各言爾志 子路曰 願車馬衣輕裘¹¹³ 與朋友共 敝¹¹⁴ 之而無憾¹¹⁵ 顏淵曰 願無伐¹¹⁶ 善 無施¹¹⁷ 勞 子路曰 願聞子之志 子曰 老¹¹⁸ 者安之 朋友信

106 足 : 지나치다.

107 左丘明 : 공자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지만 그의 이력은 명확하지 않다. 左氏春秋의 作者인 듯. 성은 左丘와 左의 두 설이 있는데 左인 듯. 그러면 이름은 丘明이 된다.

108 丘 : “丘亦”의 丘는 공자의 이름.

109 [평설]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은 진실과 위배되기 때문에 공자는 ‘하는 체’ 한다거나 ‘잘난 척’하는 따위의 짓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순직해야 할 것이다.

110 顏淵 : 顏回, 顏子.

111 季路 : 子路.

112 盍 : 어찌 아니할 함.

113 裘 : 털가죽옷 구.

114 敝 : 헤어질 폐.

115 憾 : 서운하다.

116 伐 : 자랑한다.

117 施 : 수고를 끼친다.

118 安 : 安寧. 봉양하기 때문이다.

之 少者懷¹¹⁹ 之¹²⁰

선생 “할 수 없구나! 나는 아직 제 허물을 알면서 제 자신이 이를 이겨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

子曰 已¹²¹ 矣乎 吾未見 能見其過 而內自訟¹²² 者也¹²³

선생 “자그마한 고을에도 나만큼 성실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큼 학문을 좋아하지는 않을거다.”

子曰 十室¹²⁴ 之邑¹²⁵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¹²⁶

119 懷: 품 안으로 감싸주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120 [평설] 사제 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세 사람의 개성이 뚜렷한 점이 흥미롭다. 남을 흉내내지 않는 진실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121 已: 끝. 그만.

122 訟: 敵對하는 싸움. 內自訟: 나 안에서의 싸움.

123 [평설] 인간이란 선과 악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을 도심과 인심이라기도 하고 천명과 인욕이라기도 한다. 극기란 전자가 후자를 극복하는 경우인 것이다.

124 十室: 五家가 一隣이니 二隣이면 十室이다. 작은 고을이다.

125 邑: 사람이 모여 사는 곳.

126 [평설] 忠信쯤이야 작은 고을일망정 어디에나 있겠지만 好學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겨우 안희 정도를 허락했으니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6 편

雍也
옹은 임금자리에

 [올제 후원하러 가기](#)

6편 | 雍也 웅은 임금자리에

선생 “웅은 임금자리에 오름 직하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좋지, 간소해서.” 중궁 “경건하되 간소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좋지 않을까요? 간소한데다가 더 간소하면 너무 간소하지 않을까요? 선생 “웅의 말이 옳다.”

子曰 雍也 可使南面¹ 仲弓² 問 子桑伯子³ 子曰 可也 簡 仲弓曰 居⁴ 敬⁵ 而行⁶ 簡⁷ 以臨其民 不亦可乎 居簡而行簡 無乃大簡乎 子曰 雍之言然⁸

애공이 묻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선생은 대답하기를 “안회란 애가 있어 학문을 좋아했지요. 가난 속에서도 투덜대는 일이 없었고, 허물도 두 번 다시 짓는 일이 없더니, 불행히도 일찍 죽고 시방은 없습니다. 아직은 학문 좋아한다는 애의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哀公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 好學 不遷怒⁹ 不貳過¹⁰ 不幸 短命死矣 今也則亡¹¹ 未聞好學者也¹²

1 南面: 군왕이 정치하는 자리. 신하는 北面한다.

2 仲弓: 雍의 字.

3 子桑伯子: 당시 隱者인 桑扈 또는 桑戶(『莊子』,『大宗師』편에 나온다.)

4 居: 스스로 자처하는 일.

5 敬: 조심한다. 居敬은 몸조심.

6 行: 법령의 시행.

7 簡: 잔일은 그만 둔다. 煩의 反.

8 [명설] 자신의 몸가짐이나(居) 법령의 시행(行)이나 간략(簡) 일변도를 경계한 것이다. 법령은 간략하게 하되(行簡) 자신의 몸가짐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居敬) 이다.

9 不遷怒: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10 不貳過: 貳는 두 갈래로 나누어짐이다. 허물은 두 번 다시 짓지 않는다.

11 亡: 無. 없다. 이 세상에 없다. 죽음.

12 [명설] 遷怒란 흔히 “둥에서 뺏앗고 서에서 눈흘린다”로 여기기 쉬우나 그것은 하찮은 자들의 짓이니 하필 안회에 이르러서 하지 않으랴. 不遷怒란 順受天命하는 군자가 어떠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不怨天 不尤人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참조] 『先進』편 (11)(7)절을 보라.

자화가 제나라로 사신 갈 때 염 선생이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식량을 청한즉, 선생 “한 가마니쯤 보내지.” 좀 더 청한즉, 선생 “한 섬쯤 보내렴.” 염 선생이 열 섬의 곡식을 보냈다. 선생 “적이 제나라로 갈 제 살찐 망아지를 타고 가벼운 털옷을 입었다. 나는 들었다. ‘참된 인간은 급한 경우를 모면할 뿐 재물을 늘리지 않는 다’고.”

子華¹³ 使於齊 冉子¹⁴ 爲其母請粟¹⁵ 子曰 與之釜¹⁶ 請益 曰 與之庾¹⁷ 冉子與之粟五秉¹⁸ 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 吾聞之也 君子周¹⁹ 急 不繼²⁰ 富²¹

원사가 사무장이 되어 받는 봉급이 900이라 사양한즉, 선생 “그럴 것 없지. 네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되지 않나!”

原思²² 爲之宰²³ 與之粟九百²⁴ 辭 子曰²⁵ 以與爾隣里鄉黨²⁶ 乎²⁷

13 子華：公西赤의 字.

14 冉子：冉有.

15 粟：조. 당시에는 주식이었다.

16 釜：六斗 四升.

17 庾：十六斗.

18 秉：十六斛.

19 補：부족을 채운다.

20 繼：남는데도 더 보탠다.

21 [명설] 外國使臣을 핑계삼아 많은 재물을 뜯어낸 子華나 冉子나 다 함께 찢지 못할 과오를 범한 것이다. 釜가 규정여비이거는 請益의 행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하물며 五秉이나 가져갔으니 공자의 꾸지람도 당연하지 않을까.

22 原思：성은 原, 이름은 憲, 자는 子思. 공자의 제자.

23 宰：邑宰, 邑長.

24 九百：九百斗.

25 毋：금지사.

26 隣里鄉黨：隣은 5家, 리는 5隣, 鄉은 12,500家, 黨은 500家.

27 [명설] 당연히 받아야 할 봉록은 받아야 한다. 봉록에서 남는 여유를 사치로 소비하지 말고 이웃을 돕는데 쓰도록 한 孔子의 말은 벼슬아치들에게 주는 萬古不朽의 金言이 아닐 수 없다.

선생이 증궁을 평하여 말하기를 “검은 소의 새끼일망정 털빛도 붉고 뿔도 곧으니, 안 쓰자 해도 산천의 귀신이 그를 버릴까!”

子謂仲弓曰 犁牛²⁸ 之子 騂²⁹ 且角 雖欲勿用 山川其舍諸³⁰

선생 “회는 석 달을 두고도 사람다운 마음씨에 변함이 없건만, 다른 사람들이야 겨우 하루 동안 또는 한달 동안 될까 말까지.”

子曰 回也其心三月³¹不違³² 仁³³ 其餘³⁴ 則日月至焉³⁵ 而已矣³⁶

계강자가 문기를 “증유에게는 정사를 맡겨도 좋을까요?” 선생 “유는 배짱이 있으니 정사를 맡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에게 정사를 맡겨도 좋을까요?” “사는 사리에 통달하니 정사를 맡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구에게 정사를 맡겨도 좋을가요?” “구는 재주가 뛰어나니 정사를 맡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28 犁牛 : 검은 소.(다산) 얼룩소.(일반론)

29 騂 : 붉을 성.

30 [평설] 종래 仲弓의 부친은 신분이 천하고 품행이 불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지만(『孔子家語』 다산은 王充論에 의거하여 仲弓은 十哲의 한 사람인 冉伯牛의 아들로서 “잘난 검은 소의 아들로서 붉고 뿔이 돌아 祭天 祭地の 用은 못될망정 次下인 山川이야 그를 버릴까”로 풀이하며 前說을 뒤집어 놓았다. 아버지만은 못하지만 쓸모아 없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참조] 9장을 보라.

31 三月 : 오래다는 뜻이다.

32 違 : 離. 멀리 떨어져 버리다.

33 仁 : 嚮人之愛. 仁이란 愛人의 성과지만 “마음 속에 가득찬 사랑”도 仁이랄 밖에 없다.

34 其餘 : 안연 이외의 다른 弟子들.

35 日月至焉 :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설도 있으나 “하루나 한 달이라는 짧은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6 [평설] ‘꾸준함’의 美德을 찬양한 말이다.

季康子問 仲由³⁷ 可使從政³⁸ 也與 子曰 由也果³⁹ 於從政乎何有⁴⁰ 曰 賜⁴¹ 也 可使從政也與 曰 賜也達⁴² 於從政乎何有 曰 求⁴³ 也 可使從政也與 曰 求也藝⁴⁴ 於從政乎何有⁴⁵

계씨가 민자건을 비 지방 원으로 보내려고 사람을 보낸즉, 민자건이 말하기를 “적당한 말로 거절해 주십시오. 다시 또 그런 말을 하면 나는 국경 지방 문강 기슭으로 가버리겠습니다.”

季氏使閔子騫⁴⁶ 爲費⁴⁷ 宰 閔子騫曰 善爲我辭焉 如有復我者 則吾必在汶⁴⁸ 上矣⁴⁹

백우가 앓고 누웠을 때 선생님이 문병을 갔다. 들창 밖에서 그의 손을 쥐고 말하기를 “죽게 되다니! 천명인가 보다.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37 仲由：子路.

38 從政：벼슬살다.

39 果：決斷性.

40 何有：어렵지 않다.

41 賜：子貢.

42 達：사리에 밝다.

43 求：冉有.

44 藝：재능이 많다.

45 [명설] 벼슬아치는 多才多能하기를 기대하겠지만 果 達 藝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문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제자들의 個性은 各人各色임을 말하여주고 있다.

46 閔子騫：성은 閔, 이름은 損, 자는 子騫. 공자의 제자.

47 費：魯나라 동쪽에 있는 땅 이름.

48 汶：齊魯 사이에 있는 강.

49 [명설] 季氏가 魯나라 公家의 영지인 費邑을 私有로 차지하고 閔子騫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일이 있다. 閔子騫는 季氏에의 忠은 魯나라의 害가 되므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다.

伯牛⁵⁰ 有疾⁵¹ 子問之 自牖⁵² 執其手 曰 亡⁵³ 之 命矣夫 斯人⁵⁴ 也 而有斯疾⁵⁵ 也 斯人也 而有斯疾也⁵⁶

선생 “잘났구나! 회야말로. 한 그릇 밥, 한 종지 물로 움막살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면만, 회는 즐거운 모습에 변함이 없으니, 잘났구나! 회야말로.”

子曰 賢哉 回也 一簞⁵⁷ 食 一瓢⁵⁸ 飲 在陋⁵⁹ 巷⁶⁰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⁶¹

염구 “선생님의 교훈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힘이 모자라는 탓입니다.” 선생 “힘이 모자라면 중도에서 쓰러지는 법이야. 지금 너는 미리 그만두는 셈이거든.”

50 伯牛 : 성은 冉, 이름은 耕, 자는 伯牛.

51 有疾 : 종래 伯牛의 병을 癱라 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말이다. 그저 重病이었을 것이다. 癱라면 공자인들 손까지 잡고 문병했을 리가 없다.

52 牖 : 창문.

53 亡 : 망. 죽게 되다. 없어지게 되다. 잃게 되다.

54 斯人 : 얻기 어려운 이 사람.

55 斯病 : 꼭 죽게 될 이 병.

56 [참조] 禮病—問病—은 北牖下에서 하는 법인데 군왕의 경우는 南牖下로 옮겨 군왕으로 하여금 南面하게 하는 법이다. 伯牛家에서 이 禮法으로 공자를 禮遇코자 한즉 공자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하여 一簞禮가 되므로—入室하지 않고 창문 밖에서 손을 잡고 問病한 것이다.(다산)

57 簞 : 대바구니.

58 瓢 : 표주박.

59 陋 : 좁고 더럽다.

60 巷 : 처자거리.

61 [명심] 顏子의 즐거움은 堯舜 周公 孔子의 道를 즐기는 데에서 우러난 즐거움인 것이다. 安貧樂道란 곧 이를 두고 이른 말이 아닐까.

冉求曰 非不說⁶² 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⁶³ 而廢⁶⁴ 今女⁶⁵ 畫⁶⁶

선생이 자하더러 말하기를 “너는 참된 학자가 되어야지, 하찮은 학자는 되지 말라.”

子謂子夏曰 女爲君子儒⁶⁷ 無爲小人儒⁶⁸

자유가 무성 지방 원이 되었다. 선생 “너는 쓸 만한 사람을 만났느냐?” “답대멸 명이란 사람이 있는데, 셋길은 걷지도 않고, 공사가 아니면 방에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子游爲武城⁶⁹ 宰 子曰 女得人⁷⁰ 焉爾乎⁷¹ 曰 有澹臺滅明⁷² 者 行不由徑⁷³ 非公事 未嘗

62 說:悅.

63 中道:일을 하다가.

64 廢:넘어지다. 무너지다. 쓰러지다.

65 女:汝.

66 畫:선—금—을 긋는다. 한계를 친다.

[평설]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와 도중에서 그만두는—棄權하는—태도와는 千里의 차가 있을 것이다. 큰 일일수록 결코 安易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7 儒:학자.

68 [명설] 儒者의 學은 學道에 있고 그것은 堯舜의 道를 배움에 있는 것이다. 君子儒나 小人儒는 다 같이 詩書禮樂 典章法度를 익히지만 그가 道義를 숭상하면 君子儒가 될 것이요, 名利를 따르면 小人儒가 될 것이다.

69 武城:現山東 費縣의 西南에 있음.

70 得人:賢人을 얻다.

71 焉爾乎:다 語助辭.

72 澹臺滅明:성은 澹臺, 이름은 滅明, 자는 子羽. 공자의 제자.

73 行不由徑:바르고 큰길을 걷는다.

至偃⁷⁴之室⁷⁵也⁷⁶

선생 맹자반은 뽑내지 않는다. 도망칠 때 뒷처리를 맡고, 성문으로 들어와서는 말에 채찍질하면서 말하기를 ‘뒷처지자고 해서 처진 것이 아니라, 요놈의 망아지가 달려 주어야지!’라고 하였다.”

子曰 孟之反⁷⁷ 不伐⁷⁸ 奔⁷⁹ 而殿⁸⁰ 將入門 策其馬曰 非敢後也 馬不進也⁸¹

선생 “축타 같은 말재주나 송조 같은 미남이 아니고서는 요즘 세상에서는 살기 어려울 거야!”

子曰 不有祝鮀⁸² 之佞⁸³ 而有⁸⁴ 宋朝⁸⁵ 之美 難乎免⁸⁶ 於今之世矣⁸⁷

선생 “누구나 들고 날 때 문을 거치지 않을까마는 왜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

74 偃: 子游의 이름.

75 偃之室: 公館의 政堂. 子游의 邑長室.

76 [명설] 牧民官으로서 벼슬아치는 私事로운 面會는 謝絶해도 좋을 것이다. 世人이 모두 澹臺滅明처럼 公事에 한한 面會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77 孟之反: 성은 孟, 이름은 之反, 자는 之反.

78 伐: 공로를 자랑한다.

79 奔: 도망친다.

80 殿: 뒤처진다.

81 [명설] 전쟁터에서는 패주할 때 뒤처짐으로써 後軍을 맡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임무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殿軍의 功績을 말에도 미루고 있다. 敗走의 自責과 殿後의 勳功이 半半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의 殿後不伐은 그의 인물됨을 짐작하기에 넉넉하다.

82 祝鮀: 이름은 鮀, 자는 子魚, 祝은 職名인 듯. 衛나라 사람.

83 佞: 아나네들처럼 재갈거림.

84 而有: 혹 있다.

85 宋朝: 諸說이 區區하나 衛靈公의 夫人 南子와 密通한 宋의 公子인 듯. 當代의 美男.

86 難乎免: 재앙에 쉽게 걸린다.

87 [명설] 말재주와 美貌로 출세하는 세상임을 말하고 있다. 공자도 南子夫人과 만났는데 그의 유혹을 경계하여 子路가 面談을 반대한 사실도 상기함 직하다. (『용야』편 (27)절)

을까?”

子曰 誰能出不由戶⁸⁸ 何莫由斯道⁸⁹ 也⁹⁰

선생 “바탕이 맵시보다 나오면 촌뜨기, 맵시가 바탕보다 나오면 글친구, 바탕이 나 맵시가 한데 어울려야 훌륭한 인물일거야.”

子曰 質⁹¹ 勝文⁹² 則野⁹³ 文勝質則史⁹⁴ 文質彬彬⁹⁵ 然後君子⁹⁶

선생 “사람은 날 때부터 곧은 것이다. 속임수로 살아나는 것은 요행으로 화를 면하는 거야.”

子曰 人之生也直⁹⁷ 罔⁹⁸ 之生也 幸而免⁹⁹

선생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

88 戶: 옛날 방의 구조는 北은 꼭 막히고 南은 빛만 받아들이는 창이 있고 東쪽에만 문[戶]이 있어 出入하는 외길이었던 것이다.

89 道: 사람의 길, 휴머니즘.

90 [명설] 실제로서의 “길”이 “사람의 길”로 轉訛된 좋은 예다. 天命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길”이 아닐 수 없다.

91 質: 德行을 근본으로 삼는다.

92 文: 禮樂으로 꾸며진 것이다.

93 野: 野人처럼 거칠어 꾸밈새가 없다.

94 史: 文書만 다루는 하찮은 벼슬아치.

95 彬彬: 서로 섞였어도 잘 어울린 모습.

96 [명설] 質은 근본이요, 文은 형식인데 형식은 근본을 형식화한 것이어야 하고 근본은 형식에 의하여 美化되어야 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 쪽이 缺如된다면 그것은 조화된 君子的 모습이랄 수 없는 것이다.

97 直: 곧다. 바르다.

98 罔: 속이다.

99 [명설] 곧은 것은 바른 것이요, 바른 것은 착한 것과 통한다. 속임수로 살아남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요행이지 正道는 아니다. 正道를 버리고 요행만을 바라는 무리들이 많은 것은 孔子시절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하지.”

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¹⁰⁰

선생 “중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중 이하의 사람에게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子曰 中¹⁰¹ 人¹⁰² 以上 可以語上¹⁰³ 也 中人以下 不可以語上也¹⁰³

번지가 지혜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옳은 사람 노릇에 철저히하며, 귀신은 공경할 뿐 이를 멀리하면 슬기롭다 하겠지.” 사람 구실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사람 구실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은 도맡고, 이익은 남에게 돌리니, 그러면 사람답다고 할 수 있겠지.”

樊遲問知 子曰 務¹⁰⁴ 民之義¹⁰⁵ 敬鬼神¹⁰⁶ 而遠之 可謂知矣 問仁 曰 仁者 先難¹⁰⁷ 而後獲¹⁰⁸ 可謂仁矣¹⁰⁹

100 [명설] 안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무엇이好人가를 깨닫는 것은 善을 行動으로 실천하는 기쁨만은 못하리라. 그러한 기쁨은 善을 生活化한 즐거움만은 못하리라. 善의 生活化는 孟子가 말한 與民同樂이 그의 極致일는지 모른다.

101 中人 : 中은 上中下의 中이다. 그러나 善惡의 上中下가 아니라 知의 上中下이므로 生知 學知 困知의 三知 중 學知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102 語上 : 生知者가 이해할 수 있는 叢智를 말한다.

103 [명설] 中人 以下를 공자는 下愚라 하였는데『陽貨』편 (17)(3)절에서 “上智와 下愚는 不移”라 한 말과 中人以下不可以駱上”과는 표리를 이루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4 務 : 진력을 다 한다.

105 義 : 善을 위하여 惡을 버리는 일.

106 鬼神 : 天神 人鬼의 略稱. 天神은 國祖神이오 人鬼는 祖上神이다.

107 難 : 고생스러운 일.

108 獲 :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

109 [명설] 鬼神이란 결코 雜神을 의미하지 않는다. 잡신이라면 敬鬼神하라 했을 리가 없다. “遠之”하도록 한 것은 “務民之義”해야 하는 人間世事가 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공자의 仁思想이 그 뒤를 따르는 所以가 있다.

선생 “지혜 있는 이는 물을 즐기고, 사람다운 이는 산을 즐긴다. 지혜 있는 이는 서성거리고, 사람다운 이는 고요하다. 지혜 있는 이는 경쾌하고, 사람다운 이는 장수한다.”

子曰 知者樂水¹¹⁰ 仁者樂¹¹¹ 山¹¹²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¹¹³

선생 “제나라가 한 번 변하면 노나라만큼 되고, 노나라가 한 번 변하면 질서가 설 것이다.”

子曰 齊¹¹⁴ 一變 至於魯¹¹⁵ 魯一變 至於道¹¹⁶

선생 “술잔이 술잔답지 않으면 술잔일까! 술잔일까!”

子曰 觚¹¹⁷ 不觚 觚哉 觚哉¹¹⁸

재아가 묻기를 “사람 구실 하는 사람은 ‘함정 속에 사람이 빠졌습니다’하면은 뛰어들니까?” 선생 “왜 그렇기야 할라구! 참된 사람은 가보기는 하겠지만 풍덩 빠지

110 水 : 술술 막힘 없이 흐른다.

111 樂 : 樂山樂水에서 樂의 음은 요.

112 山 : 묵직한 자세로 만물을 자라게 해 준다.

113 壽 : 久. 오래다.

[평설] 어딜 가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으니 知者は 움직이면서 즐겁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니 仁者は 고요히 오래 간다. 여기서 山水라 함은 실제적인 의미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더 짙다. 그러므로 壽도 老少를 의미하는 壽가 아니라 恒久不息을 의미하는 것은 그 까닭이다.

114 齊 : 周初 姜太公의 封地.

115 魯 : 周初 功臣인 周公의 封地.

116 道 : 先王의 道로서 理想國家의 目標.

[평설] 공자 당시에 齊 魯는 이미 쇠퇴과정에 있었으나 그래도 魯에는 周制의 기초가 남아 있으므로 理想國家의 실현이 가능함을 술화한 것이다.

117 觚 : 술잔.

118 [평설] 술잔이 술잔답자면 八모진 잔이어야 한다. 八모진 잔이 아니라면 술잔이 아닐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람답자면 孝 悌 忠 信의 德을 갖추어야 한다. 孝 悌 忠 信의 德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는 앓을 거다. 돌리는 수도 있지만 속아 떨어지지 않는지.”

宰我問曰 仁者雖告之曰 井有¹¹⁹ 仁¹²⁰ 焉 其從之也 子曰 何爲其然也 君子可逝¹²¹ 也 不可陷¹²² 也 可欺¹²³ 也 不可罔¹²⁴ 也¹²⁵

선생 “참된 인물은 널리 글공부를 하며, 예법으로 몸단속을 할 것이니, 그러므로 엇나가는 일이 좀처럼 없을 것이 아니냐!”

子曰 君子博¹²⁶ 學於文¹²⁷ 約¹²⁸ 之以禮 亦可以弗畔¹²⁹ 矣夫¹³⁰

선생이 남자 부인을 만난즉 자료가 언짢아했다. 선생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만나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거야. 하늘이 나를 버릴 거야.”

119 井: 우물, 함정.

120 仁: 人.

121 逝: 해를 멀리 피하여 가버린다.

122 陷: 이해를 따지다가 빠져버린다.

123 欺: 이치로 따지면 속아넘어간다.

124 罔: 명칭하여 속임수에 걸린다.

125 [명설] 君子는 자기의 利害나 名譽 때문에 몸을 망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는다. 오직 事理에 맞도록 행동할 따름이다.

126 博: 넓다. 넓힌다.

127 文: 先王이 남기신 글.

128 約: 묶는다. 좁힌다.

129 畔: 위배된다.

130 [명설] 이것저것 널리 배우다가 흔히 先王의 도에 위배될까봐 禮로써 단속하려는 것이다.

[참조] 「顔淵篇」(12)(15)절에 또 나온다.

子見南子¹³¹ 子路不說¹³² 夫子矢¹³³ 之曰 予所否¹³⁴ 者 天厭之 天厭之¹³⁵

선생 “중용의 올바른 실천이란 지극한 것인가 보다! 사람들은 오래 오래 실천하지 못하거든.”

子曰 中庸¹³⁶ 之爲德也 其至¹³⁷ 矣乎 民鮮¹³⁸ 久矣¹³⁹

자공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제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 “어찌 사람 구실만 한다고 할까! 그야 성인(聖人)이지! 요순 같은 분들도 그 일로 애를 태웠다. 대체로 사람 구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우고, 제 앞을 트고 싶으면 남의 앞길을 터 준다. 제 앞장부터 잘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 구실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게다.”

131 南子夫人: 衛나라 靈公의 총애를 받던 夫人인데 유명한 淫女다. 宋朝와 密通하였다. 太子 蒯聵가 그의 어미의 淫奔을 부끄럽게 여겨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宋나라로 도망하였다. 靈公이 죽자 南子は 公子 郢을 세우려고 하나 郢이 固辭하므로 공자는 聵를 불러 그의 뒤를 잇도록 南子夫人에게 권하러 했던 것이다.

132 說: 悅.

133 矢: 誓.

134 否: 不見.

135 [참조] 종래 否를 “잘못”으로 풀이했으나 다산은 “만나지 않음”이라 하였다. 子路는 “만나는 것”을 언짢아했고 공자는 “만나는 것”을 骨肉의 情이나 社稷의 利益을 위해서나 바랍직하다는 점에서 크게 견해 차이를 나타냈던 것이다.

136 中庸: 알맞음과 꾸준함.

137 至: 지극하다.

138 鮮: 小.

139 [평설] 『中庸』에 나온다. 中庸은 일상생활을 이끌고 가는 길이지만 백성들은 오래도록 변함없이 이 길을 걷는 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실로 인간의 善行爲—中庸—는 오래도록 변함없는 데에서 그 값이 결정될 것이다.

子貢曰 如有博施於民 而能濟衆 何如 可謂仁¹⁴⁰ 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¹⁴¹ 乎 堯¹⁴²
舜¹⁴³ 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¹⁴⁴ 而立人 己欲達¹⁴⁵ 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¹⁴⁶
也已¹⁴⁷

140 仁 : 남에게 주는 사랑.

141 聖 : 그의 인격이 하늘과 맞먹는 사랑.

142 堯 : 성은 이기(伊祁), 이름은 방훈(放勳), 제곡(帝嚳)의 아들. 上古 五帝의 한 분. 처음 도(陶)에서 살고 도읍을 당(唐)으로 옮기니 陶唐氏이라고도 한다.

143 舜 : 요의 뒤를 이은 임금. 성은 유우(有虞)氏, 이름은 중화(重華). 두 분 다 上古의 聖天子.

144 立 : 벼슬자리에 앉다. 쫓다.

145 達 : 막히지 않는다.

146 方 : 방법.

147 [명실] 백성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골고루 빠짐 없이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人物이라면 그야말로 최고의 聖人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孔子敎에서의 聖人이란 결코 神格이 아니요, 오직 한 사람의 人格 속에서 찾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7 편

述而
율기기만 했지



올재 후원하러 가기

7편 | 述而 옮기기만 했지

선생 “옮기기만 했지 창작하지는 않았고, 옛 것을 그대로 믿고 좋아함은 은근히 우리 노팽님에게나 비교해 볼까 한다.”

子曰 述¹ 而不作² 信³ 而好古 竊比於我老彭⁴

선생 “잠잠히 마음 속에 새기고,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일은 나도 하기 힘든 일이야!”

子曰 默⁵ 而識⁶ 之 學⁷ 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⁸ 哉⁹

선생 “인격도 닦지 못하고 학문도 부실하며 옳은 일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고, 흠집을 고치지도 못하니, 그게 내 걱정이야.”

1 述: 남의 것대로 전한다.

2 作: 제가 새로 만든다.

3 信: 옛 先王의 道를 믿는다.

4 老彭:殷나라 때의 어진 大夫.

[명설] 공자의 尙古主義의 입장이 뚜렷하다. 그러나 그의 尙古主義는 復古主義와는 구별되어져야 할는지 모른다. 공자의 尙古주의는 周禮의 先王之道의 現實의 再現에 있었기 때문이다.

5 默: 간직하고 내놓지 않는다.

6 識: 기억한다.

7 學: 典籍의 考徵.

8 何有於我: 종래 “어렵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등으로 풀이하였는데 다산은 “謂不足有無”라 하였으니 “있느니 없느니 할 것도 없다”는 뜻으로서 “겨우 겨저 할 수 있을 정도다”고 하였다.

9 [명설] 흔히 이 구절은 學不厭而教不倦(『孟子』)으로 요약되는데 默識의 경지는 教學 이전의 상태로 간주한 듯하다. “이는 坐禪의 경지와는 구별되며 一善을 얻으면 拳拳服膺하는 태도를 가리킨 자라 해야 할 것이다.”(다산說)

子曰 德¹⁰之不修¹¹ 學¹²之不講¹³ 聞義不能徙¹⁴ 不善不能改 是吾憂也¹⁵

선생이 집에 계실 때에는 고분고분하시고, 부드러우셨다.

子之燕居¹⁶ 申申如也¹⁷ 夭夭如也¹⁸

선생 “나는 정말 늙어 버렸나 보다! 오래도록 나는 주공을 다시는 꿈에 보지 못하니…….”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¹⁹

선생 “진리에 뜻을 두고, 공은 마음을 간직하고, 사람답도록 애쓰며, 예술을 즐겨야 하느니라.”

10 德: 공은 마음.

11 修: 다시 다듬는다.

12 學: 堯舜의 道.

13 講: 다시 밝힌다.

14 徙: 옳은 길로 옮긴다.

15 [명설] 마음이나 행동이나 버려두면 안 된다. 항상 다듬고 밝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에 孔子學의 眞面目이 있다 할 것이다.

16 燕居: 편히 쉬다.

17 申申如: 말이 자상스럽다.

18 夭夭如: 안색이 활짝 피어 있다.

[명설]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家庭人이 되어야 한다. 父母 妻子와 더불어 和樂한 태도가 바람직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19 周公: 이름은 旦. 文王의 아들이요, 武王의 아우요, 魯나라의 始祖다. 成王을 攝政하여 周나라 文章制度의 創設者가 되었다.

[명설] 공자의 尊周思想은 사실상 周公에 대한 心醉에서 비롯한다. 공자의 道의 淵源은 堯舜에서 비롯하지만 現實의 根源은 周公의 制度—周禮—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道를 堯舜周公의 道라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子曰 志²⁰ 於道 據²¹ 於德 依²² 於仁 游²³ 於藝²⁴

선생 “마른 고기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왔을망정 나는 제자로 삼아 주지 않는 일이 없었다.”

子曰 自行束脩²⁵ 以上 吾未嘗無誨焉²⁶

선생 “달려들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않았고, 애태우지 않으면 튕겨 주지 않았고, 한 귀를 보여 줄 때 셋까지 깨닫지 못하면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다.”

子曰 不憤²⁷ 不啓²⁸ 不悱²⁹ 不發³⁰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³¹

선생은 상제(喪制)의 곁에서 식사할 적에는 배부르도록 먹지 않았다.

子食於有喪者³² 之側 未嘗飽也³³

20 志: 마음의 방향.

21 據: 움직일 수 없는 근거.

22 依: 옷이 몸에 맞도록 가까이 의지한다.

23 游: 고기가 물에서 놀듯 해엄치다.

24 藝: 禮·樂·射·御·書·數.

[명설] 진리에 뜻을 두되 그것은 人格 형성의 근원이 된다. 윤리적 세계 안에서 人間修業에 힘쓴다. 그러므로 한 人間은 道—德—仁—禮의 종합적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5 束脩: 열 묶음의 육포. 박한 禮物.

26 [명설] 아주 작은 禮物일망정 스승에게 드리는 예물인만큼 修業料의 성격을 띤다. 모름지기 수업료는 스승에 대한 예물이 아닐 수 없다.

27 憤: 마음 속의 분노.

28 啓: 막힘을 터준다.

29 悱: 마음 속의 분노.

30 發: 덮개를 벗겨준다.

31 [명설] 이는 공자의 啓發主義 教育法이다. 스스로 막히고 덮여진 자신을 자각하고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야 한다. 게다가 하나에서 둘 셋까지 깨닫는 자가 아니면 깨우쳐 주지 않는 것은 被敎育자의 자세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보여준 자라 해야 할 것이다.

32 有喪者: 아직 장례 전의 상주.

33 [명설] 상제와 똑같은 심정이라면 어찌 많이 먹을 수 있겠는가.

선생이 곡을 한 그 날은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子於是日哭³⁴ 則不歌³⁵

선생이 안연더러 말하기를 “씨 주면 일할 것이요, 버리면 잠자코 있을 것이니 그야 나나 너는 그럴 수 있겠지!” 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삼군을 거느리신다면 누구를 데리고 하시겠습니까?” 선생 “맨주먹으로 범을 두들기고 배 없이 강물을 건너려 들며, 죽어도 좋다고 날뛰는 사람과는 나는 함께 일할 수가 없다. 하기에 일을 당하면 실패할까 저허하며, 일이 성사되도록 잘 꾸며내는 사람이여야지.”

子謂顏淵曰 用³⁶ 之則行³⁷ 舍³⁸ 之則藏³⁹ 惟我與爾 有是夫 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⁴⁰
子曰 暴⁴¹ 虎馮⁴² 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⁴³

선생 “돈벌이를 해야만 하는 것이면 나는 마부 같은 벼슬이라도 하겠지만, 할 수 없을 바에야 나 하고 싶은 대로나 해 보겠다.”

34 哭 : 弔哭.

35 歌 : 시를 외우며 길게 뽑는다.

[명설] 哀樂 간에 상제의 곁에서는 삼가야 한다. 이는 평상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36 用 : 任用.

37 行 : 行道.

38 舍 : 登用하지 않는다.

39 藏 : 자신을 숨긴다.

40 與 : 함께 한다.

41 暴 : 범을 맨손으로 친다.

42 馮 : 배 없이 물을 건넌다.

43 [명설] 씨주면 제 구실을 다할 줄 알아야 하고 버리더라도 祿을 구하려고 치근대지 않아야 제법 사람답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앞뒤를 가릴 줄 모르는 용기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말을 조심하며 성과를 거두는 슬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子曰 富⁴⁴ 而可求⁴⁵ 也 雖執鞭之士⁴⁶ 吾亦爲之 如不可求⁴⁷ 從吾所好⁴⁸

선생이 조심하시는 것은 재계(齋戒)와 전쟁과 질병이다.

子之所慎 齊⁴⁹ 戰疾⁵⁰

선생이 제나라에서 ‘韶의 곡’을 듣는 석 달 동안 고기 맛조차 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즐거움에 취하고 말았다.”

子在齊 聞韶⁵¹ 三月 不知肉味 曰 不圖⁵² 爲樂之至於斯也⁵³

염유 “선생님이 위나라 주군을 위하여 일해 주실까?” 자공 “글쎄, 내가 가서 여쭙어 보지.” 안으로 들어가서 “백이 숙제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생 “옛날 잘난 사람이지.” “불평객이었나요?” “사람 구실을 하려다가 사람 값을 하게 되었는데 불평은 무슨 불평!”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은 안 하실 거야.”

44 富: 옛날에 富에는 貴가 따랐으므로 貴를 통한 富.

45 可求: 求함직한 治世.

46 執鞭之士: 賤職.

47 不可求: 亂世.

48 [명설] 공자는 治世에는 벼슬살되 亂世에는 물러서는 것으로 行世하였다. 그러므로 治世에는 비록 賤職이라도 맡음직하지만 亂世에는 비록 高官의 職分이라도 이를 避하고 獨善獨行의 길을 걷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亂世에 있어서의 無分別한 富貴에의 耽溺을 경계해서인 것이다.

49 齊: 齋와 같다. 제사에 앞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50 [명설] 공자는 무조건 平和主義 또는 反戰論者는 아니다. 戰爭은 언제나 殺戮과 消耗가 따르므로 義戰이 아니면 이를 삼가야 하며 疾病 또한 버려두지 않고 제사나 전쟁처럼 세심한 주의에 따르는 그의 조심성을 엿볼 수 있다.

51 韶: 舜의 樂.

52 不圖: 不意.

53 [명설] 공자가 韶樂을 즐긴 것은 韶樂의 盡善 盡美한 데에도 있겠지만 공자가 스스로 음악에 대한 깊은 素養과 理解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자가 항상 禮와 더불어 樂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冉有曰 夫子爲衛君⁵⁴ 乎 子貢曰 諾 吾將問之 入曰 伯夷叔齊 何人也 曰 古之賢人也 曰 怨乎 曰 求仁而得仁 又何怨 出曰 夫子不爲也

선생 “나물죽을 먹고 찬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웠을망정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당찬은 재물이나 지위는 나 보기는 뜬구름 같애...”

子曰 飯⁵⁵ 蔬食 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⁵⁶

선생 “몇 해를 더하여 신에라도 易學 공부하게 되면 큰 허물은 없게 되련만!”

子曰 加⁵⁷ 我數年 五十以學易⁵⁸ 可以無大過矣⁵⁹

선생이 늘 이야기하던 것은 시와 역사와 예법이었으니, 이것이 모두 늘 이야기하던 것들이다.

54 衛君. 出公. 輒. 衛靈公이 죽은 후 손자 첩(輒)이 즉위하여 그의 父 형괘(蒯聵. 南子夫人의 아들로 그의 母의 淫奔을 탄하여 죽이려다가 宋나라로 쫓겨가 있던 자)의 入國을 거절하니, 이는 父子相怨의 경우로서, 백이 숙제의 父子兄弟相讓과는 相反되는 사실이므로 이 예를 들어 공자의 마음을 타진해 본 것이다. 冉有와 子貢이 스승 공자가 행여나 정치적 과오를 범하지나 않을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師弟의 情誼가 엿보인다. 그 스승의 밑에 그 弟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5 飯: 제기를 채우다.

56 浮雲: 보이는 하지만 쓸모가 없다.

[명심] 伯夷 叔齊처럼 부귀를 헌신짝 같이 버리는 행위는 가난과 고초 속에서도 不義에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라. 공자의 이런 경지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57 加: 假.

58 易: 順受天命의 道.

[참조] 五十을卒로 易을 亦으로 보는 一說도 있다.

59 [명심] 易理란 易學 이전에 이미 東洋의 賢哲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易理에 대한 이해는 韋編三絶한다는 易學의 입장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子所雅言 詩 書 執禮⁶⁰ 皆雅⁶¹ 言也⁶²

섭공이 자로더러 공 선생의 일을 물은즉, 자로는 대꾸하지 않았다. 선생 “너는 왜 ‘그 사람된 품이 한 번 열이 나면 끼니도 잊고, 즐거움에 취하여 걱정도 잊고, 늙는 줄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葉公⁶³ 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⁶⁴ 子曰 女 奚不曰 其爲人也 發憤⁶⁵ 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⁶⁶

선생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을 즐겨 각듯이 배운 사람이지.”
子曰 我非生而知之⁶⁷ 者 好古 敏⁶⁸ 以求之⁶⁹ 者也⁷⁰

선생은 기괴한 것, 폭력, 반란, 귀신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60 執禮: 때 따라 집행되는 儀禮.

61 雅: 常.

62 [명설] 공자의 平常時의 말이 詩 書 禮에 한정된 것이라면 공자의 人間教育도 詩 書 禮의 테두리를 벗지 못함을 알 수 있다. 詩情과 歷史意識과 社會規範은 언제나 人間形成의 기본 요소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63 葉公: 楚나라 左司馬였던 沈尹戌의 아들. 성은 沈, 이름은 諸梁, 자는 子高. 楚나라 葉지방이 食邑이었으므로 葉公이라 한다.

64 不對: 몰랐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65 發憤: 意慾의 분투.

66 [명설] 공자의 自畫像 같은 글귀다. 끼니의 밥도 잊고, 시름도 가실 정도의 즐거움이라면 진실로 人生至樂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67 生而知之: 나면서부터 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覺]과 같은 것이다.

68 敏: 速.

69 求之: 求知

70 [명설] 공자는 生得者가 아니요, 求道者임을 강조한다. 그나마도 그는 尙古主義者요 敏捷한 노력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生而知之란 결코 聖人의 요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凡夫 속에서 誠實한 聖人像을 찾아내야 할지 모른다.

子不語怪⁷¹ 力⁷² 亂⁷³ 神⁷⁴

선생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내 스승은 꼭 그 중에 있다. 좋은 점은 골라 그 뒤를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은 이를 고치게 되니.”

子曰 三人行⁷⁵ 必有我師⁷⁶ 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⁷⁷

선생 “하늘이 내게 곧은 인격을 마련해 주셨는데 환퇴인들 제가 나를 어떻게 할 터인고!”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⁷⁸ 其如予何⁷⁹

선생 “너희들은 내가 숨겨 놓는 것이나 있는 줄 아느냐? 내게 숨겨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은 일은 없다. 그것이 바로 나다.”

71 怪: 괴상하다.

72 力: 육체적 힘

73 亂: 臣弑君 子弑父의 類.

74 神: 鬼神으로서 非人間的인 것.

[명설]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人間教化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공자의 雅言인 詩 書 禮와는 相反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75 三人行: 同行者가 적다.

76 師: 꼭 道學의 스승만이 아니라 百工技藝 따위를 배워도 다 내 스승이다.

77 [명설] 同行 중에는 더러 착한 자가 있으므로 그를 따르게 되려니와 못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는 치더라도 내 잘못을 고치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명설] 三人 중에서 한 사람은 善人이요, 다른 한 사람은 혹 惡人일 수는 없지 않을까. (중래의 二人 중 一善一惡說의 否定)

78 桓魋: 宋의 司馬(軍事官) 성은 向, 이름은 魋, 桓公의 자손이므로 桓魋라기도 함. 魯 定公十五年(前496)에 공자를 죽이려고 한 일이다.

79 [명설] 공자는 하늘이 자기에게 준 倫理的 使命—德—을 깊이 확신하고 있다. 흔히 많은 先覺者들이 가졌던 태도와 비슷하다. 이러한 그의 使命感은 不死鳥와 같은 信念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子曰 二三⁸⁰者 以我爲隱乎 吾無隱乎爾 吾無行⁸¹ 而不與二三子者 是丘⁸² 也⁸³

선생이 가르친 것은 네 가지다. 학문과 행동과 충심과 신의.

子以四教 文⁸⁴ 行⁸⁵ 忠⁸⁶ 信⁸⁷

선생 “성인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참된 인간을 만나기만 해도 좋지.”

子曰 聖⁸⁸ 人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⁸⁹ 者 斯可矣⁹⁰

선생 “착한 사람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꾸준한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좋지. 없어도 있는 체, 텅 비있어도 알 찬 체, 가진 것도 없이 넉넉한 체하면 꾸준하기가 어려운 거야!”

80 二三^者: 여러 제자들.

81 行^躬行.

82 丘: 공자의 이름.

83 [명설] 공자는 實踐躬行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은 적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감추어 놓은 것이나 없나 의심했지만 실천궁행보다도 더 뚜렷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글보다도 行을 중요시한 孔子敎의 一面이 엿보인다.

84 文: 先王이 남긴 글.

85 行: 德行.

86 忠: 숨김없는 자기 마음.

87 信: 남을 속이지 않는 말.

[명설] 先王이 남긴 글이란 詩 書 禮 등이요, 德行은 孝 弟 慈 등이라 할 수 있다. 흔히 文에 易 春秋 樂 등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공자시절에는 그다지 중요한 古典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88 聖: 크게 敎化의 능력을 지닌 자.

89 君子: 文質이 彬彬한 자.

90 [명설] 聖者는 사실상 人間의 最高 表象이니만큼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君子란 文質이 兼備하여야 治人의 자리에 앉을직하기 때문에 공자는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君子의 道를 터득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러므로 “斯可矣”는 君子의 선에서 만족하는 공자의 心情인 것이다.

子曰 善人⁹¹ 吾不得而見之矣 得見有恒者⁹² 斯可矣 亡而爲有 虛而爲盈 約⁹³ 而爲泰⁹⁴ 難乎有恒矣⁹⁵

선생은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안 했고, 주살을 쏘되 잡든 새는 잡지 않았다.
子 釣而不網 弋不射宿⁹⁶

선생 “대체 아는 것도 없이 꾸며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것저 것 주워 듣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그를 따른다. 이것저것 보는 대로 따르는 것도 지식의 일부가 된다.”

子曰 蓋有不知而作⁹⁷ 之者 我無是也 多聞 擇其善者而從之 多見而識⁹⁸ 之 知之次也⁹⁹

호향은 구두쇠만 사는 곳이다. 그 곳 아이가 눈에 뜨이자, 제자들이 어리둥절한다.

91 善人: 善德을 지닌 자. 그러나 아직 文質彬彬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자.

92 有恒者: 善行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 그러나 善人의 칭호를 받기에는 未洽한 자.

93 約: 약속하다.

94 泰: 충실하다.

95 [명설] 되어버린 善人보다도 꾸준한 노력이 더욱 대견한 인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없어도 있는 체 하는 따위의 인간이란 구체적인 길이 없는 꺼풀 인간이 아닐 수 없다.

96 宿: 어둔 밤중에 잡자는 새.

[명설] 낚시는 하나씩 추려서 잡는 것이요, 그물은 曳引綱이 그의 좋은 예로서 굵거나 훑어서 잡는 것이니 씨앗조차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잡자는 새를 잡는 것은 어둠을 타 속여서 잡는 것이니 피할 길도 없으려니와 곁에 있던 새들조차도 놀래 도망칠 겨를도 없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일들은 禽獸에게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사람 社會에 있어서라.

97 作: 著作, 創作.

98 識: 기록한다.

99 先王—君子—의 道도 모르면서 글을 창작하는 행위는 時代精神을 沒覺한 저술로서 人類社會에 해독만을 끼치는 것이 된다. 刪定 擇善 하는 編著(공자의 詩書저집)라거나 序文 解說 따위의 기록은 先覺의인 創作만은 못하더라도 그 다음은 될 것이다. 이러한 原理는 오늘의 知識人들에게도 올바른 指針이 아닐 수 없다.

선생 “나아오면 만나 주고, 물러가면 할 수 없지! 왜 그렇게 야단들이냐?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나오면, 그 깨끗한 점을 알아주어야지, 지난 일을 껴 짓은 없는 거다.”

互鄉¹⁰⁰ 難與言 童子見 門人惑 子曰 與其進也 不與其退也 唯何甚¹⁰¹ 人潔己以進與¹⁰² 其潔也 不保¹⁰³ 其往¹⁰⁴ 也¹⁰⁵

선생 “사람 구실하는 길이 먼 데 있을까! 내가 사람 구실하고자 하면 사람 노릇하는 길이 바로 나타나 준다.”

子曰 仁 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¹⁰⁶

진나라 법무장관이 묻기를 “소공은 예법을 알던 분인가요?” 공 선생 “예법을 알았습니다.” 공 선생이 물러간 후 무마기에게 인사를 드리고, 맞아들여 말하기를 “참된 인물은 편들지 않는다는데, 참된 인물도 편을 드는지! 공이 같은 성바지의 오나라에서 취처(娶妻)하여 부인이 오맹자라 했으니, 공이 예법을 안다면 예법 모를 사람이 어디 있담!” 무마기가 그대로 여쭙죽, 선생 “나는 복이 있다. 실로 잘못이 있으면 남들이 꼭 알게 해주니!”

陳司敗¹⁰⁷ 問 昭公¹⁰⁸ 知禮乎 孔子曰 知禮 孔子退 搢巫馬期¹⁰⁹ 而進之曰 吾聞君子不

100 互鄉: 고을 이름. 지금 河南省 鹿邑縣 밖에 있다. 이 곳 사람들은 성질이 좋지 않았다.

101 唯何甚:惡을 미워하되 어찌 그리 심하게 한담.

102 與: 허락한다.

103 保: 保守

104 其往: 전날의 惡行.

105 [명설] 전날의 잘못은 不問에 붙이고 오늘의 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好善과 맞먹는 惡惡의 용기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106 [명설] 사람 구실—仁—이란 내가 하는 것이요, 내게서 비롯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나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107 陳司敗: 司敗는 官名 人名의 두 說이 있는데 官名의 說을 취한다. 진나라 大夫.

108 昭公: 이름은 裊. 襄公의 庶子.

109 巫馬期: 성은 巫馬 이름은 施, 자는 子期. 공자의 제자.

黨 君子亦黨乎 君取¹¹⁰ 於吳 爲同姓 謂之吳孟子¹¹¹ 君而知禮 孰不知禮 巫馬期 以告。
子曰 丘也幸 苟有過 人必知之¹¹²

선생은 남의 노래가 좋을 때는 꼭 되풀이하게 한 후 따라서 불렀다.
子與人歌¹¹³ 而善 必使反¹¹⁴ 之 而後和之¹¹⁵

선생 “학문쯤이야 나도 왜 남만 못 할까마는 참된 사람 노릇을 함에 있어서는, 나
는 아직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子曰 文 莫¹¹⁶ 吾猶¹¹⁷ 人也 躬行君子¹¹⁸ 則吾未之有得¹¹⁹

선생 “성인이니 사람 구실이니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거저 배우기를 싫어 않고
깨우쳐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나 해 둘 정도지!” 공서화 “그나마도 저희들은
본받을 수 없습니다.”
子曰 若聖與仁 則吾豈敢 抑爲之¹²⁰ 不厭 誨人¹²¹ 不倦 則可謂云爾已矣¹²² 公西華曰

110 取:娶

111 吳孟子:노나라 昭公의 夫人. 吳姓은 姬이므로 吳姬라 해야 할 것인데 吳孟子라 함은 당시 同姓不婚의 禮를 犯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진나라 법무장관이 밝힌 것이다.

112 [명설] 이처럼 선뜻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공자다운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3 歌: 긴 곡조에 붙여 詩를 외운다.

114 反:반복한다.

115 [명설] 반복하는 태도는 다시 더 다듬기 위한 것이다. 時調의 율조림도 그의 한 遺風인가!

116 莫:豈不.

117 猶:같다.

118 躬行君子:君자의 道의 실천

119 得:成果.

[명설] 文學의 知識쯤이야 남만 못할 것 없지만 道의 실천은 실로 공자 자신도 항상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120 爲之:學. 장자 成聖 成仁하려는 學.

121 誨人:敎.

122 云爾已矣:모두 語辭.

正唯弟子不能學也¹²³

선생의 병이 깊어지자 자로가 빌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선생 “그런 것이 있을 까?”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비는 글에 ‘너를 천지神明께 비노라’ 하였습니다.” 선생 “나도 그런 기도를 드린지는 오래다.”

子疾病¹²⁴ 子路請禱 子曰 有諸¹²⁵ 子路對曰 有之 誅¹²⁶ 曰 禱爾于上下神祇¹²⁷ 子曰 丘之禱久矣¹²⁸

선생 “사치스러우면 불손하고, 검박하면 딱딱하다. 불손한 것보다는 딱딱한 것이 낫다.”

子曰 奢則不孫¹²⁹ 儉則固¹³⁰ 與其不孫也 寧固¹³¹

선생 “참된 인물은 사람이 서근서근하고, 되짚은 것들은 언제나 찌뿌드드하다.”

123 [명설] 學不厭而教不倦이야말로 孔孟學의 要諦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조] 述而, (7)편(2)절을 보라.

124 病: 疾이 더 심한 것.

125 有諸: 禮에 있는가.

126 誅: 기도하는 글.

127 神祇: 天神 地祇.

128 [명설] 子路의 기도는 巫敎의 기도요, 공자의 기도는 宗教의 기도다. 여기서 공자의 天命 앞에서의 信仰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129 孫: 順.

130 固: 陋.

131 [명설] 공자사상은 禮文을 숭상하기 때문에 사치에 흐르기가 쉽다. 그러나 공자는 언제나 사치보다는 검소하기를 요구하였으니 여기에 공자 禮文主義의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子曰 君子坦蕩蕩¹³² 小人長戚戚¹³³

선생은 부드럽지만 싸늘하고, 두려우나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차분하다.”

子溫而厲¹³⁴ 威而不猛¹³⁵ 恭¹³⁶ 而安¹³⁷

132 蕩蕩 : 너그럽고 도량이 넓은 모습,

133 戚戚 : 걱정이 태산 같은 모습.

[명설] 君子는 항상 순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和平하지만 小人은 항상 利害 得失에 쫓기기 때문에 걱정이 가실 날이 없는 것이다. 君子 小人의 구별을 義와 利로 따지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34 厲 : 엄숙하다. 엄격하다.

135 猛 : 매서웁다. 사납다.

136 恭 : 공손하다.

137 [명설] 공자 時中의 일면이다. 溫柔가 지나치면 엄격하지 못할 것이요, 威風을 세우다가 지나치게 매서운 태도로 나오기가 쉽고 공손이 지나치면 不安한 상태가 되기 쉬운 것이다. 時中이란 곧 하나의 弱點을 補完하는 태도인지도 모른다.

8 편

泰伯
태백님

 [올제 후원하러 가기](#)

8편 | 泰伯 태백님

선생 “태백님은 실로 지극히 곧은 마음씨를 가진 분이였다. 천하를 세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백성들은 칭송할 길조차 없었다.”

子曰 泰伯¹ 其可謂至德² 也已矣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³

선생 “공손하되 예절을 모르면 지치고, 조심하되 예절을 모르면 얼떨떨하고, 용감하되 예절을 모르면 거칠고, 깨끗하되 예절을 모르면 통명스럽다. 지위 있는 이들이 가까운 친족들께 후정을 베풀면 백성들도 본받아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 예전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도 본받아 경박한 짓을 앓을 것이다.”

子曰 恭而無禮則勞⁴ 愼而無禮則蕙⁵ 勇而無禮則亂⁶ 直而無禮則絞⁷ 君子篤於親 則民興於仁 故舊⁸ 不遺⁹ 則民不偷¹⁰

증선생이 병석에 누워서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떠들고 내 발을 보아라. 떠들고 내 손을 보아라. 옛 시에 ‘부들부들 조심조심, 깊은 늪가를 지나듯, 얇은 얼음장

1 泰伯：周나라 太王의 큰 아들, 泰伯은 삼형제인데 太(泰)伯, 虞仲, 季歷이다. 太王이 季歷의 아들 昌에게 緒統을 물려주라 하자, 太伯과 虞仲은 南方으로 피하여 吳나라를 세우고 先祖가 되었다.

2 至德：이름조차도 남김이 없으니 지극한 德이 아닐 수 없다.

3 [명설] 태백은 끝내 天下(周天下)를 아우에게 사양하였으나 隱微한 마음가짐의 행동이라 흔적인들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극한 德은 자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勞：不安한 모습.

5 蕙：和平하지 못한 모습.

6 亂：문란하다.

7 絞：줄린 목처럼 다급하다.

8 故舊：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신하.

9 遺：버리다. 잊다.

10 [명설] 恭 愼 勇 直 등의 德이라 하더라도 禮로써 그의 지나친 점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禮란 人格形成의 潤滑油요, 社會秩序 유지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禮의 作用을 강조하고 있다.

을 밝듯'이라 하였는데 이제야 겨우 면한 줄을 알겠다. 애들아!”

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¹¹ 子足 啓子手 詩云¹²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¹³ 夫 小子¹⁴

증선생이 병석에 눕자 맹경자가 문병을 왔다. 증선생은 말하기를 “새도 죽을 때는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도 죽을 때는 그 말이 옹습니다. 위사람 노릇하는 데 중요한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집을 간추릴 때는 무뚝뚝한 데가 없어야 하며, 열굴빛이 발라야 믿음직스러울 것이요, 말숨씨는 지꺼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쯤이야 말아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曾子有疾 孟敬子¹⁵ 問¹⁶ 之 曾子言曰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 斯遠暴¹⁷ 慢¹⁸ 矣 正顏色 斯近信矣 出辭¹⁹ 氣²⁰ 斯遠鄙²¹ 倍²² 矣 籩豆²³ 之事 則有司²⁴ 存²⁵

11 啓: 열다.

12 詩云: 『詩經』「小旻」篇.

13 吾知免: 죄인의 刑戮을 면하다. 옛날에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刑罰이 있었기 때문이다.

14 [명설] 증자는 본시 효자로서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평생을 두고 상할까 조심하였는데, 손상 없이 죽게 됨을 못내 기뻐하고 있다. 이러한 孝心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孝라 함직한 것이다.

15 孟敬子: 仲孫氏의 후예. 魯나라 대부. 이름은 捷, 자는 儀, 시호는 敬子라 한다. 孟武伯의 아들.

16 問: 問病.

17 暴: 급하게 서둔다.

18 慢: 게으르다.

19 辭: 말

20 氣: 말소리와 숨결.

21 鄙: 賤俗. 陋醜

22 倍: 俏. 悖.

23 籩豆: 祭器.

24 有司: 담당자.

25 [명설] 曾子가 죽음에 임한 태도는 극히 담담하다. 그의 遺言은 슬픔도 아니요, 당부도 아니다. 오로지 格言을 남김으로써 君子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증선생 “재능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이에게 묻고, 많이 알면서도 별로 아는 것 없는 이에게 묻고, 있어도 없는 듯, 알이 있어도 텅 빈 듯, 덤벼도 엉클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전에 내 친구 중에 있었지.”

曾子曰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²⁶ 昔者吾友²⁷ 嘗從事於斯矣²⁸

증선생 “어린 임금을 맡길만도 하고 한 나라의 정치를 위임함 직도 하며, 큰 일을 당하더라도 까딱하지 않는다면, 쓸모있는 인간일까? 쓸모있는 인간이지!”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²⁹ 之命 臨大節³⁰ 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³¹

증선생 “선비는 군센 대목이 있어야 한다.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지, 사람 구실을 제 책임으로 여겨야 하니 무겁지 않을까! 죽어야만 끝이 나니 멀지 않은가!”

曾子曰 士³² 不可以不弘³³ 毅³⁴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³⁵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³⁶

26 校: 갇는다.

27 吾友: 顔淵을 가리킨 듯.

28 [명설] 여기서 知己之友라는 참뜻이 그대로 나타난 듯하다. 曾子가 顔淵의 사람됨을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君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29 百里: 제후의 나라.

30 大節: 나라에 험난한 일이 생긴 시절, 마치 대의 마디처럼 한 時點이 그어진다.

31 [명설] 세 가지 임무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어린 임금을 맡아서 국정을 요리하며 제후국과 같은 큰 나라의 국정을 처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더욱이 國難 시절에도 信念을 굽히지 않는 人物이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曾子가 목표로 한 君子像인지도 모른다.

32 士: 君자의 道를 業으로 삼는 자.

33 弘: 포용력이 크다.

34 毅: 뚝뚝한 힘.

35 任: 집.

36 [명설] 士는 士君子란 말이 있듯이 君자의 다른 칭호다. 곧 仁을 그의 기본 임무로 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로 한 人間이란 사람노릇—仁—하는 책임보다도 더 무거운 임무는 없을 것이요, 그것도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는 점에서 더욱 切實하다. 曾子는 언제나 공자학의 核心을 찌르고 있다.

선생 “시로 정서를 일깨우고, 예로 행동을 바로잡고,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하라.”

子曰 興於詩³⁷ 立於禮³⁸ 成於樂³⁹

선생 “백성이란 질로 따르게 할망정 깨우치도록 하기는 힘들다.”

子曰 民⁴⁰ 可使由⁴¹ 之 不可使知⁴² 之⁴³

선생 “뚝뚝한 주제꼴에 가난뱅이가 싫으면 난리를 꾸민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지나치게 미워해도 난리를 꾸민다.”

子曰 好勇疾貧⁴⁴ 亂也 人而不仁 疾⁴⁵ 之已⁴⁶ 甚 亂也⁴⁷

선생 “주공 같은 재주가 있다손 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다른 점은 더 보잘 것도 없단 말이야!”

37 詩: 思無邪—善心—의 眞情을 일깨운다.

38 禮: 形式的 拘束을 加하며 倫理的 行動을 規制한다.

39 樂: 情緒를 和平하게 만든다.

[명설] 興於詩는 거짓 없는 참된 경지이니 眞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立於禮는 倫理的 規範이니 善이 깃들어 있다고 하겠다. 成於樂은 調和의 極致이니 美가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소위 眞 善 美를 詩 禮 樂을 통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40 民: 農 工 商人들.

41 由: 由先王之道.

42 知: 先王의 道를 알게 한다.

43 [명설] 흔히 이 장을 愚民政策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그것은 “不可”를 “안 된다”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不可”를 “할 수 없다”로 한다면 그 뜻이 달라질 것이다. 곧 백성들은 先王의 道의 깊은 뜻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거저 따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44 貧: 賤과도 통한다. 官職 없는 貧賤.

45 疾: 嫉. 미워한다.

46 已: 너무, 지나치게.

47 [명설] 가난 속에서도 자기 본분에 만족해야 하고 남의 잘못도 지나치게 미워하면 反動—亂—이 일어날것이다. 어쨌든 자기 본분에 만족해야 하고 지나치게 남을 나무라는 태도도 삼가야 한다. 賁善도 지나치면 情이 성그러지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子曰 如有周公⁴⁸之才之美 使驕⁴⁹ 且吝⁵⁰ 其餘 不足觀也已⁵¹

선생 “삼 년 공부에 벼슬 뜻이 없는 사람은 손쉽게 찾아내기 어렵다.”

子曰 三年學 不至於穀⁵² 不易得也⁵³

선생 “굳은 신념으로 학문을 좋아하며, 죽기로써 도를 닦되, 찌우둥거리는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도 살지 말아야 한다. 정치 질서가 섰을 때는 나서야 하고, 질서가 깨지면 숨어야 하는데, 질서가 섰을 때 굶주리고 천한 것도 수치요, 질서 없을 때 영화를 누림도 부끄러운 일이다.”

子曰 篤⁵⁴ 信好學 守死善⁵⁵ 道 危邦不入 亂⁵⁶ 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邦有道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⁵⁷

선생 “제 일도 아닌데 일 참견해서는 안 된다.”

48 周公: 周나라 문왕의 아들. 이름은 묘.

49 驕: 잘난 체 한다.

50 吝: 남 돕기를 싫어한다.

51 [명설] 한 사람이 교만하면 동료들이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이 인식하면 대중이 멀리 한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됨이 그러하다면 쓸모 없는 위인이 아닐 수 없다.

52 穀: 祿.

53 [명설] 배움이란 어딘가 쓰여지기 위한 것이 아님이 아니나 三年 정도에서 곧장 祿—仕宦 또는 社會進出—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친 躁急이 아닐 수 없다. 꾸준히 學業에 精進하면서 好機를 기다리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54 篤: 아주 굳게

55 善: 닦는다.

56 亂: 통치가 안 된다.

57 [명설] 篤信 善道는 君子의 信念이요, 生活태도다. 危邦不入 亂邦不居는 不義 不條理와 妥協하지 않으려는 姿勢 때문인 것이다. 羈縻이自在한 것은 君子의 時中이 아닐 수 없으며, 邦國의 有道無道간에 富貴 貧賤을 가릴 줄 모른다면 슬기롭다 [知]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설] 君子의 道는 어느 一點에 執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左顧右盼하는 機會主義는 아니다. 맹자의 말처럼 오직 配義與道할 따름인 것이다.

子曰 不在其位⁵⁸ 不謀其政⁵⁹

선생 “악사장 지가 읊던 첫 곡 ‘징경이’의 끝장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구나!”

子曰 師摯⁶⁰ 之始⁶¹ 關雎之亂⁶² 洋洋乎盈耳哉⁶³

선생 “납신거리되 솔직하지 못하고, 무식하되 착실하지 못하고, 멍하면서 미덥지 못한 사람은 난들 어찌할 수 없거든.”

子曰 狂⁶⁴ 而不直 侗⁶⁵ 而不愿⁶⁶ 慳慳⁶⁷ 而不信 吾不知之矣⁶⁸

선생 “공부란 아직도 먼 양 하되 놓칠까봐 걱정도 되거든.”

子曰 學如不及 猶恐失之⁶⁹

58 位 : 벼슬자리. 其位는 자기가 앉아 있는 그 벼슬자리.

59 [명설]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 대신다운 정책을 논하고 도지사의 지위에 있으면 도지사다운 정책을 논하되 아무런 지위도 없으면 정책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식 차별을 통한 言路만을 허용하는 공자의 입장은 “자기의 처지”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신중성 때문이라.

[명설] 天子가 아니면 禮樂을 만들 수 없다(『中庸』)는 사상이 형성되었으니 마치 議政壇上에서 비로소 國政이 論議되어야 한다는 사상과도 一脈相通하는 것이 아닐까.

60 摯 : 魯나라 樂師長.

61 始 : 처음 시작하다.

62 亂 : 끝 장.

63 [명설] 공자의 음악감상의 술회로서 어찌면 詩經을 편술한 후 이를 樂曲에 올려 늘 감상했던 것이나 아닌가 여겨진다. 공자의 禮와 樂에 대한 깊은 이해와 거기에 心醉한 정도를 짐작하기에 넉넉하다.

64 狂 : 함부로 한다.

65 侗 : 무지한 모습.

66 愿 : 근엄하다.

67 慳慳 : 무능한 모습.

68 [명설] 어느 한 군테도 쓸모 없는 인간은 누구나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됨이란 모든 것이 제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69 [명설] 學이란 본시 내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주막에 도착해야 할 길손이 해 전에 도착하지 못할까 걱정하듯 해야 하며, 눈앞에 있는 보화덩이를 행여나 잃게 될까 걱정하듯 해야 한다.

선생 “순·우는 덩실하게 천하를 차지했으나 아랑곳없는 양 하셨다.”

子曰 巍巍⁷⁰ 乎 舜禹⁷¹ 之有天下也 而不與⁷² 焉⁷³

선생 “위대하지! 요의 임금 노릇은! 덩실한 양은 하늘만이 그처럼 크시므로 요는 오직 그를 본받았을 따름이요, 넓고도 아득한 모습에 백성들은 이름붙일 길조차 몰랐다. 덩실하지! 그가 마련한 일터는! 뚜렷하지! 그가 마련한 문화는!”

子曰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 唯天爲大 唯堯則⁷⁴ 之 蕩蕩乎 民無能名⁷⁵ 焉 巍巍乎 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⁷⁶

순에게는 신하 다섯 사람이 있어 천하를 다스렸다. 무왕은 말하기를 “내게는 숨 쉴 있는 신하 열 사람이 있었다.” 선생 “인재를 얻기 어렵다더니 그렇지 않은가요? 순 시절보다 이 때가 많기는 하지만 부인이 끼었으니 아홉 사람 뿐이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두 간을 차지했건만 은나라를 섬겼으니, 주나라의 바른 모습은 지금 하다고 할 수밖에!”

70 巍巍: 높고도 큰 것.

71 禹: 夏나라 시조, 순임금의 뒤를 이었다. 이름은 文命. 帝顓頊의 손자요, 鯀의 아들이다.

72 與: 干與한다.

73 [명설] 천하를 차지하고도 내사 아랑곳없다는 태도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노릇이다. 남은 그를 천자로 우러러보지만 나아 천하가 어찌 내 것이냐는 듯한 淡淡한 태도 속에 舜禹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74 則: 본받다.

75 名: 이름지어 말하다.

76 文章: 禮樂, 典章法度

[명설] 古代 象徵의 聖王으로서의 堯는 그의 德은 이미 하늘에 견주어 完全無缺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위대성은 말로는 이루 다 形容할 수 없지만 그의 行蹟 속에서 찬연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行蹟에 力點을 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孟子』의 引用文(『勝文公 上』)에서는 舜으로 되어 있다.

舜有臣五人⁷⁷ 而天下治 武王⁷⁸ 曰 子有亂臣十人⁷⁹ 孔子曰 才難⁸⁰ 不其然乎 唐虞之際 於斯⁸¹ 爲盛 有婦人焉 九人而已 三分天下有其二 以服事殷 周之德 其可謂至德也已矣⁸²

선생 “우에게서 나는 흠집을 찾아낼 수가 없다. 자신의 음식은 검소하지만 귀신께의 제사는 지극하고, 자신의 의복은 허술하지만 예복차림은 극진히 하였고, 살림집은 움막이었지만 논밭두렁 고르기에 힘을 쏟았으니, 우에게서 나는 흠집을 찾아 낼 수가 없다.”

子曰 禹 吾無間⁸³ 然矣 菲⁸⁴ 飲食 而致孝乎鬼神⁸⁵ 惡衣服 而致美乎黻⁸⁶ 冕⁸⁷ 卑宮室⁸⁸

77 五人：禹后·稷·契·皋陶·伯益.

78 武王：周나라 第一代 王. 이름은 發, 文王의 아들.

79 十人：周公旦·召公奭·太公望·畢公·榮公·太顛·閔天·散宜生·南宮适 呂姜인데 呂姜은 武王의 부인이니 여자가 낀 셈이다.

80 才難：人材難得.

81 於斯：武王시절.

82 [명설] 唐堯虞舜시절에서 武王에 이르기까지의 賢臣이란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것처럼人材란 얻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周나라가 天下를 享有하기에 이른 것은 賢才가 많았기도 하지만 天下의 三分의 二를 차지하고도 殷나라를 섬긴 그의 至德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자교의 德化主義의 極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3 間：틈. 사이가 벌어지다.

84 菲：박하다.

85 鬼神：조상의 神.

86 黻：가죽으로 무릎을 가리우는 祭服.

87 冕：禮冠.

88 宮室：집. 宮闕의 宮이 아니다.

而盡力乎溝洫⁸⁹ 禹 吾無間然矣⁹⁰

89 溝洫: 도랑.

90 [명설] 禹는 舜의 뒤를 이어 사사로운 食生活은 검소하지만 그 대신 부모의 제사는 극진히 모시었고 사사로운 衣服은 보잘 것 없었지만 禮服은 美의 極致에 이르렀고, 제 집은 몇 칸 안 되는 곳이었지만 灌溉水路를 트기 위하여 온 精誠을 쏟았으니 흠 잡을 데가 없는 왕이다. [명설]흔히 孔子는 堯 舜만을 떠받든 양 하지만 禹王에 대하여도 깊은 讚辭를 아끼지 않았음을 여기서 본다.

[명설] 孔子學派에서는 禹王의 儉素를 취하여 節葬非樂에까지 이르렀지만 孔子는 그의 私生活의 儉素를 취했을 뿐이요, 禮樂에 이르러서는 禹王에게서 또한 美의 極致를 본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禹王의 時中이기도 하다.

9 편

子罕
선생은 좀처럼



올재 후원하러 가기

9편 | 子罕 선생은 좀처럼

선생은 좀처럼, 잊속이니, 천명이니, 사람 구실이 어떠하니 말하지 않았다.
 子罕¹ 言利² 與命³ 與仁⁴

달향 고을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위대하시지. 공 선생은! 하도 아는 것이 많으시니, 특별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선생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해 볼까? 말달리기냐? 활쏘기냐? 말달리거나 해 보지.”

達巷⁵ 黨⁶ 人曰 大哉孔子 博學而無所成名 子聞之 謂門弟子曰 吾何執 執御⁷ 乎 執射乎 吾執御矣⁸

선생 “삼으로 짠 제관이 구식인데, 요즈음은 순 실이라 검소하니 나도 남 하는 대

1 罕 : 희. 드물다.

2 利 : 義와 對. 利民 利國. 功利主義.

3 命 : 天命.

4 [참조] 「公治長」편 (5)(12)절을 보라.

[참조] 자주 利를 말하면 義를 상하게 되고, 자주 命을 말하면 하늘을 함부로 다루게 되고 자주 仁을 말하면 실천 躬行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 司馬牛가 仁을 물으니 “하기 어려운 까닭에 말은 더듬게 된다”는 것이 곧 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다산)

[명설] 공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의 논리적 定義같은 것은 그다지 대견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對症投藥의 臨機應答으로 보다 더 實質의인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모든 仁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공자의 그러한 眞面目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5 達巷 : 고을 이름.

6 黨 : 500戶의 마을.

7 執御 : 六藝의 射御 중에서도 御의 말달리기는 射의 활쏘기보다도 낫다.

8 [명설] 공자 당시에 君子不器의 공자학의 眞髓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자의 博學을 비웃으며 한 가지도 뚜렷한 점을 갖지 못했다는 비평을 듣고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공자는 諧謔的인 示唆을 던진 것이다. “말달리거나 이름을 날려 볼까”라는 말은 거꾸로 이름을 날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말달리기 같은 하찮은 것도 할 수 있지만 君子學이란 어찌 그런 것일까라는 의미가 짙게 풍기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로 따르겠다. 뜰 아래서 예를 드리는 것이 구식인데 요즈음은 위에서 드리니 지나친 짓이라 남들과는 틀리더라도 나는 아래서 드리겠다.”

子曰 麻冕⁹ 禮也 今也純¹⁰ 儉 吾從衆 拜下禮也 今拜乎上 泰¹¹ 也 雖違衆 吾從下¹²

선생이 단연코 하지 않던 일은 네 가지다. 멋대로 생각하지 않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집부리지도 않고, 내 앞장만 세우지도 않았다.

子絕四¹³ 毋意¹⁴ 毋必¹⁵ 毋固 毋我¹⁶

선생이 광 지방에서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말하기를 “문왕은 돌아가셨지만 문화는 여기 있지 않느냐?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자 들면 뒷사람인들 어찌할 수 없지만 하늘이 아직 이 문화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광사람들인들 나를 어떻게 할까 보냐?”

9 冕: 제사 때 쓰는 관. 옛날에는 삼 30升으로 짰다.

10 純: 실.

11 泰: 교만하다.

12 [명심] 禮의 본질이 時俗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공자의 해답이다. 禮란 形式的인 면에서 文彩로서의 奢侈性向이 있다. 그것이 大衆의 儉素性向과 相衡될 때는 禮의 本質에 損傷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大衆의 性向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禮의 形式이 그 本質에서 멀리 벗어나는 때에는 아무리 大衆이 이를 따르더라도 禮의 本質로 되돌아와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13 毋: 無.

14 意: 억측한다.

15 必: 期必한다.

16 我: 己欲.

[명심] 時中思想은 한 가지 면만을 고집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꼭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억지를 부리는 태도도 待天命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毋字가 지닌 否定的의 자세야말로 克己의 否定的태도와도 相通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子畏¹⁷ 於匡¹⁸ 曰文王¹⁹ 既沒 文²⁰ 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子何²¹

태재 벼슬아치가 자공더러 묻기를 “선생은 성인인가! 어쩌면 그렇게도 잔재주가 많으신지. 자공 “본시 하늘이 내신 성인인데다가 또 재주까지 많으시지.” 선생이 이 말을 듣고 “태재가 나를 알까? 나는 어려서 미천했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많이 했지. 참된 인간도 잔재주가 많을까? 많지 않을거다.”

大宰²² 問於子貢曰 夫子聖者與 何其多能也 子貢曰 固²³ 天縱²⁴ 之將²⁵ 聖 又多能也 子聞之曰 大宰知我乎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君子多乎哉 不多也²⁶

노 “선생님은 ‘나는 벼슬을 못 살았기에 잔재주가 많게 됐어’ 라 하셨다.”

17 畏: 두려운 일을 만나다.

18 匡: 鄭나라 地名.

19 文王: 주나라를 세운 古公亶父의 손자, 이름은 昌. 西伯에 封함.

20 文: 文王이 남긴 易의 象象(上同).

21 [명설] 陽虎가 匡 지방에서 난폭한 짓을 했는데, 공자의 인상이 양호와 비슷해서 士兵들이 공자를 양호인 줄 알고 五日간 포위한 일이 있다.

[명설] 공자의 使命感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文王의 文化的 後繼者로서의 사명감이다. 실로 굳센 사명감은 論證을 초월한다. 오직 不死鳥와 같은 신념만이 있을 따름이다.

22 太宰: 벼슬 이름.

23 固: 본래.

24 縱: 퍼놓다.

25 將: 거의.

26 [명설] 사실상 聖者は 多才多能한 자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이어야 할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공자는 多能하였으니 그것은 成長過程에서의 自然 習得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학에서는 異端—農 工 商—이 君子學에 害를 끼친다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牢²⁷ 曰 子云 吾不試²⁸ 故藝²⁹

선생 “내게 지식이 있단 말인가? 지식은 없다. 그러나 하찮은 사람이 내게 시시한 것을 묻더라도 나는 전후를 살피 극진히 일러주지.”

子曰 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³⁰ 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兩端³¹ 而竭焉³²

선생 “봉황새도 안 나오고, 강에서는 용마(龍馬)의 그림도 안 비치니 나도 인제 그만인가 보다.”

子曰 鳳鳥³³ 不至 河不出圖³⁴ 吾已矣夫³⁵

선생은 상복을 입은 이나 예복을 입은 이나 그리고 소경은 만나면, 예로 맞고, 어리지만 일어서고, 앞을 지날 때는 빠르게 걸었다.”

27 牢: 琴牢 또는 琴張. 자는 子開, 공자의 제자.

28 試: 채용되다.

29 藝: 多才多能

[명설] 牢 자신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름자를 쓴 것이다.

[참조] 翼 章과 합쳐서 붙박한 글이다.([集註]) 그러나 뜻은 같으나 말한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띄어 놓는다.(古註)

[명설] 벼슬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貧賤과 직결이 된다. 그러므로 공자 같은 聖者도 貧賤을 극복하기 위한 藝能에 불가불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素貧賤行乎貧賤”([中庸])하는 時中の 精神에 투철한 자의 成果가 아닐 수 없다.

30 鄙夫: 고루하여 깊은 맛이 없는 사람.

31 兩端: 일의 本末.

32 [명설] 공자 자신이 無知하다고 고백한 것은 謙辭임이 분명하다. 하찮은 사나이의 하찮은 질문이라도 자신이 모르는 것은 典籍을 상고하여 극진히 대답해 주는 겸허한 그 점이 마치 無知한 양 자신을 돌이켜 본다. 이 점이 바로 知者로서의 공자의 자세인 것이다.

33 鳳鳥: 봉황새. 吉祥의 상징적 靈鳥. 舜帝와 文王 때 나왔다는 설이 있다.

34 河圖: 八卦. 伏羲氏 때 黃河에서 龍馬가 八卦圖文을 등에 지고 나왔다는 설이 있다.

35 [명설] 공자 만년에 聖王이 나오지 않음을 自歎한 말이다. 聖世의 到來를 간절히 希求하는 공자의 心懷를 엿볼 수 있다.

子見齊衰³⁶者 冕衣裳³⁷者 與瞽者 見之³⁸ 雖少必作³⁹ 過之必趨⁴⁰

안연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우리러빌 젼 더욱 더 높고, 뚫어보자면 더욱 더 굳고, 바라보면 앞에 있다가 어느덧 뒤에 계신다. 선생님은 차근차근 사람을 잘도 깨우쳐 주신다. 글공부로 내 눈을 넓혀 주시고, 예법으로 자신을 단속하게 하시니, 그만두자 해도 그만둘 수 없으나, 내 재주는 바닥을 본 듯하다. 서 계신 듯하나 우뚝하여 따르고 싶으나 어쩔 수가 없구나.”

顏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⁴¹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卓⁴² 爾 雖欲從之 末由⁴³ 也已⁴⁴

선생이 병석에 누웠을 때 자로가 제자들로 신하처럼 꾸미려고 하였다. 병이 웬만하자 이 사실을 알고 말하기를 “진작부터였던가. 유가 속임수를 쓴 것은! 신하도 없으면서 신하를 만들다니, 내가 누구를 속일까! 하늘을 속인단 말이나? 나야 거짓 신하들의 손에서 죽는 것보다는 몇 사람 제자들의 손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기가 훌륭한 장례는 못 지낼마정 길가에서 죽기가 할라구!”

36 齊衰: 음은 자취. 喪服.

37 冕衣裳: 禮服. 官服.

38 見之: 만나본다.

39 作: 일어난다.

40 趨: 충충걸음을 걷는다.

[명심] 喪制나 官人이나 盲人이나 다 平常人이 아니다. 이러한 非平常人에 대한 平常人으로서의 공자는 항상 敬畏의 表情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變容이 곧 禮容이 되는 것이다.

[참조] 『鄉黨』편 (10)(31)절을 보라.

41 文: 經書.

42 卓: 높은 모양.

43 末由: 가까운 지름길이 없다.

44 [명심] 공자와 顏淵과의 관계는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感이 깊다. 공자는 顏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顏淵 또한 스승 공자의 위대한 모습을 이처럼 잘 알고 있음을 본다. 실로 공자는 顏淵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萬人的 앞에서도 위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子疾病⁴⁵ 子路使門人爲臣 病間曰 久矣哉 由之行詐也 無臣而爲有臣 吾誰欺 欺天乎
且子與其死於臣之手也 無寧死於二三子之手乎 且子縱⁴⁶ 不得大葬 子死於道路乎⁴⁷

자공 “아름다운 구슬이 여기 있다면 께 속에 감추어 둘까요? 좋은 장사치를 찾아
서 팔까요?” 선생 “팔고말고! 팔고말고! 나는 장사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⁴⁸ 匱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⁴⁹

선생이 되놈 땅에서 살고 싶어한즉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더러운 걸 어떻게 하
십니까?” 선생 “참된 인간이 산다면이야 더러운 게 어디 있담!”
子欲居九夷⁵⁰ 或曰 陋⁵¹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⁵²

선생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에 음악도 바르게 되고, 아악도 제대
로 터가 잡혔다.”

45 病: 疾이 심한 자.

46 縱: 설령.

47 [명설] 공자는 僭禮 또는 過禮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위에서도 누누히 보아왔다.

[명설] 欺天乎의 天은 上帝天임이 분명하다. 모름지기 공자의 天에 대한 內省의 信仰의 篤實함을 엿볼 수
있다.

48 韞: 다룬 가죽으로 싸둔다.

49 [명설] 공자가 좀처럼 벼슬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고 子貢은 이처럼 說問한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禮를
갖추지 않으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마치 좋은 장사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玉 같은 재주라도
팔려고 나서면 賤해지기 때문이다.

50 九夷: 東夷에 九종이 있다.

51 陋: 비루하고 좁다.

52 [명설] 東夷란 漢滿地帶로서 朝鮮의 故地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공자가 어찌하여 이곳에서
살고 싶은지는 알 길이 없으나 易에 明夷句가 있는 것으로 보아 文明이 트인 곳이 아니었던가 싶다.
或이 陋라 한 것은 野蠻의 누추함이 아니라 “좁다”는 뜻이 아닐까!

子曰 吾自衛反魯⁵³ 然後樂正 雅⁵⁴ 頌⁵⁵ 各得其所⁵⁶

선생 “밖에서는 높은 벼슬아치들을 섬기고 안에서는 부형들을 섬기며, 상사 때는 정성을 다하며, 술에 지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子曰 出則事公卿⁵⁷ 入則事父兄⁵⁸ 喪事不敢不勉 不爲酒困 何有於我哉⁵⁹

선생이 물가에 서서 말하기를 “가버리는 것은 저와 같겠지! 밤낮을 쉬지 않고.”
子在川上曰 逝者⁶⁰ 如斯⁶¹ 夫 不舍⁶² 晝夜⁶³

선생 “나는 아직 계집 좋아하듯 곧은 마음씨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53 自衛反魯：魯 哀公 11년 겨울. 공자 68세 때

54 雅：宮廷歌樂 105편.

55 頌：宗廟樂歌 40편.

56 各得其所：각각 그의 차례가 정리되다.

[명설] 孔子的 詩歌에 대한 관심 및 그의 정리 시기를 알 수 있다. 시 305편의 刪定 시기도 이 때일 것이다.

57 公卿：君大夫.

58 父兄：宗族의 尊者.

59 [명설] 술에 지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은 공자는 唯酒無量不及亂『鄉黨』과도 서로 통하는 말이다.
何有於我哉는 역시 공자의 謙辭로 알아야 할 것이다.

60 逝者：人生.

61 斯：川.

62 舍：멈춘다.

63 [명설] 강물은 쉼이 없이 흐르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人生도 流水처럼 흘러갈 뿐 다시 돌이킬 줄 모르지 않는가. 공자도 이에 감흥이 없지 않았으니 人生의 덧없음을 느낀 점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子曰 吾未見 好德⁶⁴ 如好色⁶⁵ 者也⁶⁶

선생 “비켜 말하면 산을 쌓다가 끝장 가선 한 삼태기 흙으로 성공을 못할망정 내가 그만 두는 것이요, 평지에 한 삼태기 흙을 쏟기 시작하는 것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다.”

子曰 譬如爲山⁶⁷ 未成一簣 止 吾⁶⁸ 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⁶⁹

선생 “일러주는 대로 즐기게 나가는 사람은 아마 회일거야!”

子曰 語之而不惰⁷⁰ 者 其回⁷¹ 也與⁷²

선생은 안연을 평하여 말하기를 “정말이지 아깝구나! 나는 그가 진보하는 것만을 보았지 그가 그만두는 것은 못 보았거든.”

子謂顏淵曰 惜乎⁷³ 吾見其進也 未見其止也⁷⁴

64 好德：道心.

65 好色：人心.

66 [명설] 당시의 人情 世態가 感覺的 浮華風潮에 젖어 있었으므로 道德的 規範의 崇仰을 강조한 것이다. 子夏의 賢賢易色(學而)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일 것이다.

[참조] 『衛靈公』편 (15)(13)절을 보라.

67 爲山：흙으로 짐짓 산을 쌓는다.

68 吾：산을 쌓으려는자.

69 [명설] 進德 修業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공자학의 自主性 自律性 主體性이 있음을 본다.

70 惰：怠, 게으르다.

71 回：顏淵.

72 [명설] 안연의 誠實性이 었보인다. 선생님의 말을 일른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곧장 실천으로 옮기는 顏淵임을 알 수 있다. 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中庸』)하는 顏淵이기 때문이다.

73 惜乎：아깝다. 顏淵이 早死했기 때문이다.

74 [명설] 顏淵의 進德은 그칠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한 顏淵의 夭折을 哀惜하게 여김은 스승 공자만에 한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선생 “옴은 자라지만 꽃 피지 않는 수도 있고, 꽃은 피어도 열매를 못 맺는 수가 있지!”

子曰 苗⁷⁵ 而不秀⁷⁶ 者 有矣夫 秀而不實⁷⁷ 者 有矣夫⁷⁸

선생 “젊은 사람이 무서워! 어찌 앞일이 현재만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마흔이니 원이니 되어도 별것 없는 사람은 그것은 벌써 두려울 것도 없달 밖에……”

子曰 後生⁷⁹ 可畏⁸⁰ 焉 知來者之不如今⁸¹ 也 四五十而無聞⁸² 焉 斯亦不足畏也已⁸³

선생 “따지고 들어가는 말이야 안따를 수 있을까! 고쳐야만 귀엽지. 부드러운 말 씨를 안 좋아할 수 있을까! 보람이 있는 게 귀엽지. 좋아하면서도 보람이 없고 따르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난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子曰 法語⁸⁴ 之言 能無從乎 改之⁸⁵ 爲貴 巽與⁸⁶ 之言 能無說乎 繹之⁸⁷ 爲貴 說而不繹

75 苗: 싹.

76 秀: 꽃.

77 實: 열매.

78 [명설] 한 가지 目的을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것이다. 그것은 싹이 열매를 맺는 途程이 또한 비바람 치는 긴 시절을 겪어 하는 것과도 비슷할는지 모른다. 그것의 中間 落伍를 공자는 항상 아쉬워하고 있다.

79 後生: 先生의 對, 나보다 어린 사람.

80 可畏: 學業을 쌓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81 今: 공자 당시.

82 無聞: 명예로운 소문이 들리지 않는다.

83 [명설] 어린 사람이 두렵다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노력하는 어린 사람”만이 두려운 것이다. 허염없이 긴 歲月을 보낸 자는 늙어갈 무렵이 되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노력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84 法語: 법대로 꾸짖는 말.

85 改之: 허물을 고친다.

86 巽與: 서로 돕는 부드러운 말.

87 繹之: 그의 공이 계속된다.

從而不改 吾末如之何也已矣⁸⁸

선생 “충실과 신의를 으뜸 삼고, 나만 못한 이와는 벗하지 말라. 허물은 선뜻 고쳐야 하느니라.”

子曰 主忠信 毋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⁸⁹

선생 “삼군의 장군쯤 뺏어 올 수 있지만, 한 사내의 결심은 뺏지를 못하는 법이야.”

子曰 三軍⁹⁰ 可奪帥⁹¹ 也 匹夫⁹² 不可奪志也⁹³

선생 “누더기 삼베옷을 걸치고, 수달피 털옷을 입은 이와 나란히 서서 아무렇지도 않은 양 여기는 사람은 유일 거다. 탐내지도 않고 가지려고도 않으니 왜 좋지 않은가!” 자로가 언제고 이 말을 되풀이한즉, 선생은 말하기를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완전하기야 할까!”

子曰 衣敝緼袍 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 其由⁹⁴ 也與 不伎⁹⁵ 不求⁹⁶ 何用不臧 子路終

88 [명설] 허물을 고치거나 성과를 거두거나 다 나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남이야 어쩔 수가 없지 않는가. 역시 自我意識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89 [참조] 『學而』편 (1)(8)절을 보라. 거듭 나온다.

90 軍: 12,500人. 天子는 六軍 諸候는 三軍이다.

91 帥: 장수.

92 匹夫: 一夫.

93 [명설] 필부란 하찮은 사나이이지만 그의 人格의 尊嚴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한 사람의 自由意思是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한 인간의 自由를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匹夫의 생각—思想—의 不可奪—自由—는 곧 人間의 自由로 통하기 때문이다.

94 由: 子路.

95 伎: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한다.

96 不求: 『詩經』衛風·雄雉篇의 一句. 求: 내게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身⁹⁷ 誦之 子曰 是道也 何足以臧⁹⁸

선생 “날씨가 추워져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드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다.”

子曰 歲寒⁹⁹ 然後 知松柏之後彫¹⁰⁰ 也¹⁰¹

선생 “슬기로운 이는 어리둥절하지 않는다. 사람 구실 하는 이는 근심하지 않는다. 장기가 있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子曰 知者不惑¹⁰² 仁者不憂¹⁰³ 勇者不懼¹⁰⁴

선생 “함께 배울망정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없고, 같은 길을 걸을망정 같은 목표를 세웠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목표를 세웠을망정 똑같이 틀에 맞도록 될 수는 없다.”

97 終身: 항상.

98 [명설] 부귀란 누구나 탐내는 것이지만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얻으려고도 않는다면 어찌 착한 行實(행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君子의 道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 善行(선행)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99 歲寒: 겨울에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어 낙엽질 때.

100 彫: 시들어 떨어진다.

101 [명설]平時에는 잘 모르지만 苦難時節(고난시절)에야 비로소 君子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에도 시들 줄 모르는 靑松은 君子의 貞節(정절)에 비유하는 것이다.

102 不惑: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103 不憂: 항상 하늘의 뜻을 즐기 때문이다.

104 不懼: 정의와 맞먹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명설] 知·仁·勇 세 가지는 『中庸』에 나타나 있다. 知는 知天命(지천명)이요, 仁은 行仁(행인)이요, 勇은 庸으로서의 恒久不息(영구불식)이다. 勇德과 庸德을 지닌 知天 行仁의 人間을 君子라 이른다.

[참조] 『衛靈公』편 (14/30)절을 보라.

子曰 可與共學¹⁰⁵ 未可與適道¹⁰⁶ 可與適道 未可與立¹⁰⁷ 可與立 未可與權¹⁰⁸

육리화 꽃잎이 짹짹 뒤집힐 제, 어이 임 생각 없으랴! 계신 곳 멀기도 하여라.
선생 “생각이 모자라는 게지. 어찌 멀다 할 수 있을까.”
唐棣之華¹⁰⁹ 偏其反而 豈不爾思 室是遠而 子曰 未之思也 夫何遠之有¹¹⁰

105 學：修業.

106 道：率性，循天命.

107 立：植身不動.

108 權：저울이 중을 얻다.(다산)

[명설] 學·道·立·權의 次序는 곧 學行의 도정이랄 수 있다. 學은 受教로부터 비롯하여 順受 天命의 길을 닦으며 立志하게 된다. 그로써 中權의 行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中權이야말로 中庸之道 君子之道의 極致가 아니겠는가.

109 唐棣之華：逸詩句.

[명설] 兄弟 妻子 간의 反目을 뜻한 듯.

110 [참조] 생각이 깊으면 千里도 뜰 앞 같고, 情이 성글면 한 방에서도 山河를 隔한 것 같다. 그러므로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지 어찌 멀다 하랴” 한 것이다(다산).

10 편

鄉黨
사는 마을에서는

 [올제 후원하러 가기](#)

10편 | 鄉黨 사는 마을에서는

공 선생은 사는 마을에서는 잠잠하여 말도 잘 못하는 듯. 그러나 종묘나 조정에 서는 똑똑하게 말하되 오직 조심할 따름이었다.

孔子於鄉黨¹ 恂恂² 如也 似不能言者 其在宗廟³ 朝廷 便便⁴ 言 唯謹爾⁵

조정에서 하대부와 이야기할 때는 부들부들하게, 상대부와 이야기할 때는 조리게 하였다. 주군의 앞에서는 몸 가꾸기 어려운 양 하며, 의젓하기도 하였다.

朝⁶ 與下大夫言 侃侃⁷ 如也 與上大夫言 誾誾⁸ 如也 君在⁹ 蹻蹻¹⁰ 如也 與與¹¹ 如也¹²

주군이 불러 사신을 접대하라 하면 얼굴빛을 고쳐 갖고, 발목도 구부린 듯하였다. 나란히 선 이와 읊(揖)을 칠 적에는 손을 좌우로 움직였고, 옷깃은 앞뒤를 가리런히 하고, 잦은걸음을 칠 때는 날개를 편 듯하였다. 손님이 물러간 뒤에는 반드시 복명하기를 “손님들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잘 가더이다.” 하였다.

1 鄉黨: 王城의 左右 三鄉 중 따로 500家を 黨이라 한다.

2 恂恂: 온화하며 공손하다.

3 宗廟: 朝廷과 아울러 정치를 논하는 곳.

4 便便: 말로 마진다.

5 [명설] 마을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平民의인 공자도 公席 上에서는 辯論이 至公至平하다. 마치 아주 다른 사람 같은 印象을 풍긴다. 이도 또한 공자 時中의 일면이기도 한 것이다.

6 朝: 朝廷

7 侃侃: 화락한 모습.

8 誾誾: 中正한 모습.

9 君在: 君王이 朝會를 받고 있다.

10 蹻蹻: 공경하는 태도에 편안치 않는 모습이 깃들어 있다.

11 與與: 근신하면서 여유 있는 태도.

12 [명설] 同級인 下大夫와의 對話는 和氣靄靄하지만 上位級인 上大夫와의 對話는 公正한 태도로 임하였고 君王의 앞에서는 더욱 몸 둘 바를 모르면서도 태연하였다. 공자의 對話는 官位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이찌면 공자 개인의 個性은 완전히 숨겨져 버린 셈이 된다. 이러한 等差의 변화는 아마도 禮의 속성인지도 모른다. 모름지기 禮는 和爲貴이기 때문인 것이다.

君召使擯¹³ 色勃¹⁴ 如也 足躩¹⁵ 如也 揖所與立 左右手 衣前後 檐¹⁶ 如也 趨進¹⁷ 翼如也 賓退 必復命曰 賓不顧矣¹⁸

공칭의 문으로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굽혀 마치 용납되지 못하는 듯. 문 북판에는 서지도 않고, 문턱은 밟지 않았다. 주군의 앞을 지날 때는 얼굴빛을 고쳐 갖고, 발목은 구부린 듯, 말씨도 부족한 듯, 옷자락을 걷어잡고 당상에 올라와서는 허리를 굽히고, 숨조차 죽여 소리 없이 내뿜고, 한 계단 내려와서는 얼굴빛도 한결 편 듯. 층계를 내려서서는 잦은걸음에 날개를 편 듯 다시 제 자리로 오면 몸 가꾸기 어려운 양하였다.

入公門 鞠¹⁹ 躬如也 如不容 立不中門²⁰ 行不履闕²¹ 過位 色勃如也 足躩如也 其言似不足者 攝齊升堂 鞠躬如也 屏²² 氣似不息者 出降一等²³ 遲²⁴ 顏色 怡怡如也 沒²⁵ 階 趨(進) 翼如也 復其位 蹶蹐如也²⁶

13 擯: 손님을 접대한다.

14 勃: 얼굴빛을 고쳐갖다.

15 躩: 어정거리듯 구부리고 걷다.

16 檐: 가지런하다.

17 趨進: 충충걸음으로 나아가다.

18 [명심] 앞서는 말씨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는 모두 태도에 관한 것들이다. 얼굴빛, 손가짐, 그 걸음걸이 등 모든 행동거지가 禮에 알맞아야 한다. 실로 군자의 태도란 조금이라도 허튼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19 鞠: 굽혀 오무룬다.

20 中門: 문 중앙.

21 闕: 문지방.

22 屏: 거둔다.

23 等: 층계의 계단.

24 遲: 푼다.

25 沒:盡.

26 [명심] 앞서는 개개인의 행동을 규제한 것인데 이는 주위환경에 따른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中門 升堂 沒階 등이 그것이다.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알아야 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왕의 구슬을 질 때는 허리를 굽혀 감당을 못하는 듯, 위로는 읊을 치듯 아래로는 주는 듯. 얼굴빛이 변하되 두려운 듯. 발걸음도 사뿐사뿐 바로 그 뒤를 따르는 듯. 축하의 예식 때는 얼굴빛을 제대로 가누고, 사사로이 만나 뵈는 때는 유쾌하게 하였다.

執圭²⁷ 鞠躬如也 如不勝 上如揖 下如授 勃如戰色²⁸ 足跼蹐²⁹ 如有循 享禮 有容色³⁰ 私覲 愉愉³¹ 如也³²

참된 그 분은 보라빛과 밤색 깃은 달지 않고 평소에도 올곧글곧하게 입지 않는다. 한더위에 가는 베나 굵은 베의 흠웃을 겉으로 입는다.

君子³³ 不以紺緹飾 紅紫不以爲褻服³⁴ 當暑袗絺綌 必表而出之³⁵

검은 옷에는 흰 염소 가죽이요, 흰 옷에는 새끼사슴 가죽이요, 누런 옷에는 여우 가죽이었고, 평복은 길게 하고, 바른 소매는 짧게 한다.

緇衣羔³⁶ 裘 素衣麕裘 黃衣狐裘 褻裘長 短右袂³⁷

27 奎: 瑞玉. 玉의 信標.

28 戰色: 戰慄의 빛.

29 跼蹐: 앞발치를 들고 총총걸음으로 간다.

30 容色: 편 얼굴빛.

31 愉愉: 유쾌하다.

32 [명설] 외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태도다. 信任狀을 받을 때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양 하지만 일단 현지에 부임한 후로는公私 간에 和平하고도 유쾌한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3 君子: 공자를 가리키고 있다.

34 褻服: 사사로이 있을 때 입는 옷.

35 [명설] 공자는 평상시에는 결코 호사스런 옷을 걸치지 않았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外出도 하였다. 이는 禮服 朝服 과는 구별되는 平服이기 때문이다.

36 羔: 염소 새끼.

37 [명설] 속옷과 겉옷의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한 빛깔이 지나치게 짙은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다. 바른 소매가 짧은 것은 일하기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잠옷을 따로 두되 길이는 키 절반 남짓하게 하고, 여우나 담비의 두터운 털옷을 입는다.

必有³⁸ 寢衣 長一身有半 狐貉之厚以居³⁹

상중만 아니면 안 차는 패물이 없다.

去⁴⁰ 喪 無所不佩⁴¹

휘장이 아니면 옷은 반드시 접어 줄이도록 한다.

非帷裳⁴² 必殺之⁴³

염소 가죽옷에 검은 관을 쓰고는 조문하지 않는다.

羔裘玄冠 不以弔⁴⁴

매일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문안을 드린다.

38 有: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갖다.

39 居: 거처하다.

[명설] 키의 절반 남짓한 길이는 접어서 발을 싸고도 남는 길이이다. 발목이 차지 않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 이 잠옷은 특히 겨울에 입으셨던 것 같다.

40 去: 除.

41 [명설] 君子가 衣服에 있어서는 호사스러운 것을 피하였지만 노리개의 옥을 차는 것은 오히려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벼슬아치의 表象이오 士大夫의 矜持를 돌리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42 帷裳: 수레에 치는 휘장.

43 殺之: 줄인다.

[명설] 휘장 외에는 모든 상의(裳衣)는 모조리 줄여버린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44 弔: 小殯 전의 조문이다. 小殯 전에는 회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凶服을 입지 않았다.

[명설] 羔裘玄冠은 吉服이다. 그러므로 吉服으로 弔哭의 禮를 드릴 순 없는 것이다.

吉月⁴⁵ 必朝服⁴⁶ 而朝⁴⁷

목욕재계 때는 반드시 깨끗한 베옷을 입는다. 목욕재계 때는 반드시 음식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어 앉는다.

齊 必有明衣⁴⁸ 布 齊 必變食⁴⁹ 居必遷坐⁵⁰

쌀밥은 흰수룩 좋고, 생선회는 기늘수록 좋다. 쉼 밥이며 처진 생선과 뭉개진 고기는 먹지 않고, 빛이 나빠도 먹지 않고, 냄새가 언짢아도 먹지 않고, 설익어도 먹지 않고, 제 때가 아니어도 먹지 않고, 잘못 잘렸어도 먹지 않고, 간이 맞지 않아도 먹지 않고, 고기가 많더라도 반찬으로 먹는 정도를 벗지 않았다.

食不厭精⁵¹ 膾不厭細 食饅⁵² 而餲⁵³ 魚餒而肉敗 不食 色惡 不食 臭惡 不食 失飪 不食 不時 不食 割不正 不食 不得其醬 不食 肉雖多 不使勝食氣⁵⁴

술만은 한량없으나 비틀거리지는 않고, 파는 술이나 시장의 고기포는 먹지 않고 생강은 곁에 놓아두되 많이 먹지는 않았다.

45 吉月：月朔.

46 朝服：玄冠 緇衣 素裳.

47 [명설] 人君이 太廟에 告朔하며 朝享의 禮를 드리며 皮弁으로써 行事하므로 大夫는 降一等하여 朝服으로 조회에 나갔던 것이다. 君臣이 같은 服裝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8 明衣：明은 神明과의 交際를 의미한다. 제사를 위한 목욕 후에 明衣를 입는 것은 이 까닭이다.

49 變食：술과 향기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50 遷坐：항시 거처하던 곳을 바꾼다. 內室을 피하여 別室으로 옮긴다.

[명설] 齋戒의 行事는 이처럼 心身을 깨끗이 함으로써 神明과 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1 精：精白米

52 饅：밥이 상하여 뭉개진다.

53 餲：썩은 냄새가 난다.

[명설] 이러한 變質된 음식에는 毒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다.

54 [명설] 육류가 穀氣를 이기지 못하게 한 것은 菜食 爲主의 東洋人에게는 절대적 섭생법이다. 肉勝穀은 現代病의 遠因이 되기 때문이다.

唯酒無量 不及亂 沽酒⁵⁵ 市脯 不食 不撤薑食⁵⁶ 不多食⁵⁷

나라 제사 때 받은 고기는 그 밤을 넘기지 않고, 집안 제사 고기는 사흘을 넘기지 않고 사흘을 넘기면 못 먹도록 하였다.

祭於公 不宿⁵⁸ 肉 祭肉 不出三日 出三日 不食之矣⁵⁹

음식을 다루면서는 탓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야기는 않는다.
食不語⁶⁰ 寢⁶¹ 不言⁶²

변변찮은 음식이나 나물국이나 오이 같은 것이라도 제사를 모시되 극진히 하였다.

55 沽酒：市販酒有毒物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술.

56 薑食：꿀이나 엿을 加味한 生薑食.

57 [명설] 市販食品은 예나 시방이나 믿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그의 제조과정
이 精潔하지 못했을 따름이지만 요즈음은 色素 防腐劑 등의 加味로 말미암아 有毒性 殺人 傷人 악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飲食物에 이르기까지 공자의 주의력은 이만저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명설] 薑食은 健胃劑로서 消食을 위한 配慮인 듯하다.

[참조] 종래 無量을 無制限으로 여겼으나 “量으로 概等하지 않고 不及亂을 限節로 삼다”(다산)로 풀기도
한다.

58 宿：하루밤 재운다.

59 [명설] 재우지도 않고 사흘 이상 넘기지도 않도록 한 것은 제사음식을 나누어주지 않을까 해서인 것이다.
나누어주지 않으면 祭禮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神의 은혜는 골고루 나누어 받아야 할 것이다.

60 語：論難한다.

[참조] 不語는 침묵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문제를 따지면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不語요
다른 사람이 흔한 이야기를 물어올 때라면 어찌 食不語라 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다산).

61 寢：눕는다.

62 言：直言한다.

[명설] 寢은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잠은 이루지 않고 겨저 누워 있는 모습이다. 잠이 깊이 들어 있다면
寢不言이라 하지 않더라도 어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雖疏食 菜羹 瓜⁶³ 祭必齊⁶⁴ 如也⁶⁵

자리가 비뚤어졌어도 앉지 않는다.

席⁶⁶ 不正 不坐⁶⁷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늙은이가 나가면 따라 나섰다.

鄉人飲酒 杖者⁶⁸ 出 斯出矣⁶⁹

마을 사람들이 굿을 할 때는 예복을 입고 묘의 층계 위에 서 있었다.

鄉人儺⁷⁰ 朝服⁷¹ 而立於阼階⁷²

사람을 외국으로 보낼 때는 두 번 예를 드리고 보냈다. 강자가 약을 보내 준즉 예를 드리고 받으면서 말하기를 “약성을 잘 모르므로 입에 대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63 瓜: 魯論에서는 必로 되어 있다.

64 齊: 엄숙하고도 공손한 모습.

65 [명설] 祭物이 비록 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엄숙하게 제사를 모시는 것은 聖人の 정성인 것이다. 제사는 마음의 정성에 있지 祭物의 精麤에 있는 것이 아니다.

66 席: 돛자리 같은 앉는 자리.

67 [명설] 비록 小節인 듯이 보이나 聖人は 그런 것까지도 바르지 않은 것은 싫어했던 것이다.

68 杖者: 老人. 60세 이상이다.

69 [명설] 늙은이가 나간 후에 나가는 것은 감히 먼저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70 儺: 굿. 푸닥거리.

71 朝服: 祭服으로 입는다.

72 阼階: 家廟의 계단.

[명설] 여기서 잡신과 조상신이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 마을사람들은 아직도 雜神을 섬기는 巫俗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孔子는 家廟의 층계에서 祭服을 입고 祖上神에 대한 敬虔한 자세를 가누었던 것이다. 이는 孔子의 迷信思想에서 敬祖 또는 敬天思想으로의 발돋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問人⁷³ 於他邦 再拜⁷⁴ 而送之 康子⁷⁵ 饋藥 拜而受之 曰 丘未達⁷⁶ 不敢嘗⁷⁷

마구간이 됐다. 선생은 조정에서 물러나와 말하기를 “사람이 상했느냐?” 묻고 망아지는 묻지 않았다.

廐⁷⁸ 焚 子退朝 曰 傷人乎 不問馬⁷⁹

주군이 음식을 보내주면 똑바로 앉아서 먼저 맛을 보고, 주군이 날것을 보내 주면 익혀서 조상께 바치고, 주군이 산 짐승을 보내 주면 반드시 그것을 키우도록 하고 주군을 모시고 식사할 때는 주군의 제사가 끝나는 대로 먼저 맛을 보았다.

君賜食⁸⁰ 必正席先嘗⁸¹ 之 君賜腥 必熟而薦之⁸² 君賜生 必畜之⁸³ 侍食於君 君祭 先飯⁸⁴

73 問人: 대리인을 보내어 안부를 묻는다.

74 再拜: 외국으로 보낼 때는 敬意도 倍加되므로 再拜한다.

75 康子: 季康子

76 未達: 약성에 통달하지 못하다.

77 嘗: 맛본다.

[명설] 대리인에 대하여도 그를 보낸 사람에게와 같은 禮를 드린다.

[명설] 藥에 毒이 있을까봐 먹지 않았다는 해석은 지나치다. 藥이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病에 中하지 않으면 無效할뿐 아니라 오히려 害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藥性을 모르는 약은 먹지 않아야 한다. 공자의 이러한 藥性에 대한 配慮에도 驚歎하지 않을 수 없다.

78 廐: 공자의 마구간.

79 [참조] 종래에는 “傷人呼 不問馬”라 하여 사람이 傷하구나 않았나 먼저 묻고 다음에 말을 물었다 했는데 “사람이 傷하구나 않았나 묻고 말은 묻지 않았다”로도 풀이된다. 前說은 人馬의 先後만이 있을 따름이지만 後說은 重人輕馬의 태도와 하겠다. 다산은 後說을 따르고 있다. 그는 否가 아니기 때문이다.

80 賜食: 익힌 음식을 보내준다.

81 先嘗: 군왕의 은혜에 경의를 표한 후 나누어준다.

82 [명설] 보내 준 음식 중에서 날것은 익혀서 祖上에게 바치지만 익힌 것은 바치지 않는 것이 禮다.

83 [명설] 산 짐승을 받으면 잘 기르는 것이 禮다.

84 [명설]윗사람에게서 받는 선물은 물질을 셈하지 말고 거기에 깃들인 情誼에 감사해야 한다. 君臣 간의 下賜는 더욱 그러함을 여기서 본다.

병 중에 주군이 문병을 오면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예복을 갖추되 띠를 걸쳤다.
疾 君視之 東首⁸⁵ 加朝服⁸⁶ 拖⁸⁷ 紳⁸⁸

주군이 부르면 명에 맬 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君命召 不俟駕⁸⁹ 行矣⁹⁰

대묘에 들어가서는 매사를 물었다.
入太廟 每事問⁹¹

친구가 죽은 후 갈 곳이 없을 때는 말하기를 “내게서 치르도록 하오” 하였다.
朋友死 無所歸⁹² 日 於我殯⁹³

벗이 보내 주는 것이 수레나 망아지라 하더라도 제육이 아니면 예를 드리지 않았다.

85 東首: 君王은 南面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東으로 向하고 눕는다.

86 朝服: 緇衣 素裳.

87 拖: 끈다. 束帶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띠가 땅에서 끌린다.

88 [명설] 병자는 아무리 군왕이 문병온다 하더라도 着衣 束帶할 수 없으므로 이를 略式으로 걸칠 따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平服차림으로 만나는 것도 禮가 아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禮容을 갖추기에 힘쓸 따름이다.

89 駕: 말에게 명을 걸친다.

90 [명설] 나라 일이 위급할 때 召命을 받으면 명에 맬 틈뿐만이 아니라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달려가야 하겠지만 제대로 禮節을 갖추지 않고 부를 적에는 명을 걸친 후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士君子는 언제나 召命에 卽刻 응하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91 [참조] 「八佾」편 3(15)절을 보라. 거듭 나와 있다.

92 無所歸: 친척이 없어서 主喪을 세울 수가 없다.

93 殯: 하관할 굴을 파고 하관한다.

[명설] 主喪이 없는 고독한 벗의 죽음에는 자신이 喪主가 되겠다는 것이다. 친구간의 지극한 친애의 정이 엿보인다.

朋友之饋 雖車馬 非祭肉 不拜⁹⁴

늘 때는 시체처럼 눕지 않고, 집에서는 체모를 차리지 않았다.
寢 不尸⁹⁵ 居⁹⁶ 不容⁹⁷

상제와 만나면 친숙한 사이라도 반드시 얼굴빛을 고치고, 높은 벼슬아치나 눈 먼 이를 만나면 자주 만나는 처지라도 반드시 체모를 갖추었다. 상복을 입은 이에게는 수레에서라도 예를 드리고 나라의 귀중한 서류를 가진 이에게도 경의를 표했다.
見齊衰者 雖狎⁹⁸ 必變⁹⁹ 見冕¹⁰⁰ 者 與瞽者 雖褻¹⁰¹ 必以貌¹⁰² 凶服¹⁰³ 者 式¹⁰⁴ 之 式負版¹⁰⁵ 者¹⁰⁶

94 不拜: 拜禮하지 않고 받는다.

[평설] 친구 간에는 재물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어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가 주는 재물에는 拜禮의 禮를 省略한다. 그러나 그것이 祭肉일 경우에는 神—祖上神—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拜禮하는 것이 禮인 것이다. 禮란 그 형식보다도 본질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95 尸: 죽은 사람.

96 居: 집에서 쉴 때.

97 容: 周禮의 六容. 祭祀 賓客 朝廷 喪紀 軍旅 車馬之容 과 같은 것.

[평설] 죽은 사람처럼 네 활개를 펴고 눕는 것은 節制 없는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平常時에는 지나치게 禮容을 따질 필요는 없다. 여기에 燕居時 禮容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98 狎: 무람없다.

99 變: 용모를 고친다.

100 冕: 大夫의 冠.

101 褻: 자주 만난다.

102 貌: 禮儀를 갖추다.

103 凶服: 喪禮의 五服.

104 式: 수레 위의 橫木. 禮 드릴 때 의지한다. 절한다.

105 負版: 戶籍과 地圖—國家의 중요한 文書—를 등에 진 자.

106 [평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不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 또는 중요한 임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언제나 敬畏의 정을 갖도록 타이르고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禮節은 사회질서의 底邊構造를 위하여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참조] 「子罕」편 (9)(10)절을 보라.

큰 잔칫상을 받으면 반드시 얼굴빛을 고치면서 일어서고, 번개 치고 바람이 거셀 때도 반드시 얼굴빛을 고쳤다.

有盛饌¹⁰⁷ 必變色而作¹⁰⁸ 迅雷風烈 必變¹⁰⁹

차에 오르면 반드시 똑바로 서서 줄을 잡고, 차 속에서는 안쪽을 돌아다보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으며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다.

升車 必正立 執綏¹¹⁰ 車中 不內顧 不疾言 不親指¹¹¹

그림자만 보고는 날아가더니, 맴돌다가 다시 모여들도다. 선생 “산에 놓인 다리 위의 암퇘은 때로구나! 때로구나!” 자로가 이를 잡아서 바치려고 한즉, 세 번 냄새 맡더니 날아가 버렸다.

色¹¹² 斯舉¹¹³ 矣 翔而後集¹¹⁴ 曰 山梁¹¹⁵ 雌雉 時哉 時哉 子路共之 三嗅而作¹¹⁶

107 饌: 음식을 늘어놓다.

108 作: 일어선다.

[평설] 盛饌 앞에서의 變色 變容은 天賜의 豐盛에 대한 敬畏의 정 때문일 것이다.

109 [평설] 迅雷 風烈 앞에서의 變容은 罹災民에 대한 憐憫의 정 때문인 것이다.

[평설] 감사와 연민의 정은 인간의 기본 감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君子 聖人에게서는 보다 더 절실할 따름인 것이다.

110 綏: 붙잡고 車에 오르는 줄.

111 [평설] 줄을 잡는 것은 안정을 취하기 위한 것이요, 돌아다보지 않는 것은 私私로운 행동으로 보여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말이 빠르거나 손가락질하는 따위의 태도도 同乘者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쉬우므로 이를 삼가야 할 것이다.

112 色: 놀란 모습.

113 舉: 새들이 날아오르다.

114 集: 모여 앉다.

115 山梁: 골짜기에 있는 작은 다리.

116 [평설] 새들이 화를 피하여 멀리 날아가는 것을 君자의 易退難進의 상황에 비유한 듯하다.

[평설] 뜻이 불분명한 구절이다. 잡히기 전에 때를 잘 보아야 한다는 암시 구절인 듯.

[참조] 子路가 산퇘을 잡아서 이를 익혀 공자에게 드린즉 내키지 않은 음식이라 세 번 냄새만 맡고 일어나 버렸다는 해석도 있다.

11 편

先進
옛사람들이 다루던



올재 후원하러 가기

11편 | 先進 옛사람들이 다루던

선생 “옛 사람들이 다루던 예법이나 음악은 시골뜨기 같고, 요새 사람들이 다루는 예법이나 음악은 제법 훌륭하다지만 만일 쓰게 된다면 나는 옛사람들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子曰 先進於禮樂¹ 野人² 也 後進³ 於禮樂 君子⁴ 也 如用之則吾從⁵ 先進⁶

선생 “나를 따라서, 진·채 지방까지 왔던 애들이 모두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子曰 從我於陳 蔡者 皆不及門⁷ 也⁸

인격이 뛰어나기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요, 말재주에는 재아, 자공이요, 정치가로는 염유, 계로요, 문학에는 자유, 자하다.

德行 顏淵 閔子騫 冉伯牛 仲弓 言語⁹ 宰我 子貢 政事 冉有 季路 文學 子游 子夏¹⁰

1 禮樂：文物制度和音樂.

2 野人：農夫.

3 先·後進：벼슬의 先後輩.

4 君子：士大夫.

5 從：自.

6 [명설] 공자의 門人들이 先進의 禮樂은 質勝文이라 하여 野人이라 평하고 스스로 文質彬彬의 君子로 자처하였지만 공자 자신은 淳厚한 先進의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禮樂은 형식보다도 본질이 더 중요함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門：城門.

8 [명설] 魯哀公 六年에 공자가 楚昭王의 초청을 받고 가던 도중 陳 蔡지방에서 방해를 받고 衛로 돌아왔는데, 그 때 성문까지 제자들이 당도하지 못했던 일을 회상한 말이다.

9 言語：辭命

10 [명설] 일컬을 때 모두 字를 쓴 것으로 보아 공자의 말이 아니다.

[명설] 소위 孔門의 四科 十哲이라 하지만 여기에서 빠진 제자라고 해서 다 才德이 모자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陳·蔡에 따라가 있던 제자들 중에서 추려진 것이 아닌가 싶다. 十哲 중에 曾子 有若 公西華 高柴 등이 빠진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선생 “회는 내게 도움이 되는 애가 아니야! 내 말이라면 거저 좋아만 하니,”
 子曰 回也 非助¹¹ 我者也 於吾言 無所不說¹²

선생 “효성스럽지! 민자건은’이란 제 부모 형제들의 말이지만 트집 잡을 수가 없군.”
 子曰 孝哉閔子騫 人不間¹³ 於其父母昆弟之言¹⁴

남용이 세 번 ‘백귀’란 시를 되풀이한즉, 선생은 형의 딸을 주어 조카사위를 삼았다.
 南容三復白圭¹⁵ 孔子以其兄之子妻之¹⁶

계강자가 묻기를 “어느 제자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선생이 대답하기를 “안회란 애가 있어 학문을 좋아하더니 불행히도 일찍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11 助: 益.

12 [명설] 거슬리는 말이라야 오히려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련만 거슬리는 일이 없으니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조] 말투는 顏淵에게 서운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인 즉 깊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朱子).
 [명설] 비록 諫爭이라도 正君 益友의 구실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顏淵의 有順無違를 탓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13 間: 틈, 트집.

14 [명설] 孝哉 閔子騫 一句는 字를 썼으므로 공자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이요, 동시에 부모 형제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조] 閔子是 일찍이 어미를 여의고 繼母에게 두 아들을 두었다. 繼母가 閔子에게만 갈대옷을 입히려 한 것을 그 아버지가 알고 繼母를 내쫓으려 한즉 閔子는 말하기를 “어미가 있으면 나 하나가 출지만 어미가 없으면 세 아들이 출습니다” 하여 繼母가 逐出을 면하였다. 이를 안 繼母는 그 후 慈母가 되었다.『韓詩外傳』)

15 白圭: 『詩經』, 『大雅』, 抑篇 “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

16 [명설] 南容이 공자의 조카 사위가 된 두 번째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참조] 『公治長』편 (5)(1)절을 보라.

季康子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¹⁷

안연이 죽자 안로가 선생의 수레를 팔아 외곽을 만들고 싶어했다. 선생 “재주야 있긴 없긴 모두 제 아들이라고들 말하지. 이(鯉)가 죽었을 때도 관만 있고 외곽은 없었어. 내가 길을 셈치고 외곽을 만들지 않은 것은 나도 대부의 말석에 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없기 때문이었지.”

顏淵死 顏路¹⁸ 請子之車以爲之槨 子曰 才不才 亦各言其子也 鯉¹⁹ 也死 有棺而無槨²⁰ 吾不徒行²¹ 以爲之槨 以吾從大夫之後²² 不可徒行也²³

안연이 죽자 선생 “아!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顏淵死 子曰 噫 天²⁴ 喪予 天喪子²⁵

안연이 죽자 선생이 몸부림치며 올라, 모시던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몸부림 치셨습니다.” 선생 “몸부림쳤던가? 그 사람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고 누구를 위

17 [명설] 雍也장에서는 哀公問이었는데 같은 질문에서 대답이 더 자세하고 季康子의 같은 질문에서는 대답이 간략하다. 哀公과의 관계는 君臣 간이요, 季康子와의 관계는 서로 다 같은 臣子の 입장이기 때문이다.

[참조] 「용야」편 (6)(2)절을 보라.

18 顏路 : 안연의 아버지. 이름은 無繇. 자는 路.

19 鯉 : 공자의 아들. 鯉는 그의 이름이요, 자는 伯魚.

20 槨 : 外棺.

21 徒行 : 徒步. 步行.

22 從大夫之後 : 謙辭로서 공자는 大夫이기 때문이다.

23 [명설] 공자가 徒行을 핑계삼아 車를 주지 않았지만 사실인즉 厚葬의 過禮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人情의 中節이 곧 禮의 形式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11절 참조).

24 天 : 上帝天.

25 [명설] 이 때에 공자의 나이 이미 70인지라 그의 道를 전하려던 緒統을 잃은 슬픔의 토로인 것이다. 顏淵의 죽음이 그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하늘의 뜻인 양 여긴 것은 바로 공자와 顏淵은 混融된 하나의 道體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여 올 것이냐?”

顏淵死 子哭之慟²⁶ 從者曰 子慟矣 曰 有慟乎 非夫人之爲慟 而誰爲²⁷

안연이 죽자 제자 동료들이 후하게 치상을 치르려고 했다. 선생 “그럴 것 없다.” 제자들이 후히 치상을 치렀다. 선생 “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해 주었는데 나는 아들처럼 생각해 주지 못했다. 나를 그르다 하겠구나! 너희들은.”

顏淵死 門人²⁸ 欲厚葬之 子曰 不可 門人厚葬之 子曰 回也 視子猶父也 予不得視猶子也 非我也 夫二三子²⁹ 也³⁰

계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물은 즉, 선생 “사람 하나도 섬길 수 없으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나!” “죽음은 어떤가요?” “삶도 모르면서 죽음을 어떻게 안담!”

季路問事鬼神³¹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死³²

민 선생은 곁에서 조리있는 태도요, 자로는 깨끗하였고, 염유, 자공은 부들부들 하였다. 선생도 즐거운 양 “유 같을진대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를 거야!”

26 慟 : 지극한 哀痛.

27 [명설] 공자의 안연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너무 지나치거나[過哀] 않았는가 의심스러운 정도다. 그러나 공자가 안연에게 기울인 기대와 애정의 깊이에 비한다면 오히려 일시적 통곡으로 그 상처가 메워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不足하지 않을까. 이 점에 있어서 師弟간의 情誼는 그의 極限點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8 門人 : 공자의 門人.

29 二三子 : 당시에 다른 나라에 가 있던 子路 子貢 子羔와 같이 賢德을 갖춘 제자들(다산).

30 [명설] 厚葬의 過禮를 억제한 공자의 뜻이 뚜렷하지만 門人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줄도 모르는 다른 제자들의 오해를 못내 아쉽게 여기는 눈치다. 과연 過禮의 절제란 이처럼 어려운 것인가.

31 鬼神 : 天神 人鬼의 通稱.

32 [명설] 사람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듯 하늘을 섬기는 길과, 하늘을 섬기듯 사람을 섬겨야 하는 두 길이 있다면, 공자는 전자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事鬼는 곧 事祖上하는 祭禮이니 산 사람을 섬기는 事親의 道가 곧 事鬼의 道에 先行하는 所以인 것이다.

[명설] 어찌 죽음을 모르랴! 삶을 안 연후에야 죽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삶을 먼저 알도록 했을 따름이다.

閔子侍側 闇闇³³ 如也 子路 行行³⁴ 如也 冉有 子貢 侃侃³⁵ 如也 子樂³⁶ 若由也 不得其死然³⁷

노나라 사람들이 돈을 다시 지으려고 한 즉, 민자건이 말하기를 “옛 것을 그대로 놓아 둘 일이지 어찌하여 다시 지으려고 하는고!” 선생 “그는 말을 잘 알지만 말을 하면 들어맞거든!”

魯人爲長府³⁸ 閔子騫曰 仍舊貫³⁹ 如之何 何必改作 子曰 夫人不言 言必有中⁴⁰

선생 “유의 거문고를 왜 내 집 문안에서 켜게 하는고!” 제자들이 자로를 업신여겼다. 선생 “유는 제법 당상에 오르기는 하였지만 아직 방안에만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子曰 由之瑟 奚爲於丘之門 門人不敬子路 子曰 由也 升堂⁴¹ 矣 未入於室⁴²也⁴³

33 闇闇: 中正한 모습.

34 行行: 剛強한 모습.

35 侃侃: 和樂한 모습.

36 樂: 맹자가 이른 바 “得英才而教育之”의 樂이다.

37 [명설] 由는 자로의 이름. 공자의 말대로 자로는 衛나라 內亂 때 戰死했다. 성질이 지나치게 깨끗했기 때문이다.

38 長府: 돈 이름.

39 貫: 꿰미.

40 [명설] 당시 魯나라에서는 新錢을 改鑄하려고 하였지만 閔子의 말처럼 되고 말았다. 과연 由의 人物을 안 것과 마찬가지로 공자는 閔子의 인물됨도 꿰뚫듯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閔子의 寡默 眞實한 人品을 칭찬한 말이다.

41 堂: 堂上之樂. 雅 頌과 같은 類.

42 室: 房中之樂. 周南 召南類.

43 [명설] 子路의 鼓瑟이 房中之樂에 合致하지 못하므로 공자에게서 책망을 듣자 門人들이 子路에게 敬意를 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子路는 이미 堂上之樂에는 一家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升堂이요, 未入室이라 하여 門人들의 子路에 대한 不敬은 지나친 잘못임을 타이르고 있다. 공자 및 門人들의 音樂에 대한 깊은 素養을 짐작하게 한다.

자공이 묻기를 “자장과 자하는 누가 더 잘났을까요?” 선생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지근하다.” “그러면 자장이 더 나은가요?” “지나친 것과 미지근한 것과 같다.”
 子貢問 師⁴⁴與商⁴⁵也 孰賢 子曰 師也 過 商也 不及 曰 然則師愈⁴⁶ 與 子曰 過猶不
 及⁴⁷

계씨는 주(周)천자의 경공(卿公)들보다도 더 큰 재벌인데, 염유가 세금으로 훔쳐서 더욱 더 분노록 한즉, 선생 “내 제자가 아니다. 애들아! 북을 치면서 조리를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季氏富於周公⁴⁸ 而求也爲之聚斂 而附益之 子曰 非吾徒也 小子鳴鼓⁴⁹ 而攻之可也⁵⁰

자고는 어릿어릿하고, 증삼은 고지식하고, 자장은 편벽하고, 자로는 거칠다. 선생 “안회는 그럴 듯하지. 항상 가난하지만..., 자공은 천명을 받지 않고도 재물을 모았고 억지라도 잘 맞았다.”

44 師：子張.

45 商：子夏.

46 愈：勝.

47 [명설] 子張은 才高 意廣하니 항상 過中하고 子路는 篤信 謹守하므로 항상 不及中한다. 그러나 過가 결코 不及보다도 나은 것은 아니다. 過나 不及이나 不中인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48 周公：周나라의 三公.

49 鳴鼓：북을 치면서 그의 죄를 성토했다.

50 [명설] 공자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爲政者들의 富를 더하게 해주는 일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行政家의 本分을 이탈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行政家는 三公의 편이 아니라 百姓들의 편이어야 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柴⁵¹ 也愚⁵² 參⁵³ 也魯⁵⁴ 師⁵⁵ 也辟⁵⁶ 由⁵⁷ 也嘑⁵⁸ 子曰回⁵⁹ 也 其庶⁶⁰ 乎 屢空⁶¹ 賜⁶² 不
受命⁶³ 而貨⁶⁴ 殖⁶⁵ 焉 億⁶⁶ 則屢中⁶⁷

자장이 사람을 잘 지도하는 방법을 물은 즉, 선생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으면 깊
은 방속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子張問善人之道⁶⁸ 子曰 不踐迹⁶⁹ 亦不入於室⁷⁰

51 柴: 성은 高, 柴는 이름, 자는 子羔. 공자의 제자.

52 愚: 어리어릿한다.

53 參: 曾子.

54 魯: 둔하다.

55 師: 子張.

56 辟: 편벽되다.

57 由: 子路.

58 嘑: 지껄분한 소리.

59 回: 顏淵.

60 庶: 거의 가깝다. 道에 가깝다.

61 空: 궁핍하다. 곤궁하다.

62 賜: 子貢.

63 命: 天命.

64 貨: 재물을 판매한다.

65 殖: 가축을 기른다.

66 億: 속셈.

67 [참조] 四자가 다 한 가지 병이 있으나 回와 賜는 이렇다 할 병은 없다. 그러나 回의 병은 屢空에 있고
賜의 병은 貨殖함에 있는데 億則屢中도 한 가지 흠이 아닐 수 없다. 中은 中庸의 中이 아니라 空으로서의
中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다산).

68 善人之道: 敎人之術. 善은 繕이니 修治하여 善인이 되게 하는 길이다.

69 踐迹: 앞 자취를 밟는다. 下學而上達하기 위하여 한 계단 한 계단씩 밟는다. 넘어 뛰지 않는다.

70 入於室: 房中之樂의 경지까지 이른다.

[명심] 修己의 길은 차근차근 앞사람이 닦은 자취를 더듬어가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걸어감에 있는 것이다. 요행으로 뛰어넘게 하는 교육방법은 졸렬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설령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있을 수도 없지만 그것은 요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선생 “말씀씨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진실한 인물이라고 할까! 볼품만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

子曰 論篤⁷¹ 是與⁷² 君子⁷³ 者乎 色壯⁷⁴ 者乎⁷⁵

자로가 묻기를 “듣는 즉시 실행할까요?” 선생 “부형들이 계신데 어떻게 듣는 즉시 실행할 수 있을까!” 염유가 묻기를 “듣는 즉시 실행할까요?” 선생 “듣는 즉시 실행해야 한다.” 공서화가 말하기를 “유가 ‘듣는 즉시 실행할까요?’ 한즉 ‘부형이 계신다’ 구가 ‘듣는 즉시 실행할까요?’ ‘듣는 즉시 실행하라’하시니, 저는 어리둥절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 “구는 머뭇거리므로 몰아센 것이고, 유는 곱절이나 서두르므로 멍청하게 한 것이다.”

子路問 聞⁷⁶ 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冉有問 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公西華曰 由⁷⁷ 也問 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求⁷⁸ 也問 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赤⁷⁹ 也惑 敢問 子曰 求也退 故進之 由也兼人⁸⁰ 故退之⁸¹

선생이 광 지방에서 난을 당했을 때 안연이 뒤쳐졌다. 선생 “나는 네가 죽은 줄

71 論篤: 말씀씨가 독실하다.

72 與: 허락한다.

73 君子: 표리가 한결같은 자.

74 色壯: 겉은 장엄하지만 속은 유들유들한 자.

75 [명설] 말씀씨만 가지고 경솔하게 허락한다면 그가 실천 궁행하는 인물인지 겉만 번지르르 한 인물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씨 좋은 것만으로는 사람됨을 알 수가 없을 것이요, 반드시 그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됨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76 聞: 옳은 말을 듣는다.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다.

77 由: 子路.

78 求: 冉有.

79 赤: 公西華.

80 兼人: 한 사람이 두 사람 구실을 겸하다.

81 [명설] 공자의 교육법은 언제나 對症投藥의이다.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進取의 氣象을 갖게 하고 兼人의 勇을 가진 자에게는 멍청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得中의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았다.” 안연 “선생님이 계신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子畏於匡 顏淵後 子曰 吾以女⁸² 爲死矣 曰 子在 回何敢死⁸³

계자연이 물기를 “중유나 염구는 대신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선생 “나는 별다른 질문인가 했더니 유와 구의 이야기구려! 대신이란 도리로서 주군을 섬기다가 안 되면 그만둡니다. 이제 유나 구는 수효 채우는 신하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하자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비나 주군을 죽인다면 하자는 대로 안 할 것입니다.”

季子然⁸⁴ 問 仲由 冉求 可謂大臣與 子曰 吾以子爲異之間 曾由與求之間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今由與求也 可謂具臣⁸⁵ 矣 曰 然則從之⁸⁶ 者與 子曰 弑父與君 亦不從也⁸⁷

자로가 자고를 비 지방 원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선생 “남의 자식을 버리는 짓이다.” 자로 “백성들도 있고 사직도 있는데 하필 책만 읽어야 공부가 되나요?” 선생 “그러기에 말재주 좋은 친구를 미워하는 거야!”

82 女：汝.

83 [명설] 스승이君王이나 부모나 마찬가지로 환란의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이를 구해야 하겠지만 스승이 안전하게 계신 바에야 어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을 것인가. 顏淵이 그만한 슬기가 없을 리 없는데 공자는 괜히 걱정한 듯 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깊은 師弟의 情誼가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조] 『雍也』편 (9)(5)절을 보라.

84 季子然：季氏子弟 중의 一人. 大臣：臣下 중에서도 小臣 아닌 大臣.

85 具臣：신하로서 제 구실은 못하고 겨우 수효나 채우는 신하.

86 從之：옳긴 그르긴 하자는 대로 하는 신하.

87 [명설] 벼슬자리—신하—는 제 구실을 제대로 함으로써 비로소 名實 相符한 신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하는 옳은 일로 諫爭하다가 듣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물러 설 수 있는 勇氣가 필요한 것이다. 子路나 冉求是 비록 大臣은 못될망정 諫臣으로서의 勇氣는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子路使子羔⁸⁸ 爲費宰 子曰 賊⁸⁹ 夫人之子⁹⁰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 然後爲學 子曰 是故惡夫佞者⁹¹

자로, 증석, 염유, 공서화가 선생을 모시고 앉았을 때, 선생 “내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그것을 꺼릴 것은 없다. 평소에 자칫하면 ‘나를 몰라준다’하니 알아준다면 어떻게 할 텐가?”

자로가 불쑥 나서서 말하기를 “천승의 나라가 여러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군대의 침범을 당하고, 게다가 흉년까지 겹쳤을 때, 제가 다스리면 삼 년쯤 해서 용기를 북돋우고 갈길을 알게 하겠습니다.” 선생은 빙긋이 웃는다.

“구야, 너는 어떻냐?” 대답하기를 “사방 육칠십 혹은 오륙십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다스린다면 삼 년쯤 해서 백성들을 넉넉하게 해주겠습니다. 예법이나 음악은 보다 나은 분에게 맡기구요.” “적아! 너는 어떻냐?” 대답하기를 “할 수 있다고 여쭙는 것이 아니라 배워 보고 싶습니다. 종묘의 일이나 제후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복을 입고 잔심부름이나 해 보고 싶습니다.”

“점! 그대는 어떤가?” 거문고 소리를 늦추며 텅 하고 거문고를 치워놓고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세 사람이 늘어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선생 “상관할 것 있나! 제각기 제 뜻을 이야기했을 따름인 걸!” 말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마련되면, 어른들 오륙 인과 동자 예닐곱을 데리고 기수 가에서 목욕하고, 기우제 봉우리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선생은 깊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나도 점처럼 하겠다.” 세 사람이 나가고 점만이

88 子羔: 高柴의 字. 宰: 季氏의 費邑宰.

89 賊: 害. 子羔는 아직 배움의 도중인데 일찍 出世시키는 것은 그의 장래에 흉로운 것이다.

90 夫人之子: 남의 자식. 곧 子羔.

91 [명심] 費邑宰를 閔子是 에써 사양했는데 子路는 억지로 보낸 데 대하여 공자는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費에 이로우면 魯나라가 깎임으로 공자는 이를 말리고 싶은 心情인데 子路도 그 사정을 모를 리 없건만 이를 合理化하려는 子路의 口實을 책망한 것이다. 이러쿵저러쿵 말해주 부린다는 것은 곧 이 점을 가리킨 것이다.

남았다. 증석 “대체로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선생 “제각기 제 뜻을 이야기했을 따름이지.” “선생님은 왜 유를 보고 웃으셨습니까?” “나라를 다스리자면 예의로써 해야 하는데, 불쑥 말대답을 하기에 그래서 웃었지.” “구가 말한 것만은 나라가 아니겠지요?” “왜 사방 육칠십 혹은 오륙십이 된다면 나라가 아닐 것인가!” “적이 말한 것은 나라가 아니겠지요?” “중묘의 일과 서로 만나는 일이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적이 하는 일이 작다고 하면 누가 큰 일은 담당할 것인가!”

子路 曾皙⁹² 冉有⁹³ 公西華⁹⁴ 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 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⁹⁵ 而對曰 千乘之國 攝⁹⁶ 乎大國之間 加之⁹⁷ 以師旅⁹⁸ 因之以饑饉 由也爲之 比⁹⁹ 及三年 可使有勇且知方¹⁰⁰ 也 夫子哂¹⁰¹ 之 求 爾何如 對曰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比及三年 可使足民 如其禮樂 以俟君子 赤 爾何如 對曰 非日能之 願學焉 宗廟之事 如會同 端¹⁰² 章甫¹⁰³ 願爲小相焉 點 爾何如 鼓瑟希 鏗爾¹⁰⁴ 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¹⁰⁵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¹⁰⁶ 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¹⁰⁷ 風乎舞雩¹⁰⁸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

92 曾皙: 이름은 點, 자는 皙, 曾參의 父, 공자의 手上이라는 설이 있다.

93 冉有: 이름은 求

94 公西華: 이름은 赤

95 率爾: 경솔한 모습.

96 攝: 끌다.

97 加之: 병력의 침범.

98 師旅: 군사력.

99 比: 至.

100 方: 方向.

101 哂: 微笑.

102 端: 玄端.

103 章甫: 禮冠.

104 鏗爾: 거문고를 던져 놓는 소리.

105 撰: 늘어놓다.

106 莫春: 季春三月.

107 沂: 魯나라에 있는 시내 이름.

108 舞雩: 雩祭를 지내는 舞地.

與¹⁰⁹ 點也 三子者出 曾皙後 曾皙曰 夫三子者之言何如 子曰 亦各言其志也已矣 曰 夫子何哂由也 曰 爲國以禮其言不讓 是故哂之 唯求則非邦也與 安見方六七十 如五六十 而非邦也者 唯赤 則非邦也與 宗廟 會同 非諸侯而何 赤也爲之小 孰能爲之大¹¹⁰

109 與：許。

110 [평설] 긴 대화를 통하여 공자와 다른 제자들과의 親熟한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 동시에 공자가 子路 冉有 公西華 등의 正答보다도 曾點의 색다른 대답에 동조한 것은 時運의 否塞을 切感했기 때문이다. 결코 子路 등의 대답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悠悠自適하고 싶은 공자 末年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편

顏淵
안연



을재 후원하러 가기

12편 | 顏淵 안연

안연이 사람 구실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사욕(私慾)을 억누르고 예법대로 실천하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으니, 하루만 사욕을 억누르고 예법을 실천하더라도 천하 사람들이 모두 사람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은 내게서 되는 것이지 남에게서 될 법이나 할 일이냐!” 안연 “자세한 것을 일러 주십시오.” 선생 “예법대로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법대로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법대로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법대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연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顏淵問仁 子曰 克¹ 己² 復³ 禮 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⁴ 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 回雖不敏 請事⁵ 斯語矣⁶

중궁이 사람 구실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밖에서는 큰손님을 만나 보듯하고, 백성을 부리되 큰제사를 받듯 하며,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면 나라에서도 원망을 안 듣고 집안에서도 원망을 안 듣게 될 것이다.”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1 克: 이긴다.

2 己: 나. 욕심을 가진 나 자신.

3 復: 돌아온다.

4 歸: 귀화한다.

5 事: 전심 전력하여 일에 종사한다.

6 [명설] 사람으로서의 나는 二重構造의이다. 道心과 人心. 道義와 慾心. 大體와 小體. 心之官과 耳目之官 등등 전자가 후자를 克服한다면 그것을 克己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克己란 내가 나를 이기는 행위요, 一次的인 自己否定에서 새로운 道德的 自我를 발견하는 能動的 行爲인 것이다.

[명설] 由己란 곧 모든 行爲가 自己에서 비롯하는 것이니 自我覺醒이 行爲의 근본임을 가리킨 말이다. 自律性의 강조는 여기서도 뚜렷하다.

仲弓⁷ 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⁸ 使民如承大祭⁹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¹⁰ 無怨 在家¹¹ 無怨 仲弓曰 雍雖不敏 請事斯語矣¹²

사마우가 사람 구실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사람다운 이는 말을 더듬거린다.” “말만 더듬거리면 사람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 “실행이란 힘든 것인데 말을 안 더듬을 수 있겠느냐!”

司馬牛¹³ 問仁 子曰 仁者其言也訥¹⁴ 曰 其言也訥 斯謂之仁矣乎 子曰 爲之難 言之得無訥乎¹⁵

사마우가 참된 인물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참된 인물은 근심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근심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그러면 훌륭한 인물이라고 합니까?” 선생 “돌이켜 생각하되 잘못이 없으면 무엇이 근심되고 무엇이 두려울까?”

司馬牛問君子 子曰 君子不憂不懼 曰 不憂不懼 斯謂之君子矣乎 子曰 內省不疚¹⁶ 夫

7 仲弓：冉雍。

8 大賓：公侯의 賓。

9 大祭：禘 郊祭 따위。

10 在邦：벼슬 살 때。

11 在家：집안에 있을 때。

12 [평설] 문 밖에 나서면 모두 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들은 모두 하찮은 무리들이다. 그들은 公侯의 손님처럼 대우하고 하늘을 제사하듯 받든다면 실로 事民如天이 되는 셈이다. 公자 政治思想의 基底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설] 『衛靈公, 篇 (15)(24)절을 보라.

13 司馬牛：성은 司馬, 이름은 耕, 자는 子牛. 공자의 제자. 떠들썩했던 인물.

14 訥：말이 잘 안 나온다.

15 [평설] 仁이란 行事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空言은 결코 仁일 수 없다. 그러므로 行仁이 어려울 때는 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결코 病的인—先天的인— 말더듬이가 아니라 차마 말을 뱉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더듬거리는 태도인 것이다.

16 疚：잘못되다.

何憂何懼¹⁷

사마우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남들은 다 형제가 있지만 나만 없단 말이야!” 자하
“내가 듣기로는 ‘죽고 사는 것도 천명이요, 부귀도 하늘의 마련’이라 했는데, 참
다운 인간은 존경하면서 자기 도리를 잃지 않고, 공손하게 사귀면서 예의를 지키
니, 온 세상 사람이 다 형제같다. 참다운 인간이 무얼 형제 없는 것을 걱정해서야
되나!”

司馬牛憂曰 人皆有兄弟 我獨亡¹⁸ 子夏曰 商聞之矣 死生有命 富貴在天 君子敬而無
失 與¹⁹ 人恭而有禮 四海之內皆兄弟也 君子何患乎無兄弟也²⁰

자장이 사리에 밝다는 것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스며드는 모락과 살결에 닿는
듯한 호소에도 끌려가지 않는다면, 사리에 밝다고 할 수밖에… 스며드는 모락과
살결에 닿는 듯한 호소에도 끌려가지 않는다면, 멀리 본다고 할 수밖에…”

子張問明 子曰 浸潤²¹ 之讒 膚受²² 之愬 不行焉 可謂明²³ 也已矣 浸潤之讒²⁴ 膚受之

17 [명설] 司馬牛는 그의 형 桓魋의 亂으로 근심이 많은 처지다. 그러므로 남은 무어라 하든지 스스로
잘못이 없다면 두려울 것도 근심할 것도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상식적인
진리인 것이다.

18 我獨亡: 司馬牛에게는 桓魋라는兄이 있었으나 사람답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19 與: 사귀다.

20 [명설] 兄弟가 없음을 걱정하지만 天下 사람들과 恭敬의 禮로 사귀다면 天下의 벗이 다 내 형제처럼
되어질 것이다.

[명설] 死生과 富貴를 天命으로 돌리는 子夏의 引用句는 지나치게 宿命論의이기는 하지만 司馬牛의
걱정을 달래는 뜻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21 浸潤: 물이 스며든다.

22 膚受: 살갗에서 骨髓에까지 들어간다

23 明: 어둡게 되지 않는다.

24 讒: 남의 악을 들춘다.

慝²⁵ 不行焉 可謂遠²⁶ 也已矣²⁷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식량이 넉넉하고, 군비가 충실하고, 백성들이 믿게 되어야 한다.” 자공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버릴까요?” “군비를 버리지.” 자공 “할 수 없을 경우라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버릴까요?” “식량을 버리지. 옛날부터 사람이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은 믿음 없이는 지탱 못한다.”

子貢問政 子曰 足食²⁸ 足兵²⁹ 民信之³⁰ 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 不立³¹

극자성이 말하기를 “참된 인간은 바탕만이면 그만이지 문채는 무엇 한담!” 자공 “아차차! 선생의 인물론이야말로 네 필 말마차도 혀는 따르지 못하는 것일! 문채가 바탕이요 바탕이 문채라, 범의 가죽 바탕은 개나 염소의 가죽 바탕과 같은 것인데…”

棘子成³² 曰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君子也 駟不及舌 文猶質

25 慝: 내 사정을 호소한다.

26 遠: 가까운 일에 가리워지지 않는다.

27 [명설] 私情에 말려드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至公無私한 處身에는 언제나 賢明한 勇氣가 필요할 것이다.

28 足食: 內政의 充實을 의미한다.

29 足兵: 外寇의 防禦를 의미한다.

30 信之: 上부의 法令을 믿는다.

31 [명설] 백성들이 상부의 법령을 믿지 못하게 되면 설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군비가 있더라도 외환을 막아내지 못하며 비록 먹을 것이 넉넉하더라도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라의 근본이 아닐 수 없다.

32 棘子成: 衛나라 大夫.

也 質猶文也 虎豹之鞞³³ 猶犬羊之鞞.³⁴

애공이 유약더러 문기를 “흉년으로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유약이 대답하기를 “왜 일할(一割)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할(二割)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일할을 하겠소?”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넉넉하면 군왕만 쪼들릴 까닭이 없고, 백성들이 쪼들리면 군왕만 넉넉할 리 없습니다.”

哀公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 如之何 有若對曰 盍³⁵ 徹³⁶ 乎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³⁷

자장이 인격을 높이고 명칭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물은즉, 선생 “충실과 신의를 으뜸 삼고, 정의를 따라 행동함은 인격을 높이는 길이요, 사랑하면 그가 살았으면 하고, 미워하면 그가 죽었으면 하는데, 그가 살았으면 하던 그가 죽었으면 한다면, 이는 명칭한 짓이다. ‘실로 치부란 당찮은 것인데 다르다고 뽐내는군!’이란 옛시가 있지.”

子張問崇³⁸ 德辨³⁹ 惑 子曰 主忠信 徙義⁴⁰ 崇德⁴¹ 也 愛之 欲其生 惡之 欲其死 既欲

33 鞞 : 털을 없앤 가죽.

34 [평설] 文質이 彬彬하여야 君子라 할 수 있으므로 君子에게서는 文質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質이면 그만이라는 棘子成의失言은 바로 禮文을 무시한 것이 된다. 禮樂의 凡節을 무시한다면 君子와 野人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35 盍 :何不.

36 徹 : 周代 十一조의 稅法.

37 [평설] 凶年에는 宜當 減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從前대로 十二分을 증수하고 싶은 哀公의 태도는 苛斂型이다. 어찌 民貧君富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君與民이 다 함께 裕足할 때 비로소 國泰民安할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38 崇 : 높다.

39 辨 : 분별한다.

40 徙義 :義로운 일을 만나면 제 뜻을 버리고 그를 따른다.

41 崇德 : 德進 덕은 나아갈수록 높아진다.

其生⁴² 又欲其死⁴³ 是惑也 誠不以富 亦祗⁴⁴ 以異^{45 46 47}

제나라 경공이 공 선생께 정치에 대하여 물은즉, 공 선생은 대답하기를 “군왕은 군왕다웁고, 신하는 신하다웁고, 아버지는 아비다웁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하지요.” 공은 “좋습니다. 정말이지! 군왕이 군왕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아버지가 아비답지 않고, 아들이 아들답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다손치더라도 나만 먹을 수 있겠소?”

齊景公⁴⁸ 問政⁴⁹ 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公曰 善哉 信⁵⁰ 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⁵¹ 吾得而食諸^{52 53}

선생 “한 마디로 따져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 거야!” 자로는 승낙을 머뭇거리지 않았다.

42 既欲其生 : 土地를 나누어주다.

43 又欲其死 : 세금을 거듭거듭 거두어간다.

44 祗 : 適.

45 [명설] 崇德은 修己하기 위한 것이오 辨惑은 治民하자는 것인데(다산) 모름지기 聚斂으로 致富하려 하는 것은 덕을 손상하는 것이니 先王의 道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백성들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6 [명설] 「顏淵」편 (12)(21)절을 보라.

47 [명설] “誠不”은 『詩經』, 『小雅』, “我行其野”편의 一句. 이 句는 「季氏」편 (16)(11)절의 齊景公의 위로 가야 한다는 설이 있다.

48 齊景公 : 이름은 杵臼. 靈公의 아들.

49 政 : 正. 자기를 바르게 한 연후에 남을 바르게 한다.

50 信 : 誠. 眞實.

51 粟 : 產出 食糧.

52 諸 : 之乎.

53 [명설] 景公의 失政에 따른 공자의 警告이지만 여기서 공자의 正名論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군왕은 군왕다워야 한다는 말은 군왕은 군왕이라는 이름(名) 概念에 알맞도록 正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하나 아비나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로써 類推한다면 사람이란 결국 사람다워야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사람으로서의 값을 지니게 마련인 것이다.

子曰片⁵⁴言可以折獄⁵⁵者其由也與子路無宿⁵⁶諾⁵⁷

선생 “시비를 가리는 것쯤 나도 남과 다를 것이 없으나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子曰聽⁵⁸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⁵⁹乎⁶⁰ 61

자장이 정치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꼭바로 앉아서 꾸준히 노력하며 정성껏 일해야 한다.”

子張問政子曰居⁶²之無倦⁶³行之以忠⁶⁴ 65

선생 “널리 글공부를 하며 예의로써 몸단속을 할 것이니, 그러면 엇나가는 일이 좀처럼 없을 것이 아니냐!”

子曰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⁶⁶

54 片：偏. 片言은 한 쪽 말.

55 折獄：訟事의 判決.

56 宿：猶豫한다. 묵혀둔다.

57 [명설] 子路의 明決한 판단력을 칭찬한 말이다. 訟事 때는 原告 被告 兩人的 말을 들어야 할 것인데 子路는 한 쪽 말만 듣고도 명쾌한 판단을 내리니 공자는 이를 가상히 여긴 것이다.

58 聽訟：이미 訟事가 터진 후의 일이니 末流를 처리하는 셈이다.

59 無訟：訟事의 근원을 다스리는 일이니 源流를 막아버리는 셈이다.

60 [명설] 『大學』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바 있다.

61 [명설] 訟事 없는 세상은 太平盛世가 아닐 수 없다. 疾病 없는 세상은 豫防의학의 極致라 할 수 있다. 豫防警察도 이의 정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2 居：자신을 바르게 갖다.

63 無倦：직책에 부지런하다.

64 忠：誠實하다.

65 [명설] 政治의 要諦는 바르게 하는데 있다. 자신을 바르게 하고 일은 지치는 일이 없이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성실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66 [명설] 『雍也』편 (6/26)절을 보라. 거듭 나와 있다.

선생 “참된 인물은 남의 장점을 키워 주되 단점은 조장해 주지 않는다. 속 좁은 인간은 이와 반대다.”

子曰 君子成人之美⁶⁷ 不成人之惡⁶⁸ 小人反是^{69 70}

계강자가 정치에 대하여 공 선생께 물은 즉, 공 선생은 대답하기를 “정치의 정(政)은 바를 정의 정(正)이니, 임자가 바르게 이끌면 누가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 子帥⁷¹ 以正 孰敢不正⁷²

계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 선생께 물은즉, 공 선생은 대답하기를 “정녕코 그대가 바라지 않는다면 상을 주더라도 도둑질은 안 할 것입니다.”

季康子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 苟⁷³ 子之不欲 雖賞之 不竊⁷⁴

계강자가 정치에 대하여 공 선생께 묻기를 “만일 억지꾸러기들을 죽여서 바른 길로 나오도록 하면 어떨까요?” 공 선생은 대답하기를 “정치를 하면서 왜 죽이자는 거요? 당신이 잘하면 백성도 잘 할 것을! 윗사람의 인품은 바람이요, 아랫사람의

67 美 : 美名.

68 惡 : 惡名.

69 反是 : 이와는 반대가 된다.

70 [명설] 善行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며, 惡行은 비록 작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를 한사코 만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小人은 그렇지 못하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71 帥 : 거느린다.

72 [명설] 季康子는 魯나라 上卿이니 여러 신하의 統帥다. 자신이 먼저 바르게 되어야 남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요, 그가 바르게 부하를 거느린다면 아무도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의 要諦는 바르게 함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73 苟 : 誠.

74 [명설] 당시에 魯나라에는 좀도둑이 많았다. 그 까닭은 民生이 굶주리고 헐벗었기 때문이다. 民生이 잘 살게 된다면 비록 권하더라도 어찌 도적질을 할 것인가. 그의 근원을 다스려야 도적이 없어질 것이다.

인품은 풀잎이니, 풀 위에 바람이 스치면 쓸리고야 말걸.”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 以就⁷⁵ 有道 何如 孔子對曰 子爲政 焉用殺 子欲善而民善矣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⁷⁶ 之風 必偃⁷⁷

자장이 선비는 어떻게 되어야 사리에 툭 띄었다고 할 수 있는가를 물은즉, 선생 “어떤 것 말이나? 네가 사리에 툭 띄었다는 것은!” 자장은 대답하기를 “나라 안에 서도 이름을 날리고, 집안에서도 이름을 날려야 합니다.” 선생 “그것은 이름을 날리는 것이지 사리에 툭 튜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사리에 툭 튜는 것은 인품이 곧고 바른 것을 좋아하며, 남의 말과 얼굴빛을 살피면서 항상 남의 밑에 들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라에서도 사리에 툭 띄고, 집안에서도 사리에 툭 튜게 튜다. 대체로 이름을 날린다는 것은 얼굴빛을 사람답게 꾸미면서 행동은 엉뚱하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자기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에서도 이름은 날리고 집안에서도 이름은 날리게 되는 거다.”

子張問 士何如 斯可謂之達⁷⁸ 矣 子曰 何哉 爾所謂達者 子張對曰 在邦必聞 在家必聞 子曰 是聞也 非達也 夫達也者 質直⁷⁹ 而好義⁸⁰ 察言而觀色 慮以下人⁸¹ 在邦必達 在家必達 夫聞也者 色取仁⁸² 而行達⁸³ 居之不疑 在邦必聞 在家必聞⁸⁴

75 就 : 나아간다. 따르다.

76 上 : 더하다.

77 [명심] 惡人을 엄벌하여 善人이 되게 하는 강경정책보다는 教化정책에 의하여 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다. 군자의 모든 행동은 바람이 풀 위를 스치듯 그의 감화력은 절대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78 達 : 德義四達 名聞四達의 두 면이 있다.

79 質直 : 內實하기 때문이다.

80 好義 : 밖에서의 行動으로 나타난다.

81 下之 : 사양하면서 남의 밑으로 간다.

82 色取仁 : 얼굴빛을 꾸미면서 仁의 명예를 따려고 한다.

83 行達 : 仁이란 명예와는 다른 행동을 취한다.

84 [명심] 達士의 행동은 성실하고 겸양하지만 聞名을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은 속임수가 끼고 교만하다. 어찌 그의 情狀이 같을 수 있겠는가.

번지가 기우제 봉우리 언저리에서 선생을 따라 노닐 적에 “인격을 높이고 잘못을 씻고 명칭하지 않도록 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 “좋은 질문을 하는구나! 애는 남 먼저 쓰고, 소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인격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자기의 잘못만을 따지고 남의 잘못은 따지지 않는 것이 잘못을 씻는 방법이 아닐까! 불쑥 분을 못 참고 몸을 그르쳐 걱정을 부모에게까지 끼친다면 명칭한 것이 아닐까!”

樊遲從遊於舞雩⁸⁵之下 曰 敢問 崇德 修慝⁸⁶ 辨惑 子曰 善哉問 先事 後得 非崇德與 攻其惡⁸⁷ 無攻人之惡 非修慝與 一朝⁸⁸之忿 忘其身 以及其親⁸⁹ 非惑與^{90 91}

번지가 사람 구실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남을 사랑해야 한다.” 앎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사람을 알아야 한다.” 번지가 얼른 알아듣지 못한다. 선생 “곧은 사람을 골라 굽은 자 위에 두면 굽은 자를 곧게 만들 수 있다.” 번지가 나와서 자하를 만나 말하기를 “앞서 나는 선생님을 만나 앎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님은 ‘곧은 사람을 골라 쓰고 굽은 자를 내쫓으면 굽은 자를 곧게 만들 수 있다’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자하 “함축 있는 말이로군! 순(舜)이 천하를 차지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요를 골라 쓴즉 사람답잖은 무리들이 멀리 가버렸고, 탕(湯)이 천하를 차지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윤을 골라 쓴즉 사람답잖은 무리들이 멀리 가버렸지.”

樊遲問仁⁹² 子曰 愛人 問知 子曰 知人 樊遲未達 子曰 舉⁹³ 直錯⁹⁴ 諸枉 能使枉者直

85 舞雩 : 祈雨祭를 지내는 祭壇이 있는 언덕.

86 修慝 : 邪惡함을 바로 잡는다.

87 攻其惡 : 자신의惡을 자신이 공격한다.

88 一朝 : 한 때.

89 以及其親 : 근심을 부모에게까지 끼치게 한다.

90 [명심] 顏淵(권 12)(10)절을 보라. 자장의 질문과 大同小異한데 그의 대답은 다르다.

91 [명심] 한 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身上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한 어리석음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모에게 不孝가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92 仁 : 二人이다.

93 舉 : 들다.

94 錯 : 두다.

樊遲退 見子夏曰 鄉也⁹⁵ 吾見於夫子而問知 子曰 舉直錯諸枉 能使枉者直 何謂也 子夏曰 富哉 言乎 舜有天下 選於衆 舉皋陶⁹⁶ 不仁者遠矣 湯⁹⁷ 有天下 選於衆 舉伊尹⁹⁸ 不仁者遠矣⁹⁹

자공이 벗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진심으로 타일러서 잘 인도하도록 하되 듣지 않거든 그만두어라. 모욕을 당하게 되도록까지 할 것은 없느니라.”

子貢問友 子曰 忠告¹⁰⁰ 而善道之¹⁰¹ 不可則止 無自辱焉¹⁰²

증선생 “참된 인간은 학문을 통하여 벗과 사귀고, 벗을 사귀어 사람 구실의 도움이 되도록 한다.”

曾子曰 君子以文¹⁰³ 會友 以友輔仁^{104 105}

95 鄉也: 앞서.

96 皋陶: 자는庭堅.舜의 어진 신하.

97 湯: 은나라 시조. 이름은履. 순임금 때 司徒인契의子孫.

98 伊尹: 氏는伊. 이름은摯.尹은官名.殷나라 건국공신.

99 [명설]「爲政」편 (2)(19)절을 보라.

[명설] 仁이나 知나 다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아는 일이다.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 사람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람이란 옳은 사람이요, 바른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다.

[명설] 곧은 사람이 굽은 사람의 위에 앉아야 굽은 사람이 곧아지게 마련이다. 皋陶나 伊尹이 出世하자 굽은 자들이 멀리 떠나 버렸으니 이는 곧은 자가 굽은 자의 위에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옳은 인정이 베풀어지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100 忠告: 시비를 따져 일러준다.

101 善導之: 선으로 인도한다.

102 [명설] 친구끼리는 충고하며 선도하는 사이이어야 한다. 그러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그만둘 따름이다. 괜히 스스로 듣지 않음으로써 自身에게 辱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103 文: 詩·書·禮·樂

104 仁: 孝·悌·忠·信.

105 [명설] 君子는 文友 仁의 一貫된 길이 있는 것이다. 벗이란 곧 글[文]로 만나야 한다. 그러한 벗이야말로 비로소 벗다운 벗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벗이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라 하는 것이다.

13 편

子路
자로

 [올제 후원하러 가기](#)

13편 | 子路 자로

자로가 정치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먼저 실행하고, 먼저 노력하라.” 좀 더 청한즉 “싫증을 내지 마라.”

子路問政 子曰 先之¹ 勞之² 請益³ 曰 無倦^{4 5}

중궁이 계씨의 총재가 된 후 정치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부하의 앞장을 서고 잔허물은 못 본 채하고, 잘난 인물을 골라 쓰도록 하여라.” “어떻게 골라야 잘난 인물을 추려 쓸 수 있을까요?” “네가 아는 인물을 골라 쓰면 되지. 네가 모르는 인물이라도 남들이 버려 둘 줄 아느냐!”

仲弓⁶ 爲季氏宰 問政 子曰 先⁷ 有司⁸ 赦小過⁹ 舉賢才¹⁰ 曰 焉知賢才而舉之 曰 舉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¹¹

자로 “위나라 주군이 선생님을 모셔다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생 “무엇보다도 이름을 바로잡아야지!” 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실지와는 먼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을 바로 잡는가요?” 선생 “무식쟁이야! 너는!

1 先之 : 백성들보다 먼저 행한다.

2 勞之 : 백성들의 수고를 먼저 더 맡는다.

3 請益 : 古禮로서 스승의 말끝에 한 마디 더 청한다.

4 無倦 : 직책에 지치는 일이 없다.

5 [명심] 정치의 要諦는 바르게 하는데 있거니와 게다가 率先垂範하며 부지런하고 꾸준히 백성들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다. 어찌 無爲而化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될 법이나 한 일이겠는가.

6 仲弓 : 冉雍.

7 先 : 先之. 먼저 한다.

8 有司 : 屬司. 四級 以下 公務員.

9 赦小過 :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아량.

10 舉賢才 : 정치의 보필은 賢才를 얻는데 있다.

11 [명심] 아랫사람에게 寬容의 德을 베풀고 賢人을 구하여 政治의 要路에 나서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參與하고 協力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나하기에 마련인 것이다.

참된 인간은 모를 바에야 잠자코 있는 법이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법이 나 음악이 융성하지 못하고, 예법과 음악이 융성하지 못하면 형벌이 옳게 되지 못하고, 형벌이 옳게 되지 못하면 백성들이 몸돌 곳조차 없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은 이름을 붙이면 꼭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말하면 꼭 그대로 행할 수 있다. 참된 인간은 제 말에 군색함이 없도록 할 따름인 것이다.”

子路曰 衛君¹²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¹³ 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¹⁴ 也 奚其正 子曰 野¹⁵ 哉 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¹⁶ 也 名不正 則言不順¹⁷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¹⁸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故君子 名之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¹⁹ 而已矣^{20 21 22}

번지가 농사짓는 법을 배우려고 한즉, 선생 “나는 늙은 농사꾼만 못하다.” 채소 가꾸는 법을 배우려고 한즉, 선생 “나는 늙은 밭갈이꾼만 못하다.” 번지가 나간 후에 선생 “하찮은 애야. 번수는! 윗사람이 예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의리에 살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믿음직

12 衛君：出公輒。

13 名：父子君臣의 定名。

14 迂：말다.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15 野：文의 反. 禮文이 없는 모습.

16 闕如：빼놓는다. 참견하지 않는다.

17 言不順：차례를 따라서 말을 하지 않는다. 말에 순서가 없다

18 刑罰不中：죄 없이 벌을 받거나 죄인이 형벌을 받지 않거나 한다.

19 苟：얕매어 퍼지 못한다. 拘束된다.

20 [명설] 이는 衛靈公이 죽자 그의 손자와 그의 아들 사이에 벌어진 王位 계승문제를 둘러싼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父子 君臣간의 名分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때에 出公輒은 제 아버지를 아버라 부르지 않고, 제 아버지 蒯聵를 무력으로 내쫓고 祖父 靈公을 아버지로 삼아 제사 지냈던 것이니 어찌 먼저 大義名分을 바로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21 [명설] 正名論의 의미를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22 [명설] 「雍也」권 (7)(15)절을 보라.

하면 백성들이 진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사방 백성들이 아기를 업고서도 모여 올 것인데, 농사짓는 법은 어디다 쓰려는지!”

樊遲請學稼²³ 子曰 吾不如老農 請學爲圃²⁴ 曰 吾不如老圃²⁴ 樊遲出 子曰 小人²⁵ 哉 樊須²⁶ 也 上好禮 則民莫敢不敬 上好義 則民莫敢不服 上好信 則民莫敢不用情²⁷ 夫如是 則四方之民 襁負其子而至矣 焉²⁸ 用稼²⁹

선생 “옛 시를 삼백이나 외우는데, 정치를 맡되 사리에 어둡고, 외국에 보내 보아도 제 구실을 못하면 많이 안다고 한들 무엇에 쓴담!”

子曰 誦³⁰ 詩三百 授之以政不達 使於四方不能專³¹ 對 雖多³² 亦奚以爲³³

선생 “제 자신이 바르면 명령 없이도 잘 되고, 제 자신이 그러면 명령한들 복종 않는다.”

23 稼 : 五穀을 가꾸는 일

24 圃 : 채소를 가꾸는 일.

25 小人 : 자잘한 농사꾼.

26 樊須 : 빈지의 이름.

27 情 : 情實. 實情. 誠實.

28 焉 : 何.

29 [명설] 樊遲의 農本主義의 教民論에 대하여 공자는 禮敎 優先의 입장을 굳게 다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技術教育에 앞서 人間教育이 先行되어야 함을 역설한 셈이다. 공자는 결코 稼穡을 賤視한 것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樊遲의 주의력을 稼穡에서 禮義로 돌리게 했을 따름인 것이다.

30 誦 : 諷. 소리내어 외우다.

31 專 : 전담시킨다.

32 多 : 많이 배우다. 詩 외에 六經까지 배우다.

33 [명설] 詩란 본시 民情과 君心의 眞實을 살피기에 넉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詩를 외우면서도 정치적 역량이나 외교적 수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는 詩를 길잡은 위인이랄 수밖에 없다. 다른 학문을 제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모름지기 사람은 겉보다도 진실을 배워야 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子曰 其身正 不令³⁴ 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³⁵

선생 “노나라와 위나라 정치는 형제뻘이니라.”

子曰 魯³⁶ 衛³⁷ 之政 兄弟也³⁸

선생이 위 공자(公子) 형을 평하여 말하기를 “살림을 잘 하거든! 처음 모여진즉, ‘이만하면 쓰겠지’하고, 좀 더 불안한즉, ‘이만하면 다 됐지’하고, 넉넉해진즉, ‘이만하면 훌륭하다’라 하였다.”

子謂衛公子荊³⁹ 善居室⁴⁰ 始有 曰 苟合⁴¹ 矣 少有 曰 苟完⁴² 矣 富有 曰 苟美⁴³ 矣^{44 45}

선생이 위나라에 갔을 때 염유가 수레채를 잡은즉, 선생 “사람들이 많군!” 염유 “많아졌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해 줄까요?” “부를 누리도록 해야지.” “부를 누리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해줄까요?” “가르쳐야지.”

34 令 : 敕令.

35 [명설] 모든 것은 다 자기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니 修身이 근본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실로 내가 바르게 된 연후에야 남을 바르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36 魯 : 周公의 封國.

37 衛 : 康叔의 封國.

38 [명설] 魯, 衛는 본래 兄弟國인데 그의 國政도 비슷함을 탄식하고 있다. 魯나라에서는 季孫이 昭公을 逐出하고 廢世子를 定公으로 세워놓고 國政을 擅斷하였으며 齊나라에서는 石曼姑가 世子를 拒逆하고 出公을 脅迫하여 國政을 擅斷한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형제처럼 같다는 것이다. 魯 衛가 다 같이 先王의 道에서 멀어진 것을 한탄한 말이다.

39 荊 : 衛나라 大夫.

40 善居室 : 집안 살림을 잘 처리한다.

41 合 : 살림할 정도에 알맞다.

42 完 : 충분하다.

43 美 : 넘치도록 좋아졌다.

44 [명설] 살림이 점차로 넉넉해짐에 따라 결코 “富而驕”하지 않았음을 칭찬한 글이다.

45 [명설] 「學而」편 (1)(15)절 “富而無驕”를 “富而好禮”로 提高하기를 기대한 점을 상기하도록 하라.

子適衛 冉有僕⁴⁶ 子曰 庶⁴⁷ 矣哉 冉有曰 既庶矣 又何加焉 曰 富⁴⁸ 之 曰 既富矣 又何加焉 曰 教⁴⁹ 之⁵⁰

선생 “나를 써 주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한 달만이라도 좋다. 삼 년이면 성공할 수 있고…”

子曰 苟⁵¹ 有用我者 朞月⁵² 而已可也 三年⁵³ 有成⁵⁴

선생 “일 잘하는 인물이 나라를 다스리되 백 년이 되면, 아마 폭력도 이겨내고, 사형도 없앨 것이다”라 하는데, 참으로 옳은 말인가 보다!”

子曰 善人⁵⁵ 爲邦百年 亦可以勝殘⁵⁶ 去殺⁵⁷ 矣 誠哉 是言也⁵⁸

선생 “왕 노릇하는 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 세대가 지나야 사람 구실들을 다하게 될거야.”

46 僕：御.

47 庶：무리. 人口過多.

48 富：産業 振興, 國民所得 增大.

49 教：禮節 教育, 國民教育, 社會教化.

50 [명설] 人口와 産業과 教育은 國家 形成의 三大要素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을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51 苟：誠.

52 期月：周一月. 꼭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53 三年：긴 세월.

54 [명설] 짧은 기간이라도 써주면 그만큼의 이익이 없지 않으나 그의 성공은 적어도 三年이라는 긴 세월을 요하는 것이다. 專制 아닌 教化政策은 그 效果가 그만큼 漸進의임을 의미한다.

55 善人：政事を 잘 다루는 사람.

56 殘：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

57 殺：사람을 죽인 자.

58 [명설] 賢哲한 君王이 이어서—世紀 百年을 다스린다면 실로 淳厚한 民俗이 形成될 것이다. 民主主義 百年歷史도 이에 못하지 않을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子曰 如⁵⁹ 有王者⁶⁰ 必世⁶¹ 而後仁^{62 63}

선생 “실로 제 자신을 바르게 가지면 정치하는 것쯤 문제가 아니야! 제 자신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한담!”

子曰 苟⁶⁴ 正其身矣 於從政⁶⁵ 乎何有 不能正其身 如正人何⁶⁶

염유가 조정에서 물러나온즉, 선생 “왜 늦었나?” 대답하기를 “정사 때문입니다.” 선생 “그럭저럭한 일이었겠지. 만일 정사였다면, 나를 써 주지는 않고 있으나 나도 함께 들을 수는 있었을 거다.”

冉子退朝 子曰 何晏⁶⁷ 也 對曰 有政⁶⁸ 子曰 其事⁶⁹ 也 如有政 雖不吾以⁷⁰ 吾其與聞之⁷¹

정공이 말 한 마디가 나라를 번영하게 할 수도 있겠는지를 물은즉, 선생은 대답하기를 “말만으로 꼭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지만 흔히 말하기를 ‘군왕 노릇도 어렵

59 如: 만일.

60 王者: 王道主義者, 王政論者.

61 世: 一世代, 父子相承할 수 있는 30年.

62 仁: 仁政의 完成.

63 [평설] 王政 仁政 이란 急進의 效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恒德에 의하여 成果를 거두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64 苟: 誠.

65 政: 正.

66 [평설] 남을 바르게 만들자면 제 자신을 먼저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본 자신이 바르지 않고서 그의 기업—타인—이 바르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67 晏: 늦다.

68 有政: 올바른 政令.

69 有事: 빈잡한 일들.

70 以: 用.

71 [평설] 冉子의 아른 곳을 찌르는 말이다. 올바른 일과 지겨분한 雜事와는 다르다. 冉子의 하는 일이 政事가 아니요, 雜事일진대 나를 敬遠한 것은 당연하지만 올바른 政事라면 왜 자기가 參與하지 않았겠나 하는 自信을 가진 공자다. 雜事에 參劃한 冉子를 나무라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

고 신하 노릇도 쉽지 않다’하는데, 군왕 노릇이 어려운 줄 안다면 아마도 말 한마디가 나라를 번영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 한 마디가 나라를 망치게 할 수 있겠는지?” 선생은 대답하기를 “말만으로 꼭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지만 흔히 말하기를 ‘나는 군왕 노릇쯤 별 재미없으나 내가 말만 꺼내면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는데, 만일 그 말이 좋아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습니까? 만일 말이 좋지 않는데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말 한 마디가 나라를 망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定公問 一言而可以興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⁷² 也 人之言⁷³ 曰 爲君難 爲臣不易 如⁷⁴ 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 曰 一言而喪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⁷⁵ 也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如不善而莫之違也 不幾乎一言而喪邦乎⁷⁶

섭공이 정치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가까운 사람들은 기뻐하고 먼 데 사람들은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葉公⁷⁷ 問政 子曰 近者說 遠者來⁷⁸

자하가 거부 지방 원이 되어 정치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성공을 서둘지 말고, 잔 잇속에 팔리지 마라. 서두르면 사리가 툭 띄지 않고, 잔 속수에 팔리면 큰 일이

72 幾 : 거의. 바라는 그대로 거의 그렇게 된다.

73 人之言 : 사람들이 거저 지껄이는 말.

74 如 : 만일.

75 莫予違 : 내 말과 엇나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

76 [명심] 한 마디 말이 한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있다면 言語란 실로 精神力의 源泉이 아닐 수 없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俗諺도 있거니와 씨앗으로서의 말이야말로 人生의 壽夭와 國家의 興亡이 달려 있으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77 葉公 : 楚나라 葉縣의 縣尹.

78 [명심] 가까운 데 있는 무리들에게 恩惠를 베풀면 기뻐할 것이요, 먼 데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살기를 원할 것이다. 政治도 가까운 데로부터 은혜를 퍼야 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되지 않거든.”

子夏爲莒父⁷⁹ 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80 81}

섬공이 공 선생더러 말하기를 “우리 고장에는 고지식하게 곧은 사람이 있는데 제 아버지가 염소를 도둑질하자 아들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공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 고장에 있는 곧은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기나, 곧은 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⁸²者 其父攘⁸³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⁸⁴ 子爲父隱 直在其中矣⁸⁵

번지가 사람 구실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집안에서는 공손하고, 일 처리는 깍듯이 하고, 진정으로 남과 사귀어야 하는 것들은 되놈의 땅에 가더라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79 莒父: 魯나라 고을 이름.

80 [명설] 모든 일은 너무 서둘면 무리와 억제가 따르게 마련이다. 順理대로 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태도”와도 통하는 것이다.

81 [명설] “大欲은 小利를 버리는 데 있다”는 말이 있다. 小貪大失이란 이를 두고 이른 말일 것이다. 大成을 기대하면서 小利에 汲汲하다면 그것이 어찌 될 법이나 한 일이겠는가.

82 直躬: 人名이란 설도 있다.

83 攘: 줌도적질하다.

84 隱: 숨긴다.

85 [명설] 隱惡而揚善(『中庸』)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미를 간직한 공자의 가르침이지만 도적질의 刑事事件까지 隱匿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父子의 情誼는 刑事問題를 超越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공자는 道義優位의 사상을 낳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父子 간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비록 殺人혐의에 있어서도 결코 僞證罪가 成立이 안 되는 所以가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樊遲問仁 子曰 居處⁸⁶ 恭⁸⁷ 執事敬⁸⁸ 與⁸⁹ 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⁹⁰

자공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 “제 몸을 가누는데 엄치를 알고, 외국으로 사신 가서 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가히 선비에 들 수 있지.” “그 다음은 어떤가요?” “집안 사람들은 효성스럽다 하고, 마을 사람들은 공손하다 하면 되지.” “그 다음은 어떤가요?” “말에 빈틈이 없고, 행동에 끝장을 보고야 마는 것은 딱딱한 것이라 하찮은 인물이지. 허지만 그 다음에나 간다고 해두자.” “요즘 행정가들은 어떻습니까?” 선생 “흠, 조불조불한 사람들을 어찌 다 셀까!”

子貢問曰 何如斯可謂之士⁹¹ 矣 子曰 行己有恥⁹² 使於四方 不辱⁹³ 君命 可謂士矣 曰 敢問其次 曰 宗族稱孝焉 鄉黨稱弟焉 曰 敢問其次 曰 言必信 行必果 硜硜然⁹⁴ 小人⁹⁵ 哉 抑⁹⁶ 亦可以爲次矣 曰 今之從政者何如 子曰 噫 斗筭⁹⁷ 之人 何足算也⁹⁸

86 居處 : 日常生活에서起居하는 곳.

87 恭 : 공경과容貌을 주로 삼는다.

88 敬 : 공경이 일을 주로 삼는다

89 與 : 交與

90 恭 敬 忠 등의 禮俗은 비록 夷狄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禮俗이 뒤진 곳에 가더라도 風俗이 薄惡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禮俗을 갖추도록 힘쓰으로써 教化의 實을 거두도록 해야할 것이다.

91 士 : 벼슬살이하는 자.

92 有恥者 : 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

93 辱 : 굽힌다. 屈辱. 부끄러움. 恥辱.

94 硜硜然 : 돌 소리처럼 딱딱한 소리로서 성글지 않다.

95 小人 : 小德之人.

96 抑 : 겨우.

97 斗筭 : 적은 그릇. 局量이 偏小하다.

98 [명설] 선비의 이름은 벼슬과 크게 관계된다. 외교사신의 중책도 실수 없이 수행합직한 인물이어야 하지만 孝 悌 忠 信의 덕을 갖춘 자도 벼슬과는 관계없이 선비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花郎의 國仙 선비와는 구별되는 차이기도 한 것이다.

선생 “알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못 만나게 되면, 그야 지나친 미치광이나 고집 센 억지꾸러기들일 거야! 지나친 미치광이는 진취성이 있고, 고집 센 억지꾸러기들은 하지 않는 대목이 있느니라.”

子曰 不得中行⁹⁹ 而與之 必也狂¹⁰⁰ 狷¹⁰¹ 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爲也¹⁰²

선생 “남녘 사람들의 말에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무당이나 의사는 될 수 없다’ 하었는데 옳은 말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수치를 사는 수가 있다” 하였다. 선생 “점칠 것까지도 없느니라.”

子曰 南人¹⁰³ 有言 曰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善夫 不恒其德¹⁰⁴ 或承之羞 子曰 不占而已矣¹⁰⁵

선생 “참된 인물은 진정으로 화합하지 고개만 끄덕거리지 않는다. 하찮은 인간은 고개만 끄덕거리지 진정으로 화합하지 않는다.”

99 中行 : 中庸의 道.

100 狂 : 뜻만 높았지 行動이 감싸주지 못한 자(주자). 조금하게 굴면서 함부로 하는 자(다산).

101 狷 : 知는 미치지 못하면서도 지키는 대목에서는 여유가 있다(주자). 결백하면서도 도량이 좁은 자(다산).

102 [평설] 미치광이는 진짜 미치광이가 아니라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자이다. “...에 미쳤다”는 것은 全心 全力을 쏟는다는 뜻이다. “得一善則拳拳服膺弗失之矣”(『中庸』)는 恒守弗失의 고집이 아닐 수 없다. 실로 善을 위해서는 固執不通 妥協을 모르는 대목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103 南人 : 吳 越 등의 南國人.

104 不恒其德 : 易의 恒卦의 爻辭.

105 [평설] 恒德 恒心은 君子에게 요구되는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中庸의 德도 庸德 庸言이란 점에서 有常의 恒德을 의미한다. 不變하는 恒德이 존중되는 所以는 그것이 또한 至誠의 德으로도 통하기 때문이다.

子曰 君子和¹⁰⁶ 而不同¹⁰⁷ 小人同而不和¹⁰⁸

자공이 묻기를 “마을 사람이 다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선생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마을 사람이 다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선생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마을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이 좋아하고, 마을 사람 중에서도 못된 자들이 싫어하는 것만 못하지.”

子貢問曰 鄉人¹⁰⁹ 皆好之 何如 子曰 未可也 鄉人皆惡之 何如 子曰 未可也 不如鄉人之善者好¹¹⁰ 之 其不善者惡¹¹¹ 之¹¹²

선생 “참된 인물은 섬기기는 쉬우나 기쁘게 해 주기는 어렵다. 기쁘게 해 주는데도 옳은 방법이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을 부리되 그릇처럼 생김새대로 쓴다. 하찮은 사람은 섬기기는 어렵고 기쁘게 해 주기는 쉽다. 기쁘게 해 주는데 옳은 방법이 아니라도 기뻐한다. 사람을 부리되 아무거나 죄다 시킨다.”

子曰 君子易事¹¹³ 而難說¹¹⁴ 也 說之不以道¹¹⁵ 不說也 及其使人也 器¹¹⁶ 之 小人難事 而

106 和 : 잘 어울린다. 거슬리는 마음이 없다.

107 同 :附和雷同한다. 아첨하며 따른다.

108 [평설] 君子와 小인의 구별은 결국 그의 마음가짐에 있을 것이다. 君子는 진심으로 남과 사귀지만 小人은 겉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에게는 마음으로 맺는 同志가 있지만 小人에게는 利害得失로 맺어지는 벗이 있을 따름이다.

109 鄉人 : 동향 사람.

110 好 : 기뻐한다.

111 惡 :厭惡한다.

112 [평설] 만일 鄉인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아함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니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요, 惡인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惡인과 구차하게迎合하는 사람일 것이니 그도 또한 별 수 없는 위인일 것이다. 결국 참된 人間은 모름지기 好善惡惡이 분명해야 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113 事 : 받들어 모신다.

114 說 : 기쁘게 해준다.

115 道 : 올바른 방법.

116 器 : 그릇 생김 대로 쓴다.

易說也 說之雖不以道 說也 及其使人也 求備¹¹⁷ 焉¹¹⁸

선생 “참된 인물은 차분하되 뽐내지 않는다. 하찮은 것들은 뽐내면서 차분하지 않다.”

子曰 君子泰¹¹⁹ 而不驕 小人驕¹²⁰ 而不泰¹²¹

선생 “단단하고, 굳세고, 소박하고, 말더듬이러야 아마도 사람답지.”

子曰 剛毅¹²² 木訥¹²³ 近仁¹²⁴

자로가 묻기를 “어떻게 되어야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 “선선하고 떳떳하고 병실병실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지. 벼들에게는 선선하고 떳떳하며, 형제끼리는 병실병실해야지.”

子路問曰 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 切¹²⁵ 切 偲¹²⁶ 偲 怡¹²⁷ 怡如也 可謂士矣 朋友切切

117 求備 : 못하는 일까지 요구한다.

118 [명설] 君子는 언제나 小人과 대조적이다. 君子는 正道를 걷기 때문에 섬기기 쉬운 것이요, 小人은 邪道도 사양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기 어려운 것이다. 아마도 君子와 小人의 구별은 正 邪의 구별인지도 모른다.

119 泰 : 내면에 충실을 가하면서 그 밖의 것을 넘어다보지 않는다.

120 驕 : 內面은 空虛하면서 기운만은 밖으로 뽐는다.

121 [명설] 君子는 內實을 기하는데 小人은 虛氣만이 밖으로 나타날 따름이다. 君子와 小人은 이 점에 있어서도 상반된 樣相으로 나타난다.

122 毅 : 의젓하다. 굳게 붙잡다.

123 訥 : 느릿느릿하다.

124 [명설] 剛毅는 勇行이요, 木訥은 慎言이라 할 수 있다. 굳세면 오래가며 꾸준한 것이다. 실로 勇行과 慎言은 仁人의 兩面이 아닐 수 없다.

125 切 : 간절한 태도.

126 偲 : 장엄한 얼굴빛.

127 怡 : 부드러운 모습.

偲偲 兄弟怡怡¹²⁸

선생 “좋은 인물이 백성을 가르치되 칠 년이 되면 전쟁에 내보냄직도 할거야.”

子曰 善人¹²⁹ 教民¹³⁰ 七年¹³¹ 亦可以即戎¹³² 矣¹³³

선생 “교육 없는 백성을 끌고 전쟁한다면, 그것은 죽여 버리는 것이라고나 할거야.”

子曰 以不教民戰 是謂棄之¹³⁴

128 [평설] 선비란 장차 벼슬아치가 될 인물로서 책임감에 투철하면서도 태도는 장엄하고, 한 편으로는 和順한 모습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시 子路의 不足을 補充하는 對症投藥의 發言이기도 한 것이다.

129 善人: 일을 잘 처리하는 자.

130 教民: 仁義를 교육하여 위사람을 섬길 줄 알게 하고 武勇을 가르쳐서 進退의 法을 알게 한다.

131 七年: 옛사람들의 限數.

132 即戎: 攻防戰에 나아간다.

133 [평설] 七年이란 꼭 數字의인 것은 아니다. 充分한 年數의 교육만 한다면 國民의 防衛態勢는 바람직하게 갖추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134 棄之: 내던져 버린다.

[평설] 義理—國防精神—도 모르고 兵術—軍事訓練—도 모르는 백성들을 一線에 내보낸다면 그것은 목숨을 내버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極言하자면 간접적 殺人이 되는 것이다.

[평설] 위 章과 합하여 1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14 편

憲問
원헌이 묻기를

 [올재 후원하러 가기](#)

14편 | 憲問 원현이 묻기를

원현이 부끄러움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나라의 질서가 쇠을 때도 국록을 먹고, 나라의 질서가 문란할 때도 국록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걸.”

憲¹ 問恥 子曰 邦有道穀² 邦無道穀 恥也³

“원망이나 욕심을 꺾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면 사람답게 됐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 “하기 힘들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람답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克⁴ 伐⁵ 怨⁶ 欲⁷ 不行焉 可以爲仁矣 子曰 可以爲難矣 仁則吾不知也^{8 9}

선생 “선비가 집안일을 못 잊어 하면 선비답지가 못하다고 할걸.”

子曰 士而懷¹⁰ 居¹¹ 不足以爲士矣¹²

1 原憲: 자는 子思. 공자의 손자인 子思와는 다르다.

2 穀: 국록. 벼슬살이

3 [명설] 君자의 道는 모날 때는 모가 나되 둥글기만하고 圓滿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治世에는 합치하지만 亂世에는 벗어나야 하는데도 治世나 亂世나 가릴 것 없이 국록을 먹는다면 그 사람의 사람됨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다산). 이러한 인물을 공자는 鄉愿이라 하였다.

4 克: 剋.

5 伐: 攻.

6 怨: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7 欲: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낸다.

8 [명설] 克伐怨欲은 곧 克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怨欲을 克伐한다는 뜻에서 克伐怨欲은 四德이 아니라 克欲의 一德인 것이다.

9 [명설] 윗장과 같이 憲問에 답하는 말로 풀 수가 있다.

10 懷: 연연하다.

11 居: 살림살이.

12 [명설] 늪라서 단란한 가정생활과 아늑한 田園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社會를 위한 自己奉仕나 國家를 위한 心身의 勞苦를 忌避한다면 그는 아무래도 선비—지도자—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모름지기 집안일은 남을 위한 奉仕의 뒤로 미루어야 아마도 선비의 길은 트여질 것이다.

선생 “나라의 질서가 섰을 때는 말도 대답하고 행동도 대답해야 한다. 나라의 질서가 문란한 때는 행동은 대답하되 말은 부드러워야 한다.”

子曰 邦有道 危¹³ 言 危行 邦無道 危行 言孫^{14 15}

선생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바른 말을 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반드시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기가 있다고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인 것은 아니다.”

子曰 有德者 必有言¹⁶ 有言者 不必有德 仁¹⁷ 者 必有勇¹⁸ 勇者 不必有仁¹⁹

남궁괄이 공 선생께 묻기를 “예는 활을 잘 쏘고, 오는 배를 산 위로 밀치던 장사지만 둘 다 온전한 죽음을 못했는데, 우왕이나 직은 몸소 밭갈이 했지만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선생은 대답을 앓고, 남궁괄이 물러난 후에, 선생 “훌륭한 인물이야. 저런 애는! 올바른 일을 숭상하지. 저런 애는!”

南宮适²⁰ 問於孔子曰 羿²¹ 善射 奭²² 盪舟 俱不得其死 然禹 稷²³ 躬稼而有天下 夫子

13 危 : 대답하다. 위험을 무릅쓰다.

14 孫 :遜. 겸손하다. 순종하다.

15 [명설] 行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대답한 果敢性이 요청되는 것이지만 言語만은 때에 따라 침묵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때는 말이 결코 모나서는 안 될 것이다.

16 有言 :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말.

17 仁 : 忠 孝에 지극한 정성을 가진 자.

18 勇 : 환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19 [명설] 정신적 바탕을 지닌 신념이 행동화할 때는 용기도 용솟음치고 그의 말은 길을 가리키는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바탕이 없는 자의 말은 橫說豎說이 될 것이요, 혼자서 큰소리만치는 위인이 되어버리기 일췌인 것이다. 그러므로 仁德이야말로 人間形成의 근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0 南宮适 : 南容. 「公冶長」편 (5)(1)절을 보라.

21 羿 : 有窮의 君主. 夏나라 재상으로서 성은 夷

22 奭 : 羿를 죽인 寒浞의 아들.

23 稷 : 帝舜의 신하로서 周의 遠祖. 이름은 棄.

不答 南宮适出 子曰 君子哉 若人 尙²⁴ 德哉 若人²⁵

선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사람답지 못한 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저분한 사람치고 사람다운 사람은 없다.”

子曰 君子²⁶ 而不仁者 有矣夫 未有小人²⁷ 而仁者也^{28 29}

선생 “아껴 주는데 애써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진심일진댄 깨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子曰 愛之 能勿勞³⁰ 乎 忠焉 能勿誨³¹ 乎³²

선생 “외교 문서는 비침이 초안을 만들고, 세속이 검토하고, 외교관 자우가 다듬고, 동리의 자산이 부드럽게 꾸민다.”

24 尙 : 上.

25 [명설] 南宮适은 福善禍淫하는 倫理的 宿命을 믿었기 때문에 공자는 그를 칭찬한 것이다. 모름지기 君子는 꾸준히 善行하면서 하늘의 禍福을 받아들이야 한다. 간혹 하늘은惡한 자에게 富貴를 주거나 善한 자도 貧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事例가 수두룩하지만 仁人은 결코 그의 善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儒敎倫理의 절대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26 君子 : 학식이 넉넉하여 남의 뒷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27 小人 : 利欲에 따르면서 남의 밑에 있는 것을 도리어 감수하는 사람.

28 [명설] 여기서는 君子와 小人의 구별을 學識과 利欲을 기준으로 하였고 나아가 그의 地位로 따진 듯하다.

29 [명설] 여기서의 仁은 孝親 忠君의 德을 말하는 것으로서 君子에게는 기대할 수 있지만 小人에게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行動은 利欲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30 勞 : 온몸이 피로하다.

31 誨 : 잘못을 깨우쳐 주다.

32 [명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수고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요, 진정으로 충성을 다하기로 한다면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지극한 정성의 앞에는 사소한 고생이나 오해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子曰 爲命³³ 裨諲³⁴ 草創之 世叔³⁵ 討論之 行人³⁶ 子羽³⁷ 修飾之 東里³⁸ 子產³⁹ 潤色之⁴⁰

어느 사람이 자산의 인물을 물은즉, 선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자서의 인물을 물은즉, 선생 “그 자는! 그 자는!” 관중의 인물을 즉, 선생 “그 사람은 백씨의 변 읍 삼백 호를 빼앗았지만 백 씨는 나물죽을 먹으면서도 평생토록 한 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느니라.”

或問子產 子曰 惠⁴¹人也 問子西⁴² 曰 彼哉 彼哉 問管仲⁴³ 曰 人也 奪伯氏⁴⁴ 駢邑三百 飯疏食 沒齒⁴⁵ 無怨言^{46 47 48 49}

선생 “가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지만, 부자가 교만하지 않기는 쉽지”

33 命 : 외교 문서.

34 裨諲 : 鄭나라大夫.

35 世叔 : 위와 같음. 성은 游. 이름은 吉. 世叔은 그의 字.

36 行人 : 官名.

37 子羽 : 鄭나라 公孫揮.

38 東里 : 子產이 살던 마을 이름.

39 子產 : 鄭나라 대부 公孫僑. 穆公의 孫.

40 [명설] 外交文書 1통을 만드는데도 이처럼 緻密한 것으로 보아 그 나라—鄭—정객의 周到綿密함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41 惠 : 은혜를 베푼다

42 子西 : 鄭나라大夫. 楚나라 令尹에 子西가 있는데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43 管仲 : 齊나라의 大功臣.

44 伯氏 : 齊나라大夫.

45 沒齒 : 죽음.

46 [명설] 공자의 人物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47 [명설] 伯氏가 원망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8 [명설] 問管仲曰人也의 人 위에는 한 字가 빠진 듯?

49 [명설] 彼哉彼哉는 보잘 것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子曰 貧⁵⁰ 而無怨 難 富⁵¹ 而無驕 易^{52 53}

선생 “맹공작은 조, 위 같은 큰 나라 재상이 된다면 잘 하겠지만, 등, 설 같은 곳의 대감은 아니야.”

子曰 孟公綽⁵⁴ 爲趙 魏老⁵⁵ 則優 不可以爲滕 薛大夫⁵⁶

자로가 완성된 인간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장무중의 지혜, 공작의 무욕, 변장자의 용기, 염구의 재주에다가 예의와 음악으로 문채를 내면,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요즈음 완성된 인간은 그런 것까지도 없습니다. 잊속에 당면해서는 정의를 생각하고, 위협에 직면하여 목숨을 바치고, 오래된 약속도 평생토록 잊지 않으면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子路問成人 子曰 若臧武仲⁵⁷ 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⁵⁸ 之勇 冉求之藝⁵⁹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曰 今之成人⁶⁰ 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50 貧: 가난은 뼈에 사무치는 까닭에 원망하기 怨天, 尤人 쉽다.

51 富: 마음이 부풀기 때문에 교만해진다.

52 [명설] 『學而』편 (1)(15)절을 보라.

53 [명설] 사람이란 가난한 때도 있고 財閥이 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貧 富 그 자체가 그의 사람됨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름지기 人間性은 貧 富 밖에 초연히 존재해야 할 것이다.

54 孟公綽: 魯나라 대부. 孟氏의 一族. 寡欲의 사람이지만 잔재주는 없던 인물.

55 老: 家老. 家臣.

56 [명설] 趙魏는 세력이 크고 영토도 넓기 때문에 滕薛 같은 작은 나라의 일의 곱절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孟公綽은 그러한 職責의 任務는 잘 처리하지만 卿大夫로서의 體貌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卑下해서 하는 말이다.

57 臧武仲: 魯나라 대부. 藏文仲의 손자. 이름은 紇.

58 卞莊子: 魯나라 卞邑의 대부. 호랑이를 잡은 장사『史記』를 보라.

59 藝: 才能이 많다.

60 成人: 全人.

亦可以爲成人矣⁶¹

선생이 공숙문자에 대하여 공명고더러 묻기를 “사실일까요? 그 분은 말도 않고, 웃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니.” 공명고가 대답하기를 “그런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분은 할 때라야 말을 하니 사람들은 그 말에 지치지 않고, 즐거워야 웃었으니 사람들은 그 웃음에 지치지 않고, 합당해야만 받으니 사람들은 그가 받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 “그랬던가요! 정말 그랬을까요!”

子問公叔文子⁶² 於公明賈⁶³ 曰 信乎 夫子⁶⁴ 不言 不笑 不取乎 公明賈對曰 以告者 過也 夫子時 然後言 人不厭其言 樂 然後笑 人不厭其笑 義 然後取 人不厭其取 子曰 其然 豈其然乎⁶⁵

선생 “장무중이 방 지방을 점유하여 후계자를 세우려고 노나라에 요구했는데 ‘주 군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子曰 臧武仲 以防⁶⁶ 求爲後⁶⁷ 於魯 雖曰不要⁶⁸ 君 吾不信也^{69 70}

61 [명설] 子路는 본래 自己意識이 강한 제자로서 스승과 맞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번에도 스승의 의견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自述하고 있음을 본다. 본시 禮文을 輕視하는 子路를 꾸짖어 말하기를 四子의 장점이 있더라도 文之以禮해야만 하는 것을 子路는 대뜸 現世의인 成人論을 펴고 있다. 스승의 理想論과 제자의 現實論과의 대결이라고나 할까!

62 公叔文子: 衛나라 大夫 公孫發. 文은 시호 그의 아들 때 孔叔氏라 불렀다.

63 公明賈: 衛나라 사람. 성은 公明, 이름은 賈.

64 夫子: 文子.

65 [명설] 公叔文子의 世評에 대하여 강한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무조건 不言 不笑 不取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不言 不笑 不取임을 公明賈의 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다. 其然은 肯定이요, 豈其然乎는 앞서 믿었던 무조건 不言 不笑 不取하는 公叔文子가 아님을 긍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다산)

66 防: 武仲의 故邑.

67 爲後: 後繼者를 세운다.

68 要: 위험한다.

69 [명설] 그가 魯나라로 떠나야만 하게 되었을 때(孟叔氏를 害하려다가 실패한 후) 그의 형 歲爲로 藏孫氏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하여 防지방에서 버틴 일이 있다.

70 [명설] 군주에게 後繼者의 승인을 강요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선생 “진문공은 속임수를 쓰니 바르지 않고, 제환공은 바르기에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子曰 晉文公⁷¹ 譎而不正 齊桓公⁷² 正而不譎^{73 74}

자로 “환공이 공자규를 죽였을 때 소홀은 따라 죽고 관중은 죽지 않았으니 사람 구실을 못한 것이 아닐까요?” 선생 “환공이 제후를 규합할 때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다. 그이처럼 사람 구실 했지! 그이처럼 사람 구실 했지!”

子路曰 桓公殺公子糾⁷⁵ 召忽⁷⁶ 死之 管仲不死 曰 未仁乎 子曰 桓公九合⁷⁷ 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⁷⁸ 其仁⁷⁹ 如其仁⁸⁰

자공 “관중은 사람 구실을 못한 이가 아닐까요? 환공이 공자규를 죽였을 때 따라 죽지도 못하고 게다가 그를 돕기까지 하였습니다.” 선생 “관중은 환공을 도와 제후의 두목이 되게 하여 천하를 한 번 바로 잡았으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의 은혜를 입고 있다. 관중이 아니었다면 나도 머리를 기르고 왼쪽으로 여미는 되놈이 되었을 것이다. 어찌 자잘한 무리들이 꺼드려거리다가 물구덩에 빠져 죽는 줄도 모르는 따위 같을 것이냐!”

71 晉文公 : 이름은 重耳, 獻公의 庶子.

72 齊桓公 : 이름은 小白, 僖公의 庶子, 둘 다 春秋시대의 覇者.

73 譎 : 사기친다.

74 [명설] 둘 다 覇者이지만 공자는 齊桓公을 管仲과 더불어 稱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75 公子糾 : 桓公의 異腹兄. 召忽과 管仲이 그의 스승이었다.

76 召忽 : 公子糾의 스승.

77 九合 : 糾合.

78 如 : 해당한다.

79 其仁 : 召忽의 仁.

80 [명설] 管仲은 비록 따라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政治的 功績은 마땅히 召忽의 그것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는 義理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使命을 위해서는 죽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子貢曰 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 不能死 又相之 子曰 管仲相⁸¹ 桓公 霸諸侯 一匡⁸² 天下 民到于今⁸³ 受其賜 微⁸⁴ 管仲 吾其被髮⁸⁵ 左衽矣 豈若匹夫匹婦之爲諒⁸⁶ 也 自經⁸⁷ 於溝瀆⁸⁸ 而莫之知也^{89 90}

공숙문자는 부하인 대부 선을 문자인 자기와 같은 자격으로 승격하여 조정에 나가게 하였다. 선생이 이를 듣고 “문이란 시호를 줄 만도 하다.”

公叔文子⁹¹ 之臣 大夫僕⁹² 與文子同升諸公 子聞之曰 可以爲文矣⁹³

선생이 위나라 영공의 무질서한 것을 말한즉, 강자 “그처럼 하는데도 왜 망하지 않을까요?” 공 선생 “중숙어는 외교를 맡고, 축타는 내정을 맡고, 왕손고는 군무를 맡았으니 그처럼 하는 데 왜 망하겠는가!”

子言衛靈公⁹⁴ 之無道也 康子曰 夫如是 奚而不喪 孔子曰 仲叔圉⁹⁵ 治賓客 祝鮀⁹⁶ 治

81 相 : 보필한다. 돕는다.

82 匡 : 바르게 바로잡다.

83 到于今 : 管仲의 治政 이래 200년에 이른다.

84 微 : 부정사. 無.

85 被髮 : 머리 풀어올리고 끝을 잡아맨다. 상투?

86 諒 : 자잘한信義.

87 經 : 목매어 죽다.

88 溝瀆 : 구렁창.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는 곳.

89 [명설] 공자는 管仲의 政治의 手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小乘의 義理보다는 大乘의 功績이 優先하는 것이다. 여기에 儒學은 經世學으로 발전하게 된 所以가 있는 것이다.

90 [명설] 「八佾」편 (3)(22)절을 보라.

91 文子 : 衛나라 大夫 公孫拔

92 大夫僕 : 본래 文子의 家臣이었다.

93 [명설] 文이라는 諡號를 받게 된 것은 자기의 家臣을 천거하여 자기와 같은 大夫의 자격으로 公朝에 서게 한 점에 있다. 공자는 그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94 衛靈公 : 이름은 元. 南子夫人에게 혹했던 暗君.

95 仲叔圉 : 孔文子. 大行人으로서 亂倫의 行實이 있던 자.

96 祝鮀 : 衛나라 臣下. 大祝으로서 佞人.

宗廟 王孫賈⁹⁷ 治軍旅 夫如是 奚其喪⁹⁸

선생 “아무렇게나 이야기해 버리면 실행할 때 곤란하지.”

子曰 其言之不悖⁹⁹ 則爲之也難¹⁰⁰

진성자가 간공을 죽이니, 공 선생이 몸을 깨끗이 한 후 조정에 나아가 애공께 여쭙기를 “진항이 그의 주군을 죽였습니다. 토벌하시기 바랍니다.” 공이 말하기를 “저 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공 선생 “나도 대부의 말석이나마 차지했기 때문에 여쭙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군은 ‘저 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하는구나!” 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한즉, 안 된다고 한다. 공 선생 “나도 대부의 말석이나마 차지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陳成子¹⁰¹ 弑簡公¹⁰² 孔子沐浴而朝告於哀公曰 陳恒弑其君 請討之 公曰 告夫三子¹⁰³
孔子曰 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 君曰 告夫三子者 之三子告 不可 孔子曰 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¹⁰⁴

자로가 주군 섬기는 길을 물은즉, 선생 “숨기지 말고 따지며 덤벼라.”

97 王孫賈 : 衛나라 臣下, 司馬로서 弄權하던 자.

98 [평설] 이러한 人物들이 賢者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才識이 나라를 保存하기에 넉넉하였기 때문에 衛나라는 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得國도 어렵거니와 失國도 그리 손쉬운 것은 아닌 것이다.

99 作 : 부끄럽게 여기다

100 [평설] 말만 앞세우고 실행하지 못한다 해도 이를 부끄럽게 여길 줄 모른다면 言行이 不一致한 그러한 위인을 공자는 항상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101 陳成子 : 성은 陳, 이름은 恒, 시호는 成, 齊나라 大夫.

102 簡公 : 齊侯, 景公의 아들인 悼公의 아들, 이름은 壬.

103 三子 : 魯나라 季孫 孟孫 叔孫.

104 [평설] 당시에 實權이 哀公에게서 三家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못마땅히 여긴 공자는 직접 哀公에게 陳恒의 잘못을告했던 것이다. 그러나 哀公은 다시 三子에게 떠넘기므로 공자는 할 수 없이 三子에게 가기는 갔으나 그것이 결코 정상적인 것은 아님을 똑똑히 했던 것이다.

子路問事君 子曰 勿欺¹⁰⁵也 而犯¹⁰⁶之¹⁰⁷

선생 “참된 인물은 위로만 띄고, 하찮은 위인은 아래로만 툴다.”

子曰 君子上達¹⁰⁸ 小人下達¹⁰⁹

선생 “옛날 공부는 자기를 위한 것이더니, 요새 공부는 남 때문에 하거든.”

子曰 古之學者爲¹¹⁰己¹¹¹ 今之學者爲人¹¹²

거백옥이 어느 사람을 공 선생께 심부름 보냈다. 공 선생은 자리에 앉힌 후 물기를 “주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가?” 대답하기를 “주인께서는 허물이 적었으면 하고 노력하면서 계시지만 잘 안 되시나 봅니다.” 심부름꾼이 나간 후에 선생 “심부름꾼이로군! 그야말로 참한 심부름꾼이로군!”

蘧伯玉¹¹³ 使人於孔子 孔子與之坐而問焉 曰 夫子何爲 對曰 夫子欲寡其過 而未能也

105 欺 : 진정을 숨기는 행위.

106 犯 :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말을 한다.

107 [명설] 군왕의 지위는 제야무리 尊貴하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을 때는 숨기지 말고 올바르게 進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忠誠인 것이다.

108 達達 : 도달한다.

109 [명설] 君子와 小人의 차이는 애초에는 그리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義와 利의 차이인 것이다. 그러나 君子는 날로 義에 의하여 위로 올라가고 小人은 날로 利에 의하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니 그럼으로써 君子와 小人의 차는千里나 벌어지고 말 것이다.

110 爲 : 助.

111 爲己 :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112 爲人 : 남 때문에, 남에게 보임으로써 남에게 도움이 된다.

[명설] 모든 공부는 내 學識과 實力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공부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나 개인의 名聲을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進德을 위한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찌 나 아닌 남의 進德이 내 공부일 수 있을 것인가.

113 蘧伯玉 : 성은 蘧, 이름은 瑗, 자는 伯玉. 衛나라 大夫.

使者出 子曰 使乎 使乎¹¹⁴

선생 “제 일도 아닌데 일 참견해서는 안 된다.”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¹¹⁵

증선생 “쓸모 있는 인간은 분 밖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¹¹⁶

선생 “참된 인간은 제 말이 제 행동에 앞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子曰 君子 恥其言而過其行¹¹⁷

선생 “참된 인간의 길에 셋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사람 구실하는 이는 근심하지 않고, 슬기로운 이는 어리둥절하지 않고 용기있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자공 “선생님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야.”

子曰 君子道¹¹⁸ 者三 我無能焉 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 子貢曰 夫子自道¹¹⁹也¹²⁰

114 [명실] 거백옥의 위인됨이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의 使者 또한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길을 아는 使者라면 결코 凡夫는 아닌 것이니 거듭 “使乎使乎”라 하여 그를 칭찬한 것을 볼 수 있다.

115 [참조] 泰伯·편 8(14)절에 거듭 나온다.

116 [명실]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 그 지위 밖으로 생각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社會秩序인 禮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벗어나다면 그것은 猥褻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참조] 冠裳과 습하여 보기도 한다(다산).

117 [명실] 君子는 그의 말과 행동이 一致해야 한다. 言顧行 行顧言(『中庸』)은 이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말이 어찌 행동에 앞설 수 있을 것인가.

118 道: 사람이 가는 길.

119 自道:自言.

120 [참조] 『子罕』·편 9(28)절을 보라. 仁·智·勇이 거듭 나온다.

자공이 인물평을 늘어놓족, 선생 “사는 잘났나 보지. 내게는 그럴 틈이 없는데……”

子貢方¹²¹人 子曰 賜¹²²也 賢¹²³乎哉 夫我則不暇¹²⁴

선생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야.”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¹²⁵

선생 “억지로 넘겨짚지도 않고, 의심 살까봐 꾸며대지도 않으면서 앞일을 훤히 아는 사람은 잘난 분일 거야!”

子曰 不逆¹²⁶ 詐¹²⁷ 不億¹²⁷ 不信 抑¹²⁸ 亦先覺者 是賢乎¹²⁹

미생묘가 공 선생께 말하기를 “군은 왜 이처럼 시시덕거리는가! 지나치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공 선생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집통이가 싫기 때문이지.”

微生畝¹³⁰ 謂孔子曰 丘¹³¹ 何爲是栖栖¹³² 者與 無乃爲佞¹³³ 乎 孔子曰 非敢爲佞也

121 方 : 左右를 서로 비교한다. 長短을 비교하며 따진다.

122 賜 : 子貢의 字. 이름은 端木.

123 賢 : 愈. 낫다.

124 [명설] 子貢이 남을 비방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꾸짖는 말이다. “賢乎哉”는 참으로賢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말투다. 우선 자기 할 일이나 하라는 의미가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125 [명설] 여기서 不能은 不能行인 것이다. 實踐力의 부족만이 항상 걱정될 따름인 것이다.

[참조] 『學而』편 (1)(16)절, 『里仁』편 (4)(14)절, 『衛靈公』편 (15)(19)절을 보라.

126 逆 : 이르지도 않은 것을 맞아들인다.

127 億 : 보지도 않은 것을 짐작하여 생각한다.

128 抑 : 그러면서도.

129 [명설] 억지가 끼지 않고 順理대로 생각하되 남보다도 먼저 깨닫는 것이 있는 사람은 賢明한 사람이다. 만일 여지가 낀다면 그것은 先覺이라 이를 수 없지 않겠는가.

130 微生畝 : 공자를 丘라 부른 것을 보면 공자보다 年長의 隱者인 듯.

131 丘 : 공자의 이름.

132 栖栖 : 不安한 모습.

133 佞 :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疾¹³⁴ 固¹³⁵ 也¹³⁶

선생 “천리마는 기운보다도 날쌔 재주를 보고 말하는 거야.”

子曰 驥¹³⁷ 不稱其力 稱其德¹³⁸ 也¹³⁹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원한을 은혜로 갚으면 어떤가요?” 선생 “은혜는 무엇으로 갚게! 원한은 곧은 것으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지.”

或曰 以德¹⁴⁰ 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¹⁴¹ 報怨 以德報德¹⁴²

선생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나보다!” 자공 “왜 선생님을 몰라준다고 하십니까?” 선생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차근차근 배워서 위로위로 올라가니, 나를 아는 자는 저 하늘인가!”

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¹⁴³ 知我

134 疾: 미워한다.

135 固: 궁기가 트이지 않고 막힌 것.

136 [명설] 隱者가 孔子를 評한 하나다. 공자의 修己以安百姓하자는 노력을 隱者들은 佞者의 行爲인 양 몰아세운다. 그러므로 공자는 隱者들의 태도야말로 隱居 獨善 棄世絶物하는 품이 마치 궁기가 꼭 막힌 것 같다는 것이다. 어찌 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37 驥: 옛날 날랜 말 이름.

138 德: 잘 길들여진 재주.

139 [명설] 당시의 世態가 武力強兵을 숭상하기 때문에 이를 말에 비유하여 그의 不當性을 지적한 것이다. 사람에게도 또한 德이 근본이 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140 德: 恩德.

141 直: 속이지 않는 것. 바른 대로.

142 [명설] 老子도 報怨以德이라 하였고 그리스도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지만 공자는 好善 惡惡이 분명하여 以直報怨을 以德報德에 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시하였다. 공자는 正中一直을 무엇보다도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143 達: 達天.

者 其天乎¹⁴⁴

공백료가 계손에게 자로를 중상한즉, 자복경백이 이 일을 밝혀 말하기를 “그 분도 확실히 속아 넘어가 있습니다. 공백료는 내 힘으로도 죽여서 저자거리에다가 내걸 수 있습니다.” 선생 “질서가 제대로 잡혀지는 것도 천명이요, 질서가 문란해져 버리는 것도 천명이니, 공백료인들 그 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公伯寮¹⁴⁵ 愬¹⁴⁶子路於季孫 子服景伯¹⁴⁷ 以告曰 夫子¹⁴⁸ 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¹⁴⁹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 其如命何¹⁵⁰

선생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은 지방을 피하고, 그 다음은 눈치를 피하고, 그 다음은 말을 듣고 피한다.”

子曰 賢者辟世¹⁵¹ 其次辟地¹⁵² 其次辟色¹⁵³ 其次辟言¹⁵⁴

144 [평설] 세상사람들은 공자를 聖人으로 떠받치지만 공자 자신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不滿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나를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도 않으려니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그를 허물하지 않고 人間事에서 비롯하여 차근차근 하늘의 真理까지를 배워 올라가는 노력이 내게는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로 공자만큼 謙虛한 努力家は 또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145 公伯寮: 성은 公伯. 이름은 寮. 자는 子周. 史記에는 공자의 제자라 하였지만 未詳.

146 愬: 讒讒한다.

147 子服景伯: 성은 子服. 이름은 何. 시호는 景. 魯나라 대부.

148 夫子: 季孫.

149 市朝: 面朝後市.

150 [평설] 공자의 道는 天命으로 통하기 때문에 私意로 左右되지 않는 絕對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使命感으로 나타나고 또는 經世 濟民의 信念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151 辟世: 이름도 자취도 숨기고 제가 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152 辟地: 어지러운 나라를 피하여 다스려지는 나라로 가서 산다.

153 辟色: 안색—눈치—를 보고 피한다.

154 辟言: 말만 듣고 治亂을 짐작하여 이를 피한다.

[평설] 辟世는 大隱이요, 辟地는 小隱이다. 辟世는 現實 속에 묻혀 살면서도 不見知而無悶하는 자이다. 自稱隱士라는 자들이야 감히 어찌 흉내인들 낼 수 있을 것인가.

선생 “흠쩍 가 버린 사람이 일곱 분이다.”

子曰 作者 七人矣¹⁵⁵

자로가 석문에서 쉼 때 문지기가 말하기를 “어디서 왔나?” 자로 “공 선생에게서다.” “저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해 보겠다는 사람말인가?”

子路宿於石門¹⁵⁶ 晨門曰 奚自 子路曰 自¹⁵⁷ 孔氏 曰 是知其不可 而爲之者與¹⁵⁸

선생이 위나라에서 경쇠를 치고 있을 때 바구니를 들어 메고 공 선생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마음이 있나 보다! 경쇠 치는 것을 보니!” 얼마쯤 있다가 “비루하군! 땡땡거리는 소리! 몰라 주면 그만두면 그만이지.” “깊으면 잠방이로 얕으면 건어울리지” 선생 “과연 그렇군! 따질 수도 없는 말이다.”

子擊磬¹⁵⁹ 於衛 有荷¹⁶⁰ 簣而過孔氏之門者 曰 有心¹⁶¹ 哉 擊磬乎 既而曰 鄙哉 硜硜乎 莫己知也 斯已而已矣 深則厲¹⁶² 淺則揭 子曰 果哉 末之難矣¹⁶³

자장 “『서경』에 ‘고종은 상중에 삼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니 무슨 뜻입니까?”
선생 “하필 고종뿐인가!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지. 군왕이 죽으면 모든 벼슬아치들

155 作: 起, 떠나가서 숨어살다.

[명설] 윗장과 합해서 보아도 좋다.

[명설] 隱者의 行爲를 두고 한 말이다.

156 石門: 齊나라 都城門. 문지기는 隱者인 듯.

157 自: 從.

158 [명설] 石門을 지키는 문지기지만 그는 隱士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天下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자기의 걱정인 양 애태우는 공자의 心情을 그는 알 턱이 없다.

159 擊磬: 음악을 공부하기 위하여 악기를 치다.

160 荷: 걸쳐 짊어지다.

161 有心: 禮樂으로 天下를 教化할 마음이 있다.

162 深則厲: 『詩經』, 『邶風』의 一句.

163 [명설] 隱士의 孔子評의 하나다. 그들은 天下事와는 아랑곳 없이 獨善其身을 최대의 樂으로 삼는 자들이다. 어찌 공자의 經世意欲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은 자기 일은 가다듬어 삼 년 동안 총재의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

子張曰 書云 高宗¹⁶⁴ 諒¹⁶⁵ 陰¹⁶⁶ 三年不言 何謂也 子曰 何必高宗 古之人 皆然 君薨¹⁶⁷
百官總已¹⁶⁸ 以聽於冢宰¹⁶⁹ 三年¹⁷⁰

선생 “윗사람이 예법을 좋아하면 백성들도 부리기 쉽다.”

子曰 上好禮 則民易使也¹⁷¹

자로가 참된 인간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몸단속을 잘 하면서 사람됨이 경건하다.” “그러면 그만인가요?” “몸단속을 잘하면서 못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준다.” “그러면 그만인가요?” “몸단속을 잘하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 몸단속을 잘하면서 백성들을 편하게 해 주는 일은 요, 순도 애태웠던 일이다.”

子路問君子¹⁷² 子曰 修己以敬¹⁷³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¹⁷⁴ 曰 如斯而已乎 曰

164 高宗：殷나라 中興의 明主, 이름은 武丁. 帝小乙의 아들. 書云高宗이란 『書經』周書
‘無逸’篇文.

165 諒：信

166 陰：默. 諒陰：임금의 三年喪.

167 薨：王侯의 죽음.

168 總已：말아 다스린다.

169 冢宰：周나라 天官에 속하는 벼슬. 總理大臣.

170 [명설] 王이 喪中에는 三年 동안이나 政治의 發言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亡人에 대한 孝心 때문이었던 것이다. 오늘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古義의 所在를 이해하면 못할 것이다.

171 [명설] 禮를 알면 公경할 줄을 알 것이요, 公경할 줄 알면 情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끼여이 하자는 대로 따를 것이다. 백성을 부리되 전쟁이나 부역에 끌어내다가 부린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禮로써 백성을 부리는 것이 되겠는가.

172 君子：지위가 높은 사람.

173 敬：敬天.

174 安人：孝悌로써 和陸하면 安定이 된다.

修己以安百姓¹⁷⁵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¹⁷⁶ 諸¹⁷⁷

원양이 걸터앉아서 맛이한즉, 선생 “어려서부터 건방지고, 나이 먹어도 보잘 것 없고, 늙어도 죽지 않는 것을 그것을 도둑놈이라고 한다.”하면서 지팡이로 정강이를 툭 쳤다.

原壤¹⁷⁸ 夷俟 子曰 幼而不孫弟 長而無述焉 老而不死 是爲賊 以杖叩其脛¹⁷⁹

궐마를 출신의 소년이 심부름을 한즉, 어느 사람이 묻기를 “진취성이 있는 애인 가요?” 선생 “내가 그의 앉는 자리를 보고, 그가 그의 선배들과 나란히 걷는 것을 보면 진취성이 있는 애가 아니라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애입니다.”

闕¹⁸⁰ 黨童子將命¹⁸¹ 或問之曰 益者與 子曰 吾見其居於位¹⁸² 也 見其與先生¹⁸³ 并行也 非求益¹⁸⁴ 者也 欲速成者也¹⁸⁵

175 百姓：百官 萬民

176 病：어려움다.

177 [명설] 이 장에서는 君자의 임무로서 修己 治人—安百姓—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堯舜周公 공자의 道는 修己治人の道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78 原壤：성은 原. 이름은 壤. 공자의 친구인 듯. 母喪에 棺을 타고 노래부른 자.

179 [명설] 原壤은 본시 佻狂 弄世하던 사람이다. 공자도 이쯤되면 장난기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그의 잘못을 꾸짖음에 있어서는 실로 준엄함을 볼 수 있다.

180 闕：魯나라 마을(黨) 이름.

181 將命：명령의 전달자. 將은 받든다.

182 居於位：어른자리에 앉는다.

183 先生：先輩.

184 益：精進한다.

185 [명설] 한 사람의 行動舉止만 보더라도 그의 인물됨은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速成者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謙虛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곳에 大成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15 편

衛靈公
위나라 영공

 [올제 후원하러 가기](#)

15편 | 衛靈公 위나라 영공

위나라 영공이 공 선생더러 진치는 법을 물은즉, 공 선생은 대답하기를 “제기 놓어놓는 법은 진작 배웠지만 병졸 늘어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떠나 버렸다.

衛靈公問陳¹ 於孔子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明日遂行²

진나라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따르던 사람들이 시들시들 일어나지 못하므로 자로가 뿌루퉁한 얼굴로 말하기를 “훌륭한 인물들도 궁한 때가 있는가요?” 선생 “참된 인간들에게도 본래 궁한 때가 있는데, 하찮은 사람들은 궁하면 함부로 하느니라.”
在陳絕糧 從者³ 病 莫能興 子路愠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⁴

선생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운 지식인인 줄 아느냐?” 대답하기를 “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다. 내 지식은 하나로 꿰뚫었다.”

1 陳：行軍隊伍를 만드는 법. 陳法.

2 [명설] 衛靈公의 底意는 戰伐에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슬쩍 俎豆之事—祭祀—의 이야기를 꺼내어 그의 주의를 돌리게 한 것이다. 祭祀의 陳設이 마치 軍旅의 陳과도 비슷한 점에서 그러한 대답의 着想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3 從者：從者和從僕들.

4 [명설] 君子도 亂世에는 본래 窮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궁해야 마땅할는지 모른다. 亂世에 어찌 安逸하게 國祿만 탐할 수 있을 것인가. 小人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의 安逸과 利益을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國祿만을 탐내는 것이다. 여기서도 君子와 小人의 구별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子曰 賜⁵也 女⁶以予爲多學⁷而識⁸之者與 對曰 然⁹非與 曰 非也 予¹⁰以貫之¹¹

선생 “유야! 곧은 인격을 알아주는 사람은 드물구나!”

子曰 由¹²知德¹³者鮮矣¹⁴

선생 “가만히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인가! 대체 무엇을 했을까! 몸을 공손히 하고 왕위에 앉아 있기만 했던 것이다.”

子曰 無爲¹⁵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¹⁶正南面¹⁷而已矣¹⁸

5 賜: 子貢.

6 女: 汝.

7 多學: 博學.

8 識: 기억한다.

9 然: 肯定. 그렇다.

10 一: 恕.

11 [명설] 學識과 行恕와는 구별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學識은 經典의 知識이요, 行恕는 倫理的 行動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一貫之道는 學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行動規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조] 『里仁』편 (4)(15)절을 보라.

12 由: 子路.

13 知德: 知人之有德.

14 [명설] 공자와 子路는 함께 각국을 돌아다니지만 그들의 곧은 마음을 이해해주는 자 적음을 한탄한 말이다(다산). 子路야말로 스승 공자에 대한 熱熱한 追從者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弟子들마저도 子路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 말은 子路를 위로하면서 스스로의 감회도 털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 無爲: 老莊의 無爲自然과는 구별되는 無爲다. 任官得人한 까닭에 無爲而治가 되는 無爲다. 다시 말하면 任官得人이라는 前提 下에서의 無爲인 것이다.

16 恭己: 敬身. 조심스런 태도로 단정히 앉아 있다.

17 正南面: 王座에 앉아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는다.

18 [명설] 공자의 無爲思想은 賢人을 얻음으로써 얻어지는 無爲이기 때문에 學賢의 實을 거둔 舜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無爲인지도 모른다. 만일 淸淨 無爲하는 老子的 道로 오인한다면 天下를 誤導한 허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장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물은즉, 선생 “말씨가 믿음직스럽고 행동이 착실하면, 되놈의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지만, 말씨가 미덥지 못하고 행동이 착실하지 못하면, 제 고을에선들 통할 수 있을까! 섰을 때는 멍에 멘 망아지가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고, 수레 안에 앉았을 때는 수레채가 멍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어디나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자장이 이를 큰 띠에 적었다.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¹⁹ 篤敬²⁰ 雖蠻貊²¹ 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²² 里²³ 行乎哉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 子張書諸紳²⁴

선생 “곧구나! 사어는. 나라의 질서가 섰을 때도 화살 같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도 화살 같지. 참된 인물이지! 거백옥은. 나라의 질서가 섰을 때는 벼슬 살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걷어치워 감추어 버릴 수도 있지.”

子曰 直哉史魚²⁵ 邦有道如矢²⁶ 邦無道如矢 君子哉蘧伯玉²⁷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²⁸ 之²⁹

19 行 : 敎令의 施行.

20 篤敬 : 敬의 實.

21 貊 : 東北族 · 肅慎 · 夫餘 등.

22 州 : 2,500家.

23 里 : 25家.

24 [명설] 수레와 말은 본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를 이어주는 것은 멍에인 것이다. 나와 남과는 본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를 이어주는 것은 信과 敬인 것이다. 그렇게 된 연후에 비로소 敎令이 施行될 수 있을 것이다(다산). 믿음과 존경을 국민교화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5 史魚 : 衛나라 大夫. 이름은 鮀, 자는 伯魚. 史는 官名 혹은 그의 氏.

26 矢 : 直.

27 蘧伯玉 : 衛나라 大夫.

28 懷 : 감추다.

29 [명설] 史魚와 蘧伯玉은 대조적인 인물이다. 사어는 邦有道 無道 간에 言行이 곧다. 그러나 거백옥은 邦有道 할 때 벼슬살더라도 모난 言行을 삼갔기 때문에 邦無道 할 때가 되더라도 자신의 形迹을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자가 거백옥의 행동을 美哉라 한 所以는 直一邊倒의 사어보다는 그는 時中의 義에 맞출 줄 알았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선생 “이야기함직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얹으면 사람을 잃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子曰 可與言³⁰ 而不與之言 失人³¹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³² 知者不失人 亦不失言³³

“뜻이 굳은 선비나 사람다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람 구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값을 하고야 마는 수가 있지.”

子曰 志士³⁴ 仁人³⁵ 無求生以害人 有殺身以成仁³⁶

자공이 사람 구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공장이가 제 구실을 잘하자면 먼저 연장을 잘 단속해야 한다. 그 나라에 있을 때는 그 나라 대부 중에 잘난 이를 섬기고, 그 나라 벼슬아치 중에 사람다운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30 可與言 : 공자 자신의 도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31 失人 : 동지를 잃는다.

32 失言 : 충고가 먹혀지지 않는다.

33 [명설] 道—眞理—를 서로 討論할 수 있는 상대자를 얻는다는 것은 人生 최대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대자를 놓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에 말—로고스—을 주고 받을 만한 상대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을 주고받다가 허튼 말이 되고 만다면 그도 또한 말을 놓친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어찌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사람을 놓치거나 말을 놓치거나 하는 서투른 실수를 할 것인가.

34 志士 : 君子の道에 뜻을 둔 자.

35 仁人 : 仁心을 가진다.

36 仁 : 지극한 人倫의 成德.

[명설] 실로 仁의 지극한 경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람 구실은 하는 데 있는 것이다. 仁의 극치는 결코 미지근할 수가 없다. 仁과 殺身과를 저울질한다고 한다면 仁의 값이 더 重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志士니 仁人이니 하는 이름은 결코 험값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子貢問爲仁³⁷ 子曰 工³⁸ 欲善其事 必先利其器³⁹ 居是邦也 事其大夫之賢者⁴⁰ 友其士之仁者⁴¹

안연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물은즉, 선생 “하나라 책력을 쓰고, 은나라 수레를 타고, 주나라 관복을 입고, 음악은 소무곡(韶舞曲)이어야 하며, 정나라 소리를 버리고, 아첨하는 인물을 멀리해야 한다. 정나라 소리는 음란하고, 아첨하는 인물은 위험하다.”

顏淵問爲邦⁴²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⁴³ 服周之冕⁴⁴ 樂則韶舞⁴⁵ 放⁴⁶鄭聲⁴⁷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⁴⁸

선생 “사람이란 앞일을 생각지 않으면 코앞 걱정이 있게 마련이거든.”

37 爲仁：仁의 實現, 澤民의 仁.

38 工：기술자.

39 器：연장.

40 賢者：일 잘 처리하는 자.

41 仁者：사람다운 人格을 갖춘 자.

[명설]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면 賢人을 섬길 줄 알아야 하며 사람다운 사람과 벗을 해야 하는 것은 마치 기술자가 자기가 쓰는 道具를 먼저 잘 가꾸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天下의 흠은 獨善하는 獨夫의 擅斷에서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42 爲邦：治國.

43 輅：천자 제후가 타던 큰 수레.

44 冕：祭祀 때 쓰던 冠.

45 韶舞：舜임금의 음악과 춤.

46 放：追放.

47 鄭聲：鄭나라 俗樂. 내용이 淫濫하다.

48 [명설] 三代에 걸친 文物制度 중에서도 가장 優秀한 것만을 골라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善俗을 해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政事를 그르치는 무리들을 멀리하는 데까지 細心한 現實의 노력이 결들여야 한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子曰 人無遠⁴⁹慮 必有近⁵⁰憂⁵¹

선생 “할 수 없구나! 나는 아직 계집 좋아하듯 곧은 마음씨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보기 못했으니!”

子曰 已矣乎⁵²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⁵³

선생 “장문증은 지위를 도둑질한 사람일 거야! 유하혜의 잘난 인품을 알면서도 함께 조정에 나서도록 하지 않았으니...”

子曰 臧文仲⁵⁴ 其竊位⁵⁵ 者與 知柳下惠⁵⁶ 之賢 而不與立⁵⁷ 也⁵⁸

선생 “자기 자신을 깊이 뉘우치면서 남의 허물을 가볍게 여기면 원망을 사지 않을거야.”

49 遠 : 앞으로 올 먼 장래.

50 近 :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

51 [명설] 사람이란 누구나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炯眼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코앞에 아른거리는 잔 이익에 汲汲하다가 먼 장래를 그르치는 事例는 결코 적지 않다. 모름지기 大成을 위한 遠慮야말로 누구에게나 警覺心を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닐까.

52 已矣乎 : 할 수 없이 탄식하는 말투다.

53 [참조] 「子罕」편 9(18)절에 거듭 나온다.

54 藏文仲 : 「公治長」편 5(17)절을 보라.

55 竊位 : 자격이 모자라는 줄 알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

56 柳下惠 :魯나라 대부 展禽, 성은 展, 이름은 獲, 자는 禽, 시호는 惠. 柳下는 諸說이 區區하여 분명치 않다. 아마도 고을 이름인 듯.

57 與立 : 함께 政治에 참여한다.

58 [명설] 흔히 勝己者厭之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보다도 나은 賢人을 같은 조정에 천거하기란 凡人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에 속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공자는 그러한 행위를 竊位行爲라 몰아 세우고 있다. 실로 藏文仲과 같은 행위는 지지리 못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子曰 躬自厚⁵⁹ 而薄責於人 則遠怨矣⁶⁰

선생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子曰 不曰如之何⁶¹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⁶²

선생 “진종일 모여 앉아서 옳은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잔재주 부리기만 좋아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子曰 群居終日 言不及義 好行小慧⁶³ 難矣哉⁶⁴

선생 “참된 인물은 정의를 바탕 삼고, 예법으로 행동하고, 겸손하게 말을 꺼내며, 신의로 매듭을 맺으니, 참된 인간이지.”

59 自厚 : 責己厚.

60 [평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는 태도는 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남을 나무라고 남을 탓하면서 자기는 어떠한 책임에서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자초하는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원망을 사지 않으려면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勇氣가 있어야 할 것이다.

61 如之何 : 걱정에 쌓여있는 태도다.

62 [평설] 배우는 사람에게는 항상 스스로憤發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자라나는 生命力이 없으면 아무리 農夫의 培養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찌할 수 없는 것과도 비슷한 것이다.

63 慧 : 자잘한 재주.

64 [평설] 日常의 인 話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됨과 教養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모여 앉으면 남의 흉을 보거나 아니면 淫亂悖說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 위인은可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위인일수록 일에 부딪히면 억지를 부리면서 요행만을 바라기 일쑤인 것이다. “小人行險而徵幸”(『中庸』)이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子曰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⁶⁵ 以出之 信⁶⁶ 以成之 君子哉⁶⁷

선생 “참된 인간은 자신의 무능을 뼈아프게 생각하지, 남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子曰 君子病⁶⁸ 無能⁶⁹焉 不病人之不已知也⁷⁰

선생 “참된 인간은 죽게 될 때까지 칭찬받을 만한 이름을 남기지 못함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子曰 君子疾⁷¹ 沒世⁷² 而名不稱⁷³焉⁷⁴

선생 “참된 인물은 사람값을 제게서 찾고, 하찮은 사람은 그것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65 孫 : 孫順.

66 信 : 誠.

67 [명설] 君자의 言行은 義를 바탕으로 삼고 信 · 誠으로써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말은 언제나 겸손하고 검혀하여 함부로 지껄이지 말아야 하지만 行은 禮에 알맞아야 하며 때로는 毅然한 행동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義를 生命보다도 중히 여기는 君자의 길은 때로는 險難하기도 하지만 꾸준한 至誠은 이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

68 病 : 가슴 아프다.

69 無能 : 無藝能.

70 [명설] 자기 無能에 대한 반성은 進取의 啓機나 발판을 마련해 주지만 남이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에 대한 神經過敏은 自己進路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孔子의警告는 지나칠 정도로 거들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참조] 「學而」편 (1)(16)절. 「里仁」편 (4)(14)절. 「憲問」편 (14)(32)절을 보라.

71 疾 : 病. 가슴 아프게 여긴다.

72 沒世 : 세상이 끝난다.

73 稱 : 드날린다.

74 [명설] 君자의 立身揚名이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求名 求譽로 變質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人不知而不慍”은 君子像의 一面이거늘 어찌 虛名이 세상에 드날리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君자가 바람직한 이름은 그야말로 經世濟民의 功績에 따른 이름이 아니고서야 어찌 君자의 이름이랄 수 있을 것인가. 惡名 아닌 善名을 의미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子曰 君子求⁷⁵ 諸己 小人求諸人⁷⁶

선생 “참된 인물은 기품을 높이거나 싸우지 않고, 어울리기는 하나 끼리끼리 짝하지는 않는다.”

子曰 君子矜⁷⁷ 而不爭⁷⁸ 群⁷⁹ 而不黨⁸⁰

선생 “참된 인물은 말 잘한다고 사람을 써 주지 않고, 사람의 처지 때문에 말까지 버리지 않는다.”

子曰 君子不以言⁸¹ 舉⁸² 人 不以人⁸³ 廢⁸⁴ 言⁸⁵

75 求 : 求仁.

76 [명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서 요구하느냐 남에게서 요구하느냐에 따라서도 君子와 小人이 구별된다. 사람 구실만 하더라도 君子는 자기 자신이 사람다워지려고 하지만 小人은 자기는 체쳐놓고 남이 사람다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小人의 行爲야말로 어찌 本末이 전도된 자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77 矜 : 장중한 태도를 굳게 간직한다.

78 爭 : 고자세로 남과 겨룬다.

79 群 : 뜻을 같이하면서 어울린다.

80 黨 : 이해 관계로 서로 돕는 무리.

[명설] 君子는 언제 어디서나 公明正大 하기 때문에 자기 行動에 대하여 矜志를 가지며 뜻을 같이 하는 자끼리 서로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名譽나 地位나 權力을 위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君子가 小人과 구별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참조] 「爲政」편 (2)(14)절, 「子路」편 (13)(23)절을 보라.

81 以言 : 말을 이유로 삼는다.

82 舉 : 薦舉한다. 벼슬자리에 추천한다.

83 以人 : 人間性이나 人格을 이유로 삼는다.

84 廢 : 버린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85 [명설] 말이란 행동화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법이다. 어느 사람의 말이 빛나자면 그 말이 그 사람의 行動으로 되어질 때 그 사람의 人格—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만으로는 결코 한 사람의 人格을 尺度할 수 없음은 이 까닭인 것이다.

[명설] 설령 한 사람의 人品은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사람됨 때문에 그 말까지 버려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옳지 않다.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謙虛한 受容—傾聽—자세도 또한 바람직하다 해야 할 것이다.

자공이 묻기를 “한 마디로 평생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선생 “그것은 미루어 생각하는 것일 거야!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子貢問曰 有一言⁸⁶ 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⁸⁷

선생 “내가 인물을 말할 때 누구는 허물하고 누구는 칭찬할까!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야 시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부터 곧은 길로 인도되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子曰 吾之於人也 誰毀誰譽 如⁸⁸ 有所譽者 其有所試矣 斯民也 三代⁸⁹ 之所以直道⁹⁰ 而行也⁹¹

선생 “우리 때만 해도 역사의 기록에 빈 데도 있었다. 망아지를 가진 사람은 남을 주어 타게도 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구나!”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 有馬者 借人乘之 今亡⁹² 矣夫⁹³

86 一言：一字，一句。

87 [명설] 恕는 推恕로서 人倫관계에 있어서 仁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思考方式이요, 그 方式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恕라고 할 수 있다. 恕에는 적극적인 것과 消極的인 것과의 두 면이 있거나 나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참조] 「里仁」편 (4)(15)절, 「公治長」편 (5)(11)절, 「顔淵」편 (12)(1)절을 보라.

88 如：만일.

89 三代：夏·殷·周.

90 直道：善善而惡惡，正道.

91 [명설] 당시에 공자가 어느 사람을 칭찬한 일이 있는데 남들은 그 사람에게 아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므로 확증이 있다고 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도 곧은 대로 말했거늘 나라고 어찌 굽혀서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남을 칭찬하거나[善善] 헐뜯어 말하거나[惡惡] 다 곧은 도에 비추어 해야 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92 猶及~今亡：그래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93 [명설] 옛 사람들은 솔직하므로 불분명한 것은 기록하지 않고, 순박하므로 제 망아지를 남을 주기도 한다. 요새는 그와 다르다는 뜻이다.

선생 “그런 듯이 꾸며대면 인격을 손상하고, 작은 일을 못 참으면 큰 일을 그르친다.”

子曰 巧言亂德 小不忍⁹⁴ 則亂⁹⁵ 大謀⁹⁶

선생 “대중이 싫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하고, 대중이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子曰 衆⁹⁷ 惡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焉⁹⁸

선생 “사람이 길을 넓히는 것이지, 길이 사람을 넓혀 주는 것이 아니다.”

子曰 人能弘⁹⁹ 道 非道弘人¹⁰⁰

선생 “허물을 고치지 않는 그것이 잘못된 거야.”

94 忍 : 견디다. 참는다.

95 亂 : 완전한 것을 부셔버린다. 깨버린다.

96 [평설] 말재주 좋은 사람은 거짓과 과장을 물 마시듯 한다. 賢人의 德을 헐뜯는 것쯤 茶飯事로 여기는 것이다. 巧言을 즐기는 자 치고 仁인이 드문 것도 이 까닭이 아닌가.

[평설] 노여움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모욕을 당했거나 침울했을 때나 한결같이 참아 넘기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참아야 하는 것은 이 때인 것이다. 모름지기 큰 일을 경영하거나 큰 일이 닥쳐왔을 때는 이러한 참기 어려운 고통들을 참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大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97 衆 : 大衆. 大衆心理에 흔들리는 무리.

98 [평설] 만일 어떤 사람이 대중의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孤高한 忠節을 간직한 志士일 수가 있는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대중의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보잘 것 없는 鄉原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大衆과의 附和雷同에 휩쓸리지 말고 賢明한 스스로의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99 弘 : 당겨서 넓힌다.

100 [평설] 道란 그의 근원이 天命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道를 천하에 널리 퍼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聖인이 나오면 그 道가 넓혀지려니와 聖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 道는 드디어 시들어지고 말 것이니 여기에 사람이란 道를 天下에 펼 수 있는 聖인을 가리킨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子曰 過¹⁰¹ 而不改¹⁰² 是謂過矣¹⁰³

선생 “나는 진종일 먹지도 않고 온 밤을 꼬박 새워가며 생각해 보아도 별것 없었다. 공부하는 것만 못하다.”

子曰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以思¹⁰⁴ 無益 不如學¹⁰⁵ 也¹⁰⁶

선생 “쓸모 있는 인간은 자기의 나갈 길을 찾지, 먹고사는 일은 꾸미지 않는다. 발같이 하되 배고픈 것은 그 속에 있거든. 학문을 닦으면 식욕은 그 안에 있고, 참된 인간은 나갈 길을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 거야.”

子曰 君子謀道¹⁰⁷ 不謀食¹⁰⁸ 耕也 飫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 不憂貧¹⁰⁹

선생 “지혜는 넉넉하지만 사람 구실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비록 얻었더라도 반드시 잃고야 만다. 지혜도 넉넉하고 사람 구실로 뒷받쳐졌더라도 엄격한 태도로 대

101 過 : 중에서 지나친 것.

102 改 : 고쳐서 中이 되게 한다.

103 [명설] 허물이란 따지고 보면 알맞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친 것만이 허물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 不及도 허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지나쳤거나 모자랐거나 그것을 고쳐서 알맞게 함으로써 비로소 허물이 고쳐진 셈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그 점이 바로 허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104 思 : 연구한다. 마음 속에서 따져본다.

105 學 : 典籍을 뒤져본다.

106 [명설] 이는 따지고 생각하기만 좋아하면서 전적을 파고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자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배우려고만 했지 스스로의 비판을 등한히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반대는 더욱 위험한 것이다. 모름지기 배우며 생각하는 길만이 進學에 有益할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107 道 : 大體一心之官—가 따르는 길.

108 食 : 小體一口耳之官—이 즐겨하는 것.

109 [명설] 실로 道學과 食祿과는 서로 엇나가는 것이어서 둘 다 한꺼번에 얻기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古今을 통한 하나의 通念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보다 더 먼 眼目으로 본다면 學者 자신이 스스로 耕者가 되지 못할 바에는 道學 그 자체 안에 이미 食祿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壽祿 그 자체를 위한 道學은 아님망정 道學에 철자할진대 어찌 가난 때문에 妻子를 凍餒에 빠뜨리게 된대서야 쓰겠는가.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는다. 지해도 넉넉하고 사람 구실로 뒷받혀졌고 엄격한 태도로 대하더라도 질서있게 백성들의 활동을 도와주지 않으면 잘된 일은 못된다.”

子曰 知及之¹¹⁰ 仁¹¹¹不能守之¹¹² 雖得之 必失之 知及之 仁能守之 不莊以涖之¹¹³ 則民不敬 知及之 仁能守之 莊以涖之 動之以禮¹¹⁴ 未善也¹¹⁵

선생 “훌륭한 인물은 잔일은 잘 모르지만 큰 일은 맡을 수 있다. 하찮은 사람은 큰 일을 맡아서는 안 되지만 잔일은 잘 안다.”

子曰 君子不可小知¹¹⁶ 而可大受也 小人不可大受¹¹⁷ 而可小知也¹¹⁸

선생 “사람들이 사람 구실하는 것을 물불보다도 더 무섭게 안다. 물불에 뛰어든다 죽는 사람을 나는 보았지만 사람 구실하는 데 뛰어 들다가 죽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110 及之 : 어떤 지위에 오르다.

111 仁 : 牧民之愛.

112 守之 : 지위를 지키다.

113 莊以涖之 : 威儀를 갖추고 政令이 엄격하다.

114 禮 : 典章制度.

115 [명실] 무릇 한 지위를 얻어 이를 지키며 百姓들을 位育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牧民精神—仁—과 文物制度—禮—가 表裏가 되어 존엄한 政令으로 頒布됨으로써 教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얻어진 지위도 보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리어 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116 小知 : 知小事.

117 大受 : 受大任.

118 [명실] 그릇이 크고 재주도 뛰어난 사람이 잔일을 맡으면 일도 제대로 안될 뿐 아니라 사람까지 병신처럼 되어버린다. 그와는 반대로 작은 인물이 큰 임무를 맡으면 그 일을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게 마련일 것이다. 이 점에서도 君자와 小人이 구별되고 있다.

子曰 民之於仁也 甚於¹¹⁹ 水火 水火吾見蹈而死者矣 未見蹈仁而死者也¹²⁰

선생 “사람 구실 해야 할 판에는 선생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

子曰 當¹²¹ 仁 不讓於師¹²²

선생 “쓸모 있는 인간은 꺾이지 않지만 꺾이지는 않다.”

子曰 君子貞¹²³ 而不諒¹²⁴

선생 “군왕을 섬길 때는 제 직분에 충실하고 봉급 문제는 뒤로 미룬다.”

119 於 : 보다도 더. 比較形.

120 [명설] 仁은 비록 殺身成仁하는 경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日常的인 孝悌忠信의 실천이 어찌 물 불 보다도 무서울 수야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仁의 실천을 꺼려하거나 두렵게 여기는 것은 仁—사람 구실—이라는 사람됨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121 當 : 當行仁之事.

122 師 : 스승으로서 年長者.

[명설] 禮에 年長者에게는 사양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仁의 實行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스승이라고 해서 내가 뒤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먼저 실행함으로써 “後生可畏”의 實을 거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孔子의 뜻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123 貞 : 바르면서 굳다.

124 諒 : 미더우나 고집스럽다.

[명설] 貞과 諒은 비슷하지만 貞은 義에 합치되고 諒은 義에 합치되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君子는 志操를 굳게 지킨다는 점에서 小人의 信諒과 비슷한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君子는 時宜에 알맞지만 小人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小人은 一時的 小義에 執着하여 大義를 忘却하기 때문인 것이다.

子曰 事¹²⁵ 君 敬其事 而後其食¹²⁶

선생 “교육하면 차별은 없다.”

子曰 有教¹²⁷ 無類¹²⁸

선생 “길이 다르면 서로 의논할 것도 없다.”

子曰 道¹²⁹ 不同 不相爲謀¹³⁰

선생 “이야기는 잘 통해야만 하느니라.”

125 事：職分.

126 食：祿.

[명설] 事君이란 國家에 대한 奉仕요, 忠誠을 의미한다. 국가에 대한 忠誠은 국가에 대한 義務 三大義務를 극진히 履行하는데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거기에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反對給付의인 요구가 先行되어서는 안 된다. 義務에 대한 報答은 있음직하고 어찌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부수적 조건이 된다면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純粹性에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127 教：人道の 가르침.

128 類：貴賤의 差等에 따른 分類, 出身의 遠近에 따른 分類. 전자는 階級の 差에 의한 差요, 후자는 民族의 差에 의한 차이다.

[명설]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그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하면 모두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義務教育制度는 아직도 그의 完璧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일진대 二千餘年전 공자의 教育을 통한 인간가치의 회복이야말로 萬古의 卓見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29 道：앞을 보면서 걸어가는 길.

130 [명설] 길이란 외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다. 왕자의 길이 있고 폐자의 길이 있고 은둔자의 길이 있고 縱橫家의 길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동지가 되어 같은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들의 本質이 다르기 때문에 終局的인 和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子曰 辭¹³¹ 達¹³² 而已矣¹³³

음악 선생이 만나려고 왔을 때 충계에 이른즉, 선생 “충계입니다.” 앉는 자리에 이른즉, 선생 “앉는 자리입니다.” 모두들 앉은즉, 선생은 그에게 일러주기를 “아무 개는 여기 있고, 아무개는 여기 있습니다.” 음악 선생 면이 나간 후에 자장이 묻기를 “그것이 음악 선생과 함께 이야기하는 도리인가요?” 선생 “그렇다. 본시 음악 선생은 도와 드려야 하는 거다.”

師¹³⁴ 冕¹³⁵ 見¹³⁶ 及階 子曰 階也 及席 子曰 席也 皆坐 子告之曰 某在斯 某在斯 師冕出 子張問曰 與師言之道與 子曰 然 固¹³⁷ 相¹³⁸ 師之道也¹³⁹

131 辭：使臣을 專擔 接待하는 말.

132 達：전달되다. 통달되다.

133 [평설] 使臣으로서의 사명은 자기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글은 잘 다듬어져야 하므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나친 修飾 보다는 그 뜻의 통달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134 師：樂師.

135 冕：악사의 이름. 그는 장님이다. 음악 선생의 직업은 본시 장님이 맡았다.

136 見：만나러오다.

137 固：본래.

138 相：돕는다. 인도한다. 相이란 눈-目-대신에 쓰던 단장-木-을 뜻하므로 장님의 소지품으로서 인도한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온 것이다.

139 [평설] 공자가 樂師를 대접하던 태도를 밝힌 자로서 子張은 그것이 지나친 것이냐 아닌가 하여 물은즉 공자는 그것이 바로 樂師를 돕는 길을 재확인한 것이다. 끝내 師로 稱하고 그가 瞽者임을 말하지 않은 것은 有疾者에 대한 惻隱한 마음과 아울러 그에 대한 禮遇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6 편

季氏
계손씨



을재 후원하러 가기

16편 | 季氏 계손씨

계손씨가 전유를 정벌하려 한즉, 염유와 계로가 공 선생을 만나서 말하기를 “계씨가 전유를 치려고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공 선생 “구야,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냐! 옛날에 선왕이 동몽산의 제주로 삼았고, 또 우리나라 강토 안에 있으니 이미 사직을 같이 하는 신하다. 무엇 때문에 정벌하자는 거냐?” 염유 “그 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지, 우리 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 선생 “구야, 전에 주임이 말하기를 ‘최대한 제 직분을 지키되 안 되면 그만 둔다.’하였는데 위험할 때 붙잡아 주지 않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돕는 사람은 무엇에 쓸거냐! 그러기에 네 말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범이나 들소가 우리를 튀어나오고 거북껍질이 나 보석이 껍 속에서 부서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염유 “이제 전유의 생각은 굳고, 게다가 비 땅에 가까우니 지금 뺏지 않으면 뒷날 자손의 근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공 선생 “구야, 참된 인간은 ‘욕심이 남나다’라 하지 않고, 무어니 무어니 핑계를 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내가 듣기에는 ‘나라나 집을 지닌 사람은 사람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불공평할까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불안정할까 걱정한다’고 한다. 대개 공평하면 가난하지 않고, 화목하면 사람이 적지 않고 안정하면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먼 데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문화의 힘으로 따라 오게 만들며, 이미 왔거들랑 안정을 시켜 주어야 한다. 이제 유와 구는 그 분을 돕되 먼 데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따라 오게도 못하며, 나라는 갈가리 찢어져도 건어잡지 못하고, 그러고서 국내에서 병력을 동원하려고 하니, 내 짐작에는 아마도 계손씨의 근심은 전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올 안에 있는 것 같다.”

季氏 將伐顓臾¹ 冉有 季路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² 於顓臾 孔子曰 求³ 無乃爾是過與 夫顓臾 昔者先王以爲東蒙主⁴ 且在邦域之中矣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冉有曰 夫子⁵ 欲之 吾二臣者 皆不欲也 孔子曰 求 周任⁶ 有言 曰 陳⁷力就列 不能者止 危⁸而不持 顓⁹而不扶 則將焉用彼相¹⁰ 矣 且爾言過矣 虎兕¹¹ 出於柙¹² 龜玉毀於櫝¹³中 是誰之過與 冉有曰 今夫顓臾 固而近於費 今不取 後世必爲子孫憂 孔子曰 求 君子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 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夫如是 故遠人不服 則修文德 以來之 既來之 則安之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不服 而不能來也 邦分崩¹⁴ 離析¹⁵ 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¹⁶ 於邦內

- 1 顓臾：伏義氏의 후예로서 성은 風. 본래 魯나라의 附庸國으로 臣屬하고 있는데 季氏가 그 영토를 탐내어 정벌할 뜻을 품고 있었다.
- 2 將有事：將有征伐之事.
- 3 求：冉有. 季氏宰相이 되어 그와 同調한다.
- 4 蒙主：蒙山의 主祭.
- 5 夫子：季孫.
- 6 周任：옛날 賢者.
- 7 陳：퍼놓다.
- 8 危：기운다.
- 9 顓：넘어지다.
- 10 相：기울거나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준다. 마치 장님을 붙잡고 인도하듯.
- 11 兕：들소.
- 12 柙：우리.
- 13 櫝：궤.
- 14 崩：무너지다.
- 15 析：나누어지다.
- 16 干戈：武器.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 而在蕭牆¹⁷之內也¹⁸

공 선생 “질서가 선 세상에는 문물제도나 군사 명령이 주권자인 천자의 손에서 나오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에는 문물제도나 군사 명령이 제후들의 손에서 나온다. 제후의 손에서 나오면 대개는 십 대 안에 망하게 되고, 대부의 손에서 나오면 오 대 안에 망하게 되고, 배신(陪臣)들이 주권을 쥐면 삼 대를 벗지 않는다. 질서가 선 세상에는 정권이 대부의 손에 있지 않고, 질서가 선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 러니 저러니 하지 않는다.”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 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 自諸侯出 蓋十世希¹⁹ 不失矣 自大夫²⁰出 五世希不失矣 陪臣²¹ 執國命²² 三世希不失矣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 天下有道 則庶人²³ 不議²⁴

공 선생 “상벌의 권한이 공의 집에서 없어진지 오 대가 되었고, 정권이 대부에게 옮긴지 사 대 되었으니, 그러므로 세 환공의 자손이 미약해진 것이다.”

17 蕭牆 : 담장.

18 [명설] 남의 宰相이 되어 가지고 그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는 宰相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그의 잘못을 더욱 助長시킨 결과를 빚게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이제 공자의 교훈은 실로 빈틈이 없는 것이다. [명설] 季氏는 전유를 정벌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으니 그의 걱정은 外患이 아니라 사실인즉 內憂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위태로운 정벌 의욕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 줄 賢臣을 갖지 못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모름지기 均平하고 安定된 內政이 征伐의 外部侵略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19 希 : 鮮. 少.

20 大夫 : 諸侯의 臣,

21 陪臣 : 家臣.

22 執國命 : 국가의 政令을 걸머쥘다.

23 庶人 : 游士.

24 議 : 議政.

[명설] 禮樂은 文이요, 征伐은 武인데 文武 간에 그것이 下位者에 의하여 擅斷되면 나라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亡國의 기쁨은 언제나 下克上의 풍조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天子가 아니면 不議禮 不制度 不考文(『中庸』)이라 한 것이다.

孔子曰 祿之去公室五世²⁵ 矣 政逮於大夫四世²⁶ 矣 故三桓之子孫²⁷ 微矣²⁸

공 선생 “유익한 벼이 셋이요, 손해 보는 벼이 셋이다. 곧은 이와 벼하고, 믿음직한 이와 벼하고, 박학한 이와 벼하면 유익하다. 편벽스런 이와 벼하고, 능글능글한 이와 벼하고, 재잘거리는 이와 벼하면 손해 본다.”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²⁹ 友諒³⁰ 友多聞³¹ 益矣 友便辟³² 友善柔³³ 友便佞³⁴ 損矣

공 선생 “유익한 즐거움도 세 가지요, 손해 보는 즐거움도 세 가지다. 예법과 음악을 알맞게 좋아하고, 남의 좋은 점을 들추기를 좋아하고, 잘난 벼이 많은 것을 좋아하면 유익하다. 풍성풍성 놀기를 좋아하고 흐느흐느 놀기를 좋아하고, 먹자판 놀이를 좋아하면 손해 본다.”

25 五世 : 魯文公 이후 宣公, 成公, 襄公, 昭公, 定公.

26 四世 : 大夫 季文子부터 武子, 悼子, 平子.

27 三桓之子孫 : 仲孫, 叔孫, 季孫.

28 [명설] 爵祿을 내리는 권한이나 정치의 권력이나 다 下位者에게로 간지가 五代니 四代니 하여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實權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上位者의 처지는 미약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枝葉이 성하고 根幹이 미약하면 그 나무는 넘어지게 마련이다. 한나라도 이에 例外는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9 直 : 言行에 굽은 데가 없이 곧다.

30 諒 : 미더움이 변하지 않는다.

31 多聞 : 博學.

32 便辟 : 편벽스럽다. 혹은 남의 비위를 잘 맞춘다.

33 善柔 : 빼 없이 하지는 대로 한다.

34 [명설] 벼함에 있어서 損益 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인간보다도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문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특성들은 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의 자신의 교양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들이다. 益者는 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요, 損者는 행어나 그렇게 될까 항상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孔子曰 益者三樂³⁵ 損者三樂 樂節³⁶ 禮樂 樂道³⁷ 人之善 樂多賢友 益矣 樂驕樂³⁸ 樂佚遊³⁹ 樂宴樂⁴⁰ 損矣⁴¹

공 선생 “윗사람을 모실 때 세 가지 잘못이 있으니, 말을 안 해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은 조금한 짓이요, 말을 해야 할 경우에 말하지 않는 것은 감추는 짓이요, 얼 굴빛도 보지 않고 중얼거리는 것은 눈 먼 짓이다.”

孔子曰 侍於君子⁴² 有三愆⁴³ 言未及之而言 謂之躁⁴⁴ 言及之而不言 謂之隱⁴⁵ 未見顏色而言 謂之瞽⁴⁶

공 선생 “참된 인물은 세 가지 일을 조심한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알차지 않은 때라 계집을 조심하고, 장년이 되면 혈기가 꽃피우므로 주먹다짐을 조심하고, 늙어지면 혈기가 시들기 때문에 탐욕을 조심해야 한다.”

孔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

35 樂 : 好.

36 節 : 制度 禮와 聲容을 조절한다.

37 道 : 言.

38 驕樂 : 멋대로 놀아난다.

39 佚遊 : 아무 일거리도 없이 들락날락한다.

40 宴樂 : 술마시며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

41 [명심] 人生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健全한 즐거움과 不健全한 享樂이 있다. 健全한 즐거움은 정신적인 것이요, 마음의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不健全한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며 客氣를 자극하는 것들이다. 전자는 宗教나 哲學의 바탕 없이 얻어질 수 없는 즐거움이지만 후자는 富貴의 그릇된 享有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모름지기 맹자의 三樂도 전자의 列에 끼적 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42 君子 : 德位를 다 갖춘 자.

43 愆 : 過, 잘못을 저지른다.

44 躁 : 고요히 있지 못한다.

45 隱 :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46 瞽 : 눈치 없이 내 말만 한다.

[명심] 여기서 君子란 윗사람이다. 인격이나 지위나 다 어른으로 모셔야 할 사람이다.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지적한 것이니 웃어른을 모실 때는 언제나 조심하며 禮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老也 血氣⁴⁷ 既衰 戒之在得⁴⁸

공 선생 “참된 인간은 세 가지를 두려워한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큰 어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찮은 사람은 천명을 모르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어른께 함부로 굴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孔子曰 君子有三畏⁴⁹ 畏天命 畏大人⁵⁰ 畏聖人之言⁵¹ 小人不知天命⁵² 而不畏也 狎大人⁵³ 侮聖人之言⁵⁴

공 선생 “낳자마자 아는 사람은 위가 되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막혔다가 배운 사람은 또 그 다음인데 막혔어도 배우지 않는 부류들은 꼴지잡이다.”

孔子曰 生而知⁵⁵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⁵⁶而不學 民斯爲

47 血氣 : 에너지, 힘.

48 [명설] 血과 氣는 相互 補完의 인 것이어서 血에 의하여 氣가 發生하지만 血은 또한 氣의 呼吸에 의하여 流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氣血은 人體의 營爲를 위한 原動力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幼年期에는 아직 血氣가 安定되지 않았으니 女色의 耗損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요, 壯年期에는 힘이 넘치므로 힘겨루는 싸움을 경계해야 할 것이요, 老年期에는 血氣가 시들어가므로 이를 補充하기 위한 貪欲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49 畏 : 두려워한다. 저어하다.

50 大人 : 군왕, 人主.

51 聖人之言 : 六經에 실린 訓戒.

52 不知天命 : 天命은 隱微하기 때문에 모른다.

53 狎大人 : 귀여워할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무릅없이 군다.

54 侮聖人之言 : 성인의 훈계는 곧장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업신여긴다.

[명설] 君子와 小人의 구별이 여기서는 權威에 대한 태도 여하로 결정지어진다. 君子는 天命 大人 聖人之言이라는 권위를 두려워하지만 小人은 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 실로 한 인간은 비록 聖人이라도 絕對者를 대할 때는 謙虛한 두려움으로 이를 맞이할 때 비로소 上達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55 知 : 知道.

56 困 : 막혀서 트이지 않은 대목이 있다.

下矣⁵⁷

공 선생 “쓸모 있는 인간은 아홉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 보는 데는 밝은 것을, 듣는 데는 맑을 것을, 안색은 부드러울 것을, 태도는 공손할 것을, 말은 진심으로 할 것을, 일은 꾸준할 것을, 의심날 때는 물을 것을, 분통 터질 때는 뚫어리할 것을, 이익 볼 일을 당하면 옳으나 그르냐를 생각한다.”

孔子曰 君子有九思⁵⁸ 視 思明⁵⁹ 聽 思聰⁶⁰ 色 思溫 貌 思恭 言 思忠⁶¹ 事 思敬⁶² 疑 思問 忿 思難⁶³ 見⁶⁴ 得 思義⁶⁵

공 선생 “좋은 일을 만나면 쫓듯이 덤비고, 좋잖은 일을 당하면 끓는 물에서 손을 빼듯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보았고, 그런 말을 나는 들었다. 숨어 지내면서도 높은 뜻을 간직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 넓은 길을 터준다는 그런 말을 나는 들었으나, 그런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제나라 경공은 말이 사천필이나 되었건만 죽는 날에 백성들이 칭찬할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백이 숙제는 수양산 기슭

57 [명설] 안다는 것은 萬事 萬物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仁—를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은 나면서 이를 앎으로 先覺者인 것이요, 凡人은 배워서 앎으로 後覺者인 것이다. 그러나 先覺이건 後覺이건 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모름지기 인간에게는 生而知之의 先覺보다도 學而知之하는 後覺으로서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58 思 : 깊이 마음을 쏟는다.

59 明 : 잘못 보지 않는다.

60 聰 : 잘못 듣지 않는다.

61 忠 : 속이지 않는다.

62 敬 : 게으름 부리지 않는다.

63 難 : 後患.

64 見 : 만난다.

65 [명설] 九라는 수는 限數가 아니라 無限數다. 그러므로 九思는 어쩌면 萬思라 해야 할는지 모른다. 실로 君子는 모든 일에 빠짐 없이 깊이 생각하며 그것이 完全無缺하기를 기대하며 신중한 태도로 誠意를 다하여 임하지 않는 일이라고는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조] 「子張」(19)(1)절을 보라.

에서 굶어 죽었지만 백성들이 지금도 그의 인격을 칭송하니 그것은 이를 두고 이른 말인가!”

孔子曰 見善⁶⁶ 如不及 見不善 如探湯 吾見其人矣 吾聞其語矣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吾聞其語矣 未見其人也 齊景公有馬千駟⁶⁷ 死之日 民無德而稱焉 伯夷 叔齊餓于首陽之下 民到于今稱之 其斯之謂與⁶⁸

진향이 백어더러 묻기를 “그대는 아마도 판 이야기라도 들었겠지?” 대답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 서서 계실 때 내가 총총걸음으로 뜰 앞을 지나간즉 ‘시를 배웠느냐?’ 대답하기를 ‘못 배웠습니다’ ‘시를 못 배웠다면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돌아와 시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또 혼자 서서 계신 때 내가 총총걸음으로 뜰 앞을 지나간즉 ‘예법을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대답했더니 ‘예법을 배우지 않으면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하시기에 나는 돌아와 예법을 배웠습니다. 들은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진향이 물러나 온 후에 기뻐서 말하기를 “하 나를 묻고 세 가지를 배웠으니, 시에 관하여 듣고, 예법에 관하여 듣고 또 참된 인물은 자기 아들과의 사이도 다뭇하지 않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다.”

66 見善 : 善行할 기회를 만나다.

67 千駟 : 四千匹.

68 [명심] 善行을 따르고 惡行을 멀리 하는 것은 修己의 初步의 段階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지만 隱居 行義는 國家의 治亂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기대하기 어려운 일에 속하는 것이다.

[명심] 齊景公과 같은 現世的 富貴도 伯夷叔齊의 永世的 隱居行義와는 너무도 對照의이다. 이처럼 久遠의 眞理에 대한 殉敎의 信念은 그렇게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조] 集解本이나 集註本에서는 齊景公 以下를 나누어 二章으로 하였고, 齊景公 위에 “孔子曰”이 빠지고, 『顏淵』편 (12)(10)절에 있는 “誠不以富, 亦祇以異”가 이 章의 위에 놓이게 되어야 한다는 說을 내걸고 있다.

陳亢⁶⁹問於伯魚⁷⁰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⁷¹ 鯉趨而過庭 曰 學詩⁷² 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⁷³ 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 聞禮 又聞君子之遠⁷⁴其子也⁷⁵

제후의 처를 제후가 부를 때는 “부인”이라 하고, 부인이 자기를 말할 때는 “소동”이라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를 적에는 또한 “군부인”이라 하고, 딴 나라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과소군”이라 하고, 딴 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도 또한 “군부인”이라 한다.

邦君⁷⁶之妻 君稱之曰夫人 夫人自稱曰小童⁷⁷ 邦人稱之曰君夫人 稱諸異邦曰寡小君⁷⁸ 異邦人稱之 亦曰君夫人⁷⁹

69 陳亢 : 子禽. 공자의 제자.

70 伯魚 : 공자의 아들 鯉.

71 獨立 : 공자가 홀로 서 있다.

72 詩 : 뜻을 말로 표현한다.

73 禮 : 몸을 단속한다.

74 遠 : 소원하게 한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75 [명설] 공자는 萬古의 스승이요, 教育者다. 그가 그의 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詩 禮의 교육에 빈틈이 없음을 본다. 동시에 情에 끌리지 않는 嚴格한 자세도 아울러 볼 수 있는 기쁨은 陳亢에 한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명설] 孔子教育課程의 기본을 詩와 禮에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銘記해 두어야 할 것이다.

76 邦君 : 諸候.

77 小童 : 童蒙처럼 無知하다는 뜻.

78 寡君 : 謙辭.

79 [명설] 당시에 諸候들의 嫡妾에 대한 稱號가 一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禮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正名—孔子가 노트한 것을 여기에 附記한 듯하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

17 편

陽貨
양화

 [올제 후원하러 가기](#)

17편 | 陽貨 양화

양화가 공 선생을 만나고 싶어하였으나 공 선생은 만나 주지 않았다. 공 선생께 돼지를 보내왔다. 공 선생은 그가 없는 틈을 타서 사례를 하려고 나섰다. 도중에서 그를 만난즉, 공 선생더러 말하기를 “오십니까! 나하고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하고는 “보물을 간직하고서도 나라의 혼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사람다운 일일까요?” “옳지 않지요.” “일하기를 좋아하면서도 때를 놓치는 것이 슬기로운 일인가요?” “옳지 않지요.” “날과 달은 덧없으니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공 선생 “옳습니다. 나도 쉬 벼슬살아 보겠습니다.”

陽貨¹ 欲見孔子 孔子不見 歸² 孔子豚 孔子時其亡³ 也 而往拜之 遇諸塗 謂孔子曰 來子與爾言 曰 懷其寶⁴ 而迷其邦可謂仁乎 曰 不可 好從事⁵ 而亟失時 可謂知乎 曰 不可 日月逝矣 歲不我與 孔子曰 諾 吾將仕矣⁶

선생 “인간성은 비슷비슷하고 습관은 서로가 딴 판이다.” 선생 “푹어지게 아는 이와 갇갇한 먹보와는 서로 어쩔 수 없다.”

1 陽貨：魯나라 季氏의 臣 陽虎. 橫暴한 人物이다. 공자가 匡 지방에서 잡혀 죽을 뻔한 것도 얼굴이 이 陽虎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2 歸：보낸다. 선사한다.

3 亡：無.

4 寶：재능을 뜻한다.

5 從事：從政事.

6 [명심] 魯國 政事를 攬斷하는 陽貨의 유흥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공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았고 둘째 번에는 속임수로 유흥하는 선물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불만의 뜻을 표했고 마지막에는 장래 훗날로 미루는 태도에서 一貫된 거절의 底意가 엿보인다. 陽貨에게 直言하지 않은 것은 벼슬살자—仕—않고 그만둔—止—쳐지이기 때문인 것이다.

子曰 性⁷相近也 習⁸相遠也 子曰 唯上知⁹與下愚¹⁰ 不移¹¹

선생이 무성 지방에 가서 풍류 소리를 들으셨다. 선생님은 방긋이 웃으면서 “닭 잡는 데 소 칼을 내두르다니!” 자유가 대답하기를 “전에 제가 선생님께 듣자웁기를 ‘참된 인물이 도리를 배우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찮은 사람이 도리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선생 “얘들아! 언의 말이 옳다. 앞서는 거저 농담으로 한 말이다.”

子之武城¹² 聞弦¹³ 歌¹⁴ 之聲 夫子莞爾而笑曰 割雞¹⁵ 焉用牛刀 子游對曰 昔者偃也 聞諸夫子 曰 君子學道¹⁶ 則愛人 小人學道 則易使也 子曰 二三者 偃¹⁷ 之言是也 前言 戲之耳¹⁸

7 性: 本心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8 習: 듣고 본 것들이 익숙해진 것.

9 知: 利害에 밝다.

10 愚: 利害판단이 어둡다.

11 [명설] 공자의 性論으로서 性은 先天的인 것이요, 習은 後天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先天的인 性은 聖凡이一如이므로 相近한 것이요, 後天的인 習은 甲乙이 各殊하므로 相遠한 것이다.

[명설] 上知는 惡人과 섞여도 물들지 않고 下愚는 善人과 섞여도 教化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로 옮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上知나 下愚나 비슷한 것이다.

[참조] 集注本은 두 章으로 나누었고 茶山本은 이를 一章으로 합쳤다.

12 武城: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子游는 그 고을 원으로 있었다.

13 弦: 琴瑟.

14 歌: 詠詩.

15 割雞: 닭은 작은 짐승인데 왜 큰칼을 쓰나. 마치 작은 고을—닭—을 다스리면서 弦歌—禮樂—를 써서 마치 天下를 다스리듯 한다.

16 道: 禮樂.

17 偃: 子游의 이름.

18 [명설] 여기서 공자의 구김살 없는 人間性에 접하게 된다. 제자의 말이 옳음을 섣뜻 시인하는 그 시원시원한 태도도 태도려니와 젊고 어린 제자들과 부드러운 戲和를 나눌 수 있는 스승으로서의 여유있는 태도인 것이다. 공자는 결코 상대하기 어려운 謹嚴한 스승이 아니라 어떤 말이든 거침없이 해도 받아 주는 벗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벗 같은 스승인지도 모른다.

공산불요가 비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공 선생을 부른즉, 선생이 가고 싶어 했다. 자로가 언짢게 여겨 말하기를 “그만 두셔야지요. 하필 공산 씨에게로 가실 게야 있습니까?” 선생 “나를 부르는 것이 어찌 공연한 일일까! 만일 나를 써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한 번 동쪽 주나라처럼 만들어 볼까!”

公山弗擾¹⁹ 以費畔²⁰ 召 子欲往²¹ 子路不說 曰 末之也已 何必公山氏之之²² 也 子曰 夫召我者 而豈徒²³ 哉 如有用我者 吾其爲東周乎²⁴

자장이 사람 구실에 대하여 공 선생께 물은 즉, 공 선생 “세상에서 다섯 가지 일만 잘하면 사람 구실이 되지.” 자세한 것을 물은즉 “공손하고, 너그럽고, 미덥고, 민첩하고, 인정이 있어야 한다. 공손하면 업신여기지 않고,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이 따르고, 미더우면 일거리를 맡기고, 민첩하면 공을 세우고, 인정이 있으면 사람을 잘 부릴 수가 있다.”

子張問仁²⁵ 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 爲仁矣 請問之 曰 恭 寬 信 敏 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²⁶

19 公山弗擾 : 성은 공山, 이름은 弗擾. 자는 子洩. 季氏의 家臣.

20 畔 : 季氏를 배반한다.

21 子欲往 : 公山이 畔魯한 것이 아니므로 차라리 公山氏에게 가서 魯나라를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假想的 戲言이다.

22 之 : 適. 간다.

23 徒 : 空.

24 [명설] 公山氏도 陽貨나 다름없는 野心家인데 공자가 어찌 그가 부른다 해서 가볍게 응할 것인가. 오직 魯나라—공자의 母國—를 옛날 文武王의 周나라처럼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나타냈을 따름이다. 子路의 不悅은 孔子의 底意를 모르는 性急한 속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5 仁 : 二人.

26 [명설] 五者 중에서 넷은 한결같이 對人 태도인 것이다. 그 중에서 敏만은 應事이기는 하지만 그도 또한 行事於人倫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子張이 天下를 다스려보겠다는 大志를 품고 있음을 알고 孔子는 治人의 道로서 仁을 풀이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 「堯曰」편 (20)(4)절을 보라.

필힐이 부른즉, 선생이 가고 싶어하였다. 자로 “언젠가 제가 선생님께서 ‘자신이 저질러서, 종잡은 짓을 한 자의 틈에 참된 인간은 끼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필힐이 중모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선생님은 가시려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요?” 선생 “그렇다. 그렇게 말한 일이 있다.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갈아도 닳지 않으니……‘희다’고 말하지 않는가! 김چه 물들여도 김어지지 않으니……나는 어찌 조롱박이던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먹지도 못하는 물건인가?”

佛盼²⁷ 召 子欲往 子路曰 昔者 由也聞諸夫子 曰 親於其身爲不善者 君子不入²⁸ 也 佛盼以中牟畔 子之往也如之何 子曰 然 有是言也 不曰堅乎 磨而不磷²⁹ 不曰白乎 涅³⁰而不緇³¹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³²

선생 “유야! 너는 여섯 마디 말에 여섯 가지 폐단이 있다는 말을 들었느냐?” 대답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앉아라. 내가 일러주마. 사람 구실만 내세우지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은 데 있다. 지혜만 내세우지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멋대로 하는 데 있다. 미더운 것만 내세우고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잔인하게 되는 데 있다. 곧은 것만 내세우고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꼬이는 데 있다. 용감한 것만 내세우고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지럽게 되는 데 있다. 깨끗한 것만 내세우면서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마구 덩비는 데 있다.”

27 佛盼: 晋나라 大夫 范中行의 신하. 一설에는 趙簡子의 臣下.

28 不入: 不入不善黨.

29 磷: 엷어진다.

30 涅: 물속의 검은 흙.

31 緇: 검은빛.

32 [명심] 子欲往은 공자의 經世意慾의 一面을 나타냈을 뿐이지 실지로 간 짓은 아니다. 이도 또한 假想的 戲言일 따름이다.

[명심] 君子는 어떠한 일에 부딪히더라도 결코 惡에 물들지 않으며 닳지도 않는다. 어찌 외고짐으로 無爲徒食하겠는가. 그러나 공자는 끝내 非義와는 타협할 수 없으므로 벼슬은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子曰 由也 女聞六言六蔽矣乎 對曰 未也 居 吾語女 好仁不好學 其蔽³³也愚 好知不好學 其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 其蔽也狂³⁴

선생 “애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정서를 일깨워 주고 뜻을 살펴볼 수 있고 벗들을 모이게 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가까이는 아버를 섬기고 멀리는 군왕을 섬기며, 새나 짐승이나 풀이나 나무들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는 데…….”

子曰 小子³⁵ 何莫³⁶ 學夫詩 詩可以興³⁷ 可以觀³⁸ 可以群 可以怨³⁹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⁴⁰

선생이 백어더러 말하기를 “주남과 소남의 시를 공부했느냐? 사람이 주남과 소남의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담장에다 낮을 맞대고 쉴 것과 같다고나 할까!”

33 蔽 : 덮여 가리워진다.

34 [명설] 仁 知 信 直 勇 剛의 六言은 孔子敎의 중요한 德目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愚 蕩 賊 絞 亂 狂등의 폐단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폐단은 不好學에 있는 만큼 學則 가리워진 폐단이 벗겨지게 마련일 것이다. 이는 곧 時中의 노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35 小子 : 門人

36 何莫 : 어찌 않는가. 안타까운 표현 말이다.

37 興 : 감정을 북돋아 준다.

38 觀 : 잘잘못을 보고 느낀다.

39 怨 : 孝子 忠臣의 怨情.

40 [명설] 詩敎育의 效率의 側面을 서술하고 있다. 詩와 禮가 孔子敎育의 二大支柱이어나와 그 중에서도 詩는 情緒의 本質을 啓發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孔子가 詩經 三百篇의 刪定을 서두른 것도 이 까닭인 것이다.

子謂伯魚⁴¹ 曰 女爲周南 召南⁴² 矣乎 人而不爲周南 召南 其猶正牆面⁴³ 而立也與⁴⁴

선생 “예법이니 예법이니 하지만 구슬이나 비단인 줄 아느냐? 음악이니 음악이니 하지만 종이나 복인 줄 아느냐?”

子曰 禮云禮云 玉帛⁴⁵ 云乎哉 樂云樂云 鐘鼓⁴⁶ 云乎哉⁴⁷

선생 “볼품만은 위풍을 갖추면서 속으로는空空이 셈을 꾸미는 것을 못된 인간에게 비긴다면 아마도 담 구멍을 뚫는 좀도둑이라고나 할까!”

子曰 色厲⁴⁸ 而內荏⁴⁹ 譬諸小人⁵⁰ 其猶穿窬之盜也與⁵¹

선생 “근엄한 체하는 사람은 곧은 인격을 좀먹는 무리들이다.”

41 伯魚：孔子的 아들. 이름은 鯉.

42 周南 召南：周南 召南은 周公旦과 召公奭의 형제의 이름에서 따 온 것으로 詩經 첫머리에 있는 篇名이다. 南이란 德化가 南으로 뻗었다는 뜻. 詩經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43 正牆面：한 치 앞도 못보며 한 발자국도 못간다.

44 [명설] 또다시 아들에게 詩의 공부를 재촉하는 구절이다. 이처럼 철저한 교육의 지도는 자기의 아들에게만 한한 일이 아닐 것이다. 실로 詩敎育은 人間敎育의 始發이란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5 玉帛：보석과 비단의 禮物.

46 鐘鼓：樂器類.

47 [명설] 禮樂의 근본은 修己治人의 仁에 있건만 그의 本質은 제쳐놓고 玉帛이니 鐘鼓니 하는 形式的인 物質에 두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도 季氏 三家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八佾』참조).

48 厲：젠 체 하면서 뽐낸다.

49 荏：유약하다.

50 小人：細民.

51 [명설] 겉으로 제법 위풍을 갖추면서도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품는다면 소위 人面獸心이 이와 비슷한 것이 될지는 모른다. 사람이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따지자면 겉보다도 속이 더 희고 맑아야 하는 법이다. 겉 희고 속 검은 짐승보다도 겉은 검더라도 속 흰 짐승이 있듯이……

子曰 鄉原⁵² 德之賊⁵³ 也⁵⁴

선생 “길 가에서 들은 말을 길 가에서 지껄이는 것은 제 인격을 짓밟는 짓이다.”

子曰 道⁵⁵ 聽而塗⁵⁶ 說 德之棄也⁵⁷

선생 “비루한 인간과 함께 군왕을 섬길 수 있을까! 지위를 못 얻으면 몹시 서둘
고, 얻은 후에는 농칠까 걱정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지.”

子曰 鄙夫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⁵⁸ 既得之 患失之 苟患失之⁵⁹ 無所不
至⁶⁰矣⁶¹

선생 “옛날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병통이 있었는데, 시방은 그것마저 없어진 것
같다. 옛날 이상주의자는 멋대로 했는데, 요즈음 이상주의자들은 갈팡질팡한다.
옛날 고집통이는 못난 짓을 했는데, 요즈음 고집통이는 억지만 쓴다. 옛날 어리석
은 패는 고지식했는데 요즈음 어리석은 패는 속셈만을 따진다.”

52 原 : 愿과 같다.

53 賊 : 大盜.

54 [명심] 直心은 德의 근본이요, 善善惡惡은 直心の 行이다. 무릇 是非 黑白을 오로지 세상 따라 결정하는
자를 鄉愿이라 하니 鄉愿이야말로 德을 손상하는 大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鄉愿과는 더불어 堯舜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好善 惡惡하는 直心の 行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55 道 : 발고랑.

56 塗 : 붓도랑.

57 [명심] 금방 들은 것을 금방 지껄이는 것은 말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은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가벼운 입버릇은 德—人格—을 손상하는 점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人格을 내팽개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8 患得之 : 患不能得之.

59 得失 : 祿位の 得失이다.

60 無所不至 : 邪媚한 짓을 못하는 점이 없다.

61 [명심] 君子는 벼슬사는 것이 그의 本分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事君澤民에 목적이 있지 爵祿을 얻자는 데
第一次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슬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못하는 것이 없는
위인은 君子의 品位를 손상시키는 비루한 위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子曰 古者民有三疾⁶² 今也或是之亡也 古之狂也肆⁶³ 今之狂也蕩⁶⁴ 古之矜也廉⁶⁵ 今之矜也忿⁶⁶ 戾 古之愚也直 今之愚也詐而已矣⁶⁷

선생 “말을 꾸며대며 얌전한 체하는 짓은 아마도 사람다운 사람은 하지 않을거야!”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⁶⁸

선생 “자줏빛이 붉은 빛을 흐리게 하는 것이 싫다. 정나라 음란한 음악이 참된 음악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싫다. 말재주로 나라를 뒤엎는 것이 싫다.”

子曰 惡紫⁶⁹ 之奪朱⁷⁰ 也 惡鄭聲⁷¹ 之亂雅樂⁷² 也 惡利口⁷³ 之覆邦家者⁷⁴

선생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자공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들은 무엇을 받아서 전하오리까?” 선생 “하늘이 무엇을 말하더냐? 사시는 오고 가

62 三疾: 狂·矜·愚를 말한다. 矜은 獯—猥과 같음—으로 고쳐야 한다.

63 肆: 중심은 튼튼한데 겉으로는 함부로 한다.

64 蕩: 중심에 아무런 주장도 없고 겉도 흔들린다.

65 廉: 모나지만 바른 대로 따른다.

66 忿: 言行이 거칠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67 [명설] 옛사람들은 설명 어리석은 듯 하지만 속셈은 바르고 고지식하였지만 요새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르 하면서도 속셈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속칭 處世術에 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 같이 鄉愿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인들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68 [참조] 『學而』편 (1)(3)절과 같다. 다음 章과 함께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69 紫: 間色으로서 탐스럽다.

70 朱: 正色이다.

71 鄭聲: 俗樂, 음란하면서 衰切하다.

72 雅樂: 正樂.

73 利口: 임으로 是非를 바꾸어 놓고 賢邪를 분간 못하게 한다.

74 [명설] 正은 답답하고 느리고 성글지만 지치지 않고 오래가지만 俗된 것은 탐스럽고 애절하고 음란하여 一時的 感興을 돋구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俗된 風潮는 國家의 安危에도 깊이 관계되는 것이니 爲國者는 깊이 洞察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 만물은 거기서 자라는데 하늘이 무엇을 말하더냐?”

子曰 子欲無言⁷⁵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⁷⁶ 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⁷⁷ 哉⁷⁸

유비가 공 선생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 공 선생은 병을 핑계로 거절했다. 전갈하는 사람이 문을 나가자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러 그가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孺悲⁷⁹ 欲見孔子 孔子辭以疾⁸⁰ 將⁸¹ 命者⁸² 出戶 取瑟而歌 使之聞之⁸³

재아가 묻기를 “삼 년상은 너무 기한이 긴 듯합니다. 옷자리에 있는 분이 삼 년 동안 예법을 그만두면 예법이 시들어지고 삼 년 동안 음악을 그만두면 음악이 부스러집니다.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햅쌀이 나오면 불씨도 새로 갈아넣게 마련이니, 일 년이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 “그처럼 쌀밥을 먹고, 것처럼 비단옷을 입어도 너는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네가 괜찮거든 그대로 하려무나! 대개 성실한 인물들은 상 중에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집안에서도 편안한 줄 모르므로 그렇게 앓는 것이다. 네가 괜찮거든 그렇게 하려무나!” 재아가 나간 후에 선생 “재아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아이다. 사람이 나면 삼 년이

75 予欲無言：行事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76 述：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77 天何言：行만 있지 음은 없다.

78 [명설] 無言而行 또는 無言而化는 敎化의 極致인 것이다. 無言而行은 天道이지만 予欲無言은 공자가 天道를 따르고자 한 말이다. 여기서 天人의 道가 一如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79 孺悲：魯나라 사람. 공자에게서 예법을 배운 듯하나 傳記는 不明.

80 辭以疾：병자는 거문고를 타지 않는 것이 常例. 거문고를 탄 것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표시다.

81 將：奉.

82 將命者：말을 받아서 전갈하는 자.

83 [명설] 공자는 面會謝絶을 하되 병을 핑계하였고 거짓으로 금방 병이 아니었음을 상대방에 알림으로써 間接的으로 謝絶意思를 表示한 것이다. 어쩌면 공자의 善善惡惡하는 直言의 태도와 모순이 되는 것 같으나 사실상 직접 面會 사절이 아니었을 따름이지 악기로서 사절의 뜻을 노골적으로 알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뒤라야 부모의 품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삼 년상이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 상례인 것이다. 재아도 삼 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가 모르지!”

宰我問 三年之喪 期⁸⁴已久矣 君子⁸⁵ 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舊穀既沒⁸⁶ 新穀既升 鑽燧改火 期可已⁸⁷ 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 安 女安 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 則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 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⁸⁸

선생 “진종일 처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뜻이 없는 인간은 할 수가 없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다.”

子曰 飽食終日 無所用心⁸⁹ 難矣哉⁹⁰ 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⁹¹ 乎已⁹²

자로 “지도적 인물도 용기를 숭상합니까?” 선생 “지도적 인물은 정의를 으뜸 삼지. 지도적 인물이 용기만 뽐내면서 정의감이 없으면 반란을 꿈꾸고, 덜된 인간이 용기만을 뽐내면서 정의감이 없으면 도둑질을 한다.”

84 期：周年.

85 君子：有位之人.

86 沒：다 없어지다.

87 已：止.

88 [명설] 三年喪의 근거는 父母 孳育의 기간과 맞먹는다. 여기에 期年 一年說과 三年說이 있는데 兩者가 다 一理가 있기는 하지만 공자는 후자를 주장하였고 맹자도 공자설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三年說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一年說보다는 合理的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9 無所用心：“사람은 생각하는 갈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90 難矣哉：여지가 없다.

91 賢：勝.

92 [명설] 심로 意慾이란 萬事를 이루게 하는 原動力이다. 의욕—마음—이 없는 자는 차라리 노름하는 用心者보다도 더욱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노름의 用心은 善行의 用心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子路曰 君子尚勇乎 子曰 君子義以爲上 君子有勇而無義 爲亂⁹³ 小人⁹⁴有勇而無義 爲盜⁹⁵

자공 “참된 인간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생 “미워하는 일이 있지. 남의 허물을 도리어 칭찬하는 자를 미워하고, 밑바닥에 깔린 사람이 윗사람을 헐어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감할 뿐 예법을 모르는 자를 미워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으면서 숨막히는 짓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남의 말을 받아서 제 것인 체하는 자를 미워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용기인 양 여기는 자를 미워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되 곤은 일을 하는 양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子貢曰 君子亦有惡乎 子曰 有惡 惡稱人之惡者 惡居下流⁹⁶ 而誑上⁹⁷ 者 惡勇而無禮者 惡果敢而窒⁹⁸ 者 曰 賜也 亦有惡乎 惡徼⁹⁹ 以爲知者 惡不孫以爲勇者 惡訐¹⁰⁰ 以爲直者¹⁰¹

선생 “아무래도 계집애와 심부름꾼은 취급하기가 곤란해. 가까이하면 멋대로 하고, 멀리 하면 투덜거리거든.”

93 爲亂：以臣伐君이나 大夫相殺 따위.

94 君子·小人：地位로 구별한다.

95 [명설] 勇보다도 義를 더 上位의 德으로 삼는다. 君子나 小人이나 義 없는 勇은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解毒을 낳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義를 바탕으로 하는 眞勇이야말로 바람직한 勇이 아닐 수 없다.

96 居下流：德도 才藝도 없어서 바닥에 깔린 人生.

97 上：윗사람.

98 窒：트이지 않는다.

99 徼：받아서 말을 가로막는다. 마치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100 訐：남의 잘못을 캐낸다.

101 [명설] 好善 뿐만 아니라 惡惡도 君子의 美德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子貢은 惡惡의 眞意를 잘 몰랐던 것이 아니었는가 싶다. 惡惡 또한 好善의 反面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子曰 唯女子與小人¹⁰² 爲難養¹⁰³ 也 近之 則不孫 遠之 則怨¹⁰⁴

선생 “나이 사십이 되어도 미움만 받게 되면 인제 그만이지.”

子曰 年四十而見¹⁰⁵ 惡焉 其終也已¹⁰⁶

102 小人 : 데리고 다니는 심부름꾼

103 養 : 畜, 기른다. 다룬다.

104 [명설] 小人和女子를 同一視한 공자의 女性觀에 대하여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封建時代에 있어서의 女子란 學識의 정도가 淺薄하여 小人和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一般論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5 見 : 被.

106 [명설] 공자는 四十而不惑하였고 맹자는 四十에 不動心이었는데 나이 四十에 남의 稱頌은 커녕 憎惡를 사게 된다면 그 위인은 다시 구제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酒 · 色 · 財 · 權에 사로잡혀 헤어날 수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18 편

微子
미자



을재 후원하러 가기

18편 | 微子 미자

미자는 홀연히 떠나고, 기자는 종이 되고, 비간은 간하다가 죽었다. 공 선생 “은 나라에는 사람 구실 한 이가 세 분 계셨느니라.”

微子¹ 去之 箕子² 爲之奴 比干³ 諫而死 孔子曰 殷有三仁焉⁴

유하혜는 재판관이 되었다가 세 번 쫓겨났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은 아직도 떠나실 판국이 아닌가요? “도리를 곳곳이 세우면서 사람을 섬기면 어디를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을까! 도리를 굽혀 가면서 사람을 섬기면 하필 고국을 떠날 것까지야 있나!”

柳下惠⁵ 爲士師⁶ 三黜⁷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⁸ 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⁹

제나라 경공이 공 선생의 대우에 대하여 말하기를 “계씨처럼 할 수 없고, 계씨와

1 微子：紂王의 庶兄. 이름은 啓, 혹은 開.

2 箕子：箕는 國名, 子는 子爵, 箕子는 紂의 친척.

3 比干：紂의 친척.

4 [명설] 微子는 紂의 無道함을 보고 먼저 떠나버림으로써 宗祀를 보존하였는데 微子啓는 공자의 先祖다. 箕子 比干은 諫하다가 전자는 간히고 후자는 살해당하였다. 그들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모두 다 사람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공자는 똑같이 이들을 칭송한 것이다.

5 柳下惠：본명은 展獲, 『衛靈公』편 (15)(14)절을 보라.

6 士師：典獄官, 司法官.

7 黜：몰려서다.

8 焉往：어디를 가든지.

9 父母之邦：모국, 조국.

[명설] 正義를 앞세우면 어디를 가나 쫓겨나기 마련이니 하필 세 번에 그칠 것인가. 不義와 타협하자면 하필 외국으로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正義를 앞세우다가 쫓겨날 바에야 차라리 故國에 그대로 남아 있음만 못하고 不義와 타협할 바에야 차라리 故國에서 할 일이니 두 가지 경우가 다 같이 故國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柳下惠는 끝내 故國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맹씨의 중간으로 하지.” 또 말하기를 “나도 늙었어. 쓰기가 힘들 거야!” 공 선생은 떠나 버렸다.

齊景公待孔子曰 若季氏¹⁰ 則吾不能 以季孟¹¹ 之間 待¹²之 曰 吾老矣 不能用也 孔子行¹³

제나라 사람들이 광대놀이를 보내 왔다. 계환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사흘을 조정
에 나오지 않았다. 공 선생은 떠나 버렸다.

齊人歸¹⁴ 女樂¹⁵ 季桓子¹⁶ 受之 三日不朝¹⁷ 孔子行¹⁸

초나라 거짓 미치광이 접여가 노래부르며 공 선생의 곁을 지나간다. 말하기를
“봉황새야! 봉황새야! 왜 것처럼 인품이 시들었노! 지난 일은 따질 것이 없고, 시
방도 따르면 되지. 그만두구려! 그만두구려! 요새 정치란 위태위태하구려!” 공 선
생이 수레에서 내려와 마주 이야기하여 보려고 한즉, 충충걸음으로 달아나 버리
니, 마주 이야기해 볼 수가 없었다.

10 季氏 : 季孫氏.

11 孟 : 孟孫氏.

12 待 : 대우하다.

13 [명설] 이 때에 공자는 30세요, 齊景公은 60세였는데 대우문제까지 논의해 놓고 끝내 공자를 登用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결국 공자의道を 펴 자신이 없었기에 늙다는 핑계로 그의 起用을 거절한 것이다. 이 때에 공자는 齊에서 魯나라로 돌아오고 말았다.

14 歸 : 보내다.

15 女樂 : 부인들의 춤. 八列이다.

16 季桓子 : 魯나라 대부. 季孫氏의 第六代. 이름은 斯요, 桓은 시호.

17 不朝 : 朝會를 열지 않았다.

18 [명설] 공자가 魯나라 大司寇가 되어 治積이 오르자 齊人이 美人計를 쓴 것이다. 季桓子는 三日不朝의 脫線行爲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齊나라로 갔던 것이다. 여기서 공자의 毅然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楚狂接輿¹⁹ 歌而過孔子 曰 鳳兮²⁰ 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 已而 今之從政者殆而 孔子下 欲與之言 趨而辟²¹ 之 不得與之言²²

장제와 결익이 나란히 서서 발같이 할 때, 공 선생이 그 곁을 지나면서 자로를 시켜 나루터를 물었다. 장제 “저기 수레 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자로 “공구님입니다.” “거 노나라 공구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루터를 잘 알 것이다.” 결익더러 물은즉, 결익 “그대는 누구지?” “중유입니다.” “거 노나라 공구의 제자 말이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물결이 거센 것처럼 세상도 그렇다. 그런데 누가 고쳐 보겠단냐? 그러므로 사람을 피해 다니는 분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을 피해 버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낫지 않는가?” 발일을 그대로 계속한다. 자로가 그대로 여쭙즉, 선생님은 실심한 태도로 말하기를 “새나 짐승과는 서로 함께 지낼 수가 없는데, 나는 저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지내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지내야 할까! 세상의 질서가 잡힌 때라면 내가 고쳐 보잘 것도 없지.”

長沮 桀溺²³ 耦而耕 孔子過之²⁴ 使子路問津焉 長沮曰 夫執輿者爲誰 子路曰 爲孔丘 曰 是魯孔丘與 曰 是也 曰 是知津矣²⁵ 問於桀溺 桀溺曰 子爲誰 曰 爲仲由 曰 是魯孔丘之徒與 對曰 然 曰 滔滔者 天下皆是也 而誰以易之 且而與其從辟人之士²⁶ 也

19 接輿：성은 陸, 이름은 通, 자는 接輿. 楚나라 사람. 楚는 본시 南方이라 自然과 無爲를 즐기는 隱者가 많다.

20 鳳兮：鳳凰은 平和의 상징인데 亂世에 어찌 살 수 있을까 하는 뜻. 공자를 봉황에 비유한 것이다.

21 辟：避.

22 [명설] 공자와 隱士와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隱士는 공자의 부질 없는 經世意慾을 말리려 하고 공자는 隱士를 만나서 對話를 나누어보려고 하였으나 隱士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 때 接輿는 佯狂으로서 노래하면서 弄世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狂人이 어찌 공자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 것인가.

23 長沮·桀溺：隱者들이다. 이름은 未祥.

24 孔子過之：楚 나라에서 蔡로 가던 때다. 楚에는 隱者가 많다.

25 是知津矣：공자는 天下를 周遊하기 때문에 그는 나루터를 알 것이다라고 비꼬는 말이다.

26 辟人之士：그 때 陣·蔡의 大夫가 공자를 포위하여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던 때이다.

豈若從辟世之士²⁷ 哉 耨而不輟²⁸ 子路行以告 夫子憮然曰 鳥獸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²⁹ 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³⁰

자로가 따라 오다가 뒤쳐졌다. 지팡이로 대바구니를 짊어진 어느 노인을 만났다. 자로가 묻기를 “여보시오! 우리 선생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노인은 말하기를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곡식조차 구별 못하는 사람을 누가 선생님이라 하던?” 지팡이를 꽂아 놓고 김을 맨다. 자로가 공손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자로를 만류하여 재워주고, 닭을 잡고 밥을 지어서 먹여 준 후, 그의 두 아들을 만나게 해 주었다. 그 이튿날 자로가 가서 여쭙자, 선생 “숨어 지내는 분이다.” 자로를 시켜 다시 만나도록 하였는데, 가 본즉 어디론지 가고 없다. 자로 “벼슬살지 않으면 의리의 길이 없어지고, 장유의 절차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군신의 의리를 어떻게 폐할 수 있을까? 자신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큰 윤리를 어지럽히다니. 참된 인물이 벼슬살이하는 것은 정의의 실천을 위한 것이다. 도리가 그대로 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子路從而後 遇丈人³¹ 以杖荷篠 子路問曰 子見夫子乎 丈人曰 四體不動³² 五穀不分³³ 孰爲夫子 植³⁴ 其杖而芸 子路拱而立 止子路宿 殺鷄爲黍³⁵ 而食之 見其二子焉 明日

27 辟世之人：隱者自稱.

28 輟：止.

29 斯人之徒：長沮 桀溺之徒.

30 [명설] 여기서는 공자도 “遯世不見知而不悔”(『中庸』)의 심정에 놓여 있었던 것 같다. 이처럼 쫓기는 시절이니 만큼 사실상 遯世하고픈 심경이었으니 長沮 桀溺과 더불어 있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邦有道 시절에는 결코 隱者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仕止久速을 오로지 時義에 맡기는 孔子敎의 本領이 있으니 저 無時不隱하는 隱逸之士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31 丈人：노인.

32 勤：勞.

33 五穀不分：不辨菽麥. 농사는 짓지 않고 스승 따라 놀고만 다닌다고 핀잔주는 말이다.

34 植：立.

35 黍：角黍. 楚나라에서는 귀한 곡식.

子路行 以告 子曰 隱者也 使子路反見之 至則行矣 子路曰 不仕無義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 而亂大倫³⁶ 君子之仕也 行其義也 道之不行 已知之矣³⁷

버림받은 사람은 백이,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혜, 소련이다. 선생 “자기 뜻을 버리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백이, 숙제일거야!” 유하혜와 소련을 평하여 말하기를 “자기 뜻을 버리고 몸을 더럽혔지만 말씨는 결(理)에 맞고 행동은 생각대로 맞아 갔다는 그 점일 거야! 우중과 이일을 평하여 말하기를 “숨어살면서 함부로 지껄이되 처신이 깨끗하고, 그만두는 태도도 좋았지만 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 내게는 좋은 것도 없거니와 좋지 않은 것도 없다.”

逸³⁸ 民³⁹ 伯夷 叔齊 虞仲⁴⁰ 夷逸⁴¹ 朱張⁴² 柳下惠 少連⁴³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 叔齊與 謂柳下惠 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⁴⁴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虞仲 夷逸 隱

36 大倫 : 君臣之義.

37 [명설] 가정이 있으면 父子의 윤리가 있을 것이요, 국가가 있으면 君臣의 윤리가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윤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가정을 부인하는 것이요, 군신의 윤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孔子와 隱者들과의 사이에 一致할 수 없는 倫理觀의 도량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治亂이 문제가 아니라 君臣 父子의 大倫을 위하여 東奔西走할 따름인 것이다.

38 逸 : 버림받다.

39 民 : 벼슬살지 않는 사람들.

40 虞仲 : 周나라 古公亶父의 둘째요, 太伯의 아우.

41 夷逸 : 夷詭諸의 후에.

42 朱張 : 字 子弓. 未詳.

43 少連 : 齊 나라 사람인 듯.

44 倫 : 理.

居放言⁴⁵ 身中淸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 無不可⁴⁶

악대장 지는 제나라로 갔다. 다음 악장 간은 초나라로 갔다. 세째 악장 료는 채나라로 갔다. 넷째 악장 곁은 진나라로 갔다. 북잡이 방숙은 하내 지방으로 들어가고, 소구잡이 무는 한중 지방으로 들어가고, 악장조수 양과 경쇠치기 양은 섬으로 들어갔다.

大師⁴⁷ 摯 適齊 亞飯⁴⁸ 干 適楚 三飯繚 適蔡 四飯缺 適秦 鼓方叔 入於河⁴⁹ 播⁵⁰ 鼗武 入於漢 小師⁵¹ 陽 擊磬襄 入於海⁵²

주공이 노공더러 이르기를 “참된 인물은 자기 친족을 버리지 않고, 대신들로 하여금 씌어 주지 않는다는 원망을 안 하도록 하며, 오래 된 분들은 큰 실수가 없는 한 버려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이 무엇이냐 다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45 放言 : 함부로 말한다.

46 [명설] 自古로 많은 義人 達士들이 나왔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한 가지 훌륭한 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 時中之義는 그와는 다르다. 可한 것도 없거니와 不可한 것도 없다는 것은 때에 따라 可할 수 있으려니와 때에 따라 不可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仕止久速을 時宜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로 君子の道가 아닐 수 없다.

47 太師 : 樂官의 長.

48 亞飯 : 음악으로 임금에게 식사를 권하는 벼슬아치. 三飯 國飯도 같다.

49 河 : 河內지방.

50 播 : 흔든다.

51 少師 : 보조악사.

52 海 : 海鳥.

[명설] 여기 나오는 인물은 모두 魯나라 오케스트라 隊員. 國樂이 시들자 散之四方하였다. 太師, 亞飯, 三飯, 四飯, 鼓方, 播鼗, 少師, 擊磬은 모두 樂隊의 責任部署名인데 이들은 모두 季氏에게 있었던 자들로서 季氏가 事敗奔齊할 때 難을 먼저 피하니 賢明을 칭찬한 말이다.

周公謂魯公⁵³曰 君子不施⁵⁴ 其親 不使大臣 怨乎不以⁵⁵ 故舊⁵⁶ 無大故⁵⁷ 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⁵⁸

주나라에는 여덟 분의 선비가 있었으니, 백달, 백팔, 증돌, 증홀, 숙야, 숙하, 계수, 계와다.

周有八士 伯達 伯适 仲突 仲忽 叔夜 叔夏 季隨 季駟⁵⁹

53 魯公 : 周公의 큰 아들 伯禽. 사실상 魯나라의 시조다.

54 施 : 弛로 고쳐야 한다. 내버려둔다.

55 以 : 用.

56 故舊 : 대대로 내려오는 친구.

57 大故 : 叛逆하는 일.

58 [명설] 周公이 그의 아들에게 王侯로서 갖추어야 할 德을 일러주고 있다. 친척을 버리지 않는 것은 封建國家에서의 親親이요, 다른 것들은 君主로서 臣下를 處遇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는 바로 上位者が 下位者를 다루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59 [명설] 옛날 賢士들로서 八兄弟의 이름이다. 賢人들이 많이 輩出한 것을 의미한다.

19 편

子張
자장

 [올제 후원하러 가기](#)

19편 | 子張 자장

자장 “선비는 위험에 직면하여 목숨도 바치고, 소득이 있는 일에는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고, 제사 때는 경건할 것을, 상례 때는 슬퍼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子張曰 士 見危致命¹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²

자장 “인격을 쌓는 데 안목이 좁고, 도리를 믿는 마음이 부실하면 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子張曰 執德不弘³ 信道不篤⁴ 焉能爲有 焉能爲亡⁵

자하의 제자가 자장에게 사귀는 법에 대하여 물은즉, 자장 “자하님은 무어라 하던가?” 대답하기를 “자하님은 ‘좋은 이와는 사귀되 좋잖은 이와는 멀리하라’ 하십니다.” 자장 “내가 듣고 배운 것과는 좀 다르다. ‘참된 인간은 잘난 이를 존경하면서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착한 이를 좋게 여기되 무능한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데, 내가 잘났다고 하면 누군들 용납 못할 바 없고 내가 못났다면 남이 나를 멀리할 것이니. 어떻게 남을 멀리 할 수 있을까!”

子夏之門人 問交於子張 子張曰 子夏云何 對曰 子夏曰 可者與之 其不可者拒⁶ 之 子

1 致命 : 제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

2 [명설] 선비란 君子의 別稱이다. 위태로운 때란 國難의 경우일 것이다. 국난에 목숨을 바치는 것쯤 예사로 여기는 것이 선비의 태도인 것이다. 또한 所得에 義를 생각하는 克己의 能이 있어야 하며 喪祭禮에 敬祖 哀親의 情이 넘쳐야 할 것이다.

[참조] 『季氏』편 (16)(10)절을 보라.

3 弘 : 大, 廣.

4 篤 : 厚, 固.

5 [명설] 진리에 대한 신앙과 실천력이 부족한 자는 따져서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다. 독실한 신앙과 실천만이 바람직한 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6 拒 : 막는다.

張曰 異乎吾所聞 君子尊賢 而容衆 嘉善 而矜⁷ 不能 我之大賢與 於人何所不容 我之不賢與 人將拒我 如之何其拒人也⁸

자하 “비록 하찮은 도리일망정 한 가닥 봄 직한 점은 있다. 그러나 먼길을 가자면 방해가 되므로 참된 인간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子夏曰 雖小道⁹ 必有可觀者焉 致遠¹⁰ 恐泥¹¹ 是以君子不爲也¹²

자하 “날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달마다 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밖에!”

子夏曰 日知¹³ 其所亡¹⁴ 月無忘¹⁵ 其所能 可謂好學也已矣¹⁶

자하 “널리 배우면서 목표를 굳게 세우고, 똑똑 끊어 물으면서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값은 절로 그 안에 있을 거야!”

7 矜 : 불쌍히 여긴다.

8 [명설] 子張과 子夏는 언제나 서로 見解가 相反한다. 그런데 子張은 子遊의 同調者다. 子夏는 하나 하나 벗과 사귀는 사람이고, 子張은 널리 大衆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9 小道 : 異端, 軍旅, 農圃, 醫藥 따위.

10 致遠 : 上達, 止於至善.

11 泥 : 채한다. 통하지 않는다.

12 [명설] 小道는 人間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君子의 德이 上達하는 길을 막아버릴 염려가 있는 것이다. 君子의 학은 修己治人의 道인 것이다. 모름지기 技術教育은 人間教育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3 日知 : 知漸.

14 亡 : 내게 없는 것.

15 月無忘 : 溫故할 것을 잊지 않는다.

16 [명설] 날마다 日—知漸하도록 노력하며 月—溫故할 것도 잊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好學하는 사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子夏야말로 溫故而知漸하며 學而時習之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子夏曰¹⁷ 博¹⁸ 學 而篤¹⁹ 志 切²⁰ 問 而近²¹ 思 仁²¹ 在其中矣²²

자하 “직공들은 공장에서 제 일을 매조지 하고, 참된 인간은 학문으로 자기 길을 완성한다.”

子夏曰 百工²³ 居肆²⁴ 以成其事 君子學 以致其道²⁵

자하 “하찮은 사람은 그르치면 기어이 꾸며댄다.”

子夏曰 小人之過也 必文²⁶

자하 “참된 인간은 세 번 변한다. 바라다 보면 위엄이 있고, 마주치면 부드럽고, 그의 말을 들으면 억세다.”

17 博 : 넓다.

18 篤 : 固. 굳다.

19 切 : 끊는다.刻한다.

20 近 : 자신.

21 仁 : 人倫의 지극한 자.

22 [명설] 넓게 典籍을 들추어 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고루한 데 막히지 않을 것이요, 의지가 굳으면 통속적인 일상생활에 빠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실한 질문은 지식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 줄 것이요, 자신의 문제부터 생각한다면 깨달음도 진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仁도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착실한 自己充實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3 百工 : 여러 기술자.

24 肆 : 진열해 놓은 곳.

25 [명설] 기술자들은 언제나 일하는 일터—공장—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손수 일을 붙잡고 일손을 놓지 않는다. 그리하여 제가 맡은 바 일을 완성시키고야 만다. 이러한 노력은 마치 군자의 학이 至善에 그치는 노력과도 비슷함을 깨닫게 한다.

26 文 : 修飾한다.

[명설] 君子의 잘못은 日月처럼 뚜렷하므로 사람들이 다 알지만 小人의 잘못은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양 꾸미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감추어질 것인가.

子夏曰 君子²⁷ 有三變 望之 儼然²⁸ 卽之也 溫²⁹ 聽其言也 厲³⁰

자하 “참된 인물은 미덥게 된 후에 백성을 부린다. 미덥지 못하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덥게 된 후에 군왕에게 간을 한다. 미덥지 못하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子夏曰 君子 信而後勞其民 未信 則以爲厲³¹ 己也 信而後諫 未信 則以爲謗己也³²

자하 “위대한 인격자는 매사에 엇나가지 않지만 사소한 인물들에게는 다소의 차는 있을 수 있다.”

子夏曰 大德³³ 不踰閑³⁴ 小德³⁵ 出入³⁶ 可也³⁷

자유 “자하 제자의 어린애들은 물뿌리고, 쓸고, 손님을 맞고, 나아가고, 물러서는 태도는 좋다. 그러나 지엽 문제라 근본을 따지면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한담!” 자하가 이 말을 듣고 “거 참! 자유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참된 인물을 만드는

27 君子 : 孔子를 가리킨다.

28 儼然 : 장엄한 태도.

29 溫 : 온화한 얼굴빛.

30 厲 : 엄정하다.

[명설] 태도가 장엄하니 경솔하지 않을 것이요, 얼굴빛이 온화하니 험상궂지 않을 것이요, 말이 엄정하니 지꺼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야말로 君자의言行이 아닐 수 없다.

31 厲 : 病, 괴롭힌다.

32 [명설] 君子는 군왕을 섬기나—윗사람을 섬기나—백성들을 부리나— 아랫사람을 부리나— 믿을 하나로서 한다. 믿음은 거짓이 없어야 하니 거짓 없는 믿음은 至誠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알거나 윗사람은 자기를 비방하는 것으로 알기 쉬울 것이다.

33 大德 : 聖人.

34 閑 : 禮防.

35 小德 : 學者.

36 出入 : 말지않아 복구된다.

37 [명설] 聖人은 從心所欲不踰矩하기 때문에 不踰閑하지만 小德은 아직 德이 원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러나 곧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방법에 무엇을 먼저 전해 주며, 무엇을 나중에 미룰 것인가! 초목에 비긴다면 종류도 가지가지니 참된 인간을 만드는 데도 어찌 탄 수가 있겠는가? 다된 인간이란 성인 뿐이 아닐까?”

子游曰 子夏之門人小子³⁸ 當灑掃 應對 進退³⁹ 則可矣 抑末也 本⁴⁰ 之 則無 如之何 子夏聞之 曰 噫 言游⁴¹ 過矣 君子之道 孰先傳焉 孰後倦焉 譬諸草木 區⁴² 以別⁴³ 矣 君子之道 焉可誣也 有始有卒⁴⁴ 者 其惟聖人乎⁴⁵

자하 “벼슬살 때 틈이 나면 학문을 닦고, 학문을 닦다가 여유가 생기면 벼슬을 살지.”

子夏曰 仕而優⁴⁶ 則學 學而優 則仕⁴⁷

자유 “상례는 슬퍼만 하면 그만이야.”

子游曰 喪 致乎 哀而止⁴⁸

자유 “내 친구 자장은 남 못하는 일을 잘한다. 그러나 아직 사람답게 된 것이 아

38 門人小子: 門人 중의小子

39 灑掃 應對 進退: 童子의小節로서 事親敬長 하는 것.

40 本: 性命之學.

41 言游: 言은 子游의 姓.

42 區: 區域.

43 別: 나눈다.

44 有卒: 有終.

45 [명설] 여기에 子游와 子夏의 견해 차이가 너무도 뚜렷하다. 子游는 性命學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고 子夏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行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전자는 大學 또는 高等교육의 문제요, 후자는 小學 또는 兒童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兩者가 다 一長 一短이 있다고 해둘까.

46 優: 有餘力. 틈.

47 [명설] 배우는 것은 벼슬살기 위한 것이요, 벼슬사는 것은 배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서로 표리가 된다. 서로 빈틈이 없이 조절해야 할 것이다.

48 [명설] 喪禮는 슬픔이 지극함에 그치는 것이다. 哀而不傷의 中이 이를 두고 이른 말이 아닐까.

니야.”

子游曰 吾友張也 爲難能⁴⁹ 也 然而未仁⁵⁰

증선생 “당당하구나. 자장은! 함께 사람 구실하기가 무척 힘든다.”

曾子曰 堂堂⁵¹ 乎張也 難與並爲仁矣⁵²

증선생 “나는 선생님에게서 들었는데 ‘사람들은 좀처럼 끝까지 해 내지 못하지만
친상만큼은 그렇게 했으면……’이라고.”

曾子曰 吾聞諸夫子 人未有自致⁵³ 者也 必也親喪乎⁵⁴

증선생 “나는 선생님에게서 들었는데 ‘맹장자의 효도 중에 다른 것은 할 수 있으
나 아버지의 신하를 갈지 않고 아버지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그 점은 본받기가 힘
든다’고.”

曾子曰 吾聞諸夫子 孟莊子⁵⁵ 之孝也 其他可能也 其不改父之臣 與父之政 是難能也⁵⁶

49 爲難能：爲人所難能之行.

50 [명설] 자장은 有能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아직 仁의 경지는 허락할 수가 없다. 仁이 어찌 손쉽게 허락될 수 있을 것인가.

51 堂堂：높이 우러러 보이는 모습.

52 [명설] 子張의 태도는 얼른 남과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다. 앞서 子游도 子張을 아직 덜 된 인물처럼 말했거니와 이제 曾子도 子張을 그리 대견찮게 여긴 것 같이 보인다. 어쨌든 子張은 우뚝하게 생긴 인물이었던 것 같다.

53 致：그의 極에 이른다.

54 [명설] 설령 다른 일은 다소 未洽한데가 있게 되는 수가 있지만 부모상을 당하여는 그 禮를 극진히 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살았을 때나 죽고난 후거나를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孝心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55 孟莊子：魯나라 대부. 이름은 速. 莊子는 그의 시호. 仲孫氏의 후예. 賢臣인 孟獻子의 아들.

56 [명설] 설령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마치 살아 계신 양하며 쓰시던 물건 하나라도 차마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데 하물며 그 신하를 갈아치우거나 쓰던 정책을 즉시 고쳐버릴 수가 있겠는가. 孝心이 지극한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참조] 『學而』편 (1)(11)절을 보라.

맹씨가 양부로 재판관을 삼았다. 그가 문의한즉, 증선생 “윗사람이 도리를 그르쳤고 백성들이 흩어진지 오래다. 그들의 정상을 살피게 되거든 불쌍히 여겨 주되 기뻐할 것은 없느니라.”

孟氏⁵⁷ 使陽膚⁵⁸ 爲士師⁵⁹ 問於曾子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⁶⁰

자공 “주의 잘못도 이렇듯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참된 인물은 밑으로 내려가기를 싫어하는 것이니, 천하의 악이란 악은 다 그리로 밀려들기 때문이다.”

子貢曰 紂⁶¹ 之不善 不如是之甚也 是以君子惡居下流 天下之惡 皆歸焉⁶²

자공 “참된 인간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 같다. 잘못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고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게 된다.”

子貢曰 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⁶³ 焉 過也 人皆見之 更也 人皆仰之⁶⁴

57 孟氏 : 孟武伯이나 孟敬子인 듯.

58 陽膚 : 증자의 제자.

59 士師 : 재판관.

60 [명설] 윗사람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德으로써 지도하거나 行刑을 公正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흩어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백성일수록 갈 곳 잃은 양떼처럼 불쌍한 무리들인 것이다. 그들의 허물은 불쌍히 여길망정 잘못을 들추는 기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61 紂 :殷나라 二十八代 최후의 왕. 暴惡無道의 人. 이름은 辛. 夏의 桀王과 莫上莫下.

62 [명설] 그 때에 제자들이 紂王의 잘못을 온통 지껄이고 있었기 때문에 紂王이 惡人이기는 하지만 그처럼 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밑으로 깔리게 되면 天下의 모든 악은 모조리 그에게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애초에 下流로 빠지지 않게 함만 같지 못한 것이다.

63 日月之食 : 日蝕과 月蝕.

64 [명설] 日月은 본래 밝은 것이지만 日月蝕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이 마치 사람의 本性은 善하지만 잘못이 있으면 밝음을 잃는다. 그러나 어둠이 걷히면 밝아지듯 잘못도 고치면 다시 善해지는 것이다. 君子의 잘못은 잘못을 범하거나 고치거나 이렇듯 뚜렷한 것이다. 그런데 小人은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탈이 아닐 수 없다.

위나라 공손조가 자공더러 묻기를 “중니님은 어디서 배웠는가?” 자공 “문·무 두 왕의 교훈이 아직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그의 위대한 점을 기억하고 있으며, 보통 분들은 그의 자잘한 점을 기억하고 있으니, 모두가 문·무 두 왕의 교훈 아닌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찌하여 배우지 않았을까마는, 어찌 한 사람만의 스승에게서 배웠겠는가!”

衛公孫朝⁶⁵ 問於子貢曰 仲尼⁶⁶ 焉學 子貢曰 文武之道 未墜於地 在人 賢者識⁶⁷ 其大者⁶⁸ 不賢者識其小者⁶⁹ 莫不有文武之道焉 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⁷⁰

숙손무숙이 조정에서 대부들과 이야기하기를 “자공은 중니보다 잘났다.” 자복경 백이 그대로 자공에게 알린즉, 자공 “그것을 담장에다 비기면 내 담장은 어깨 남짓 하여 집안의 좋은 점이 넘겨다보이지만, 선생님의 담장은 여러 길이 되는 까닭에 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많은 벼슬아치들이 우글우글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을 발견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으니, 그 분이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叔孫武叔⁷¹ 語大夫於朝曰 子貢賢於仲尼 子服景伯⁷² 以告子貢 子貢曰 譬之宮牆 賜之

65 公孫朝：衛나라 大夫.

66 仲尼：공자의 字.

67 識：記.

68 大者：性命 德教.

69 小者：禮樂 文章.

70 [명심] 스승이란 두 면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典籍—詩와 春秋—에 의하여 배우는 것이요, 하나는 한 인간에 의하여 배우는 것이다. 공자는 文武王의 기록을 통하여 배웠으니 어찌 한 사람의 스승만이 있다고 하겠는가. 모두가 다 스승이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71 叔孫武叔：魯나라 대부. 이름은 州九, 武叔은 시호, 叔孫氏의 후예.

72 子服景伯：魯나라 대부. 성은 子服, 이름은 何, 시호는 景, 자는 伯. 孟獻子の 玄孫.

牆也及肩⁷³ 窺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⁷⁴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 得其門者 或寡矣 夫子之云 不亦宜乎⁷⁵

숙손무숙이 중니님의 흠을 뜯으니, 자공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니님의 흠을 뜯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난 것은 언덕이라 넘어다닐 수가 있지만, 중니님은 해와 달이라 넘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자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해와 달에 무슨 흠이 되겠는가! 자기 역량을 모르고 하는 짓임이 훨씬 내다보입니다!”

叔孫武叔 毀⁷⁶仲尼 子貢曰 無以爲也 仲尼不可毀也 他人之賢者 丘陵也 猶可踰也 仲尼 日月也 無得而踰焉 人雖欲自絕 其何傷於日月乎 多見其不知量也⁷⁷

진자금이 자공더러 말하기를 “그대는 겸손한 까닭이야! 중니님이 왜 그대보다 잘났단 말인가?” 자공 “참된 인간은 말 한 마디로 아는 사람도 되고, 말 한 마디로 먹보 같은 인간도 되기 때문에 말이란 삼가야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하늘은 사다다리로 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생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세울 자리에 세워 주고, 갈 곳으로 인도해 주고, 품에 안아 주

73 及肩 : 답이 낮다.

74 仞 : 七尺.

75 [평설] 인물평이나 비교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子貢이 孔子보다도 더 잘났다는 것은 실로 오늘에 있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인즉 孔子의 인물됨은 宗廟나 宮室처럼 너무 위대해서 그 全部를 파악하지 못했고 子貢은 私家처럼 작아서 그의 全貌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大聖如愚도 사실상 凡人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76 毀 : 비방한다.

77 [평설] 叔孫氏는 끝내 공자를 못마땅하게 여긴 눈치가 훤히하다. 어떠한 先入見이 있었던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子貢의 눈에 비친 스승의 모습은 日月처럼 높이 솟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언덕처럼 못 사람들의 눈 아래에 밟히는 존재일 따름인 것이다. 실로 위대한 인물은 알기 힘든 품이 이와 같은 것이다.

므로 모여오게 되고, 서로 격려하여 화목하도록 할 것이다. 그가 살아서는 영화를 누리고, 죽으면 애달파 할 것이니’ 어떻게 그의 본을 딸 수 있을 것인가”

陳子禽⁷⁸ 謂子貢曰 子爲恭⁷⁹ 也 仲尼豈賢於子乎 子貢曰 君子一言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慎也 夫子之不可及也 猶天之不可階⁸⁰ 而升也 夫子之得邦家者 所謂立之斯立 道⁸¹之斯行 綏之斯來 動之斯和 其生也榮 其死也哀 如之何其可及也⁸²

78 陳子禽：공자의 제자. 陳亢. 子貢의 제자란 說도 있다.

79 子爲恭：子는 子貢을 스승으로 높인 말.

80 階：밑에서 위로 오르는 단계.

81 道：인도한다.

82 [명설] 여기서 실로 子貢은 스승 공자의 力量을 十分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공은 孔子는 日月처럼 높이 솟아만 있는 觀念的 人物이 아니라 한 국가를 요리하는 책임의 자리에 앉더라도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충분한 力量을 지니고 있음을 看取하고 있는 것이다. 그 스승의 밑에 그 제자가 있음을 알기에 넉넉하다.

[참조] 「學而」편 (1)(10)절을 보라.

20 편

堯曰
요임금의 말씀

 [올해 후원하러 가기](#)

20편 | 堯曰 요임금의 말씀

요임금 “자, 순아. 하늘이 정한 운수가 네 몸에 있으니, 거기에 잘 맞도록 노력하라. 나라가 곤궁해지면 하늘이 준 복록도 길이 끊어지리라.” 순임금이 또 그대로 우왕에게 일러주었다.

堯曰 咨 爾舜 天之曆數¹ 在爾躬 允² 執其中³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⁴

“이 어린 이(履)는 삼가 검은 황소를 바쳐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여쭙나이다. 죄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제님의 신하는 감추지 않습니다. 상제님 마음대로 뽑사이다. 제게 죄가 있다면 탄 나라들은 상관이고 없고 탄 나라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제게 있습니다.”

曰 予小子履⁵ 敢用玄牡⁶ 敢昭告于皇皇⁷ 后帝⁸ 有罪⁹ 不敢赦 帝臣¹⁰ 不蔽¹¹ 簡¹² 在帝心

1 曆數 : 古代에는 神聖한 帝王만이 天文 地理를 다루었다

2 允 : 信.

3 中 : 不偏.

4 [명설] 古代에는 自然 現象의 變化가 곧 人民들의 生活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기 때문에 帝王의 一次的 임무가 바로 曆象을 밝힘에 있었던 것이다. 天文 地理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결과 民生이 곤궁해지면 그 結果는 天祿마저 끊어지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조] 『書經』, 「虞書 · 大禹謨」에 이와 비슷한 글이 있다.

5 履 : 湯王의 이름.

6 玄牡 : 검은 황소.

7 皇皇 : 밝고 크다.

8 后帝 : 天帝.

9 有罪 : 夏의 마지막 군주인 桀王.

10 帝臣 : 天子.

11 蔽 : 버려둔다.

12 簡 : 가려낸다.

朕¹³ 躬有罪 無以萬方 萬方¹⁴ 有罪 罪在朕躬¹⁵

주나라는 크게 복을 받아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가까운 친척이 있을망정 사람다운 사람만 못합니다.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다면 책임은 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울과 되를 속이지 않고 모든 법도를 잘 살피고, 폐했던 벼슬을 다시 살리니, 사방의 정치가 제대로 되었다.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끊어진 세대를 다시 잇게 하고, 숨은 사람들을 끌어내니, 천하의 민심이 쏠리었다, 소중한 것은 백성의 식량이요, 상례요, 제사다.

周¹⁶ 有大賚¹⁷ 善人是富¹⁸ 雖有周親¹⁹ 不如仁人²⁰ 百姓有過 在予一人 謹²¹ 權²² 量²³ 審²⁴ 法²⁵ 度²⁶ 修廢官 四方之政行焉 興滅國 繼絕世 舉逸民 天下之民歸心焉 所重 民食²⁷

13 朕：帝王의 自稱.

14 萬方：天下.

15 [명심] 湯王이 桀王을 정벌할 때 湯王이 하늘에 告하는 글이다. 有罪한 당사자—桀—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萬百姓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이다. 불쌍한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씌우지 말 것이며, 잘잘못의 책임은 분명히 당사자인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尙書』『湯誥』의 글.

16 周：周家.

17 賚：준다. 天子가 寶玉을 諸侯들에게 나누어 준다.

18 善人是富：功德이 있는 자에게 賞을 주기 때문이다.

19 周親：姬氏之親.

20 仁人：微子 箕子 伯夷등의 三仁.

21 謹：均平하게 한다.

22 權：저울.

23 量：말, 되.

24 審：貴賤의 分別을 살펴본다.

25 法：刑律.

26 度：車服 旌旗의 數.

27 民食：農政.

喪祭²⁸

니그러우면 많은 사람이 따르고, 미더우면 백성들이 일거리를 맡기고 민첩하면 공을 세우고 공평하면 기뻐한다.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²⁹ 則說³⁰

자장이 공 선생께 묻기를 “어떻게 해야 정치를 다룰 수 있을까요?” 선생 “다섯 가지 아름다운 것을 존중하고 네 가지 악한 일을 물리치면 정치를 다룰 수 있지.” 자장 “다섯 가지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 “쓸모 있는 인간은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일을 시키되 원망하지 않도록 하고, 하고 싶어하되 탐내지 않고,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위엄은 갖추되 사납지 않다.” 자장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생 “백성들의 이익이 날 만한 것에서 이익이 나도록 하면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가! 괴롭힐 만한 일을 골라 괴롭히면 또 누구를 원망할까! 사람 구실을 하려다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또 무엇을 탐낼까! 참된 인간은 많고 적거나 크고 작은 것도 아랑곳 없이 업신여기지 않으니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참된 인물은 의관을 똑바로 차리고 보기에도 존엄하여 기품이 엄연하거늘 사람들이 두려워하니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 자장 “네 가지 악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생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잔학한 짓이라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28 [명설] 周나라 武王이 天下를 다스린 原理를 밝히고 있다. 먼저 論功行賞을 하고 至親보다도 仁人을 더욱 존중하고 內政을 充實히 하면서 外政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모름지기 天下의 安定은 백성들의 生活이 豐饒하며 정신적 바탕이 건실한 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조] 雖有至親云: 『書經』 泰誓의 글.

29 公: 物情이 公平하다.

30 [명설] 政治가 公平하면 백성들이 기뻐할 것은 뻔한 일이다.

[명설] 이 구절도 『堯曰』편답게 天下를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참조] 『陽貨』편 (17)(6)절에 거듭 나온다. 公則說만이 새로운 말이다.

눈앞에서 만들어내라는 것을 포악한 짓이라 하고, 명령은 부실하면서 성과만 기대하는 것은 도둑 같은 짓이요, 남에게 주기로 된 것을 내줄 때 이 핑계 저 핑계하는 것을 관료 근성이라는 것이다.”

子張問於孔子曰 何如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屏³¹ 四惡 斯可以從政矣 子張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子張曰 何謂惠而不費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擇可勞³² 而勞之 又誰怨 欲仁³³ 而得仁 又焉貪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³⁴ 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正其衣冠 尊其瞻視³⁵ 儼然人望而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 子張曰 何謂四惡 子曰 不教而殺 謂之虐 不戒視成³⁶ 謂之暴 慢令致期 謂之賊 猶之與人³⁷ 也 出納之吝 謂之有司³⁸

선생 “천명을 모르면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예법을 모르면 몸 둘 곳이 없느니라.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

31 屏 : 제거한다.

32 擇可勞 : 興利 禦患하는 일.

33 欲仁 : 欲安民.

34 慢 : 侮. 혹 怠.

35 瞻視 : 백성들이 우러러 봄.

36 視成 : 成果만 본다.

37 猶之與人 : 부득이 주어야 하되 차마 주지 못한다.

38 [명설] 이 구절은 소위 공자의 從政論의 細目—各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五美는 中庸思想을 방불하게 한다. 中庸思想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점을 경계하는 점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惠而不費 欲而不貪 등이 그의 一例다.

[명설] 四惡은 역시 失中의 惡이라 할 수 있다. 虐 暴 賊 有司 등이 곧 過中의 一面을 보여주는 것들인 것이다. 모두가 得中으로 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子曰 不知命³⁹ 無以爲君子也. 不知禮⁴⁰ 無以立也. 不知言⁴¹ 無以知人也⁴²

39 命 : 天命 곧 人性, 宿命.

40 禮 : 上下를 分別한다.

41 知言 :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씨의 邪正을 안다.

42 [명심] 天命은 中庸의 天命과 다를 바 없고 禮는 공자 三十而立의 근본이 되는 자요 立於禮 知言은 맹자의 知言으로 연결이 되는 자이다. 諛·淫·邪·遁之辭를 가지고 한 사람의 心術의 偏向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不善言의 側面만을 가리킨 것일 것인가. 善言도 또한 알아들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길 一人道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윤진이 소개 | 현암 이을호 (1910~1998)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경성 약학전문학교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고향에서 호연당 약국을 경영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항일운동을 일으키다가 형무소에 수감되면서 우리의 사상에 담긴 지혜로써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자 경전을 공부했다. 광복과 더불어 고향에 민립남녀중학교를 설립해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광주 의과대학 약국장에 취임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다산경학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립광주박물관장을 역임했다. 강항(姜沆) 《간양록》, 다산(茶山) 《목민심서》와 사서삼경을 번역하는 등 우리 의식으로써 유교경전의 한글화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중국사상의 한국적 이해를 통하여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을호전서》 24권 9책을 남겼으며, 후학들은 그를 온유한 인품이 학덕과 맥을 같이한 스승으로 기억한다.

한글논어

©사단법인 올제, 2012

발행 | 2012년 5월 30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주준형 박경림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캠퍼스헤럴드 (02-727-0681)

아트디렉터 | 김용덕

디자인 | 이현주

인쇄 · 제작 | (주)헤럴드미디어

펴낸곳 | 사단법인 올제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표지 제호의 저작권은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